

발 간 등 록 번 호

11-1290472-000123-01

ISBN 978-89-89768-85-2

한국근대 군사사상사 연구

백 기 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근대 군사사상사 연구

백 기 인



국

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 간 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이 양 구

근자에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군사사상’에 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각군 사관학교나 각급 군사학교의 커리큘럼으로 군사사상이란 과목이 개설되고, 또한 일반대학의 군사학과에서 군사사상이 교수된 데 따른 학문적 수요와 그 파급효과가 미친 결과일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현대 한국군의 발전과 미래의 군사적 전망을 둘러싼 성찰과 기대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학계에서 군사사상(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바는 없습니다. 개념의 문제나 연구방법, 내용, 그리고 미래전과의 연계성 등이 논의의 쟁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선진강군’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군사사상에 관한 이해와 현대적인 군사사상의 정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라고 여겨집니다.

차제에 본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군사와 국방의 발전을 사상사적으로 조명한 ‘한국근대 군사사상사 연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군사사상사에 관한 연구서를 10여 년 전에 편찬한 바 있었지만, 한국사의 영역에서는 이제야 본격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군사사상사에 대한 학계의 연구 여건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시도는 다소 시험적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한국사의 전 시기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일단 현대 국군의 직접적인 바탕이 되고 있는 근대 시기의 군사발전에 관한 사상사적인 분석과 검토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한국근대 군사사상사 연구’에서는 근대 군대의 창설과 시련, 국권의 상실과 군대해산, 그리고 국권 회복을 위한 의병과 독립군의 무장투쟁,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독립국가의 건설과 군대 창설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의 형성과 유지에 국방력이 얼마나 요긴한 것인가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국근대의 대부분 시기가 일제 강점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군사발전이란 결국 무장 투쟁력을 갖추어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고 근대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근대 군사사상사 연구’는 일제 강점기의 ‘항일무장 투쟁’이 나라 없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군사조직과 무기체계, 군사교육 훈련과 전략전술을 필요로 했고, 그러한 제반 노력이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국군이라 할 수 있는 ‘한국광복군’의 창설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군사의 사상과 정책은 법제화의 작업을 통하여 실현되었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현대적인 징병제의 시행과 육·해·공군에 의한 군 구조, 군사교육과 전략전술, 그리고 국제적인 연합전략의 모색 등은 현대 국군을 창설하는 기본적인 골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국근대 군사사상사 연구’의 발간이 군사사상 분야의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정신교육과 국민 안보의식을 고양하는 데도 이바지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나아가 현대 국군의 군사사상을 정립하는 토대가 되어 우리 군의 군사발전에도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 제5장
절 : 제1절, 제2절, …
항 : 가, 나, 다, …
목 : 굵은 서체의 소제목
2. 근대 시기의 각종 문헌이나 인용문은 가능한 당시 표현법을 살렸으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대문으로 다듬어 정리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로 병기하였다.
예) “이번 전투에 백반(百般)의 승산을 유한 적은 하(何)로 인하여 반(反)히 대패를 초(招)하였으며, …”(『독립신문』 제95호, 1921. 2. 25.)
3.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되 혼동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혹은 한자어 등은 원어를 ()에 넣어 서술하였다.
4.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 완결된 문장 인용
 -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부분 인용
 - 『 』 : 단행본·저서
 - 「 」 : 논문·작품
 - · : 동일 사항의 나열

5. 주기(註記)는 전거 위주로 본문의 하단부에 표시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주를 달아 관련 사실이나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논문은 저자, 제목, 게재지명, 발행처, 발표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하고, 신문·잡지 기사는 저자, 문건(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하였다.
 - 저서는 저자, 서명, 발행처, 발행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하였다.
6. 본서에서 연월일의 표기는 1894년 이전은 음력 표기를, 그 이후에는 양력 표기를 원칙으로 삼아 서술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널리 통용하는 날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7. 본서에서 활용한 사진은 소장 기관(개인)의 사용 승인을 득했으며, 현지에서 필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비롯하여 그 출처를 일일이 따로 명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진 자료의 출처와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진 활용을 승인한 기관
 - 국가보훈처,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창작과 비평사, 한민족운동회
 - 유적 및 인물 사진 :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문화재청 제공 자료
 - 박규수에 관한 사진 자료 : 창작과 비평사(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2008)

목 차

머리말

제1절 근대 군사사상의 형성 배경	11
가. 조선 후기 병학사상의 전개	11
나. ‘민보적’ 군사사상의 출현	22
제2절 국가경영과 ‘상대적 힘’으로서 군사력	26
가. 서세동점과 외압	26
나. 동아시아의 군사 근대화	28

제1장 조선군 근대화와 군제개혁

제1절 조선군 근대화의 모색	37
가. 대원군의 군사정책	37
나. 고종의 군사개혁 정책	46
제2절 해방론과 외국의 병학 수용	59
가. 새로운 해방론의 대두	59
나. 외국 병서의 도입	79
제3절 군제개혁론과 부국강병론	84
가. 재조관료의 군제개혁론	84
나. 개화파의 부국강병론	92

제2장 대한제국군과 병학의 발전

제1절 대한제국의 군제개혁	105
가. 대한제국군의 형성과 성격	105
나. 근대 군제로서의 ‘징병제’ 논의	119
제2절 병학체계의 형성과 군사교육	124
가. 병학체계의 형성	124
나. 무관학교의 군사교육	130

제3장 의병과 ‘의병전쟁론’의 형성

제1절 의병과 의병전쟁의 전개	143
제2절 의병의 이념과 사상	147
제3절 의병전쟁의 전략전술	157
가. 근거지전략과 ‘연합’ 작전	157
나. 민군합일의 군사조직화	181

제4장 독립군과 ‘독립전쟁론’의 실현

제1절 독립군과 독립전쟁의 양상	199
제2절 독립군의 이념과 사상	209
제3절 독립전쟁의 전략전술	216
가. 병력 동원 및 편성	216
나. 장비와 무기	220
다. 군사교육과 전략전술	223

제5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과 군사사상적 지향

제1절 임시정부의 군사정책 및 전략	259
가. 임시정부의 군사적 기반 형성	259
나. 임시정부의 독립방략과 군사정책	263
제2절 의열투쟁의 행동과 이념	275
제3절 광복군의 창설과 사상적 지향	284
가. 광복군의 창설과 그 성격	284
나. 광복군의 군사전략	291

맺음말

머 리 말

제1절 근대 군사사상의 형성 배경

제2절 국가경영과 ‘상대적 힘’으로서 군사력

제1절 근대 군사사상의 형성 배경

가. 조선 후기 병학사상의 전개

진법에서 척법으로 개국 초부터 조선은 오위제(五衛制)에 기초한 군제 위에서 오위진법(五衛陣法)을 기본 전술로 하고, 궁수와 대형 총통 등과 같은 장병기(長兵器)를 주 무기로 하는 무기체계를 운용해 왔다.¹⁾ 진법이란 전투대형을 말하는 것으로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전 부대가 신속히 대형을 편성하여 어떻게 전술적인 운용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진법은 북방의 침략에 대응하는 이른바 ‘육방(陸防)’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구사하는 창·검술과 조총을 긴밀히 연결하여 살상력을 높인 전술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²⁾

일본의 전법은 선두에 위치한 기치(旗幟) 부대가 양쪽으로 나뉘어 적을 포위하고, 조총병이 일시에



2011년 영국에서 구입한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인 노랑해전 전투도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1) 강성문, 『한민족의 군사적 전통』, 붕명, 2000, 181쪽.

2) 임진왜란 초전 이순신이 보여준 해상에서의 승리는 예외적이다. 당시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선 조선 군선의 장대함, 총통과 화살 위주의 선상 무기의 우세, 전술운용의 수월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학근, 「왜군 격토의 전략전술」, 『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1995, 204~208쪽을 참조.

총을 발사하여 적을 살상하고 전열을 무너뜨리면, 이어서 창·검을 지닌 군사가 도주하는 적을 뒤쫓아가 백병전을 전개하는 방식이었다. 조선의 재래적인 장병기를 압도하고 자신들이 가진 장기인 본래의 단병전술을 결합시켜 전술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 바로 조총을 가진 일본군의 전술이었다.³⁾

이러한 일본군의 전법은 조선군에게 위협적이었다. 명군 역시 초전에는 일본군의 전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패하였다. 제1차 평양성 전투(平壤城戰鬪, 1592. 7)에서 조승훈(祖承訓)이 이끈 5천의 명군은 평양성을 공략하려다가 실패했고, 비로소 본격적인 파병이 이루어진 제2차 평양성 전투(1593. 1)에 가서야 조선군과 연합하여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군을 물리쳤다.

당시 조·명 연합군은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이 군사행정을 맡고,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명군 4만여 명을 지휘했으며, 도원수 김명원(金命元)과 순변사 이일(李鎰)이 승병 2천여 명을 포함한 조선군 1만여 명을 지휘하였다. 연합군은 칠성문·보통문·함구문의 세 방향으로 화포·화전과 같은 화기를 사용하여 치열한 공격을 가하면서 총통을 소지하고 있는 단병전에 능한 남병(南兵)을 투입하여 일본군을 패퇴시켰다.⁴⁾

“절강병이 처음 압록강을 건너왔을 당시 이들이 사용하는 방패와 낭선, 장창과 당파의 기예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는 것들이었다. (중략) 명군은 기성(箕城, 평양)으로 진입한 다음 먼저 화포를 발사하고 뒤이어 화전을 발사하여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니 왜적들의 기가 꺾였다. 명군은 곧 긴 창과 짧은 당파를 사용하는

3) 정해은,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23쪽.

4) 이겸주, 「임진왜란과 군사제도의 개편」, 『한국군제사』(근세조선 후기 편), 육군본부, 1977, 9쪽.

병사들을 동원하여 각기 운용방식에 따라 사용했는데, 만약 적이 먼저 돌진해 오면 낭선부대를 집중시켜 대기하고, 만약 적이 움직이지 않으면 방패수들이 방패를 들고 전진한 결과, 왜적은 크게 꺾주하고 말았다. (중략) 그 운용법이 지극히 신묘하여 진실로 천하에 무적임을 알 수 있다.”⁵⁾

평양성 전투에서 명의 남병은 화공(火攻)으로 일본군의 기선을 제압한 후 다양한 단병기를 든 병사가 돌진해 적을 공격하는 전법을 구사했다. 이 전법은 화기와 단병기의 긴밀한 협조 하에 보병 중심의 전술적 운용을 했기 때문에 기병을 활용하지 않았다. 기병없이 군사를 소대(小隊)로 편성해 각 병사가 단병기를 휴대하고서 개인 전기로 공격과 방어를 행할 수 있었다. 조선인의 눈에는 명군의 이런 전법이 낯설었고 그들이 사용한 불랑기나 호준포, 단병기인 장창·낭선·당파 등도 생소한 무기였다. 명군의 전술은 왜적을 제압할 수 있는 일당백의 신묘한 방략으로 조선 정부의 기대를 모았다.⁶⁾ 척법(혹은 절강병법)으로 불린 명군의 새로운 전술은 명 나라의 장수 척계광(戚繼光, 1528~1588)이 개발한 방왜전술(防倭戰術)로 그가 절강참장으로 있을 때 남방의 왜구에 대한 방어책을 창안하여 『기효신서』에 정리한 것이다.⁷⁾

임진왜란 당시 육전에서 조선군이나 명군은 척법을 구사하며 방진(方陣)과 5선에 의한 밀집대형 중심의 공격술을 운용한 반면, 일본군은 사(士)와 아시가루(足輕)로 편성된 조직을 가지고 소총을 주 무기로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전술을 펼쳤다. 소총이 주 무기인 일본군은 명군의 기동력과 충격력을 따돌리고 적을 협애지로 몰아넣

5) 『兵學指南演義·序』

6) 『선조실록』, 선조 26년 10월 28일조 ; 28년 2월 13일조 ; 28년 9월 11일조 ; 29년 8월 21일조.

7) 백기인, 『중국군사사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6, 186~193쪽.

어 좌우에서 우회공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벽제관 전투(壁蹄關戰鬪)다.

반면 정유재란 때에는 평야전인 직산 전투(稷山戰鬪)가 말해주듯이 명군의 기병은 밀집된 화력과 기동력을 이용하여 조총으로 무장한 경량화된 보병 중심의 일본군을 제압하였다. 당시 적용된 명군의 ‘원앙진(鴛鴦陣)’은 『기효신서』의 특징을 잘 드러낸 전법이었다. 이른바 ‘일두양익일미진(一頭兩翼一尾陣)’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로 간주되었다.⁸⁾ 공격과 방어를 긴밀하게 결합시킨 명군의 전술은 왜구의 무기와 전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⁹⁾

원앙진은 가지를 남긴 대나무 끝에 날카로운 창날을 부착시킨 창인 낭선(狼筈)이나 방어무기인 방패로 가벼운 등패(騰牌)를 채용하거나 산림과 습지가 많은 지형을 고려하여 가벼운 호준포(虎蹲砲)를 사용함으로써 전술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원앙진은 수풀이 울창하고 도로가 좁은 지형에서 적절히 기동할 수 있었고, 근접전에서는 각 병사가 새로운 장비로 협동하면서 일본의 검술에 대응할 수 있었다. 화력 또한 일본군에 비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원앙진법은 기동성과 방어력, 공격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효과적인 전법이었던 것이다. 다만 대규모 부대의 진형에서도 단순한 방진(方陣)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평야전에서 기동력이 뛰어난

8) ‘일두양익일미진’은 정면 집적의 1영(營)을 머리(頭)로 한 정병(正兵), 머리의 양측 좌우 2영을 양 날개(兩翼)로 한 기병(奇兵), 그리고 최후로 1영을 꼬리(尾)로 한 예비대인 응병(應兵)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기병과 정병의 결합에다 화력을 보강하여 공수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술대형이다(范中義, 「戚繼光軍事學說及其歷史地位」, 『兵家史苑』 제2집, 1990, 127~132쪽).

9) 백기인, 『중국군사사상사』, 193쪽.

상대를 대적할 경우에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¹⁰⁾

임진왜란을 통해서 볼 때 몇 전투의 사례만을 가지고 척법 중심의 동양적 전법이 서양식 병제를 수용한 일본의 전법보다 더 우월하고, 그것이 승리의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적어도 전법적인 측면에서 『기효신서』가 냉병기(cold weapon)의 시대에서 화기(fire weapon) 시대로 넘어가는 주도적인 전법서로서¹¹⁾ 조선에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조선의 조정에서는 임진왜란 도중에 『기효신서』를 수용하여 조선군의 기본 교범으로 삼고 조총을 주 무기로 하는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개항 직전까지 기효신서에 바탕을 둔 군사교범인 『병학지남(兵學指南)』이 조선군의 기본적인 전법서로 그대로 유지되었다.¹²⁾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전법의 변화 속에서 조선군의 군제는 훈련도감의 설치를 시작으로 인조대 어영청을 비롯하여 총융청·수어청, 그리고 다시 숙종대에 금위영을 추가하여 오군영제(五軍營制)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지방군으로는 1594년 속오군제(束伍軍制)를 시작한 이래 1895년 폐지될 때까지 300여 년간을 계속 유지했다. 속오군의 운영은 유방(留防)이나 번상(番上)이라는 복무 형태를 취하지 않고 거주지 중심의 훈련과 방어 형태를 취하였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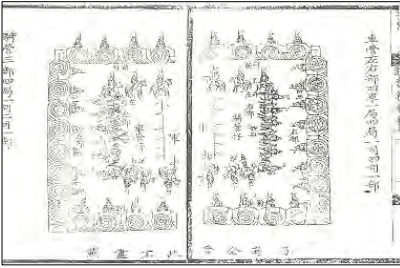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점차적으로 오군영체제가 확립되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보면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주장한 ‘진관체

10) 노영구, 「조선시대 병서의 분류와 간행 추이」, 『역사와 현실』 30, 1998, 291~2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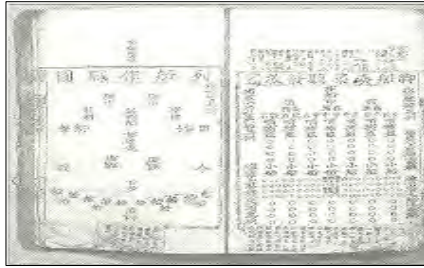
11) 范中義, 「戚繼光軍事學說及其歷史地位」, 89~97쪽.

12) 조선후기의 군사 전법은 임진왜란 이후 250년간 『기효신서』를 기본으로 하는 『병학지남』을 고수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에 의해 19세기 중엽 서구식 근대 군대로 전환하게 되는 상황까지 군사교리상으로 동면상태에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육군사관학교 사학과, 『참고자료 : 한국군사사상사』, 육인창, 1972, 28~29쪽).

13)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 연구』, 혜안, 1999, 33쪽.



기효신서의 일부



병학지남의 일부

제의 복구'에 부합하면서도 지방 방위력의 강화를 도모한 것으로 말단의 부대편성을 소편제로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진관체제는 조선 초의 세조 때 수립된 진관체제와는 좀 달라 도단위로 다섯 개의 중심적인 군영을 설치하고 다섯 개의 주요 거점을 방위·방어의 중심지로 삼았으며, 그 하급 부대의 편제에는 속오편제의 군인들을 편성하는 형태였다. 병력의 신분은 진관체제에서 지방군이 농민 병력이라는 것이 당연했지만, 척법을 운용하는 무기체계가 농민들에게 익숙한 무기였기 때문에 중앙군 편제도 점차 '빈민층이나 좁쌀 얼마 주고 부릴 수 있는' 군인들이 우선적으로 충원되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였다.¹⁴⁾

이렇듯 조선 후기에 와서 임진왜란 당시 들어온 척법체계 하에서 조선의 군사제도는 왕조 초기의 오위진관체계가 원칙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중앙군으로서 오군영과 지방군으로서 속오군의 운영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오군영제와 속오군제의 시행과 함께 실제 병력의 운용 측면에서 척법체계는 전략상으로는나 훈련상으로 문제가 생겨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전통적인 진법(陣法)과의 절충적 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14) 이성무 외,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308~309쪽.

척법 비판 및 진법과의 절충 전술적으로 『기효신서』는 방왜(또는 항왜)전술의 성격을 띠었다. 이런 점은 척법이 조선의 기본적인 위협인 대륙방어를 위한 전술로서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전법체계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실 척계광도 북방의 적정과의 대립적인 상황을 근거로 『연병실기』를 저술하여 이를 보완했는데,¹⁵⁾ 조선에 『기효신서』가 도입될 당시부터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기효신서』에 대한 의심은 1597년(선조 30년) 총병 오유충 휘하의 명 나라 군사들이 가르쳐 준 ‘창 쓰는 법’이 이전의 조선 군인들이 훈련도감에서 익힌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까닭에 임진왜란을 겪으며 도입된 『기효신서』의 진법체계가 곧바로 조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었던 것이다. 척법에 대한 비판은 자연스럽게 조선 초의 『진법』에 대한 재검토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진법을 근간으로 『기효신서』의 군사전법을 보완하는 절충적인 방식을 불러왔다.¹⁶⁾

이러한 논의는 『기효신서』 외에 다종의 병서를 편찬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대체로 세 부류로 분류되었는데, 원론적인 내용을 요약한 『기효신서절요』, 조련과 진법에 대해 그림을 붙여 간행한 『병학지남』, 그리고 각종 기계와 그 세보를 풀이한 한교(韓嶠)의 『무예제보』와 한효순의 『신기비결』 등이 그것이다.¹⁷⁾ 특히 임진왜란 직후에 명·청이 교체되는 대륙 정세의 변동은 방왜전술인 척법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¹⁸⁾ 병자·정묘호란으로 북방의 기병부대에 대한

15) 백기인, 『중국군사사상사』, 187쪽.

16) 노영구, 「선조대 기효신서의 보급과 진법 논의」, 『군사』 34, 1997, 142~153쪽.

17) 노영구, 「조선시대 병서의 분류와 간행 추이」, 293쪽.

18) 『선조실록』 권41, 선조 40년 2월 13일조.

할 기마전술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어 조선전기의 오위진법과 기병전술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연병지남』·『연기신편』 등의 간행을 통해 『기효신서』의 결함을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다.¹⁹⁾

병자호란 이후 북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조선의 병학연구가 확실히 심화되었다. 청의 기병에 뚫린 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청의 기병에 대한 대항전술을 위한 진법과 병서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숙종대에는 이유(李濡)·신완(申琬) 등이 양역개량·경비감축·호포법의 시행을 둘러싼 문제를 들어 오군영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제기하였다. 당시 최국량(崔國亮)은 척계광의 전법이 ‘섬나라의 오랑캐’를 제어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대륙의 오랑캐’를 제어하는 데는 부적합하다면서 오위법(五衛法)의 복구를 주장했다. 그가 말한 오위법이란 곧 오위진법을 말하는 것으로 군사적인 의미에서 조법이라 할 조선 초 진법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견해였다.²⁰⁾

숙종 초기에는 윤희에 의해서 제기된 전차의 사용을 필두로 한 당나라의 군사이론가인 이정의 육화진법(六花陣法)을 비롯한 여러 진법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김석주의 『행군수지』·『병학지남』과 최국량의 『단구첩록』은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 병서의 간행이었다. 특히 『병학지남』과 함께 『행군수지』는 무략을 풍부히 할 수 있는 병가의 필독서로 강조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장수의 역할이 중시되고 병학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행군수지』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²¹⁾

19) 이흥두, 「호란 이후 조선군의 전술변화」, 『군사사연구총서』 제2집, 2002.

20) 『숙종실록』 권61, 숙종 44년 6월 16일조. “國家之所用威繼光之法，雖足以制島夷，不足以制山戎。今之所可憂者，惟在於此，欲制山戎，必復五衛法而後可也。”

21) 정해은,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395쪽.

“장수는 나라의 중심으로 백만의 군사를 통솔해 외적을 막으니 나라의 운명이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장수를 얻으면 국가가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요, 장수를 잃으면 나라가 무너지고 집안이 망하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척법에 대한 비판과 진법 복구에 대한 논의는 숙종대의 ‘도성수비체제’의 정비문제와 맞물리면서 더욱 진전되었다.²²⁾ 영·정조대에 이르러 오군영제가 완비되고 수원에 화성을 축조하여 도성과 화성을 연결하는 도성수비체제인 이른바 ‘환상협수체계(環狀協守體系)’를 구축함으로써 그 절정을 이루었다.²³⁾ 여기에다 청 나라가 중원을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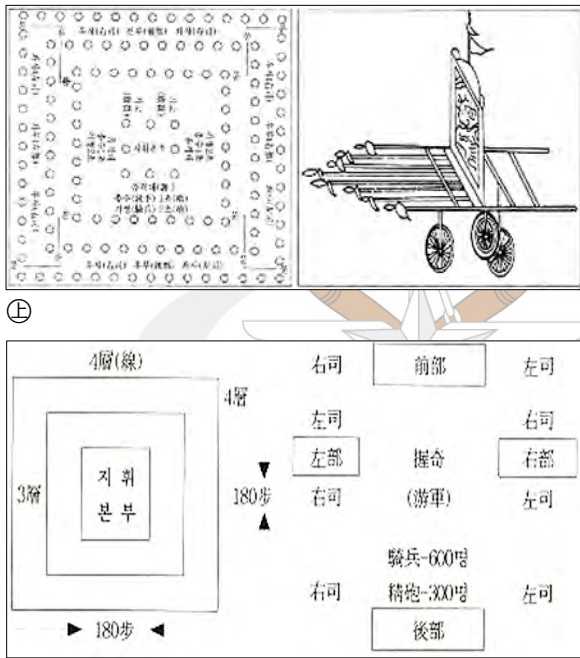


화성 1793년 당시 수원 유수였던 채제공에 의해 축성방략이 거론되었지만 대체로 다산 정약옹이 올린 수원성 규제에서 축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수원의 화성은 한양의 도성과 함께 군사적으로 조선 후기의 도성방어체계를 특징짓는 축성이다. 기술사적으로나 건축사 측면에서 뛰어나기도 하지만 전략적으로도 의미있는 환상수비체계의 형성이었다(문화재청 제공).

22) 도성방위체제에 대한 연구는 육군본부, 『한국군제사』, 1977년의 제2, 3장에 기초한 이태진의 연구(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가 최초의 디딤돌이 되었다.

23) 장필기, 「정조대 화성건설과 수도방위체제의 개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183~184쪽.

기한 채 본래의 발원지로 돌아가리라는 ‘영고탑회귀설(寧古塔回歸說)’과 같은 소문이 돌면서 청의 재침이나 몽골 세력의 침략을 우려하는 위기의식이 감돌았다.²⁴⁾ 이제 척법 비판과 진법 복구의 논의 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반성적 분위기, 그리고 대륙정세의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과 결부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① 송규빈이 제시한 조선 진법 상승진의 배치도와 검차(①), 그리고 필자가 분석한 상승진 해부도(②)

위협을 주는 내변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강화했다. 우선적으로 지방군인 속오군을 ‘어린작대(魚鱗作隊)’의 원칙에 따라 영장(營將)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속오절목(東伍節目)」

무엇보다 영조는 군영제 하에서 독립된 지휘권을 국왕 중심의 통수권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1728년(영조 4)의 무산란(이인좌의 난)을 비롯하여 1748년 이지서의 변란 등 재위년간에 정변·민란으로 인한 사회의 불안정한 기류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는 왕권과 치안에

24) 『숙종실록』 권13, 숙종 8년 11월 정묘 ; 『영조실록』 권28, 영조 6년 12월 신해 ;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 6월 을미.

의 반포를 비롯하여 「금군절목(禁軍節目)」을 개정하여 금군의 규모와 처우 개선을 도모하였다.²⁵⁾ 병사들에게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군대를 정치적인 파벌로부터 독립시켜 본래의 군사적인 임무에 충실하게 한다는 것이 목표였다.²⁶⁾

이 같은 지방 군사력 강화의 노력은 각종 병서의 간행으로도 나타났다. 임란 이전의 진법에 관심을 두고 조선 전기의 『진법』을 『병장도설』로 다시 간행한 데²⁷⁾ 이어 1749년(영조 25)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 2년 후인 1751년(영조 27) 『수성책자(守城冊子)』의 간행이 뒤따랐다. 그리고 영조 자신이 직접 찬술한 『위장필람(爲將必覽)』과 모원의(茅元儀)의 『무비지(武備志)』를 간행했고 『병학지남』도 복간하였다.

정조대에는 종래의 모든 병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선적 병법 체계를 완성하려는 노력이 뒤따랐다. 1785년(정조 9) 『병학통(兵學通)』은 통일적인 조선의 병법을 모색한 결과였고, 4년 후에 발간한 『무예도보통지』 역시 영조대에 간행한 『무예신보(武藝新譜)』 위에서 조선의 무예를 20기로 집성한 결실이었다.²⁸⁾ 특히 송규빈(宋奎斌, 1696~1778)이나 양완(梁完) 등은 척법을 변용한 새로운 진법으로서 ‘상승진(常勝陣)’이나²⁹⁾ ‘원앙진(鴛鴦陣)’과 같은 진법을 개발하여³⁰⁾ 『기효신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완·개선하려 했던 것이다.

25) 『영조실록』 권46, 영조 13년 11월 무인 ; 백기인, 「18세기 북벌론과 대청방어진략」, 『군사』 제41호, 2000, 247쪽.

26) 『영조실록』 권12, 영조 12년 11월 임진 ; 『영조실록』 권21, 영조 21년 3월 계미 ;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258~259쪽.

27) 허선도, 「병장도설 해제」,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33~67쪽.

28) 백기인, 「18세기 북벌론과 대청방어진략」, 『군사』 제41호, 2000, 251쪽.

29) 『風泉遺響』, 「新製常勝陣圖歌」 “聖教有曰, 威繼光陣法, 便於禦倭, 不利於防胡, 命諸將確議變通 … 何意今日常勝陣之作, 實爲禦虜而適符於當日確議 變通之聖教, 是豈偶然也哉.”

30) 노영구, 「18세기 말 양완의 전차, 기병, 보병 통합전술」, 『군사』 제64호, 2007.

나. ‘민보적’ 군사사상의 출현

조선 후기의 진법 논의는 결국 18세기 후반 이후 민간사회에서 이른바 ‘민보방위’라고 하는 향촌방위론으로 귀결되었다. 중앙군은 왕권 강화나 정치적으로 자파 세력의 물리적 기반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외척들의 세도정치가 이어지고 이양선의 출몰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현종은 친위병 강화에 관심을 갖고서 정조대 장용영을 계승한 총위영(總衛營)을 창설함으로써 왕실 경호에만 치중하는 조치를 취했다.³¹⁾ 지방군의 형해화는 더욱 심각하여 지방방어체제에서 핵심 병력이던 속오군은 본래의 군사적 의미를 상실한 상태였다. 1736년(영조 12) 양역변통론에 따라 양인을 제외하고 사천이나 고공 등으로 채워져 질적 저하가 심했고, 군사훈련마저 실시하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³²⁾



다산 정약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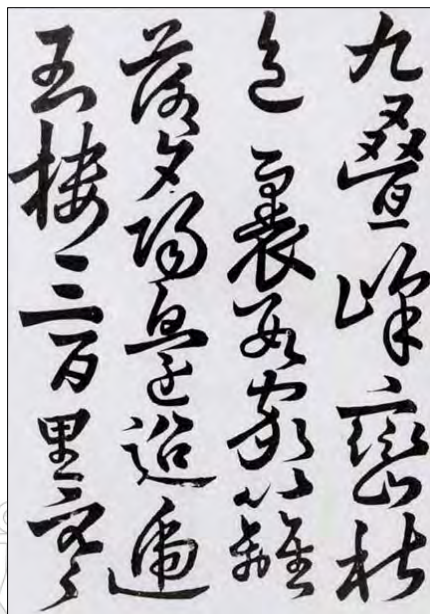
다산초당

(전남 강진군 도암면 소재,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제공)

31) 배향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제1장 참조.

32)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0.

이러한 상황에서 출현한 향촌방위론은 향촌의 조직과 군사조직을 일체화시켜 당시 지방군의 부실한 운용을 보완하여 민생을 안착시키고, 지역방위를 강화하여 지역적인 자체방위력을 확보함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향촌의 자치적인 방위전략이었다. 실학자 가운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그의 저서 『민보의(民堡議)』에서 안정복도 언급한 바 있는 향촌방위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



다산의 필적(명가필보)

하여 이른바 ‘민보방위론’을 제시했다. 그가 제기한 민보방위론은 적극적인 외침방위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³³⁾

당시 조선의 지식인 가운데 다산 정약용은 대외정세에 견식이 풍부한 지병가로서 주목된다. 그는 일본의 위협에 관심을 가졌지만, 명서의 검토나 군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중국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³⁴⁾ 그의 저술 『민보의』는 앞서 언급한 『무비지』나 윤경

33) 정약용이 제시한 ‘민보론’의 특징은 군사제도상 이상적 복고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관·민의 괴리가 심화된 당시 사회상을 감안한 현실주의적 대안이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경현, 「19세기의 새로운 국토방위론」, 『한국사론』 4, 서울대, 1978을 참조.

34) 『民堡議·總義五則』(『與猶堂全書』보유 3권), “然北方之強, 猶勝南方之暴, 所可商略者, 南寇而已.” 대체적으로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실학자 대부분이 일본보다 청의 군사력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이를 위협시했다. 다산뿐만 아니라 성호 역시 마찬가지로의 입장이었다(『星湖僊說』, 권21, 「요금원지속」). 사실 이 평가는 옳다. Westney의 연구에 의하면, 17세기경까지 일본의 군사적 조직이나 기술은 답보

(尹耕)이 지은 『보약(堡約)』 등을 참조하여 저술한 것인데, 여기에서의 향촌방위론과 연계된 해안방어 대책은 이양선의 출몰로 인하여 향촌 방위론마저 해방론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정약용이 각 시대별로 전쟁의 양상이나 특징에 대하여 묘사한 내용이 매우 흥미롭다. 그는 전쟁의 형태를 고대, 중세, 근세전쟁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 무렵의 다른 조선 지식인들의 경우와 달리 매우 독특한 점이다. 고대의 전쟁은 군용(軍容)과 군예(軍藝)를 통하여 싸우지 않고 승패를 결정짓는 전쟁이고, 중세의 전쟁은 방진(方陣)·원진(圓陣)·육진(六陣)·팔진(八陣) 등 진법의 변화를 통하여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그리고 근세(近世)의 전쟁은 기기(奇器)와 교물(巧物)을 활용하며 호준포나 백자총이 정교하지 못하니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위력과 파괴력이 강한 홍이포를 운용하는 전쟁이라고 이해하였다.

“춘추시대의 전쟁은 좌우와 전후에서 군대의 진용을 갖추고 기예를 살피 … 혹은 한번의 화살로 성패를 결정지으니 이는 고대의 전쟁이다. (중략) 방원을 만 들고 육진과 팔진을 만들어 … 산과 언덕이며 물과 습지 등의 지형을 가려 진퇴를 결정하여 성패를 결정지으니 이는 중세의 전쟁이다. 혹은 한번의 활로 혹은 한번의 창으로 혹은 한번의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벌떡 일어서서 부딪치니 … 지난 시대의 전쟁이다. (중략) 근세에 타국을 정벌하려는 자들은 오직 기이한 기물과 정교한 장비를 제작하여 한 사람의 결정적인 기회로 만인의 목숨을 떨어뜨리는 것이니 … 예컨대 소위 홍이포라는 것은 그 신속하게 작렬하고 독하고 사나움이 과거와 비할 바 없으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사용한 지 오래다.”³⁵⁾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Y. D. Eleanor Westney, “The Military”, M. B. Janson & Gilbert Rozman, eds., *Japan in Transition ; from Tokugawa to Meiji*, Princeton U. P., 1986, pp.168~169).

35) 『與猶堂全書』 제1집 제11권, 「論·軍器」 “春秋之戰, 爲左右焉. 爲前後焉, 整軍容審軍藝 … 或一鏃發而勝敗以決 此古人之戰也. (중략) 爲方圓焉, 爲六八焉 … 審山陵水澤

그러나 민간사회에서 논의된 이러한 국방에 대한 논의가 바로 국가 차원에서의 국방대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서양의 위기가 보다 현실적인 위기로 다가온 병인양요 때가 되어서야 당시 총융사(摠戎使)로 있던 신헌(申櫓, 1810~1888)에 의해서 대원군의 군사개혁을 뒷받침한 병학적 토대로서 비로소 주목을 받게 된다.³⁶⁾ 조선은 서양 세력이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제 1840년대 중국의 아편전쟁을 계기로 조선 왕조의 대외위기에 대한 대응의 수위가 ‘내수적 대응’³⁷⁾에서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시간적으로 다소 늦어졌지만 1860년대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조선 왕조도 군비증강을 서둘렀고 나름대로의 군사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한 군비증강이 1866년 병인양요나 그해의 제너럴셔먼호 사건이 말해주듯이 일시적인 자신감을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대원군이 하야한 후 문호개방의 움직임이 표면화되면서 복잡하게 전개된 정치적 상황에서 고종의 군사 근대화를 위한 노력도 결국은 1882년 임오군란을 전후로 재정의 부족, 신식무기에 대한 조선인들의 학습능력 미달, 고종 자신의 건강 악화 등이 겹쳐 중단되고 말았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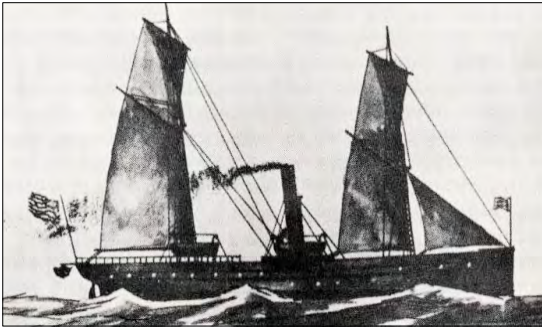
이러한 조선의 군사 개혁은 오위체제 하에서 제도적으로나 전법적으로 다소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근대이행기에 이르러 한반도에 식민화를 강요했던 일본의 군사적 대응과는 양상이 사

之形，爲之進退，而勝敗以決 此中世之戰也。或一弓焉，或一槍焉，或一刀一棒焉，勃勃然相擊撞 … 後世之戰也。(중략) 近世之謀伐人國者 唯製爲奇器巧物 一夫決機 萬人隕命 … 如所謂紅夷砲者 其迅烈酷虐 前古無比 中國日本使用已久。”

36) 申櫓, 『琴堂初藁』, 「論兵事疏」

37) 민두기, 「19세기 후반 조선왕조의 대외위기의식 - 제1차, 제2차 중영전쟁과 이양선 출몰에의 대응」, 『동방학지』 제52집, 1986.

38) 이병주, 『한국의 군인정신』, 삼화출판사, 1978, 125쪽.



제너럴셔먼호 1866년 여름 조선과 미국의 첫 만남에서 무력 충돌을 야기한 상선이다. 미국인은 통상을 요구했지만 제너럴셔먼호는 상선을 가장한 해적선이나 다름없었다. 조선 측도 처음에는 ‘유원지의(柔遠之義)’에 따라 식수와 음식 등을 제공하면서 회항을 종용했다. 그러나 그들이 약탈을 전개하자 곧 화공을 가해 함선을 소각시켜 버렸다(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제공).

못 달랐다. 이미 일본은 전통적인 막부체제 하에서도 새로운 서양의 지식을 섭렵하고 있었고, 세계의 실상과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사적 조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페리(M.

C. Perry)의 함포외교에 의해 손쉽게 굴복했지만 사무라이들의 반대와 저항을 극복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문명개화와 새로운 입헌적 질서, 나아가 산업화의 길로 나아갔다.³⁹⁾

제2절 국가경영과 ‘상대적 힘’으로서 군사력

가. 서세동점과 외압

19세기 중·후반 동아시아는 산업력의 팽창에 따라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찾아 밀려온 서양 열강들로 인하여 이른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1840년 아편전쟁(제1차 중영전쟁)은

39) 도쿠가와(德川) 시대의 군사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백기인, 「동아3국 근대 전법형성의 군사사상적 배경」, 『군사』 제48호, 2003을 참조.

서구 열강의 함포외교에 동아시아가 그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러나 동아 3국, 즉 한·중·일의 '서구의 충격(western impact)'에 대한 대응은 그 양상이 각기 달랐다.⁴⁰⁾

1854년 일본은 미국과의 수교로 전격적으로 개국을 단행하며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중국과 조선은 쇄국을 고집하다가 끝내는 식민지 혹은 반(半)식민지로 전락하는 길을 걸었다. 1840년대 영국과 불평등조약(남경조약)을 맺은 중국에서는 영국·프랑스의 연합군에 의해 천진이 함락되고 1860년 북경마저 점령당하자 함풍제가 열하까지 몽진을 가야 했다. 그리고 1884년 프랑스와 치른 또 한 차례의 전쟁은 중국의 허약한 실체를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조선 역시 쇄국으로 버티지만 1876년 일본의 위세 앞에 개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요로 이루어진 조선의 개항은 자주적 발전의 계기라기보다 열강에 의한 이권쟁탈의 시발점이었다. 결국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게 한반도의 지배권을 완전히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⁴¹⁾

서구의 충격은 단지 인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우수한 생존수단을 갖추기 위하여 어떻게 '실질적인 힘'(real power)⁴²⁾을 구비할 것인가 하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야기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

40) J. K. Fairbank et al., 고병익 외 역, 『동양문화사』 하, 을유문화사, 1985(12판), 제3장 및 제5장 참조 ; 민두기, 「19세기 후반 조선왕조의 대외위기의식」, 『동방학지』 제52집, 1986, 259~279쪽 참조.

41) 최석완, 「일본의 동아시아 질서 재구축과 청일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7, 314~347 및 조명철, 「러일전쟁과 국제질서」,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348~374쪽 참조.

42)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힘'이란 군사력을 가리킨다. 군사력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의 개념으로 나뉘는데, 즉 i) 'armed forces'로서 군+경찰, ii) 'military forces'로서 군+경찰+예비군(un-armed forces), iii) 'military power'로서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힘, 즉 전쟁수행능력, 잠재력(인구, 산업력, 의지)의 의미를 뜻한다.

것은 단지 전법적인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투력의 근간이 되는 군사적 수단과 실질적인 무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의미였다. 실상 조선이 목표로 해야 하고, 또한 확보해야 할 그러한 군사적 수단과 능력이라는 것은, 외압(外壓)으로 표현된 서구의 무력적 강요를 거부하는 단순한 일회적인 행동에 의한 대응을 훨씬 넘어서 외부의 위협에 항구하게 맞설 수 있는 국가체제와 생산력을 갖춘 ‘근대적 국가’의 건설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⁴³⁾ 즉 국민국가(nation state)와 시민공동체(civitas)의 형성을 이룰 수 있는 국가기구로서 ‘군대건설(army-building)’이 산업력의 팽창에 따른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국의 역사적 실체를 지키고 유지하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나. 동아시아의 군사 근대화

일본은 1853년 7월 미국 페리 제독의 함포외교(艦砲外交)에 굴복하여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1854)한 이후 급속하게 서구화를 추구해갔고, 그 과정에서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통하여 ‘위로부터의 변혁’을 성공시켜 천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인 국가체

43) 19세기 중엽 이후 한국의 근대 이행기에 한반도는 외인적(外因的) 요인, 즉 국제정치의 상황에 의해 역사의 질곡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1945년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냉전 하에서 다시 남북분단과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백기인, 「한국전쟁사상의 전쟁 기록과 해석의 양상」, 『군사』 제59호, 2006, 369~373쪽 참조). 최근 박명림 교수도 이와 유사한 한국 근현대사의 통시적 해석을 내리고 있어 흥미롭다. 그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이전 100년의 한반도 상황이, 개항과 청일전쟁·러일전쟁을 거쳐 강제 병탄과 식민통치, 아시아·태평양전쟁, 미소 분할점령과 남북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국제적 소용돌이를 종착시킨 결정적 계기였다고 보았다(「내가 겪은 6·25와 대한민국 - 군과 함께 60년, 백선엽」, 『중앙일보』 2011. 1. 19, 10면).

제를 이룩했다.⁴⁴⁾ 그러한 일본의 특수한 입헌적 절대주의체제 하에서 군부가 실권을 독점하였고, 일본은 1880년대를 전후로 산업혁명에 성공한 힘을 바탕으로 군사적 팽창노선을 통하여 이른바 '대응적 제국주의(responsive imperialism)'로 변신하였다.⁴⁵⁾

일본의 제국주의는 정치적으로 민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반대와 저항'을 극복하고 국가자본에 의한 '군사적인 팽창'을 기반으로 군국주의로 경도되었다.⁴⁶⁾ 1873년 징병제의 시행으로 국민개병주의를 실현한 일본은, 1880년대에 들어와서 육군의 사단편제를 갖추었으며, 「야마가타 아리토모 군비의견서(山縣有朋軍備意見書)」에서 드러나듯이 1889년을 정점으로 대륙침략을 위한 전투편성을 완료하였다.⁴⁷⁾ 그리고 마침내 일본은 1890년 '이익선에서 주권선으로'를

44) 메이지유신이란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일본 해안에 나타나 일본의 개방을 요구한 이래 1877년 세이난전쟁(西南戰爭)이라는 내란을 수습하는 과정에 이르는 일본사상의 대변혁을 총괄하는 용어다. 그러나 도쿠가와(德川)의 봉건막부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1840년대를 메이지유신의 시작으로 잡기도 하고, 그 막부체제가 종말을 고한 1873년의 폐번치현(廢藩置縣) 또는 3대개혁(學制改革, 徴兵令, 地租改正)이 이루어진 1889년, 더 나아가 1894년 일본제국헌법의 발포를 메이지유신의 끝으로 잡는 견해도 있다(민두기, 「明治維新의 성격」, 『세계대백과사전』 제7권, 학원사, 1975).

45) 피터 두우스, 김용덕 역, 『일본근대사(The Rise of Modern Japan)』, 지식산업사, 1985(3판), 138쪽.

46) 일본의 개항과정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열강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에 관한 개정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른바 '조약개정운동'으로 확산된 이 움직임의 목표는 1854년부터 1869년까지 14개국과 맺은 제 조약 가운데 편파적인 치외법권의 폐지, 1866년 미·영·불·화 4개국과 맺은 관세협정의 철폐 등에 있었다(백기인, 「山縣軍閥의 政治化 過程에 대하여 - 山縣 第1次 內閣(1889~1891) 成立과 관련하여」, 서울대 동양사학과 논문집, 1988, 70~82쪽). 조약개정 문제는 19세기 전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이 '근본적으로 무역과 개항의 불가피성을 인식하여 서양과의 대등한 조약체결을 지지한' 점에서 사상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훈, 「吉田松陰의 대외관 - 敵體와 팽창의 이중구조」, 『동북아역사논총』 30, 2010, 285~311쪽을 참조.

47)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은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함께 일본 근대화의 원훈으로서 근대 일본을 이끈 양대 산맥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그에 대한 자

외교방침으로 선언하고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을 노골화하며 한반도 침략으로 나갔다.⁴⁸⁾

“장차 정치상의 국면이 어떤 변화를 나타내더라도 무릇 제국 신민인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 진로에 맞춰 같은 궤도를 달려 영원히 이 목적을 달성하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됨에 주의하여야만 한다. 대개 국가독립·자위의 길은, 첫째 주권선을 수호하고, 둘째는 이익선을 방호함에 있다. 무엇을 주권선이라 하는가? 국강(國疆)이다. 무엇을 이익선이라 하는가? 우리의 주권선의 안전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 구역이다. 무릇 국가로서 주권선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익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열국의 대열에 서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려면 단지 주권선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할 수 없고 반드시 이익선을 방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주권선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또한 이익선을 지켜 이로써 국가의 독립을 완전히 하고자 하면, 이러한 것을 보다 견고히 하여 일조공언(一朝空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⁴⁹⁾

이러한 제국주의적 팽창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개항 초기에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의 병제(兵制) 통일에 장애가 되는 병기(兵器)의 독립문제를 제기하면서 근대적인 무기제작 기술을 도입했다. 그들은 외국인 기술자의 지도로 영국제 엔빌 소총을 개조하여 1880년 메이지 13년식 무라다(村田)총을 개발하였다. 육군공창으로서 1872년 소총제조공장을 개업한 이후 1874년 화약제조소를, 그리고 1883년 총포제조소를 각각 열었으며, 해군공창은 1876년 목조군함의 제조를 시작으로 1880년대에 외연적 확장과정을 거쳐

세한 연구로는 Roger F. Hackett, *Yamagata Aritomo in the Rise of Modern Japan, 1838~1922*, Harvard U. P., 1971이 참고된다.

48) 백기인, 「명치초 한국침략에 대한 일본군부의 역할」, 『군사』 제30호, 1995, 152~154쪽.

49) 德富猪一郎, 『公爵山縣有朋傳』 下卷, 東京, 民友社, 1933, 4~5쪽.

1890년대에 와서 함정을 건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⁵⁰⁾

일본의 군수산업은 국가자본으로서 군비확장계획의 토대 위에서 성장했는데, 마스카타 내각(松方内閣)은 그 같은 기반 위에서 '군비확장 8개년계획'을 통하여 육군 현역병을 1883~1889년까지 4만 3,142명에서 7만 5,791명으로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예비 병력을 합하여 13만 7,802명으로부터 24만 3,484명으로 증가시켰다. 제도적으로 1888년 육군은 사단편성을 단행하여 대륙침략을 목표로 군대의 편성을 완성하고 일본 각지의 요소에 본격적인 포대건축을 개시하였다. 해군 또한 강철 함선 5척을 시작으로 모두 32척의 신형 함선을 건조하고 오·사세보의 두 진수부(鎮守府)를 개설하는 등 전력증강을 꾀하였다.⁵¹⁾



사세보(佐世保)항 나가사키의 사세보는 일본의 근대 이행기에 서구식 군수공장을 비롯하여 해군 건설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군사기지였다. 지금은 미(美) 해군 기지가 위치해 있다.

일본은 전술적으로 서양 병제의 발전 과정을 그대로 따랐다. 서양에서 화기의 발달과 전투대형의 산개대형화가 동시에 진행된 군사적인 추이는 '화력의 수준'이 전투부대의 전술적 운용을 결정했음을 잘 말해준다. 일본군의 전술적 운용의 특징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밀집대형과 산개대형을 동시에 구사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그 후 러일전쟁을 전후로 일본군은 전투방식을 보병화력으로

50) 佐藤昌一郎, 「國家資本」, 大石嘉一郎 編, 『日本産業革命の研究』, 東京大學出版部, 1983(第3刷), 291~339쪽; 백기인, 「명치초 한국침략에 대한 일본군부의 역할」, 150~152쪽.

51) 佐藤昌一郎, 「國家資本」, 『日本産業革命の研究』, 297쪽.

적을 압도하며 접근하다가 돌격거리에서 백병전을 통하여 적과 접전하는 현대전 전법의 기본원칙을 적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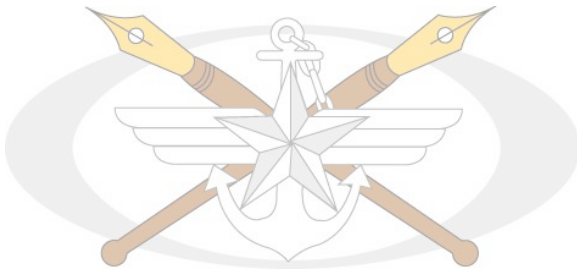
그러나 일본과 달리 조선은 제도적으로나 전략전술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군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병학사상과 군사제도상의 한계는 결과적으로 20세기 초 ‘제국주의의 팽창’이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적 현실에서 대한제국이 무력한 존재로 식민지화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지 ‘정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현실이 강요한 ‘냉엄한 실제’였다.

결국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근대로의 이행기의 역사적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경제·군사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격변기였다. 동양의 정신 위에 서양적인 것을 수단으로 하는 ‘동도서기(東道西器)’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조선이 한때 보여준 척법을 보완하는 변용의 논리를 찾아 대응하는 것과 같은 전술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님이 분명했다. 송규빈의 상승진(常勝陣)이나 양완의 녹각차진(鹿角車陣) 등에서 보듯이 ‘화력을 보장한 밀집대형의 활용’이라는 전법상의 이론적인 완전성을 실현한 듯했지만,⁵²⁾ 이미 서양이나 일본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은 근대적인 새로운 형태와 수준을 보여주었다. 대체로 서양과 일본에서의 군사력 방향은 ‘강하고 집중적인 화력, 신속한 기동성’을 전제로 전략적 우세를 보장하는 부대 편성과 절대적인 화력의 배비·운영을 실현해가고 있었다.⁵³⁾

52) 상승진에 대해서는 백기인,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혜안, 2004, 186~208. 녹각차진에 대해서는 노영구, 「18세기 말 양완의 전차, 기병, 보병 통합전술」, 『군사』 제64호, 2007, 241~253쪽 참조.

53)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나남출판, 1996.

이러한 군사적 발전의 차이는 현실적인 군사력과 군사조직의 근대화라는 문제와 맞물리는 것이었으며, 근대화는 요컨대 정치체제, 경제적 생산력, 사회구조와 문화, 나아가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국제적 대응력 등 국가역량과 긴밀한 상관성이 있었다. 이제 '국방과 안보'는 단지 특정한 정치공동체의 가치나 목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영의 근간(根幹)으로서 국제환경에서 '문명'의 패러다임과 함께 가는 현실적인 능력으로서 '상대적 힘'의 보장 수단임이 명백해졌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장

조선군 근대화와 군제개혁

제1절 조선군 근대화의 모색

제2절 해방론과 외국의 병학 수용

제3절 군제개혁론과 부국강병론

제1절 조선군 근대화의 모색

가. 대원군의 군사정책

18세기 말엽부터 한반도 연안에 이양선의 출몰이 증가하였다. 서양 세력의 요구는 탐험·측량·통상에 지나지 않아 아직은 직접적인 위협이 없었다. 그래서 지방의 병영이나 수영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중앙정부는 해당 병·수영에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라”는 지시만을 내렸을 뿐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철종(哲宗, 1850~1863) 집권기 말, 영불연합군에 의하여 북경이 함락되고 청의 함풍제(咸豐帝)가 열하(熱河)로 피난한 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역시 위문사 파견을 운운했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1861년 1월 비변사에서 각도의 춘계 군사훈련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오랫동안 정지하여 온 군사훈련을 새삼스레 실시하는 것이 민심만 소란스럽게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⁵⁴⁾

이렇듯 조선 정부가 안이하게 판단하여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닥쳐온 외압의 충격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이양선의 출현 외에 『동문회고』를 비롯한 다양한 서적을 통하여 서양의 제도와 문물이 소개되었지만⁵⁵⁾ 조선은 서양의 실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양선의 출현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조선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은 대원군 집권기에 들어와서의 일이었다. 대원군은 병·수사의 교체 부임이 있을 때마다 해방(海防)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 요충지인 전라도 영암군 소안도(所安島)에 진을 설치하고 진

54) 최병욱,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경인문화사, 2000, 31~33쪽.

55) 원재연, 「조선후기 서양에 관한 저술의 조사 연구」, 『국사관논총』 81, 1998, 266쪽.



홍선 대원군

군 263명을 배치하여 남해안에 대한 방어를 보강했다. 특히 강화유수 이인기(李寅夔)의 요청으로 강화에는 각 진보·돈대·군기고·성첩 등을 수리하게 하고 계절에 따라 웅진과 소강(所江)을 왕래하며 근무하던 황해수사를 항상 소강 현지에서 근무하게 하여 오직 해방 업무에 충실하도록 조치했다. 그밖에도 남병영의 별포위군에 대한 병과의 설치

를 정식화하여 포군을 강화하였다.⁵⁶⁾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고식적인 대응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미 18세기 초 숙종 대부터 연해에 대두하던 황당선의 위협에 대처하는 수준에서⁵⁷⁾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조선의 대응이 달라진 것은 서양과의 최초 충돌인 제너럴셔먼(General Sherman)호 사건 이후부터다. 사건 직후 국방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군사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때 각 병영의 병력 보충이나 낡은 군기의 수선과 군사훈련의 실시, 그리고 전선의 즉각 보수와 각 도의 조세 수익을 병영에 배정하여 군수비로 삼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여전히 미봉책에 가까웠다. 서양의 충격에 대한 실

56) 최병욱,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36쪽.

57) 이민웅, 「18세기 강화도 수비체제의 강화」, 『한국사론』 34, 서울대, 1995, 19~27쪽.

제적인 준비로서는 미흡했다. 조선의 조정에는 여전히 척사윤음(斥邪綸音)의 정신이 압도하고 있었다.⁵⁸⁾

그나마 실행하려는 조치마저도 순조(1801~1834) 이후 약 60여 년 만에 걸친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를 털어내고 궁극적으로 왕권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였다. 대원군은 무엇보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기능이 강화된 비변사가 군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최고 기관으로서 의정부와 삼군부(三軍府)를 무력화하여 국정을 전횡한 것을 막고자 했다. 그는 1865년(고종 2) 3월과 5월에, 대왕대비의 교명으로 의정부와 삼군부의 본래 기능을 부활시켜 의정부를 정치의 최고 기관으로, 삼군부를 군사의 최고 기관으로 삼았다.⁵⁹⁾ 이로써 명종대 발족된 비변사가 300여 년 만에 해체되어 의정부로 흡수되었고, 의정부에서 군국기무를 총관함으로써 국정상의 협의와 집행은 일원화할 수 있었다.

대원군이 추진한 군비증강은 병인양요(1866) 이후 본격화되었지만 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1873년 그가 권자에서 물러나고 조선의 조정에는 고종에 의한 친정체제가 들어섰다. 이윽고 이웃나라 일본은 운양호 사건을 빌미로 조선에 개항을 요구해왔고 결국 조선은 1876년 일본과 조약을 맺고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고종의 친정 직전까지 왕권강화를 목표로 한 대원군의 군사정책은, 삼군부를 복설하는 것 외에 무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노약자로 가득 찬 1만 6천 명 정도의 오군영 병력을 교체하고 훈련을 강화하며 군기를 숙정하여 전력을

58) 『승정원일기』 고종 3년 8월 2일 ; 『일성록』 고종 3년 8월 2·3일 ;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8월 3일 ; 『해영계록』 병인년 8월 11일 ; 『고종시대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70, 232쪽 ; 최병옥,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38쪽.

59) 『승정원일기』 고종 2년 3월 28일, 5월 26일 ; 이광린, 『한국사강좌』(근대), 일조각, 1981, 19쪽.



서원 철폐로 훼손된 만동묘

복원 후의 만동묘

대원군은 함여유신(咸與維新)을 기치로 개혁정치를 단행했는데, 그 상징적인 조치가 구 폐의 본산이라고 여겨지는 당시 전국적으로 600개에 달하는 서원철폐였다. 대원군은 “백성을 해롭게 하는 자는 공자가 되살아오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본래 선현을 제사하는 것이거늘 도적의 소굴처럼 되어가고 있음에라!”(苟有害民者 孔子復生 吾不恕之. 況書院乃祠本邦之先儒 而所在爲盜藪乎.)라고 역설했다. 송시열의 유언으로 권상하가 인근의 유생들과 함께 지은 만동묘도 1865년 철폐되었다가 1873년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자 그 이듬해 부활되었다(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제공).

정비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병기와 병선의 보수 및 제조, 강화도에 진무영을 설치하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그가 추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⁶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첫째, 남·서 해안의 군사요충지에 진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진을 보강하여 해안방어 능력을 향상시켰다.

둘째, 경강(京江)의 입구로서 삼남의 요충지인 강화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래의 유수제(留守制)를 진무영으로 개편하여 군사병영체제로 전환하였다.

셋째,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여 북방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였다.

60) 최병욱,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39~56쪽.

넷째, 화포군을 대내적으로 양성하였다.

다섯째, 노후한 군기(軍器)를 수선하고 전선과 화포 등의 무기를 제조하였다.

여섯째, 과거 수십 년 동안 정지하여 오던 군사훈련을 비로소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원군의 군사개혁은, 당시 신료들의 견해에서 보이듯이 이론적으로는 ‘상문(尙文)’과 ‘상무(尙武)’의 균형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무보다 문에 치중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대외 문제에서 소극적인 인식을 드러낸 결과였다.⁶¹⁾ 1866년 병인양요가 발발한 것을 계기로 하여 건립한 척화비는 ‘외세에 대한 저항의지’를 잘 드러내준다.⁶²⁾ 그러한 의미에서 대원군이 추진한 군사정책은 본질적인 개혁이라기보다 외세를 배격한다는 데 중점을 둔 제한적인 변화의 시도였다. 외세에 대한 저항을 위한 군사력의 배비였지만 부분적인 개선이나 개량에 그쳤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이 병인양요 이후 ‘내수(內修)’ 위주의 외세에 대한 고식적 방책에서 탈피하여 군사력 강화를 추진한 것은 일보의 진전이었다고 할 만하다. 우선 중앙군영의 정비 차원에서 중앙군영에 상비군적 성격을 지니는 급료병을 대폭 증강시킴과 동시에 포

61) 『고종실록』 4권, 고종 4년 3월 22일. “治之尙文 亂之尙武 古今通義也. 是以安不廢武 危不可廢文 官中馬上之事 於斯二者 一或拋擲 不可爲國 然而必以文爲本 以武爲用 … 伏願留心於尙文尙武 而文重於武之義焉.” (최병욱,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54쪽 재인용)

62)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척화비는 광성보에서 어재연 장군이 이끈 조선군이 미군에 의해 완전히 제압된 직후인 1971년 6월 20일(음력 4월 25일) 서울의 종로 거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양이에 대한 전 국민의 적개감을 고취하고자 건립한 것이다.



덕진진 일대의 남장포대의 모습

개항기 직전 해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강화도에 대한 군비강화의 일환으로 포대가 정비되었다. 사진은 2012년 3월 말경의 모습이다.

급료병인 포군 4개 초(哨)씩을 신설했고, 총용정도 선방포수(善放砲手) 125명을 선발하고 역시 급료병인 난후아병(攔後牙兵) 1초를 창설하였다. 이로써 중앙 군영의 정예화를 도모하고, 상비군의 성격을 띠는 포군 1,125명을 증원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원군의 군사개혁은 지방 군영의 군비를 증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 병인양요 직후부터 강화의 진무영(鎭撫營)을 크게 강화하고 진무사의 지위를 중앙군영의 대장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였다. 속오군은 병력이 400~500명에 불과하던 것을 3,000명 이상의 급료병으로 증원시켰다. 특히 포군을 강화하고 지방의 요충지에 위치한 진영을 신설하거나 통합·이설하여 대외방어체제를 정비했는데, 종래 속오군이 1년에 한두 차례의 점고(點考)만 실시하던 현실 속에서 전국에 걸쳐 약 3만 명의 급료병인 포군을 설치한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조치였다. 그밖에도 대원군은 중앙 군영과 각 지방의 포군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총 생산과 화약 및 총탄의 제작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조총을 정밀하게 제조하기 위해 조총 제조를 중앙군문

군 중심으로 정예화를 시도했다. 훈련도감에서 협련군(挾輦軍)을 비롯한 약 800여 명의 잡색군(雜色軍)을 정병으로 대체하고 포군을 강화함으로써 군병을 정예화했다. 금위영과 어영청은 향군의 번상을 정지하는 대신 상비군에 가까운

에서 전담하고 동시에 금위영에 주포소(鑄砲所)를 신설하여 화초의 제작에도 관심을 기울였다.⁶³⁾

그러나 대원군 집권기의 군비증강을 위한 군사정책은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권력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대외적인 방어력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었다. 1866년 반포된 해방령(海防令)도 결국 쇄국(鎖國)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제너럴셔먼호 사건이나 그 뒤에 발생한 병인양요, 그리고 1871년 신미양요에 이르기까지 조선 정부가 추진한 군비증강 노력은 모두 왕권 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방력의 본질적인 증대와는 거리가 있었다.

대원군이 추진한 군사정책의 성격은 미국 정부가 제너럴셔먼호의 행방을 추적하고 나선 후 조선과 미국이 최초로 공식 접촉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미국 정부는 청국에 주재하는 로우(F. F. Low) 공사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사절단과 함대의 파견을 결정하고 이를 청국에 통보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중재를 요청하였다. 로우 공사는 1871년 4월 10일 청국의 총리아문을 통하여 조선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대원군은 ‘조선과 미국 사이에는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며 미국 측에 회답을 전하지 않는 대신에 청국에 “조난선의 구제는 조선의 전통적인 관례이며 별도 조약이 필요 없고, 생산 또한 풍부하지 않아 외국과의 통상을 할 수 없다”는 서한을 보내 개국 반대의를 확실히 피력하였다.⁶⁴⁾

결국 미국 측은 1871년 5월 30일 강화 해역으로 아시아 함대를 파

63)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287~288쪽.

64) 김원모, 『근대한국교섭사』, 홍성사, 1980, 231~234쪽 ; 서인한, 『한민족전쟁통사』 4, 국방군사연구소, 1997, 125쪽.

전하여 강제로 탐사활동을 전개하며 조선 정부와 교섭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조선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당시 대원군이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을 시켜 미국 함대에 보낸 서신에는 확고한 대원군의 쇄국의지가 담겨져 있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서로 교통하지 않는 것은 바로 500년 동안 조종(祖宗)이 지켜온 확고한 법으로서 천하가 다 아는 바이며, 청나라 황제도 옛 법을 파괴할 수는 없다는 데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귀국 사신이 협상하려고 하는 문제로 말하면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이거나를 막론하고 애초에 협상할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높은 관리와 서로 만날 것을 기다리겠습니까?

넓은 천지에서 만방의 생명이 그 안에서 살면서 다 제대로 자기의 생활을 이루어가니 동방이나 서양은 각기 자기의 정치를 잘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안정시켜 화목하게 살아가며 서로 침략하고 약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니, 이것은 바로 천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해서 위로 하늘을 노하게 한다면 더없이 상서롭지 못할 것입니다. 귀 대인이 어찌 이 이치를 모르겠습니까? 풍파만리에 고생하였으리라 생각하면서 변변치 못한 물품으로 여행의 음식물로 쓰도록 도와 주는 것은 주인의 예절이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기 바랍니다.”⁶⁵⁾

대원군의 태도는 정중하지만 단호했다. 조선 정부는 연해에 나타나 는 미국 함선과 아무런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조선 의 항구한 외교원칙임을 강조했던 것이다. 외국과의 접촉이나 통상이 필요하지 않으며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표류선 등에 대해서는 관용과 친절을 베풀 뿐이라는 것이 조선의 입장이었다. 이렇듯 서양 함대에 대한 배격과 저항적 태도는 조선이 자국의 주권을 지키는 당연하고 타협할 수 없는 일관된 원칙이었다. 그러나 조선이 대원군 집권기에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등 일련의 외침에 직면하여 척사적(斥邪的)인 의식으로 쇄국정책을 고수하며 국권을 수호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

65)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4월 17일.

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고종의 집권기에 들어와서 대내외 정세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대외방어력이 취약한 조선으로서는 서양을 모방하여 침략주의로 나선 일본에 강제로 개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쇄국정책 하에서 대원군이 추진한 군비증강은 근시안적인 대외인식에 의한 미봉적인 조치였다. 그런데도 대원군의 군비증강은 당시 신료들에게도 자신감을 부여해주었던 듯하다. 당시 영의정 이유원(李裕元)은 “지금은 익히지 않은 일이 없어 이미 포를 쏘는 기술까지 알고 있으니, 의심하고 겁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연전에 또 양요를 겪어 서양 놈들의 장점과 단점을 남김없이 잘 알고 있으니, 오늘날의 군병을 임진년 왜란 당시에 비교하면 도리어 나은 데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⁶⁶⁾ 이유원의 답변은 양요의 경험을 토대로 조선의 군사력을 평가한 것이기는 하지만 서양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와 막연한 자신감이 혼재된 것이었다.

대원군 집권기에 이루어진 군비강화의 방향도 이러한 정세인식과 대외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집중적인 군비증강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군사적 개혁은 추진되지 못한 것이다.⁶⁷⁾ 그러나 대원군의 군비증강이 비록 제한적이고 척사적인 배외의식(排外意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하더라도 조선왕조 말기 군사개혁의 첫 걸음이었음은 사실이다. 특히 해양세력인 서양과의 접촉과 그 대비책을 강구하면서 해방(海防)에 관한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통적인 육방(陸防) 개념의 국방관념을 해방 개념까지 확대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6) 『승정원일기』 고종 11년 6월 25일.

67) 배항설,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289쪽.

나. 고종의 군사개혁 정책



고종(명지대 도서관 제공)

10년간에 걸친 대원군의 섭정이 끝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군사개혁이 본격화되었다. 고종의 친정이 시작될 무렵은 외세의 침략이나 간섭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자주적인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때다. 그러나 고종의 친정 시기에 이른바 군사 근대화를 향한 조선의 군사정책의 추진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대원군이 하

야했지만 최익현의 상소문을 둘러싸고 여전히 친대원군파와 반대원군파로 양립된 채 정국이 불안정하였다. 대원군이 해야하자 문호개방의 움직임이 표면화되었고, 운양호 사건(1875)이 일어나면서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을 비롯하여 조선의 종주권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대립이 야기되어 조선의 내부 사정은 복잡한 세력갈등의 양상을 띠었다.

특히 고종의 친정이 시작된 지 불과 1개월 만인 1873년(고종 10) 12월 경복궁 안에서 발생한 화재는 군사 개혁의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정국에 긴장을 더했고 고종의 신변 위협은 물론 왕실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징표로 여겨졌다. 고종이 대원군 집권기부터 시작된 군비증강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궁궐수비에 치중한 것도 그러한 연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군사개혁은 1876년 개항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고종은 1880년대까지 2차에 걸쳐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의 근대화를 확인하고, 청에 자문을 구하면서 군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재정적 이유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그 추진이 여의치 않았다.

고종 친정 이후 군사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친정 출범 다음해인 1874년(고종 11) 4월 5일이었다. 중희당(重熙堂) 차대(次對)의 정례 정무회의에서 고종과 영의정 이유원, 우의정 박규수 사이에 군기의 제조, 국가경비의 확보, 개성의 성곽 보수와 같은 문제가 논의되었다. 고종은 군사제도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군인의 수를 늘리고 훈련을 강화시켜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⁶⁸⁾ 이에 영의정 이유원은 “사졸의 증원에는 군자(軍資)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군영의 증원이 어렵다고 조언하였다. 결국 고종은 각 영군 중에서 500명씩을 차출하여 궐내 숙위를 강화하기 위한 ‘신평 파수군’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국왕은 신료들의 반대를 만류하고 “지금 파수군을 증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라고 강조하며 파수군의 신설을 추진했다. 이것이 바로 거론된 지 불과 2개월 만인 1872년 6월 20일 발족한 ‘무위소(武衛所)’였다.

첫 군사적 조치로서 이루어진 무위소의 설치에 고종이 추진한 군사정책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국왕의 친위병적인 성격을 가진 무위소는 도성방위체제나 국가방위 차원에서 보자면 전략적인 결정의 산물이 아니다. 궁궐숙위를 담당하는 용호영·무예청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훈련도감 등 중앙군영의 중요한 기능이 사실상 궁궐수비나 국왕호위를 담당하던 상황에서 무위소 설치에 고종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68) 최병욱,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119~120쪽.

창설 당시 훈련도감의 병력을 포함하여 828명을 배속시켜 편성한 무위소는 기존의 중앙군영으로부터 병력을 차출하여 불과 수개월 만에 1,700여 명에 달했고, 1880년에는 4,000명이 넘는 최고의 군영으로 성장하였다.⁶⁹⁾

무위소의 설치는 당시 시급한 과제인 군사력의 강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도 고종은 무위소의 설치를 ‘국초의 오위제도’로 간주하며 의욕을 보였다. 이로써 무위도통사는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제조를 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조의 직할영인 용호영과 서울의 외곽방어를 담당하는 총융청도 관장하게 되었다. 게다가 포도청의 업무까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후 1879년(고종 16) 7월 인천을 화도진으로, 부평을 연희진으로 개칭하여 무위소에 소속시켜 서해안 지역의 소규모 부대까지 합병시켰다. 특히 그해 8월에는 경리청(經理廳)이 관리하고 있는 북한산성의 행영과 건물 및 성곽의 보수를 감안하여 경리청을 무위소에 부속시켰다.⁷⁰⁾ 이렇게 궁궐의 경호를 보완할 목적에서 출발한 무위소는 점차 방대한 병력을 가진 친위 군영으로 변질되었고 그 권한도 강화되어 숙위 임무는 물론, 제반 군사업무까지 총괄하였다.⁷¹⁾

이러한 고종의 친정 이후 정책은 대체로 민심의 향방을 국왕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반(反)대원군노선을 표방하고 있었다. 원납전과 결전의 폐지, 연강수세(沿江收稅)의 금지, 개성부 청석동 수세의 철폐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매천 황현의 『매천야록』에 의하면,

69)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290쪽.

70) 경리청에 관한 연구로는 이현수, 「북한산성 축조와 경리청의 설치」, 『육사논문집』 31, 1986 및 이현수, 「18세기 북한산성의 축조와 경리청」, 『청계사학』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을 참조.

71) 최병욱,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130~132쪽.

고종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원군의 전횡을 싫어하여 불평을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⁷²⁾ 대원군의 독재에 국왕으로서 절치부심했던 듯하다. 국왕으로서 친정을 하게 된 고종은 군사문제 또한 새로 임명한 영의정 이유원, 우의정 박규수 등과 의견을 나누었다. 국왕은 진무영의 병력과 훈련실태 등은 물론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국경상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다. 그리고 수도와 각 지역의 군영에 각종 무예의 연습을 지시하고 성적에 따라 무관을 채용하는 한편, 군제의 개혁에도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국왕의 결정은 독단적이었고, 고종이 친정 초기에 취한 군사조치의 대부분은 대원군이 행한 시책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매천 황현은 그의 저서 『매천야록』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강화의 무위영을 서울로 옮겨 내영(內營)으로 칭하고 도통사를 두었다. 이때 대원군이 설치한 것은 좋고 나쁜 것을 막론하고 모두 혁파하였다. 대원군은 무위영을 철폐했다는 소문을 듣고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이 영이 국가에 무슨 해를 끼쳐서 그 장성(長城)을 파괴했는가’라고 하였다.”⁷³⁾

사실상 고종은 1874년 대원군이 심혈을 기울여 이룩해 놓은 서양 방어를 위한 주병영인 진무영 진무사의 외등단제(外登壇制)를 폐지했으며,⁷⁴⁾ 그해 8월 4일에는 진무중군과 교동수사의 직함을 강화중군과 교동수사로 각각 복구시켜 옛 제도를 부활하고 진무사를 강화유수로 격하시켰다. 그리고 진무영의 예산을 무위소의 예산으로 이관시켜 진무영의 쇠잔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군사최고기관인 삼군부를 해

72) 黃玹, 『梅泉野錄』 제1권 상, 「대원군의 독재」

73) 黃玹, 『梅泉野錄』 제1권 상, 「강화도 무위영의 철폐」

74) 외등단제는 대원군 집권기에 통제사의 지위를 한층 높여 외등단이라 했던 것이나 고종이 이를 폐지하였다(黃玹, 『梅泉野錄』 제1권 상, 「외등단제 폐지」).

체하지는 않았지만 군사정책의 수립이나 시행과정에서 도외시키고 철저히 무시하였다. 반면에 궁궐호위의 직능을 가진 무위소의 요원은 특별처우하고 병력을 증원함으로써 재정 곤란과 군내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 1875년 8월에 운양호 사건이 발발하여 소수의 일본군에 의해 영종진(永宗鎭)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⁷⁵⁾

이렇듯 고종은 집권 초기에 군사 분야를 대원군의 극복과 친정체제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적 인과물로 처리함으로써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군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대원군 집권기의 제반 정책과 제도를 거의 무차별적으로 혁파하거나 개편한 것은 그가 추진한 군사적 조치들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 근대화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임을 잘 보여준다. 고종은 무관의 지위를 격하시켜 무관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방어의 핵심지역인 강화 진무영을 축소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수도방어 및 왕권강화의 군사적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대원군이 전국에 약 3만 명 규모로 설치해 놓은 각 지방의 포군도 결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해체하거나 축소하고 말았다.

1876년 2월 조선은 ‘정한론(征韓論)’의 기초 하에서 치밀하게 이루어진 운양호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일본과 강제로 수교조약을 맺었다. 프랑스와 미국이 함포를 동원하여 수교를 제의한 데도 굴복하지 않던 조선이, 미국의 함포외교로 개국한 일본의 강요로 개항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강화도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조선은 일본의 우세한 군사력에 관심을 가졌다. 일본도 정책적 야심이 무엇이었든지간에 회담 전이나 도중 그리고 조약체결 후까지도 그들의 근대적 군

75) 최병욱,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135~145쪽.

사력을 과시하려고 각별히 노력하였다.⁷⁶⁾

고종은 두 차례에 걸쳐 시찰단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일본의 근대화 양상과 군사문물 및 시설들을 살펴보도록 했다. 제1차 시찰은 1876년 수신사 김기수를 중심으로 한 조사시찰단의 파견이고, 또 한 차례는 1880년 5월 김홍집을 단장으로 하는 시찰단의 파견이었다. 이렇듯 조선이 일본의 근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을 무렵, 청의 북양대신 이홍장은 1879년 당시 조선 영중추부사 이유원에게 비밀 서한을 보내 일본의 침략 야욕과 러시아 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양 각국과 수교하고 군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⁷⁷⁾ 일본에 대한 제2차 시찰단의 파견은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부국강병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당시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의 러시아 견제책이 조선의 조정과 지식인들에게 주목을 끌었다.⁷⁸⁾ 이홍장의 개국 권유에 신중하던 조선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은 대외관 측면에서 바로 균세론(均勢論)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시작한 결과였다. 그 무렵, 고종은 서구 열강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넓히면서 유생들에게도 새로운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가 능동적인 정보 수집과 대외인식의 유연성을 통하여 이른바 ‘수이제이(收夷制夷)’라는 현실대응 논리를 갖게 된

76) 이병주, 「개화기의 신·구 군제」,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후기 편』, 육군본부, 1977, 301~302쪽.

77) 송병기, 『근대한중관계사연구』, 단국대출판부, 1985, 15~17쪽.

78) 황준헌의 ‘조선책략’은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이란 제목으로 조선의 식자들에게 소개되었는데, 이를 조선 지식인 모두가 긍정시킨 것은 아니고 이만손 등 1만여 명의 유생들은 연명상소를 올려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고종실록』, 고종 18년 7월 26일). 그런데 방어(防俄)를 목표로 친중(親中), 결일(結日), 연미(聯美)와 함께 조선의 자강책이 필요함을 지적한 ‘조선책략’은 황준헌의 개인적 견해라기 보다 청국 외교관리들의 의견을 포함한 것이었으므로 당시 청국의 조선정책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것이다.⁷⁹⁾ 임오군란 직후 발표한 1882년 8월 교서와 1884년 6월 교서 등은 그 무렵에 고종이 견지한 대외관이나 현실인식을 잘 보여 준다.

“우리 동방은 바다 한구석에 위치해 있어 외국과 교섭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견문이 넓지 못한 채 삼가고 단속하면서 나라를 지켜온 지 거의 500년이 되었다. 근대 들어 세계의 대세는 이전과는 현격하게 달라졌다. 영국이니 불란서니 미국이니 러시아 같은 구미 제국은 정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사업을 극대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병자년 봄에 거듭 일본과 수호조약을 맺어 세 곳이 항구를 개항하였고, 이번에 또 미국, 영국, 독일 등과 화약을 조인하게 되었다. 이는 처음있는 일이니만큼 너희 사민들이 의아해하며 비방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교린의 예는 평등을 원칙으로 하니 의리로 따져 볼 때 문제될 것이 없고, 군대를 주둔시킨 의도는 본래 상업을 보호하는 데 있으니 사세를 참작한다면 그 역시 우려할 것이 없다. … 수호를 맺는 것은 수호를 맺는 것이고, 사교를 금하는 것은 사교를 금하는 것이므로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조약을 체결하여 통상을 하는 것은 다만 공법에 의거할 뿐이고, 애초에 본토에 사교를 전도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니 … 어찌 하루아침에 정도를 버리고 사교를 좇아갈 리가 있겠느냐. … 게다가 기계를 제조하는 데 서양의 기술을 약간이라도 본받는 것을 보기만 하면 곧 사교에 물들었다고 지목하는데, 이는 대단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 그들의 기계는 정교하니 그것으로 이용후생이 가능하다면 농기구나 의약품, 무기, 운송 수단을 만드는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겠는가. 그들의 종교는 배척하되 그들의 기계는 본받는 것은 실로 상치되지 않고 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 …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선비들은 부지런히 공부하고 백성들은 마음놓고 농사를 지어, 다시는 ‘양(洋)이다. 왜(倭)다’ 하면서 소란을 피우며 와전시키지 말라.”⁸⁰⁾

79) 최보영, 「고종의 ‘수이제이’ 적 일본인식과 무비자강책(1876~1881)»,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7집, 2011, 23~24쪽.

80)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8월 5일 ; 『승정원일기』, 고종 19년 8월 5일 ; F. A. McKenzie, 신복룡 역, 『대한제국의 비극』, 34~36쪽.

“현재 시국이 날로 변하고 사무가 날로 늘어가며 배와 수레로 교섭하는 길이 열리고 감영과 보루에 군사훈련장을 설치하여 대응하는 것이 결코 이전 날에 자기만을 지키려하던 때와는 대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상투적인 방식을 고집하고, 쓸데없는 절차를 행하고 실사구시의 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것은 남의 말이 아니고 옛날의 어진 임금과 명철한 군주들의 정사상의 방법과 계책의 대강령이며 또한 새롭게 맞추어나간 뜻이다.”⁸¹⁾

이로써 조선은 1882년 미국과 수교를 하고 이어 영국, 독일과 차례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일본과 청국의 근대문물을 입수하는데도 신중을 기하면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했는데, 실제로 고종은 운양호 사건에서도 경험한 바지만 일본 측의 조선에 대한 무비강화의 요청에 팽창주의적 기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 측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종래의 불간섭정책에서 이른바 ‘외교적 지도’라는 명목으로 이홍장을 내세워 서양 제국과의 통상을 종용하기도 했다.⁸²⁾ 그래서 고종의 강병책은 통리기무아문을 신설하고 청국에도 영선사를 파견하여 무기제조 기술과 군사제도 등을 시찰하고 배워오도록 하는 양면적인 접촉의 시도로 나타났다.

고종은 이미 설치한 친위부대인 무위소 외에 1881년 4월 2일 한국 최초의 신식군대인 일본 교관이 교육훈련을 맡은 교련병대(敎鍊兵隊)를 창설했으며, 그해 말에는 기존의 중앙군이던 5군영을 통합하여 무위영(武衛營)·장어영(壯禦營)의 2영체제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2영체제로의 개편은 군사력 강화나 도성방어의 강화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이는 무위소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은 중앙군영의 군사들이나 신료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조치였

81)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6월 15일.

82) 이러한 시각에서 당시 조선과 청국과의 관계를 조명한 연구로는 이병주, 「이홍장의 대한정책」, 『육사논문집』 제2집, 서울, 육군사관학교, 1965가 참고된다.

고, 임오군란으로 헐파될 때까지 2영체제는 정비되지 못한 채 기존의 군영을 두 개의 군영으로 묶어놓은 데 불과하였다. 게다가 같은 군영 안에서도 무위소 출신과 훈련도감 출신 등 구 군영 출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여전히 계속되어 군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여 결국 임오군란의 발미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⁸³⁾ 황현은 개항 이후의 군사정책과 실태를 다음과 같이 총평하였다.⁸⁴⁾

“개화한 이래 영제가 여러 번 바뀌었다. (중략) 군영이 많아지다 보니 병사가 없을 수 없었다. 이에 군사를 조련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 청과 일본의 교사를 불러다 한가한 장정들을 모집하여 연습시켰다. 서울에만 만여 명에 가까웠고 각 도의 감영과 병영에 500명 또는 300명 가량 되었다. 봉급을 우대하고 장비와 군복을 새로 바꾸었다. 이들을 호병대(胡兵隊), 왜병대(倭兵隊)라고 불렀다. 이들은 대부분 교만하고 거칠어서 밤이면 도적이 되었다가 낮이면 대열에 돌아왔다. 그러나 국왕은 이들을 우대하면서 그들의 힘을 얻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교만한 자식은 기르기가 어렵고 쓸모가 없다는 것은 또한 명백할 뿐이다. 아! 이러한 장수들로 이와 같은 군줄을 부리게 하였으니 위태로울 뿐이다.”⁸⁵⁾

임오군란 직전까지 고종이 추진한 부국강병을 위한 군사개혁은 매우 불안정한 개혁이었다. 당시 점증해가는 외세의 압력으로 조선은 자주권이 위태로워지자 청국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근대화를 수용하는 양면성을 띤 정책과 제도 개편에 치중하였다. 그 같은 조선의 태도는 일본에 대한 위기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종주국인 청국에 대한 의존성을 드러낸 것이었다. 여하튼 청·일 양국의 군사제도와

83)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293쪽.

84) 황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성과가 있다. 최근의 연구로는 한철호, 「『매천야록』에 나타난 황현의 역사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5집, 2010(겨울호), 7~33쪽을 참조.

85) 黃玑, 「梧下記聞」首筆,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 史藝研究所, 1996, 36~37쪽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237쪽에서 재인용).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군사정책이나 제도의 운영은 일관성을 상실한 채 정국의 변화에 따라 개편을 반복하였다. 여기에서 설상가상으로 종래의 구제도와 신제도 간의 내적인 충돌과 갈등은 강화도조약 체결(1876) 이후 고종에 의한 본격적인 군사개혁의 움직임마저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말았다.

결국 조선의 군사 개혁은 임오군란(1882) 직후 청국이 군사력을 배경으로 조선의 군제 개편에 전면 개입하면서 외국군의 간섭을 불러오는 단초가 되었다. 각국은 직접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군사개입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군사교관을 파견함으로써 주둔국 군대를 자국 군제와 유사하게 개편하거나 훈련시켜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국은 조선의 군제 개편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기에 이제 조선은 사실상 외세의 각축이 만들어놓은 일종의 열강 군제의 대리 실험장이나 다를 바 없었다. 조선의 군제 개편이나 군사 근대화의 한계는 이렇듯 대외관계의 허약성에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었다.



1880년대 후반의 미국 공사관

고종 집권기의 군사정책이나 개혁 역시 정국이나 대외관계의 변화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다. 이미 신식 군대로서 교련병대가 창설되어 교육훈련에 일본 군제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지만 임오군란으로 인하여 해체되었고, 임오군란을 계기로 병력을 파견한 청국에 의해 청나라식 군제인 친군영제(親軍營制)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이후 조선의 군제는 다시 정국의 상황에 따라 일본이나 미국 혹은 러시아의 군제가 곁들여지면서 잦은 개편을 반복했던 것이다.⁸⁶⁾

그러한 와중에도 일본은 교련병대 출신이나 일본식 장교교육을 받은 인사들을 활용하여 ‘일본식 근대화’를 집요하게 추진하고자 했다. 청일전쟁(1894)에서 승리한 직후에는 무력으로 조선을 접수하여 보호국화하는 것을 노골화하면서 군제를 넘어서 일본식 관제까지 주입시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러시아 또한 아관파천(1896) 후 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을 확대하면서 친러 부대를 양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대한제국의 시위대는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지원 하에 양성된 군사력이었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대한제국군이 해체의 수순을 밟았고 대한제국마저 몰락함으로써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 갔다.

이렇게 볼 때 고종은 비록 유교 교육 하에서 위정척사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점차 서양문물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 과감하게 쇄국정책을 파기하고 부국강병으로 나아간 것은 분명하다. 특히 임오군란 이후 위정척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도 동도서기론적인 입장에서 서양의 근대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어 부국강병을 지속하고자 했던

86) 개항 이후 조선 군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구복, 「갑오개혁 이후의 신군제」,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후기 편』, 육군본부, 1977 ;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해안, 2000 ; 배향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등을 참조.

것은 그만큼 근대화의 의지가 지대했음을 말해준다.⁸⁷⁾ 그러나 강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군사 근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 무엇보다 국왕인 고종이 근대적 군사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인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었다.⁸⁸⁾ 게다가 조정 관료나 재야 유생들의 반대는 열강의 치열한 각축전 속에서 조선의 생존을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려는 국왕의 노력에 적지 않은 장애물이었다. 국왕인 고종은 독단을 서슴지 않아



근대 최초의 해군생도들의 훈련 모습

(김재승, 『근대 한영해양교류사』, 인제대학교 출판부, 1997, 79쪽)

87) 장영숙, 「고종의 대외인식전환 연구(1863~1881)」, 『상명사학』 6, 1997, 73~101쪽.

88) 조선왕조에서 국가재정은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하여 세금의 급납화를 추진하기 이전에는 주로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현물로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조세는 중앙 정부가 징수총액을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징수를 전담했는데, 서울에서 필요로 하는 수량을 제외하고는 중앙의 통제없이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19세기의 조선은 재정수입의 부족이 만성화되어 국가재정이 거의 파탄상태에 있었다. 더욱이 왕실의 재정이 국가재정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문란의 근원이 되었다. 국가예산의 편성은 1895년부터 시작했으며, 조세는 종래의 전세와 대동미 등을 통합한 지세를 비롯하여 호포세, 잡세, 인삼세, 사금세 등이 주종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로는 황하현, 「구한말(1894~1904년)의 재정정리와 세입세출예산」, 『재정론집』 창간호(한국재정학회, 1987), 7~30쪽 참조.

집권 초반 반대원군노선 속에서 그의 조치는 국방력의 강화를 위한 군사 근대화라기보다 ‘궁궐수비의 강화’를 위한 근대 군제의 실험적인 도입 수준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조선의 군사 근대화는 대내외 정세의 흐름에 표류하다가 구심력을 상실한 채 좌초되고 말았던 것이다.

요컨대, 고종의 친정체제에서의 군사개혁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타격을 입고 실종상태에 빠졌던 셈이다. 조선의 군대는 청국의 영향 하에서 친군 좌·우영을 설치하고 청국식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갑신정변 이후 청국의 군제에 대한 영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친군 삼영제(三營制)로 개편되었다. 조선과 화친조약을 체결한 미국은 푸트(Lucius H. Foote) 공사의 요청(1883)으로 1884년 4월 육군 준장 출신의 다이(W. M. Dye)를 조선에 파견하여 활동하게 했다. 그들은 1887년 12월 연무공원(鍊武公院)을 세우고 미국식 군사교육을 실시했으나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이 궁궐을 침입하여 군영을 무장해제함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했다. 그 무렵 영국도 해군학당을 강화도에 설립(1893. 10)하고 해군사관을 양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갑오개혁 이후 제일 먼저 일본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결국 고종은 1894년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의 침략주의를 직시하고 근대화 정책의 노선을 바꾸었다. 시간적으로 때늦은 감이 있었지만, 사대부 중심의 정책에 한계를 느끼고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능력있는 자들을 기용하여 ‘구본신참(舊本新參)’의 기치 아래 대한제국을 탄생시켜 근대화의 기반을 새롭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비록 일본의 침략을 완전히 저지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 결과가 이른바 ‘광무개혁(光武改革)’의 성과로 나타났다.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과 갈등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국권 수호의 완전한 장치

는 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고종이 황제의 칙령으로 육·해군 창설을 위한 징병제를 예고할 정도로 근대적인 보편성을 지향한 군사적 개혁이었다.⁸⁹⁾

제2절 해방론과 외국의 병학 수용

가. 새로운 해방론의 대두

조선은 전통적으로 대외관계에서 사사로이 외국인과 교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금(海禁)’·‘변금(邊禁)’과 같은 원칙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선 왕조에서는 의주나 동래 등 허가지역 이외에서 승인없이 상인들이 교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정부의 허락 없이 함부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왔다. 그러나 표류선 등과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유원지의의(柔遠之義)’, 즉 먼데서 온 사람들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는 원칙으로 처리하였다. 이양선의 경우에는 호의로 나오면 호의로 대해주고 악의로 나오면 악의로 대한다는 것이 조선 정부의 입장이었다.⁹⁰⁾

실제로 조선 정부가 유지해왔던 해방(海防)은 해안(연안) 또는 해양에 대한 방어개념으로 『만기요람』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조선의 지형적 조건에 따른 기본방어원칙이었다.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해(環海)의 지역으로 왜 및 중국의 오(吳)·월(越)·연

89) 이태진, 「한국사의 발전과 군사사」, 『이 땅을 지켜온 역사』(군사제도사 및 강역에 관한 연구 사업 기념 학술토론회, 2011. 11. 3), 10쪽.

90) 연갑수, 「대원군 집권기 대외정책」, 『서울문화』 9집, 2005, 198쪽.

(燕)·제(齊) 지방과 서로 마주봄으로써 군사상 해방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남해, 서해 남·북부, 그리고 압록강·두만강을 아우른 양강 및 일본과 상통하는 해로가 해방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⁹¹⁾

이양선의 출현과 해방론의 대두 18세기가 되자 조선의 인근 연해에 이양선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해안지역에 대한 경계심과 위기감이 일어나면서 해안방어가 초미의 과제로 부상하였다. 왜(倭)에 대한 방어를 전제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일대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책으로써 부산과 인근 도서를 중시하며 일본이 침공했을 때 접근이 가능한 공격예상로를 방비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 것이다.⁹²⁾ 게다가 영조 대 이후 청이 몰락하여 본래의 발원지인 영고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영고탑회귀설’이 퍼지면서⁹³⁾ 중국(청)의 재침 위협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수군의 문제가 전략적으로 부상했다. 청의 해상 공격에 대비하여 강도(江都)를 중심으로 하는⁹⁴⁾ 수군의 방어선을 강화하

91) 『萬機要覽』, 「軍政·海防」 “我國東南西三面環海. 東及南距倭, 又南及西與中國之吳越燕薺地方相距. 故設置海防.”

92) 『燃藜室記述·別集』 卷之17, 「邊圉典故」

93) 영고탑과 영고탑회귀설에 대해서는 백기인,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178쪽;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65~67쪽; 和田 清, 「清祖發祥の地域について」, 『東亞史研究』(滿洲篇), 東京, 東洋文庫, 1955, 582~596쪽을 참조할 것.

94) 해방론의 측면에서 18세기 중엽 일본과 청국의 침략 가능성을 동시에 중시한 인물은 안정복이었다. 그는 해방의 대상을 왜구에 국한시키지 않고 중국도 포함시켜 논의하면서 江都를 중심으로 한 해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東史綱目』第17上. 戊辰, 前廢王禍 14年, 8月, 按: 『順菴集』 10, 書, 東史問答, 上星湖先生書, 乙卯: 『順菴集』 9, 書, 與鄭子尙 別紙 癸卯. “守江都之策 專在海防. 西北通兩西, 西南通兩湖, 其間島嶼星羅棋布無非防禦之所也. 所可恨者, 法久弊. 生有名無實. 雖或修學, 多先其宣, 無緩急可恃者耳”).

거나 전선의 개량을 통하여 수군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이었다.⁹⁵⁾ 논의의 골자는 가상적국인 청국의 해상도발에 대하여 해상에서 적을 곧바로 섬멸할 수 있는 ‘삼선방어망(三線防禦網)’ 개념에 의한 선방어 후공세 전략이었다.⁹⁶⁾ 이는 육·해상의 일원적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장차의 위급한 해상전(海上戰)을 수행할 때 신속한 작전과 효과적인 방어를 위하여 선박과 병기의 정비 등과 같은 문제를 동시에 거론한 것이었다. 다음의 인용문은 그러한 점을 잘 드러낸다.

“수영에는 이미 원래 정해진 예산과 자원이 있으니 선박과 병기를 개조하고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먼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수군들은 부근의 연변에 거주하는 백성으로 교체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융통성 있게 시행하려면, 국방제도의 폐단을 제거하고 위급할 때에 강력한 군사력을 얻을 것은 마치 손금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이 쉬운 일이다.”⁹⁷⁾

한편 북학파의 한 사람인 이덕무(1741~1793)는 서양 세력에 대한 위협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기존의 위협적인 대상으로 지목된 왜나 중국은 말할 것 없고 서양 세력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일본에 대한 방비(防備) 의식과 함께 일본과 교류하고 있던 아란타(네덜란드)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아란타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홍이포(紅夷砲)’가 여러 나라에 위협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⁹⁸⁾

95) 『增補文獻備考』卷33, 輿地考21, 關防30, 西海地南: 『東史綱目』卷7下, 辛未, 宣宗8年, 春正月, 按.

96) 장학근, 『韓國 海洋活動史』, 해군사관학교, 1995, 329쪽.

97) 『風泉遺響』, 「論五衛」 “水閫則已有元定軍額, 船楫器械, 不可不改易而整頓也. 遠地水卒, 不可不換定於一帶沿邊也. 依此而變通制治, 則除弊於郡國, 得力於緩急者, 無異掌上觀文.”

98) 『靑莊館全書』卷二十四, 「兵志備倭論」 “至若阿蘭陀, 雖非我之隣近, 亦不可以不虞. 一名荷蘭, 一名紅夷, 亦曰紅毛. 在西南海中, 距日本一萬二千九百里. 其地近佛郎機. …其所恃, 惟巨舟大礮, 舟長三十丈, 廣六丈, 厚二尺. 樹五桅或八桅. 置二丈巨礮, 發之可洞裂石城. 世所稱紅夷礮, 卽其制也. 爲海中諸國之患.”

서양 세력에 대한 위협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한 인물은 다산 정약용이었다.⁹⁹⁾ 그는 근세의 전쟁 양상에 대하여 이해하고¹⁰⁰⁾ 서양의 침략적 본질도 감지했는데,¹⁰¹⁾ 서양인들이 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사해를 떠돌다가도 외부의 영토를 점거하고 일단 점거한 곳을 소굴로 삼아 자신들의 종족을 거주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서양과 중국과의 통상을 중국이 베푸는 시혜로 간주하던 당시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서양인들이 중국에 조공하는 데는 어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 그의 인식이었다.

“그 풍속은 오로지 상업으로 본업을 삼아 사해를 주류하면서 배를 집으로 삼는다. … 그리고 서남 여러 나라의 연안에 흑시라도 버린 땅이나 공지를 얻게 되면 그곳을 점거하여 소굴을 삼고 그의 종족을 머물러 지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노략의 누명을 얻게 되고 천모의 호칭을 면치 못한다. 또 오랑캐의 풍속이 사나워 화포와 예리한 병기로 자기들을 호위하여 외적을 막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침략과 살인의 지목을 받게 되는 것이다.”¹⁰²⁾

하지만 정약용이 서양 세력을 당장 조선에 위협적인 요소로 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해구(海寇)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가 외부 세력의 침략 가

99) 1811년 정약용이 『비어고』를 찬술하면서 남구만의 ‘해방소’, 유득공의 ‘아란타설’, 이덕무의 ‘비외론’ 등 서양 세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도 서양 세력의 해로 침투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이현주, 「문화개방 직전의 해안방위론과 국방개혁론」, 『이 땅을 지켜온 역사』(군사제도사 및 강역에 관한 연구 사업 기념 학술토론회), 2011, 194쪽).

100) 『與猶堂全書』 제1집 제11권, 「論·軍器」 “近世之謀伐人國者 唯製爲奇器巧物 一夫決機 萬人隕命 … 如所謂紅夷砲者 其迅烈酷虐 前古無比 中國日本使用已久.”

101) 『與猶堂全書』 제1집 제11권, 「論·軍器論一·二」

102) 『與猶堂全書』 제1집 제22권, 「詩文集·雜評 - 柳冷齋得恭筆記評」 “其俗專以商販爲業. … 及西南諸國之沿, 或得棄地空壤, 則據之爲巢穴 留其種類以守之, 斯得剽掠之名, 不免賤悔之稱. 又蠻貊俗殊, 不能不以火礮利兵, 自衛以外禦, 故又得寇抄害人之目.”

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방어책을 강구하고자 한 대상은 일본이었다. 처음에는 일본 유학의 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침략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했지만,¹⁰³⁾ 그가 강진의 유배 생활 중에 저술한 『민보의(民堡議)』에서는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종래의 인식을 바꾸었다.

“북방의 호적이 강력하기는 하나 남방의 난폭한 왜병보다는 방어하기가 나은 편이므로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남쪽의 왜구다. … 모든 일은 그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시작이 되므로 우려는 형체 없는 곳에 생기는 것이 이치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우려를 비록 가소롭다고 할지 모르나 모든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나라를 방비하는 데 상책인 것이다.”¹⁰⁴⁾

정약용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만을 제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쓰마(薩摩)에 거주하는 왜인들의 성향과 그로부터 인접한 나가사키(長崎)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일본의 외국과의 교류에 주목하며 조선의 침략 가능성을 상론하였다. 그만큼 그가 19세기 초반의 일본 정세에 대해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당대의 지식인이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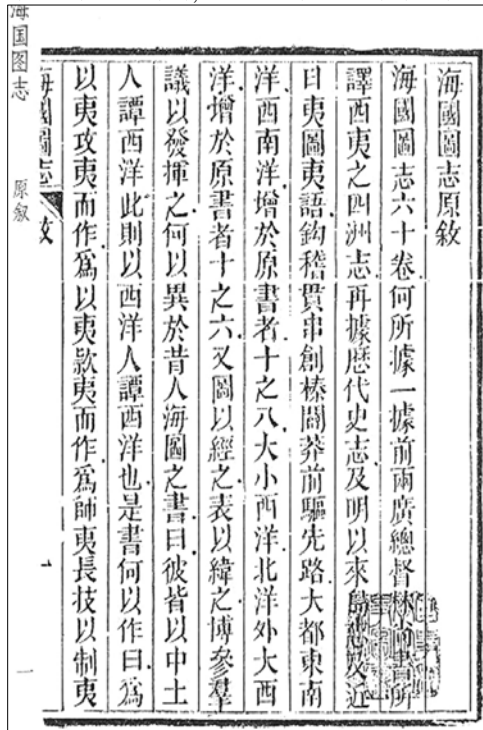


민보의

103) 『茶山詩文集』第1集 第11卷, 「論·日本論 一·二」

104) 『民堡議·總議五則』(『與猶堂全書』보유 3권) “然北方之強, 猶勝南方之暴, 所可商略者, 南寇而已. … 兆既不顯, 慮在無形, 杞國之憂, 雖云可笑, 桑土之備, 不嫌預講, 此謀國之法也.”

해국도지와 새로운 해방론 조선 사회에서 서양 세력을 가상적(假想敵)으로 상정한 본격적인 해방론은 1840년 중국에서 발발한 ‘아편전쟁’(제1차 중영전쟁)의 영향을 받아 제기되었다. 『해국도지』가 조선에 소개된 것이 바로 아편전쟁 직후인 1844년 중국에서 초간본(50권)이 간행될 무렵이었다. 그해 말 주청겸사은동지사의 부사로 북경을 방문하여 이듬해 3월 귀국한 호조참판 권대궁(權大肯)이 이를 구입해 온 이래, 조선 지식인이나 위정자들이 소장했을 것으로 보인다.¹⁰⁵⁾



해국도지(중국병서집성 편)

다.¹⁰⁵⁾ 저자 위원(魏源, 1794~1857)은 아편전쟁 당시 중국의 현실적인 힘의 한계를 목도하면서 ‘이제이(以夷制夷)’ 식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양무론자인 그가 제시한 해방(海防)에 대한 구상은 전적으로 수비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지만 근대화된 해군과 해상전에 의한 해방 대책을 전망하고 있었다. 위원의 해방론은 세가지의 요점으로 요약된다.¹⁰⁶⁾ 즉 오랑캐로써 오

105) 이현주, 「문호개방 직전의 해안방위론과 국방개혁론」, 197쪽.

106) 『海國圖志·原敘』 “是書何以作。曰，爲以夷攻夷而作，爲以夷款夷而作，爲師夷長技以制夷而作。”

랑개를 공략한다(以夷攻夷),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관장한다(以夷款夷)는 전통적인 중국의 이무사상(夷務思想)을 계승하는 한편, 오랑캐의 장기를 본떠서 오랑캐를 제압한다(師夷長技以制夷)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 비추어 개혁·창신한 내용이었다.

위원이 주목한 서양의 장기는 세 가지로 전함, 화기, 양병·군사 훈련법 등이다. 서양의 장기를 본뜨는 데는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였다.¹⁰⁷⁾

첫째, 광주·호문 외에 사각·대각의 두 지역에서 조선창과 화기국을 창설하고, 수송선·창포를 제조하는 한편, 독일·미국 등 서양인을 초빙하여 선박의 건조·포의 제조 및 운항과 포술을 교수하도록 한다.

둘째, 연해에 있는 일반 상인으로 하여금 사영창국(私營廠局)을 설립하고, 수송선·기계 등을 제조하도록 허가한다.

셋째, 선박과 화포를 제조하는 것을 기반으로 전함을 건립하고자 했으며, 3만 명에 이르는 해군의 근대화를 단행해야 한다.

넷째, 해군의 전문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어 그 방식을 타공(舵工)·수수(水手)·포수(砲手) 등의 기술에 따라 선발하여 수사에 임용하고 교습케 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군대의 관병(官兵)에 대한 대우의 수준·정도가 곧 군대의 전투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병사를 감축하고 군량을 비축하며 정예병사를 육성해야 한다.

위원이 제기한 다섯 가지의 방책은 실기의 수용을 중시하면서 전략적 방어와 전술적 운용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것은 피아의 군사상

107) 백기인, 『중국군사사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6, 226~229쪽.

황이나 자국의 연해에 대한 지리적인 특성에 맞추어 ‘스스로 지키는 방책(自守之策)’에 다름 아니었다. 특히 지리적인 조건과 인적인 조건을 고려한 점이 주목된다. 지리적인 조건에서는 서양의 해전 능력을 감안하여 내하(內河)를 가장 이상적인 접전지역으로 제시했으며, 인적으로는 각 성(省)을 중심으로 토병(土兵)을 훈련시켜 각 성의 방어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해국도지』의 영향 아래 대두한 해방론¹⁰⁸⁾은 중국의 군사적 방위의 우선 순위를 서북의 육방(陸防)에서 탈피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인 남양 국가들과 일종의 대영국방위연합체의 결성을 주창하는 것으로 확산되었다. 위원은 해방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해군력의 증강을 제안했고, 중상주의적 정책을 통하여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중국에서 전개된 양무론의 기본 동력이 되었다.¹⁰⁹⁾

그런데 이러한 위원의 해방사상이 조선에 소개되었다고 해서 바로 실제적인 조선의 해방책으로 연결되기란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러나 제주도에 유배 중이던 완당 김정희는 위원의 해방사상에 깊은 공감을 표하였다. 영국 군함 사마랑(Samarang)호가 제주도 앞바다에 출현한 것을 직접 목격한 그에게 위원의 해방책은 조선 사회에도 예외일 수 없으리라는 위기감 속에서 현실 인식을 새롭게 하게 했을 것이다. 김정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108) 청조에서 해방문제는 1874~1875년에 국가정책 차원에서 최대의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희재, 「1874~5년 해방육방논의의 성격」, 『동양사학연구』 제22집, 1985, 85~129 ; 王家倫, 「清季의海防論」, 『歷史學報』 12期, 臺北, 國立臺灣師範大學, 1967 ; Immanuel C. Y. Hsü, “The Great Policy debate in China, 1874 : Maritime Defense vs. Frontier Defens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25(1964~1965), pp.212~228을 참조.

109) 김영호, 「근대 한국의 부국강병 개념」, 『세계정치』 제25집 2호, 2004, 41쪽.

“해국도지는 필수의 서적이다. 내게는 마치 타인의 집에 있는 보배들과 마찬가지로 가집니다. 서양의 선박이 혹은 국경을 넘어올 경우에 방비를 엄중히 하는 뜻은 또한 어찌 가소롭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형세를 살피는 자들은 이를 모방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¹¹⁰⁾

이렇듯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서양 세력에 대한 위협을 경계하며 위원의 해방론에 관심을 갖고 이를 이해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이다. 아직도 그러한 해방론이 바로 조선의 해방 대책이 될 수는 없었다. 그만큼 중국에서의 아편전쟁은 조선의 상황이 아니었고 그 위협이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조선 사회에서 서양 침략을 전제로 한 위기의식에 대한 해방론은 여전히 ‘내수적 대응’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¹¹¹⁾

한편 영·불 연합군에 의해 북경이 함락된 소식이 조선에 전해진 직후인 1861년 초 훈련총장 윤섭(尹燮)이 제시한 어이방략(御夷方略)이나 전 헌납 박주운(朴周雲)의 어의책은 이 시기 조선의 해방론의 추이를 잘 보여준다. 윤섭의 어이방략에는 서양에 대한 방어책이 개진되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서양의 장점인 뛰어난 대포와 함선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장점인 험준한 지세를 최대한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윤섭은 조선이 취해야 할 방책은 불리한 수전(水戰)을 피하고 육전(陸戰)을 유도하여 전장 주변의 농작물을 거두어 성에 들어가 방어하는 전통적인 거험청야전술(據險淸野戰術)에 의한 지구전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양인들이 수만 리 밖에서 오기 때문에 군량의 원활한 조달도, 10척 이상의 병선을 동원하기도 어렵

110) 『阮堂先生全集』 卷3, 「書牘·與權敦仁」(第32書) “海國圖志是必需之書, 在我似苦他家數室。紅舶或有涉境之時, 在重門擊折之義, 又何可少觀其國審勢者, 有可仿而行之者。”

111) 민두기, 「19세기 후반 조선왕조의 대외위기의식」, 『동방학지』 제52집, 1986, 259~279쪽.

다는 점 등이 전술적 성공의 가능성을 확증해준다는 입장이었다.

박주운의 해방책은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과 교전이 벌어지기 직전인 1866년 9월 3일 올린 상소에 나타난다. 그의 견해는 조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거함청야전술에 의거한 지구전을 방책으로 삼으면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기본적으로 산성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인적인 동원과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민보의 설치와 운용을 강조한 방안이었다. 요컨대, 해방으로부터 시작하여 내지(內地)에 이르기까지 민보를 설치하여 거함청야전술에 의한 전통적인 전술의 활용을 주장한 것이다.¹¹²⁾

결국 조선에서 개항 직전, 정확하게 말하자면 1866년 병인양요나 1871년 신미양요 무렵에 제기된 해방론(海防論)이란 대체로 서양세력의 위협이나 경계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었다. 따라서 여전히 서양에 관한 서적을 통해서 서양을 이해하는 인식적 차원에서 전개된 논의라는 한계가 있었다. 서양 세력에 대한 위협을 넘어서 그 대응을 놓고 적극적인 해방책을 강구한, 군사대책으로서 해방론이 제기된 것은 1866년 병인양요와 그 후 1871년 신미양요를 겪고 난 이후의 일이었다.

이러한 해방론은 대원군과 고종으로 이어지는 군사개혁의 차원에서 대두한 현실적인 해방대책이었다. 1866년 8월 프랑스 선박이 한강의 양화진에까지 침입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강화도 현지를 직접 찾아가 해안의 형편을 살핀 바 있는 강위의 해방책이 그 첫 머리를 장식한다. 그의 대책은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한 ‘양이적 침략’으로서 정약용이 주장했던 민보설치론을 계승하는 한편, 위원이 제기한 방어책

112) 이현주, 「문화개방 직전의 해안방위론과 국방개혁론」, 203~204쪽.

을 받아들여 서양 침략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어전략이었다. 전략전술적으로는 바다로부터 침입해오는 적을 내하 깊숙이 끌어들여 격파하는 강방(江防)의 개념이었고,¹¹³⁾ 강화도 방어시설의 강화와 전력의 조정, 그리고 무기 및 장비의 개량과 제조 등과 같은 군사력의 강화가 주요 골자였다.



현재 박규수

이와 같은 해방론은 이후 박규수와 양헌수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서양 세력과 충돌에 직면하여 군사작전에 참여했거나 어양책을 강구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관료들을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었다. 군사전문가인 박규수(朴珪壽, 1807~1876)는 중국에 가서 서양 세력으로부터 침략당하는 현실을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 사건 당시 직접 평양군민을 지휘한 인물이었다. 그는 1866년(고종 3)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침입했을 때 평양 군민을 지휘하여 미국 선박을 침몰시켰다. 그리고 신미양요 이듬해인 1872년에는 진하겸사은사(進賀兼謝恩使)로 중국에 가서 국제정세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서양이 동양의 유교문명에 귀의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었다. 그의 대외 인식은 동도서기론적(東道西器論的) 개화사상의 단초로 평가되고 있다.¹¹⁴⁾

113) 이헌주, 「병인양요 직전 강위의 어양책」, 『한국사연구』 124, 2004, 125쪽.

114) 김명호,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역사비평사, 2006, 447쪽. 김명호는 종래 연구에서 대원군이 배외정책(排外政策)을 추진한 데 반하여 박규수가 대미(對美) 수교를 원했다고 하여 마치 양자가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본 데 대하여 반대의 견



박규수의 문집 『한재선생집』

만류하고 통상관계의 수립을 거부하였다. 조선 측은 서면호가 적대적인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푸집한 음식물을 세 번이나 제공했다. 그런데 장맛비가 견히고 대동강의 수량이 줄어들자 서면호는 돌연 음식물을 약탈하는 해적선으로 탈바꿈했다. 게다가 조선인 이현익(李玄益)마저 납치하자 평양군민들은 서양인들의 만행을 규탄하며 적개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박규수는 서면호가 행패를 부리며 조금도 순순히 물러갈 기색이 없자 조정에 ‘무력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한 후 포격이나 화공으로 이를 섬멸하고자 했다. 그러나 포격으로 적 1명을 쏘아 죽이는 전과를 올렸을 뿐 화공에 의한 첫 시도가 실패로 그쳤다. 서면호 측에서

박규수는 제너럴서면호가 평양에 나타난 1866년 7월 초 평양감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¹¹⁵⁾ 그는 1866년 7월 6일(양력 8월 15일) 제너럴서면호가 평안도 용강현에 나타나서 평양부로 접근할 때 이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제너럴서면호 측의 통상 제의에 대하여 그는 ‘통상불가(通商不可)’의 원칙을 고수하며 대동강 소항강행을

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박규수와 관련한 풍부한 1차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종래 군사작전과 전투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한 연구 성과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수정하는 연구성과를 제출한 것이다.

115) 제너럴서면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연구로는 서인한, 『병인·신미양요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6, 155~171쪽; 김원보, 「서면호 사건과 미국 함대의 침입(1866~1871)」, 『동양학』 제28집, 1998을 참조.

밧줄로 엮은 그물을 교묘히 설치하여 화선(火船)의 접근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7월 22일 하루 종일의 전투로 서면호는 탄약이 거의 다 떨어지고 얇은 여울에 좌초되고 말았다. 이에 박규수는 본격한 군민들을 잘 지휘한다면 승산이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이튿날 서면호가 대완구와 조총을 쏘아대다가 하류로 물러나 정박할 즈음 다시 한 번 화공작전을 시도하고자 했다. 서면호의 높이가 3장이나 되고 선체의 주요 부분이 철제여서 매우 견고하므로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전술을 바꾼 것이다.¹¹⁶⁾

7월 24일 서면호가 조금씩 떠내려 오다가 얇은 여울인 양각도와 쑥섬 사이 대동강의 동남편 지류인 구진강에서 멈추었다. 조선군은 적들이 배에서 탈출하여 하륙하는 것에 대비하여 겸중군 백낙연과 서윤 신태정이 총수와 사수를 다수 징발하여 강 아래의 여러 곳을 차단했다. 정오 무렵 서면호에서 대포와 총을 발사하여 조선 군인 1명이 피살되자 이를 본 온 성의 인민들과 교졸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공격에 나섰다. 그리고 땀감을 실은 화선들로 하여금 동시에 서면호에 방화하게 하자 급기야 불이 옮겨 불기 시작하였다. 순간 서면호의 선체에 저장한 화약이 쿵 터지면서 검은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다. 미국인 20여 명이 사망하고 서면호와 종선이 전소되었다. 조선군의 승리였다.¹¹⁷⁾

116) 김명호,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55~64쪽.

117) 이때 사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규수는 서양문물을 직접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이 그의 서양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獻齋集』 卷10, 「與黃紉芸雲鵠」 丙寅 十月). 그날 그가 수집한 기계(器械)의 목록은 치계(馳啓)에 의하면 대완구 2좌, 소완구 2좌, 대완구환 3개, 철완 2개, 대소철연환 색 162파, 서양철 1,300근, 장철 2,350근, 그리고 잡철 2,145근 등이었다(『고종시대사』 1, 고종 3년 8월 8일).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종실록』 권3, 고종 3년 8월 8일 및 『일성록』 병인 8월 8일조 참조.

박규수가 서면호 사건에서 무력을 사용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의 결과였다. 그는 현지의 최고 행정지도자로서 가능한 한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현실적으로 쌍방의 무력에 현격한 격차가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그는 서양과의 분쟁에 대하여 군사력이 우세한 그들과 가급적 무력충돌을 피하여 개전(開戰)의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는 서양 침략에 맞서는 전략으로 전(戰)보다 수(守)를 강조했다. 이는 그가 위원의 『해국도지』를 숙독한 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은 제1차 아편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양과의 분쟁에서 수비를 하지 못하고서 전쟁도 화약(和約)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이다. 박규수는 ‘낭전’을 피하면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지구전을 펴는 ‘이수위공(以守爲攻)’, 즉 수비로써 공격을 삼아야 한다는 위원의 주장에 공감했던 듯하다.¹¹⁸⁾ 월등한 군사력을 지닌 서양을 상대로 무모하게 전쟁을 벌이기보다 수비 위주의 전략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박규수는 서면호 사건 이후의 사후대책으로 대동강 입구의 요해처인 급수문(急水門) 양안, 즉 평안도 용강현 다미면 동진(東津)과 맞은편 황해도 황주의 철도(鐵島)에 방어를 위한 진보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의 건의를 이룬바 ‘동진방략(東津方略)’이라고 한다. 그의 견해는, 토성의 유적으로 미루어 예부터 동진을 평양 방어의 요충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곳에 진을 설치하면 환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맞은 편 철도에도 진을 설치하여 협공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진을 설치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118) 김명호,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72~74쪽.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¹¹⁹⁾

첫째, 토성건설이다. 동진은 남·서·북 삼면이 모두 산이고 동쪽만 강을 접하고 있으며 갯벌에다 갈대밭을 이루고 있어, 여기에 토성을 쌓으면 몸을 숨기고 총을 쏘아 외침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포를 사용해서 석성(石城)을 파괴할 수는 있어도 토성(土城)을 뚫을 수는 없다는 것이 병가의 증험된 바라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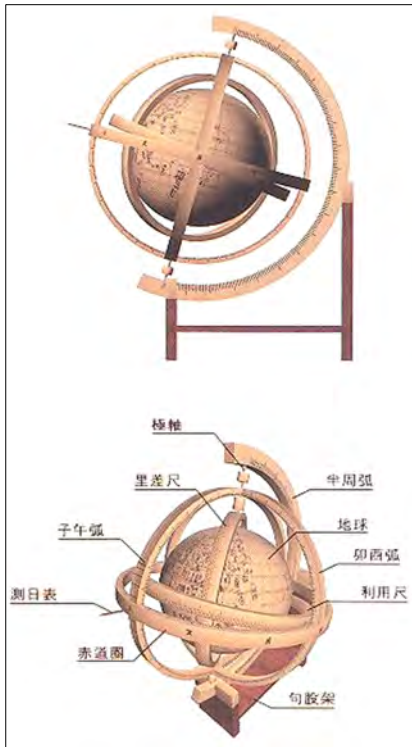
둘째, 병선의 건조다. 급수문에서 배가 밀물을 타고 쓴살같이 침입할 우려에 대비하여 병선 수척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병선은 평안도와 황해도의 대형 어선인 교선(橋船)을 본떠 만들어야 하며, 교선 모양으로 병선을 건조하여 50~60명의 병사가 은신해서 총포와 화기를 발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별포수의 배치이다. 보잘 것 없는 수효의 이교(吏校) 노졸(奴卒)에게 진을 맡길 수 없으며, 별포수 50명을 모집하여 급료를 후히 주고 사격술을 익히게 해야 한다. 절기적으로 경칩부터 소설까지 방어를 맡게 하며, 진내(鎭內)에 거주하게 하고, 매달 사격술을 시험보아 상을 준다는 방안이다.

넷째, 4개 진에 대한 혁파이다. 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평안도 내 중화의 성산진(城山鎭), 순천의 용연진(龍淵鎭), 개천의 금성진(金城鎭)과 용감의 황룡성(黃龍城)을 혁파하고, 이 4진에 지급하던 전곡(錢穀)을 신설되는 동진진(東津鎭)에 배속하게 하며, 이 외에도 별도의 조치에 의한 전곡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박규수의 ‘동진방략(東津方略)’은 당시 서양의 침입에 대비한 방책이라고 하겠는데, 위원이 『해국도지』에서 제시한 해구(海口)

119) 김명호,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82~83쪽.



환재가 제작한 지세의(地勢儀)의 복원도

를 주장한 것은 내지의 요충지 방어를 중시하되 전량(錢糧)을 낭비하는 곳을 폐지하여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전력집중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강방(江防)과 영액(嶺陴)은 모두 방어의 요지가 된다. 지금 만약 강방에만 전념하여 마침내 영액을 철거한다면 훌륭한 계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마침내 1867년 2월 ‘동진방략(東津方略)’의 핵심 정책인 동진과 황해도 철도의 설진(設鎭)이 추진되었다.¹²¹⁾ 2월 말부터 동진관아의 터를 닦기 시작하여 한 달 만에 건물

나 외양(外洋)보다 내하(內河)가 유리하다는 관점을 지닌 일종의 전수내하론(專守內河論)이었다. 병선의 건조에 관한 내용은 조선 후기에 강조된 해방론의 일부로서 선박의 크기와 탑승 인원의 증대를 고려한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다.¹²⁰⁾ 특히 별포수의 고용을 건의한 것은 병인양요를 계기로 태원군이 군사력을 강화하며 포군을 증설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종래의 향병 대신에 급료를 받으며 장기 주둔하는 포군에 대하여 전국적인 설치를 주장한 것은 주목할 내용이다. 그가 4개 진의 효과

120) 백기인,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95~96쪽.

121) 김명호,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110~111쪽.

이 완공되었고, 동진진의 건설은 그해 7월 완료되었다.

박규수는 군사무기 개량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1867년 9월 동진에서 대포 발사시험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는 그해 11월 18일과 20일 연광정(練光亭)에 올라 관람하는 가운데 대동강가에서 대포 발사시험을 하기도 했다. 동진의 시범이 토성만이 서양 대포를 막아내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이었다면 대동강가에서의 시험은 대포의 사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컨대, 그는 평시에는 주화론(主和論)에 입각하여 서양의 침입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위기 시에는 대원군의 양이책에 적극 호응하는 척화론자(斥和論者)로서 적극적인 해방론의 입장에서 실무를 처리했던 것이다.

한편 병인양요 당시 천총으로서 직접 정족산성 전투를 지휘한 양현수(1816~1888)도 자신의 실전 경험을 살린 해방책을 포괄하는 어용방략(禦戎方略)을 제시했다. 그는 전 4권 4책으로 이루어진 『하거집』을 남겼다. 그 가운데 일부의 자료가 군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1권에서는 우선 지방관으로서 변방지역을 경영한 실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삼정책(三政策)’에서 군정의 폐단을 논하고 있다. 그는 지방의 군사와 백성의 생활상을 지목하면서 “군정과 전부(田賦) 두 정사가 현재 보충하기에 급급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군사와 백성들이 농간당하



양현수 승전비



양현수 화서 이항로의 문하에서 수학한 위정척사론을 대표하는 군사 인물. 병인양요 당시 정족산성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조선 초기 국방사상의 대가인 양성지의 후손이며, 조부인 양완도 『악기도설』을 저술한 조선 후기의 병학자다.



양현수의 저술 '하거집'
(전쟁기념관 제공)

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특히 중간의 농간자들이 강화 진무영의 군수물자로 징수하던 포량미의 명목으로 백성 1인당 50~60냥을 받아 사슴을 잡는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을 개탄하였다. 양현수는 절용(節用)이 곧 애민(愛民)이며 군정을 목적에 합당하게 운용하지 못하는 것이 폐단의 근본임을 지적함으로써 민정과 군사를 연계적으로 인식하였다.¹²²⁾

또한 '토양박도주격(討洋舶都主檄)'이란 글에서는 병인양요에 참여하게 된 「출전일기(出戰日記)」와 함께 어용방략(禦戎方略)을 부록으로 삼아 정족산성 전투를 직접 지휘한 지휘관으로서 전투기록을 남겼다.¹²³⁾ 부록인 '어용방략'은 1871년 신미양요 당시

122) 『荷居集』 卷之一, 「策·三政策」

123) 「출전일기」는 또 다른 자료인 「병인일기」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원모 교수는 두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번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원모, 「병인일기의 연구」, 『사학지』 17, 1983, 193~232쪽을 참조. 최근 전쟁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 「병인일기」의 원본에 대한 서인한의 검토도 병인양요의 작전일지로서 군사사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서인한, 「병인양요의 작전일지, 『병인일기』, 『전쟁과 유물』 제3호, 2011을 참조할 것.

에 저술한 것으로 외적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 일종의 책략서다. 양현수는 “양이가 출현한 상황에서 군비를 갖추고 방책을 세워 대비한다면 수전에 약한 단점이 있는 그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다”면서 네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제시하였다. 양현수가 제시한 외적의 방비를 위한 책략은 다음과 같다.¹²⁴⁾

첫째, ‘거험설비(據險設備)’이다. 험준한 곳에 의거하여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현수는 강화·인천 등 해안지역에서 행주를 거쳐 수도권에 이르는 요지를 선정하고 그곳에 병력과 포대를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지형적으로 고파(高坡)와 교하(交河) 등은 집의 섬돌과 같아 지형이 평탄하기 때문에 요새가 될 수 있으며, 조강(祖江)의 북쪽 기슭 해문(海門)의 지역과 행주 이하 도척의 산에 목책(木柵)과 둔병(屯兵) 및 포군을 설치하고 연안의 외진 곳에는 가짜 군사인 의병(疑兵)을 설치하는 것이 만전의 계책이라 여겼다.

둘째, ‘병부재다 귀재정련(兵不在多 貴在精鍊)’, 즉 정예 병력의 양성이다. 군대는 병력이 많다는 것보다 오히려 실전적인 훈련으로 다져진 정예 병력이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정병사상(精兵思想)의 강조였다. 부대의 전투력은 오합지졸이어서는 안 되며, 정예로운 병사로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서지역의 활쏘기와 말 타기 및 대포 잘 쏘는 병졸을 부린다면 도성 수비를 담당하는 병력을 굳이 전속시키지 않더라도 대외 방어를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다.

셋째, ‘병기지원근(兵器之遠近)’이다. 즉 병기의 원근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무기를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현수는 병기의 원근이 군제에 의해서 검수되는 것이라면서 원거리를 사격하는 장병기인

124) 『荷居集』 卷之一, 「檄·附禦戎防畧」

화포(火砲)와 단거리 접전용인 도창(刀槍)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무기 대용의 농기구 등을 이용하여 지역 행정단위인 각 군(郡)에서 평소에 편리하게 준비하여 유사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넷째, ‘봉수보경(烽燧報警)’이다. 봉수에 의한 경보체계의 중요성과 미국 함대의 광성보 침공과 관련하여 당시 경보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미군의 광성보 공격에 대한 척후병의 보고가 늦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엄격한 규례 하에서 경보체계를 운용해야 하며, 낮과 밤의 봉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헌수가 제시한 서양세력에 대한 방략은, 요컨대 방어시설의 강화, 정예 병력의 육성, 평시 가용한 무기자원의 동원과 운용에 의한 준비태세의 완비, 그리고 조기 경보 및 통신체계의 엄격한 운영을 통한 경보체계의 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신미양요 당시 그가 평소의 근무 경험과 군사 지식에 바탕을 두고 정리한 현실적인 시무책이나 다름없었다. 그 무렵 나이가 비슷한 신헌과 교유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그는 군사 실무에 정통한 군사이론가였다고 할 만하다.¹²⁵⁾

이밖에도 『하거집』에서 양헌수는 군사에 관한 여러 사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예컨대, 관방(關防)의 중요성이나 북방의 요지인 갑산과 같은 지역에 대한 군사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성곽의 보수, 무기고를 비롯한 각종 창고의 보수와 주민에 대한 교육 등이 그것이다.¹²⁶⁾

이렇듯 양헌수의 해방책이나 어용책 등은 서양 세력의 침공을 막는 직접적인 전술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서양을 이해하고 나아가 근대적

125) 『荷居集』卷之一, 「書·上申留齋觀浩書」

126) 『荷居集』卷之二, 「記·甲州繕役記」

인 의미에서 해방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해군의 건설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한 한계가 있었다.¹²⁷⁾ 조선의 근대적인 해군 건설에 대한 관심은 갑신정변 전후로 청국의 조선 해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던 상황에서 1883년 조선 정부가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창설하고, 이후 1893년 강화도에 해군학당을 세워 근대적인 해군학교를 설립하면서 비로소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¹²⁸⁾

나. 외국 병서의 도입

쇄국으로 일관하던 조선 사회가 병인·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일대 동요를 일으켰다. 조선 정부는 대내적으로 군비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서양의 군사와 문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이때 아편 전쟁 이후 중국에서 간행된 서양의 역사와 지리 및 제도와 과학들을 소개한 『해국도지(海國圖志)』나 『만국공법』, 『이언(易言)』, 『격물입문』, 『중서건문록』 등의 서적이 조선에 알려졌다.¹²⁹⁾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조선 사회에는 그 대응을 놓고 중국식 양무자강운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과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따르자는 입장이 있었다. 사상적으로는 유교사상을 고수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채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동도서기론자(東道西器論者)도 등장했다. 그들은 사상이나 도덕은 우리가 서양보다 훌륭하다고 믿었기

127) 1876년 조일수호조규에 조인한 후 문호를 개방하면서 열강의 해양침략을 전통적인 해방책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조선 조정이 깨달은 후에도 조선은 청국이 자국의 해군력을 동원하여 조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장학근, 「조선의 근대해군 창설 노력」, 『해양제국의 침략과 근대 조선의 해양정책』,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 249쪽).

128) 근대 서양 해군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김재승, 『근대 한영해양교류사』, 인제대학교 출판부, 1997을 참조.

129) 이광린, 『한국사강좌』 5, 124~126쪽.

때문에 서양의 기술만 도입하면 된다고 믿었다. 견해마다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부국강병(富國強兵)을 고심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서양 군함에 대한 방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때문에 『해국도지』와 같은 서적을 전선(戰船)의 건조에 직접 활용하였다. 1867년(고종 4) 9월 주교사당상 이경순(李景純)의 주도로 약 6개월에 걸쳐 건조한 3척의 전선이 진수되었다. 국왕도 이를 보고 “아주 튼튼하면서도 가벼워 적을 방어하는 데는 이보다 나을 것이 없겠다”고 극찬했는데, 바로 『해국도지』를 참고하여 난파선의 잔해 등으로 서양의 기선을 모방하여 만든 전선이었다. 그러나 선박에 대한 더 이상의 개발은 없었고, 동진첨사 이종원(李鍾元)의 주장으로 대표되는 수전(水戰) 포기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기존의 선박을 해골선(海鰐船)이나 구선(龜船) 등의 모양으로 개조하자는 주장도 수전(水戰)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먼 바다를 정찰하는 초소 역할로 제한하자는 논의에 불과했다. 결국 대원군 집권기에는 수전에 대한 전략은 이종원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일종의 해상경계론 수준이었다.¹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현의 주도로 훈련도감에서 추진한 무기개발의 노력과 성과가 『훈국신조군기도설(訓局新造軍器圖說)』이나 『훈국신조기계도설(訓局新造器械圖說)』 등으로 편찬되었다.¹³¹⁾ 『훈국신조군기도설(訓局新造軍器圖說)』에는 수중에 설치하는 수뢰포가 실려 있

130) 연갑수, 『대원군 집권기 부국강병책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186~187쪽; 박성래, 「대원군 시대의 과학기술」, 『한국과학사학회지』 2-1, 1980, 11~12쪽.

131) 『훈국신조군기도설』이나 『훈국신조기계도설』에 대한 자료는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학예지』 제5집, 1997, 265~305쪽 참조.

는데, 그 제작의 동기는 제너럴서먼호 사건 이후 재래적인 화공전술로서 서양 침입자를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고 이를 보완하는데 있었다. 『해국도지』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았지만, 마반포차 및 쌍포양륜차와 쌍포 등에 관한 설명이 함께 실렸다. 그밖에 조선의 조정에서는 대포에 관한 서적으로 청의 정공진(丁拱辰)이 저술한 『연포도설(演礮圖說)』과 서양 선교사 아담 샬(J. Adam Schall Von Bell)의 설명을 듣고 초옥(焦勗)이 저술(1643)한 『칙극록(則克錄)』에도 관심을 가졌다. 정공진이 중국 화포기술상으로 최고의 수준에 이른 전문가였다는 점에서 조선의 조정에서 이를 참고하고자 했던 것이다.

신현이 지은 『자초신방(煮硝新方)』은 화약에 대한 기술 개발의 결과였다. 신현이 훈련대장으로서 각 지방에 보급하고자 한 이 책은 현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수뢰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해국도지』를 참고한 것으로 미루어 그곳에 실린 서양의 화약 제조법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²⁾

그 무렵 조희순(趙義純, 1814~1890)은 1869년(고종 3) 동양의 고전적인 병서인 『손자』에 대한 주해서로 『손자수(孫子隨)』를 펴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참모군관을 역임하고 후에 훈련도감의 천총 내금장과 변방의 병마절도사를 지낸 무장으로서 이 시기에 그가 손자에 대한 전문 주해서를 펴낸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의 다른 저서인 『산학습유』, 『중농병유예별집』, 『임하소식』 등에서도 드러나지만 조희순은 정통 성리학적인 지식에 기반을 둔 지병가다.

132) 연갑수, 『대원군 집권기 부국강병책 연구』, 202~203쪽. 연갑수는 당시 『자초신방』에 의하여 화약을 제조한 결과 이전의 제조법에 비하여 폭발력이 배나 증가했다고 했었지만(金奎洛, 『雲下見聞錄』, 亞細亞文化社, 33쪽), 그 책이 1698년(숙종 24) 간행된 김지남의 『신전자초방(新傳煮硝方)』을 재편집 간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 탐독하던 병서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들 조지현에게 병법을 가르치며 훈육하고자 주해를 단 것이었다고 했다.¹³³⁾

그러나 그가 『손자수』에서 병인양요 때의 체험을 결부시켜 해설을 가하고 있음에서 볼 때 서양과의 충돌 경험을 반추하면서 전통 병서의 가치를 재검토하고자 한듯하다.¹³⁴⁾ 그가 자신이 직면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전통 병서의 정화라고 할 수 있는 손자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설을 가한 것은 조선의 정통 병학에 대한 시대적인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1908년(융희 2) 출판된 『증보문헌비고』 권115의 병고(兵考) 조항에서 『손자수』를 역대의 조선 병서의 정통 계보를 잇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도 『손자수』가 조선 병학의 최종본격이었음을 말해준다. 조희순이 1869년 손자 주해를 저술한 이후 더 이상 손자에 대한 주석서는 없었다.

『손자수』가 간행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병략신론(兵略新論)』이 발간되었다. 발간 연대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 병서는 본문 중에서 1866년 병인양요 때의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 병인양요 이후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는 당시의 국방문제를 10개 조(제적, 군제, 충수, 충제, 충선, 조련, 전지, 진보, 민보, 군향)로 나누어 논하고 서구의 외적으로부터 조선을 방어하고 국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책을 정리하고 있다. 저자는 서양세력의 침략을 극복하는 것, 그

133) 조희상, 「19세기 병서 『孫子隨』 연구」, 『군사사연구총서』 5, 2008, 62쪽.

134) 조선 말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여 문무겸용과 무비강화를 강조하면서 『무비지』와 『기효신서』 등 각종 병가의 논설 등을 인용하거나 검토하고 자신의 소견을 피력한 경우가 잦아졌다. 해서병마절도사를 지낸 조우석(趙禹錫)이 1855년 저술한 『무비요람(武備要覽)』이 대표적인 예다. 『무비요람』(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1982년 일조각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한 바 있다.

것이 ‘병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¹³⁵⁾

『병략신문』은 모두 10개의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편 제적(制敵)에서는 적을 제어하는 방법을 논한다. 저자는 적의 장점이 정밀한 기계로써 군함과 대포와 망원경에 있고, 단점은 단병접전에 있다면서 적의 사격권 및 가시권의 밖에 포진하고 있으면 적은 싸우지 않아도 퇴패할 것이고 그들의 기계문명의 기술도 알고 있으니 우리도 몇 해 안가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제2편 군제(軍制)에서는 군 편제의 조직을 도식화하고 그 진법도를 나타냈다. 전통 편제로서 군사조직을 오도(伍圖)·대도(隊圖)·기도(旗圖)·초도(哨圖)·사도(司圖)·부도(部圖)·영도(營圖)·부도(府圖) 등으로 도식한 후, 이를 다시 오둔도(伍屯圖)·대둔도(隊屯圖)·기둔도(旗府圖)·초둔도(哨屯圖)·사둔도(司屯圖)·부둔도(部屯圖)·영둔도(營府圖)·부둔도(府屯圖) 등 각기 방진법과 원진법의 형태로 나누어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제3편 총수(銃手)에서는 부대의 기본이 되는 총수에 대하여, 제4편 총제(銃制)에서는 연발 및 다발의 조총에 대하여, 제5편 총선(銃船)에서는 포함에 대하여, 제6편 조련(操鍊)에서는 군사훈련에 대하여, 제7편 전지(戰地)에서는 지세에 따라 요해처를 먼저 점령할 것과 또 그 구축에 대하여 논하였다. 제8편 진보(鎭堡)에서는 국경 및 해안의 요새 구축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9편 민보(民堡)에서는 병인 양요 때에 양천, 김포, 통진, 부평 등지의 읍민들이 모두 이산하여 피난을 가느라고 가산과 곡식을 그대로 방치하고 텅 비운 예를 들어 지역단위의 방위에 민보제를 운영하여 산성 등을 구축·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제10편 군향(軍餉)에서는 군수물자의 조달

135)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1993, 경부, 자부, 259쪽.

및 운용 방법을 다루었다.

이후 일본을 통해서 전해진 근대적인 병서를 비롯한 군사학술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임진왜란 도중에 들어온 『기효신서』를 조선의 현실에 맞춘 『병학지남』이 군사교본으로 통용되었지만,¹³⁶⁾ 이제 새로운 군제의 도입과 더불어 군사교범에도 변화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병서와 전쟁사 관련 병학 서적이 계속 간행되었던 것은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제3절 군제개혁론과 부국강병론

가. 재조관료의 군제개혁론

19세기 중엽 이후 서양 제국의 개항 압력이 거세지면서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를 겪은 조선 정부는 외형적으로 쇄국정책을 고수했지만 서양세력의 가공할 만한 위력에 놀라 그 대책에 부심했다. 조선의 실질적인 집권자인 대원군은 병인양요 직후에 곧바로 군비증강을 서둘렀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군사개혁에 첫 발을 내딛은 대원군은 삼군부를 복설하고 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가 하면, 노약자로 가득 찬 16,000명의 오군(五軍)의 병력을 교체하고 훈련을 강화하며 군기를 숙정하는 등 조선군의 전력을 정비했다. 그는 기본

136) 백기인, 『조선 후기 국방론 연구』, 도서출판 해안, 2004, 231~233쪽 ; 백기인, 『중국군사사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6, 188쪽.

적인 병기나 병선의 보수 및 제조는 물론, 강화도에 수도방위를 위한 전초기지로 진무영을 설치하며 전력을 증강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의 성과는 기왕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일부의 무기·장비 등을 개량하는 것에 그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왕권강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군사 근대화를 시도한 첫 걸음이었음은 틀림없다.

대원군의 군사개혁을 주도한 인물은 신헌(申櫓, 1811~1884)이다. 그는 병인양요 당시 충용사로 프랑스군의 침입에 직접 맞서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양요가 종결된 직후 바로 훈련대장에 기용되었다. 병인양요 직후인 1867년(고종 4) 1월 16일 이른바 ‘군무6조의 경군 및 일반적인 방위체제의 개혁안’이 시행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1864년 정월에 올린 군제개혁안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신헌의 군무6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³⁷⁾

첫째, 서울의 군사를 하나로 묶어서 훈련한다(京兵團操). 정병양성이 절실하며, 경병(京兵)은 오합지졸과 같이 기율이 없는 상태이고 군기예마저 녹슬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훈국의 정병 26초(哨, 1초=약 125명) 중에서 협련군(挾輦軍), 별파진, 기타 잡색을 따로 뽑아서 부대를 편성함으로써 순수한 정병 20초를 만들어 대오를 정제한 다음 엄격한 규율을 세워 습예와 습진을 계획에 따라 행하며, 우수한 자에게는 승진과 증록으로서 시상해야 한다. 그리고 총기나 화약 등은 때에 맞추어 만들되, 화약을 제조하는 새로운 방법을 인출하여 각 고을에 보내어 스스로 많은 화약을 만들어 비축하도

137) 『승정원일기』, 고종 4년 1월 16일 ; 이병주, 「대원군의 등장과 군비강화」,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후기 편』, 267~268쪽.

록 한다.

둘째, 향포수(鄕砲手)를 선발하도록 장려한다(獎選鄕砲). 군의 전기로는 총수(銃手)만한 자가 없는데, 특히 서북지방의 총수가 우수하다. 후한 능료와 영예로운 관직으로 우대하며,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각각 100명씩 시취하여 뽑아 올려 별초로 만들고 두령을 세워 운용해야 한다. 훈련도감에서 봄가을에 도시로 선발하여 우수한 자를 본 지방(本地方)에 변장으로 내보내면 방수에 유익할 것이다.

셋째, 민보를 쌓도록 한다. 지형상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외적의 왕래가 빈번하여 경병에 의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연변 각읍의 군현에서는 민보를 설치하며, 위급할 때 민보에 들어가 스스로 청야하며 적을 막는다. 관병을 대신하여 적을 막는 것으로 민간의 자보자위체제(自保自衛體制)의 골간으로 민보를 채택하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넷째, 북쪽 변경에 군사를 만들어 둔다. 북쪽 변경의 군현에 대오를 편성하여 스스로 지키도록 해야 하며, 다섯 집으로 통(統)을 만들고 열 집으로 패(牌)를 만들되, 5가에서 1정(丁)을 내어 민병제도를 운영한다. 예컨대, 함경도 지방에서만도 1~2만의 군사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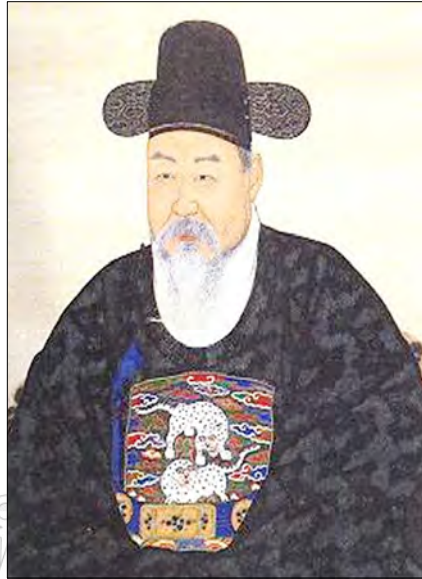
다섯째, 내정(內政)을 잘 닦는다. 국왕이 백성의 마음을 잘 살피고 내정을 잘 닦으면 천하의 변란을 막을 수 있다. 평소 서정(庶政)을 잘 하는 것이 병을 강하게 하는 근본이다.

여섯째, 오랑캐들이 변란을 일으키는 것을 살펴서 해아린다. 외적의 동정을 주의깊게 살펴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결국 신헌이 주장한 군무6조는 정병양성을 제기하며 서울의 군사를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선봉군의 양성을 위해 서북지방의 포수를 선발 장려하며, 민보의 축조를 권장하며, 북쪽 변경에

군사를 양성하며, 내치를 닦고, 그리고 국외 정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외적의 변란에 대비해야 한다는 군비강화책이었다. 실학자들의 군제개혁론을 수용한 그는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를 원칙으로 한 조선 초기의 오위제를 복구하고 군역의 대상을 확대하여 귀천의 구분없이 군역을 균등하게 분배하며 군부(軍賦)를 가호 단위로 부과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¹³⁸⁾

신현의 군사개혁론은 그가 스스로 ‘제병론(制兵論)’이라고 이름했는데, 군정(軍丁)의 대상을 어떠한 대상으로 하며, 첨정(僉丁)된 군정의 양병목적(養兵目的)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제병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제병 그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오군영제(五軍營制)를 비판하며 병제 개혁을 거론한 것이 특징이다.¹³⁹⁾



신현은 1876년 조선 왕조가 맺은 최초의 대외 조약인 강화도조약 체결 시 조선 측의 총책임을 맡았다.

“개방을 외면한 채 성공한 역사는 없다. 개방에는 이익과 손해가 공존하게 마련이다. 치열한 검토를 거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극소화하는 것이 기본전략이다. 서세동점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고종은 대원군에게 무조건 반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문호 개방 그 자체에 집착했다(이덕일, 조선 왕을 말하다②, 422쪽).”

138) 정해은, 『조선후기 국토방위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227~228쪽.

139) 권정의, 「신현의 군제개혁론」, 전남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987, 13~21쪽.

신헌의 견해는 조선 후기의 병제가 조선 초의 병농일치(兵農一致), 양인개병(良人皆兵)의 원칙이 용병제로 변화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었다. 그래서 고래의 병제와 조선의 병제를 비교하면서 크게 ‘제치의 병(制治之兵)’과 ‘어란의 병(禦亂之兵)’을 나누고, 전자를 좋은 제도 곧 ‘삼대의 병(三代之兵)’, 후자를 나쁜 제도 곧 ‘후대의 병(後代之兵)’이라고 평가하였다. 그의 견해는 양인을 중심으로 한 “개병주의(皆兵主義)”의 구현을 강조한 것이 핵심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당(唐) 나라의 부병제(府兵制)와 같이 균전제(均田制)에 기반을 둔 병농일치의 군제를 이상적인 병제로 본 반면, 주(周) 나라의 병제는 토지제도에 기반을 두지 않은 나쁜 병제로 인식했다.¹⁴⁰⁾ 따라서 조선 초의 오위제(五衛制)가 군역의 대상자를 양인개층(良人皆層)으로 하고, 번상(番上)은 번차에 따르며 유고시나 수자리를 서지 못하는 자는 납포(納布)하기 때문에 역을 피하는 일이 없어 이를 삼대의 병이라 간주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위제가 국민개병의 성격을 띠며, 양병의 목적이 제치(制治)에 있어 군제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오군영제를 비판하고 그 개혁의 방향을 오위제의 복구에 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그의 오위제 복구론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잘 드러난다.¹⁴¹⁾

“오위제가 변하여 지금의 오군영이 되었다. 오군영을 비교하면 당의 황기나 고려의 별초다. 요체가 적을 죽이고 막는데 있으니 난을 막지 않을 수 없고 적을 또한 죽이지 않을 수 없다면 어찌 그 설치한 본뜻도 또한 잃지 않았으리요? 지금

140) 부병제와 병농일치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백기인, 『중국군사제도사』, 국방군사연구소, 1998을 참조.

141) 『申大將軍集』 2책, 「琴堂未定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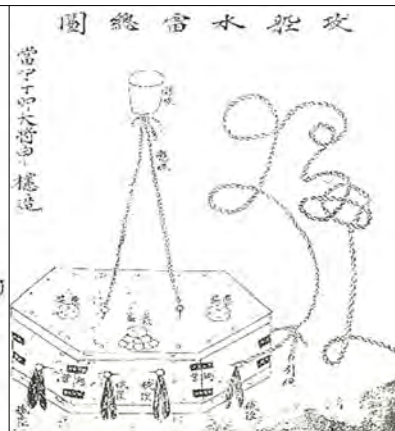
양역의 폐가 끝이 없고 나라에 군대가 없어 인군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고쳐야 국가를 도모하는 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까 두렵다.”

그의 견해는 근본적으로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병제를 제안한 것이었지만, 대원군 집권기에 바로 국민개병제가 실현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오위제가 병농일치제로서 국민개병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시 세계의 보편적인 추세인 근대적 징병제에 의한 국민개병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치형태에 대한 검토 없는 개병주의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전통적인 군제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군사개혁안 일부가 대원군 집권기의 군비강화책으로 채택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헌은 대원군 집권기의 군사개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경병(京兵)의 개혁과 포군의 설치를 중심으로 한 지방군제의 정비, 그리고 서양의 군함에 맞설 수뢰포(水雷砲)와 마반포차(磨盤礮車)를 비롯한 각종 무기와 장비 등을 개선하여 군사 근대화에 기여했다.¹⁴²⁾ 이



신헌이 제작한 마반포차



신헌이 제작한 수뢰포

142) 연갑수,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 164~169, 179~180쪽.

는 그가 새로운 국방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서양식 신무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한 관심은 결국 그로 하여금 『해국도지를 참조하여 서양의 군함에 맞설 수뢰포와 마반포차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수뢰포가 서양 함선을 격침시키는 화기라면, 마반포차는 대포를 운반하기 위한 기구였다. 특히 마반포차는 기존의 포차들이 대포의 편각(偏角)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포차를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포차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대포의 편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데 기술적 의의가 있었다.¹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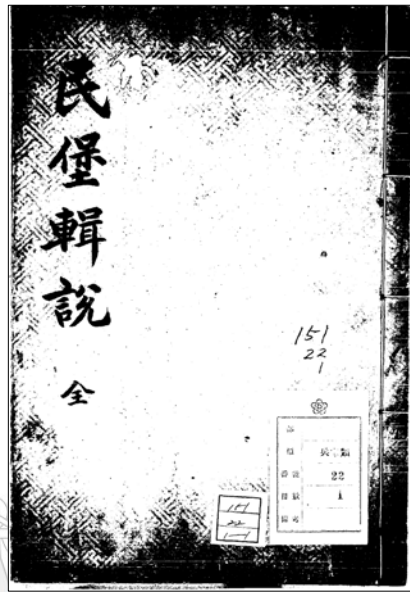
신현의 군사론은 당시 민보에 관한 여러 문헌을 함께 모아 1867년 2월 『민보집설(民堡輯說)』로 활자화되었다.¹⁴⁴⁾ 『민보집설』의 서문에 의하면, 이 책은 민보에 관한 여러 문헌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두었다가 그 책 중에서 다시 필요한 부분만을 가려 새로운 목차를 만들었다. 총 5개의 장으로 엮어져 있으며, 각 장마다 인용한 서문을 밝혔다. 정약용의 『민보의(民堡議)』를 가장 많이 참조했고 윤경의 『보약』, 『성수서(城守書)』 등도 인용했다. 정약용의 『민보의』를 전제하다시피 했으므로 『민보집설』은 신현의 독창적인 견해가 집성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당시 국방의 최일선에서 활약한 현직 고위 관료가 편찬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병인양요를 겪은 후 국방력의 증강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려는 조선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현의 민보론은 고종에 의해 채택되어 민보령(民堡令)으로 발전했다. 제안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적용할 국방력 강화의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신현이 재래적인 전

143) 연갑수, 『대원군 집권기 부국강병책 연구』, 195쪽.

144) 정해은,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494쪽.

락이라 할 민보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 서양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력을 키운다는 의미보다 민간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방위력을 향상시킨다는 데 중점이 있었다. 민보령이 내리고 『민보집설』을 간행하여 각도에 배포하여 실행하고자 했던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강원감사 조구하(趙龜夏)의 보고대로 강원도 26개 읍 가운데 민보를 설치하겠다는 읍이 한군데도 없을 정도로 민보령은 실효적이지는 못했다.



민보집설의 표지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제공)

결국 내우외환의 시대에 군무를 담당한 신헌이 제시한 시무책이나 군사개혁론은 분명 새로운 시도였지만 여전히 본질적 개혁이라기보다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보편적인 의미에서 군사적 근대화와는 거리가 있는 부분적 개선이나 개량에 가까운 조치였다. 특히 그가 제시한 민보론은 신식 화기로 무장한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응할 실제적인 방어책으로서는 그것이 ‘전민적 방어전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분명했다.¹⁴⁵⁾ 그러나 조선 후기 군사사상의 방향이 민보론적 성격과 결합되어 갔던 상황을, 개인의 병학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낮았다거나 혹은 의식의 보수성의 결과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145) 정해은, 『조선후기 국토방위전략』, 185쪽.

보기는 어렵다. 당시 군사 근대화의 한계는 사상의 문제라기보다 실제적인 능력, 곧 재정과 국력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나. 개화파의 부국강병론

서세동점의 상황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놓고 조선의 개화파 지식인들 간에 분화된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국식 양무자강운동을 따르고자 하는 입장이 있었는가 하면,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따르고자 하는 입장도 있었다. 사상적으로는 유교사상을 고수하면서 서양의 기술만을 채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도 나타났다. 그들은 사상이나 도덕은 우리가 서양보다 훌륭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서양의 기술만 도입하면 된다고 믿었다.¹⁴⁶⁾ 이러한 입장들은 서로 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가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¹⁴⁷⁾

조선에서 위정척사파로 대표되는 최익현(崔益鉉, 1833~1906) 같은 인물은 부국강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소중화(小中華)를 명분으로 당당히 지켜나갈 것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부국강병은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고종의 친정체제가 들어서자 부국강병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재정적으로 고종의 지원을 받아 창간된 『한성순보』에서는 부국과 강병의 관계

146) 서양의 군사적 도전이 현실화되자 조선의 지식들 사이에서는 위정척사류의 존화양이론자로부터 동도서기론자, 나아가 개화론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일어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원영, 「개화사상의 구조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를 참조할 것.

147)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서양의 기술을 부국강병의 수단으로 인식했음은 1883년 10월 21일자 『한성순보』의 「전보설(電報說)」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 “오호라 세상에 전선이 나타난 이래 나라의 부강과 병의 승패는 모두 여기에 달려 있다.”

와 부국강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명하고, 조선의 생존을 위해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과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다.¹⁴⁸⁾

“대저 병(兵)이란 흉기(凶器)이다. 그러나 그것이 흉한 것인줄 알면서도 반드시 양성하는 것은 마음대로 폭력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난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급선무이기도 하지만 병만 단순히 양성할 수만은 없다. 반드시 재정이 충분해야 한다. 이로써 각 국에서 혹은 세금을 무겁게 거둬들이기도 하고, 혹은 국채를 많이 모집하여 비용에 충당하는데 그 수요가 매우 크다.”¹⁴⁹⁾

“대체로 부(富)란 강(強)에서 나온 것이요 강은 또한 부를 이루는 것으로, 부와 강이 서로 인연하고 강과 부가 서로 도와서 다시 일국의 부강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부강을 겸병하고, 천하의 부강을 수합하여 일국의 부강으로 돌렸으니, 이것이 바로 태서(泰西)의 부강이 드디어 천하에 으뜸이 되고, 천하의 부강이 모두 태서에 손색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하늘이 과연 저들에게만 후하게 하고 우리에게만 치우치게 인색한 것인가. 오직 저들에게는 먼저 액운을 내렸다가 나중에 형통하게 하였을 뿐이다.”¹⁵⁰⁾

조선의 현실이 그러했지만 열강의 조선 침탈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조선인들은 국력과 군사력의 상대적 우열이 국가의 생존에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결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적인 현실에서 조선도 예외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중화주의에서 탈피하여 서양을 이적시하지 말고 그들의 선진적인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룩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었다. 이 같은 조선인들의 인식적 전환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만

148) 김영호, 「근대 한국의 부국강병 개념」, 『세계정치』 25-2, 2004,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42~45쪽.

149) 『한성순보』, 1883년 12월 29일.

150) 『한성순보』, 1884년 1월 8일.

으로 열강의 침탈을 막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찍이 어윤중은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와서 고종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국제 정세를 전하며 일본이 추진하던 부국강병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그는 조선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구의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내의 상공업을 진흥하며 국민개병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부국강병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의 방법으로서 재정관할권의 중앙집권화와 해운업의 중흥, 관세자주권의 회복 등을 강조하였다. 어윤중이 제시한 부국강병론에서는 이미 위정척사파적인 ‘이념국방’의 문제가 완전히 극복되고 있었다. 유길준 또한 『서유견문』 제5편에서 유럽과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보다 부강한 이유를 정치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⁵¹⁾

본래 ‘부국강병’이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영토의 확장을 위하여 강력한 군대가 필요함을 역설하던 군사력이 국부를 낳고 다시 국부는 군사력을 강화한다¹⁵²⁾는 고전적인 논리를 발전시킨 개념이다. 조선 왕조에 와서 유자들에게 부국강병은 대체로 제왕의 대도(大道)가 아니고 패술(霸術)로 보아 부정적인 가치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주로 부국안민(富國安民)과 방어용 군사력 증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했을 뿐 부국강병책을 통한 팽창정책에는 반대의 입장이 지배적이었다.¹⁵³⁾ 그러나 조선 말의 개화파들은 조선의 개혁정치와 부국강병을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근대국가를 위한 수단으로서 부국강병을 인식하였다.¹⁵⁴⁾ 당시 부국강병은 서구 근대국가

151) 김영호, 「근대 한국의 부국강병 개념」, 52쪽.

152) 『戰國·秦策』 “欲富國者，務廣其地，欲強兵者，務富其民.”

153) 김영호, 「근대 한국의 부국강병 개념」, 39~41쪽.

154) 개화파들의 군제 개혁구상은 1884년의 정령을 통하여 제시되었다. 그 골자는 군사

의 형성과정에서 ‘군사국가’와 ‘경제국가’의 특징을 담은 구호로 상징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회가 부국강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막대한 재원의 창출, 증세에 따른 민(民)의 저항과 반발, 경제제도의 개혁 등 기득권층의 이익과 상충될 때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서구식 부국강병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등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개화론자들 사이에서도 부국강병에 대한 접근 법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였다.¹⁵⁵⁾ 그 하나는 김윤식으로 대표되는 둔전제(屯田制)를 실시하여 재원을 확보하자는 주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박영효로 대표되는 국가예산에서의 국방비를 확보하자는 주장이었다. 박영효는 기존의 조세제도를 개선하여 중간 관리층의 착복과 횡령 등의 폐단을 시정하고 기존의 면세 계층에 새로운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부 자체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이는 조세 저항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강력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명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박영효는 부국강병의 구상을 기존의 유학적 사유에 입각한 전통적 개혁론과 서구 근대국가의 군사·경제 제도적인 측면을 복합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시켰다. 그는 보국호민(保國護民)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군주는 기존의 학민(虐民)

조직의 일원화를 목표로 하여 종래 4영을 1영 체제로 전환하고, 근위대를 설치하며, 최고 통수권자로서 육군대장에 왕세자를 추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 군제를 모방한 개혁안으로 1883년 박영효가 양성한 남한교련병대는 그러한 군제 구성안을 반영한 군사조직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차선헌, 「1884년 정령의 군제 개혁구상과 성격」, 『역사와 현실』 제30호, 1998, 115~147쪽 참조.

155) 김현철, 「박영효의 근대국가구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199쪽.

에서 애민(愛民), 여민동락(與民同樂)으로 변모되어야 하며, 관료들은 도절국재(盜竊國財), 강탈민재(强奪民財)에서 벗어나서 법치(法治)와 양생(養生)을 통하여 보민(保民)하고 강병과 치안을 통하여 호국(護國)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곧 군주와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보국호민(保國護民)을 제시하고, 군인들에게는 유교적 가치관으로서 충성을 이끌어 내어 군대의 통합과 사기양양을 도모할 것을 제시했던 것이다.¹⁵⁶⁾



박영효

그러나 박영효와 김옥균 등 개화파들의 개혁 구상은 갑신정변의 실패로 정치적인 현실에서 바로 구현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효, 김옥균, 김윤식, 어윤중, 유길준 등 개화파들의 개혁정치의 구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록 정변의 실패로 망명의 신세로 전락했지만 다시 1894년 갑오경장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개화적인 사상과 행동’은 현실과 깊은 연관을 맺었다. 일본의 강제적인 개입과 영향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조선의 국내 정치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근대적 국제질서로의 전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개화파 인사들에게는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부터 1894년 갑오경장의 실시 이전까지 약 10년간이 오히려 조선의 개화운동과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을 가다듬는 재충전의 기회였다. 김옥균이나 박영효가 남긴 『갑

156) 김현철, 「박영효의 근대국가구상에 관한 연구」, 201~202쪽.

신일록』 『지운영사건규찬상소문』 『국정개혁에 관한 건백서』 등은 그러한 일면을 잘 보여준다.

그 가운데 박영효가 1888년 2월 24일 완성한 『국정개혁에 관한 건백서』가 주목된다. 이 문건은 상소문으로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대체로 ‘국정개혁에 관한 건백서’라고 한다.¹⁵⁷⁾ 일본 망명 이후 정치활동을 하기보다 거의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박영효는 여기에서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국내정치체제에 대한 개혁 구상 등을 담은 부국강병론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개인적인 구상이라기보다 당시 일본에 체류 중인 개화파 인사들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김옥균이 쓴 『지운영사건규찬상소문』 등과 상당한 부분에서 공통된 점이 엿보인다.¹⁵⁸⁾

박영효가 구상한 부국강병론은 『국정개혁에 관한 건백서』의 제2항 “흥법기안민국(興法紀安民國)”의 중간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국내정치의 개혁을 위하여 국왕이 추구해야 할 정책의 방향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서 이를 공식적인 국가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삼가 다음의 명을 받들라. 선행을 하는 사람과 재주와 덕이 있는 사람은 비록 신분이 낮은 사람일지라도 상을 주고 관직에 등용시킬 것이다. 악행을 하는 사람과 재주와 덕이 없는 사람은 비록 신분이 귀할지라도 벌을 주며 관직에서 쫓아낼 것이다.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가볍게 함으로써 백성

157) 『국정개혁에 관한 건백서』는 『일본외교문서』에 실려 있는데 한국어로는 한국사자료선집본 - 역사학회 편, 『한국사자료선집 - 최근세 편』(1975. 1)이나 신용하·이광린 편저,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 근대 편』, 일지사, 1989 및 김갑천 역, 「박영효의 건백서 - 내정개혁에 관한 1888년의 상소문」, 『한국정치연구』 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0 등을 참조.

158) 김현철, 「박영효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군사』 34, 1997, 250쪽.

들을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농업과 양잠을 권하며, 상업과 공업을 진흥시킴으로써 백성들을 굶주림과 추위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문덕을 닦고 무비를 가다듬어서 백성들이 편안하고 국가가 태평하도록 만들 것이다.”¹⁵⁹⁾

앞에서 보듯이, 박영효가 제시한 부국강병은 공화제가 아닌 왕정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이미 그 내용상으로 국가의 존재를 민의 생업적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왕정체제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다. 비록 정치체제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국가의 강병(强兵)에 관한 임무와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였다. 제5항의 “무비를 갖추어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켜야 한다(治武備, 保民護國)”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가 제시한 강병에 관한 견해는 초기 개화파가 주장한 ‘서구식 근대 군대 육성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통적인 군제개혁론의 주장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무(武)를 인간의 기력(氣力)에 비유하면서 군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병력이 아니라 군대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¹⁶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무(武)라는 것은 무릇 사람의 기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력이 없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없으며, 또한 남으로부터 모욕을 받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국가가 무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안으로는 정치를 행할 수 없고, 밖으로는 이웃 나라와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력은 있으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위태로워지며, 나라에 무비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병사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므로 군대에 있어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숫자만 많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59) 『日本外交文書』 21卷(東京, 日本 國際連合協會, 1949), 297쪽(김현철, 「박영효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263~264쪽에서 재인용).

160) 김현철, 「박영효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264쪽.

박영효가 말하는 무란 국방과 군사 혹은 군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는 국가가 인체에 비유된다면 무를 인체의 기력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무비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수의 다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무비의 질을 강조한 것은 일종의 정병주의(精兵主義)의 사상을 드러낸 것인데,¹⁶¹⁾ 그는 군대의 규율을 중시하고 이를 위하여 인과 의 그리고 예 등 유교적 가치를 병사들에게 심어주어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해 전쟁에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강병에는 선결조건이 필요하며, 그것이 병사(兵事)에 있어 신속함을 위해 군량미 등 군수물자를 비축하며 군사용 수송 목적을 위해 도로를 넓히며 그 규격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박영효는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서북지방의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대원군 집권기에 군사개혁을 주도한 신현의 군무6조 4항(北沿制兵)과 합치된다. 또한 그는 강병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으로서 다음의 10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¹⁶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군사학교의 설립과 해외 유학생의 파견
2. 양병 비용을 세입에서 확보
3. 병조로의 명령 체계의 일원화
4. 군대의 법률 개정
5. 모병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병역근무기간의 제한

161) 전통적으로 동양의 고대사회에서는 징병제 아래에서 군사 양성의 정병주의가 강조되었다. 그러다가 전국시대에 들어와서 세병제나 징병제가 붕괴되자 모병제를 채택함으로써 전문 병사의 선발·확보에 치중했다. 결과적으로 모병제에 의해서 실질적인 정병주의의 실현이 이루어진 셈인데, 기격(技擊), 예사(銳士), 무졸(武卒)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존재다(백기인, 「고대 중국의 군사조직과 진법운용」, 『군사』 36, 1998, 241쪽).

162) 김현철, 「박영효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264~268쪽.

6. 수군의 중흥
7. 무기고의 보수 및 무기의 수선
8. 수만의 군대 양성을 통해 국내치안의 대비
9. 서북지방의 경비 강화
10. 장수와 병사들의 사기 진작”

이러한 내용은 갑신정변 당시까지 조선에서 논의된 군사문제와 각종 개혁안을 그가 1883년 광주유수로 재직할 당시 군대를 양성해 본 경험과 합쳐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그는 정조의 유지를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수어영에 교련병대를 설치하고 일본식 군대훈련을 실시했는데,¹⁶³⁾ 그가 제시한 10가지의 강병 양성을 위한 제안은 결국 군사교육, 양병을 위한 재정 소요, 법령체계, 모병의 제도화와 운영 방식, 수군 등 제 군종에 대한 이해, 무기와 장비의 관리 및 운영, 나아가 지리적인 방어중점 지역이나 장병들의 사기문제 등에 이르는 양병과 용병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한 것이었다. 그의 군사에 대한 견해는 10개의 조항으로 압축되어 있지만 근대적인 군사의 양성과 운영의 방식을 잘 이해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박영효의 군제개혁 방안은 갑오경장의 과정에서 그가 내무대신으로서 추진한 군제개혁을 통하여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군이 1894년 궁궐에 침입하여 강제로 군영을 무장 해제하고 친일내각인 김홍집 내각을 성립시켜 일본의 영향 하에서 일본식 군제로 개편해 가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박영효는 제1차 개혁으로 의정부관제에서 군무아문(軍務衙門)을 설치하고 그 직능을 “전

163) 광주유수 박영효가 직접 수어영에서 교련병대를 훈련시킨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고종은 1883년 10월 1일 전교를 통하여 남한산성의 교련병대를 어영청에 이속시켜 연습시키도록 했다(『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10월 1일). 얼마 후에 박영효는 광주유수직을 사퇴했는데,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듯하다.

국이 육군·해군의 군정을 통할하며 군인·군속을 감독하며 관내 제부를 통솔한다”로 규정하며 아문 밑에 군무·친위·진방·해군·의무·기계·군수·회계 등 8국(局)을 두어 관제를 정비했다. 하지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에 이미 군대가 무장해제를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국왕과 조선의 관리들이 일본 측의 주권침탈을 비난하고 구미의 외교사절 역시 이에 동조하자 일본군은 조선군의 재무장에 동의하고, 소총 20정을 주어 옛 장위영 소속 일부 군대를 훈련시켜 교도중대(敎導中隊)를 편성했을 뿐 전반적으로 일본 측이 조선군의 재무장이나 군제개혁을 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제한적이었다.¹⁶⁴⁾

그런데 박영효가 단행한 군사개혁의 조치는 조선군의 전통 군사제도를 완전히 혁파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다. 1894년 12월 17일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에서는 칙령 제5호로 호위청·통위영·통어영·경리청 등의 기간 부대와 친위군인 금군무예별감·별무감이 군영을 완히 혁파하고 군무아문에 소속케 했으며, 그해 12월 30일 칙령 10호로 육군장관직제를 공포하여 계급과 명칭을 새롭게 제정했다. 그리고 1895년 4월 20일 칙령 55호로 군부관제를 공포하여 대신관방·군무·포공·경리·군법·의무 등 6국으로 개편하고 동시에 칙령 68호로 그 봉급도 정했던 것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박영효와 군무대신 조희연 사이에 훈련대 설치를 둘러싸고 대립이 있었지만 박영효는 과감하게 군제개혁을 추진해갔다. 박영효가 추진한 군제개혁은 세 가지였는데,¹⁶⁵⁾ 우선 훈련대를 6개

164) 이광린, 『한국사강좌』(근대 편), 일조각 1980, 351~352쪽.

165) 『韓末近代法令資料集』 1(國會圖書館, 1970) ; 『舊韓國官報』 3(開國 504년 5월 20, 22, 30일)

대대로 확장하는 것과 훈련대 외에 공병·치중대·기마병 등 특과대를 편성하는 것, 그리고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훈련대 사관양성소 관제(訓練隊士官養成所官制)를 공포한 일이었다. 특히 장교의 양성을 위하여 신분의 귀천을 불문하고 일반으로부터 학도를 모집하여 3개월 교육 후 참위로 임명하도록 했고, 소장은 군부 군무국장에 예속시킴으로써 군 지휘부와 교육관계자를 동일한 지휘체계 하에 편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1895년 7월 7일 반역음모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망명하게 됨으로써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 조선군은 조선의 국정 한 중심에서 변모하고 있었으며, 군사제도적으로 군편제, 병종, 군령·군정기관, 군사법, 군대계급, 군대용어 등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해갔다. 군대의 편성은 구 군제의 대오(隊伍) 체제에서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체제로 바뀌었고, 병종 또한 보병, 기병, 포병, 공병, 치중병, 헌병, 의무병 등이 생겨났다. 군령·군정기관으로 군부의 국·과 체제, 원수부체제 등이 나타났으며, 군사법으로 장교분한령, 군징계령, 위수령 등이 나타났다. 계급으로는 장교와 하사관의 구분이 이루어졌다. 장교는 위관·영관·장성으로 구분되었고, 참·중·정으로 3등분한 계급구조가 형성되었다.¹⁶⁶⁾

166) 정구복, 「갑오개혁 이후의 신군제」,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후기 편』, 335쪽. 1895년(고종 32) 칙령 제55호로 그해 3월 26일 관제를 고쳐 병조(兵曹)를 고쳐 군부(軍部)로 개칭하고, 대신(大臣)·협변(協便)·국장(局長)·과장(課長)·주사(主事) 등을 두었으며, 무관의 칭호를 장교에서 하사병졸로 두되, 장관(將官)으로는 대장, 부장, 참장, 영관(領官)으로는 정령, 부령, 참령, 위관(尉官)으로는 정위, 부위, 참위, 그리고 하사(下士)로서는 정교, 부교, 참교 및 병졸로는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등을 두었다(신광식, 『대한국군발달사』, 동원문화사, 1959, 53~54쪽).

제 2 장

대한제국군과 병학의 발전

제1절 대한제국의 군제개혁

제2절 병학체계의 형성과 군사교육

제1절 대한제국의 군제개혁

가. 대한제국군의 형성과 성격

1894년 갑오변란과 갑오·을미개혁, 1896년 건양개혁, 1897년 광무개혁을 통한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조선의 군사제도는 ‘근대적인 변모’를 한 듯했지만 실제로는 제도상의 개변만을 거듭하면서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 해산되는 비극을 맞이하였다. 한말의 조선의 군대는 1894~1895년까지 일본군제, 1896~1899년까지 러시아군제를 수용했다. 그러나 정국의 변화 속에서 제도적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잦은 개편을 반복하다가 고종이 직접 나서 1899~1904년까지 자주적 개혁을 위한 노력을 펼쳤지만 결국 1904~1907년 사이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열강들은 그때그때마다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군제의 편제와 군사훈련 등에 간여하면서 조선군의 운영을 좌지우지하였다.¹⁶⁷⁾



고종 황제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군이 소요를 일으키자 청일 양국은

167) 정구복, 「갑오개혁 이후의 신군제」,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후기 편』, 336쪽.

동시에 출범했는데,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조선에 일본식 내각제를 도입한 친일정권을 세웠다. 조선의 기존 군영은 ‘갑오경장’을 통해서 모두 군무아문 아래로 편입되었고, 바로 그해 8월 일본은 친일 내각을 구성하고 훈련대를 창설하여 3개 대대 약 1천명의 부대를 편성하였다. 이에 맞서 고종 측은 이듬해 윤 5월 시위대를 신설하고 궁중 시위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10월 8일 명성왕후 시해사건이 일어나자 훈련대와 시위대 간에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친일 내각은 시위대를 훈련대에 편입하려 했으나 오히려 고종이 훈련대를 해산하는 데 성공했다.¹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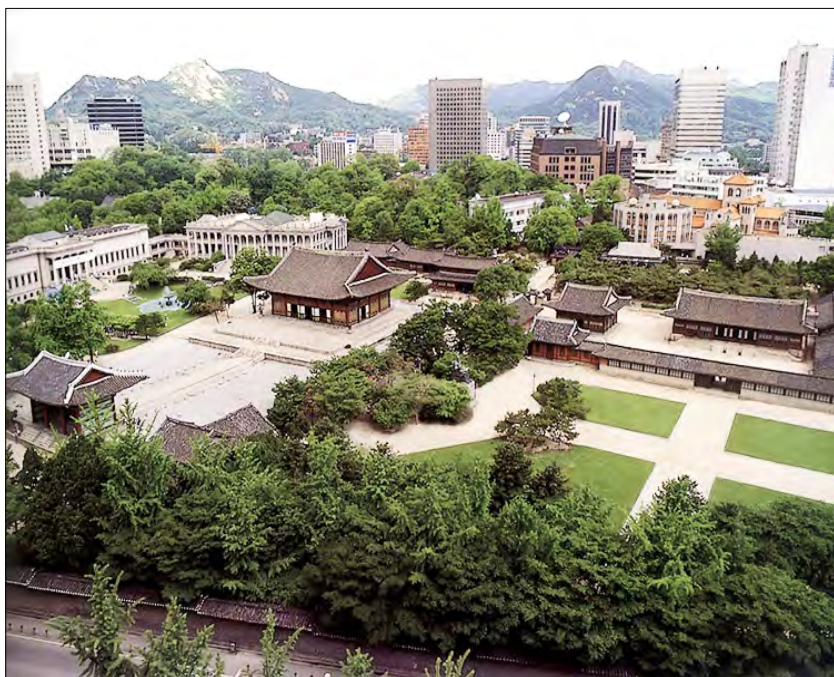
이제 군제개혁은 고종의 친정체제 하에서 무위영, 장어영 계열의 군사로서 친위대 2개 대대를 창설하고 또 평양과 전주 두 곳에 진위대를 설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후(1896. 2) 러시아 군사교관으로부터 훈련을 받던 시위대는 1897년 2월에 고종이 경운궁(慶運宮, 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할 때 호위를 수행한 후 대한제국 황제의 근위병 임무를 수행하였다. 고종은 1897년 10월 대한제국을 출범시키면서 시위대와 친위대를 근위와 호위를 담당하는 양대 중앙 군영으로 발전시켰다. 무위, 장어 2영 체제를 신식 부대로 재편한 것이다. 친위, 시위 두 부대는 연대 규모로 키워지고 포병대대, 공병중대, 치주영대, 군악대까지 갖추어 임시헌성여단 편성이 가능할 정도였다.

대한제국은 1899년 6월 원수부 규칙을 칙령으로 반포하고 1900년 7월에 실제로 황제를 대원수, 황태자를 원수로 하는 원수부를 수립하여 중앙의 시위대(4개 대대 2연대), 친위대(4개 대대 2연대), 지방의

168) 조선의 군제개혁을 포함한 군사 전반적인 상황은 러시아 대장성 편, 『국역 한국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665~682쪽 참조.

진위대(6개 연대)를 통솔하는 군령체계를 수립하였다.¹⁶⁹⁾

대한제국의 새로운 군사조직 운영 대한제국의 군사제도는 1894년 갑오·을미개혁을 거쳐 외형상 조선의 전통적인 군사조직을 대치하는 근대식 군사제도와 새로운 조직체계로 변화되어 갔다. 법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55호로 반포된 「군부관제」에서 종래의 군무아문을 군부로 개칭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군부는 조선의 전통적 군령·군정 기구인 병조가 과도기적으로 갑오경장을 통해



덕수궁 경운궁으로 불리다가 1907년 고종 황제가 황제직을 순종에게 물려준 후 이곳에 머물게 되면서 장수를 bind는 의미에서 덕수궁이라 했다. 서양식 건물인 석조전이 지어지면서 동·서양의 건축이 축조되고 대한제국의 역사를 생생하게 대변하는 현장이 되었다(문화재청 제공).

169) 이태진, 「한국사의 발전과 군사사」, 『이 땅을 지켜온 역사』, 2011, 11~12쪽.

서 군무아문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군부로 재정리된 명칭이다. 군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조선의 군제 근대화 작업은 외형적인 근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강압적인 영향 하에서 조선의 전통적인 군제를 해체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이를 타계하기 위한 고종의 노력이 아관파천을 계기로 진행되었다.

아관파천 후에 중앙군과 지방군에 변화가 있었다. 고종이 갑오·을미개혁의 비자주성과 강압성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정책을 대내외 천명한 결과였다. 중앙의 친위대는 1895년 9월 2개 대대 8개 중대의 편성을 연대로 개편했으며, 지방군인 진위대는 3개 대대 2,652명으로 증설되어 지방 의병을 진압하는 데 투입되었기 때문에 각 지방에는 진위대와 별도로 구식 군졸을 지방대로 편성하였다. 지방대는 9개 지방대에 병졸 2,300명과 장교 및 하사관 77명으로 구성되었지만, 1897년 6월 다시 이를 증치하여 8개 지역에 각기 병졸 600명마다 장교와 하사관 39명을 포함한 지방대로 편성하여 총 5,112명을 증설하였다. 이로써 전국의 지방대는 모두 14개로 약 7천명에 이르렀고, 1900년 7월 지방대가 폐지되기 전까지 조선군의 지방군은 진위대와 지방대가 병존하였다.¹⁷⁰⁾

또한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환궁(1897. 2. 20)일 직후인 1897년 3월 16일 다시 시위대 1개 대대를 창설했다. 그동안 러시아식 훈련을 받은 병력 1,017명을 200명씩 5개 중대로 편성한 것인데,¹⁷¹⁾ 시위대는 불과 6개월만인 그해 9월에 다시 1개 대대가 증설되어 약 2천 명에 달하는 2개 대대로 늘어났다.

170)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도서출판 혜안, 2000, 282~284쪽.

171) 러시아 군제의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현용,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205~239쪽 및 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213~245쪽을 참조할 것.

이로써 대한제국의 선포를 앞둔 상황에서 조선의 중앙군은 시위대 2개 대대와 친위대 2개 대대가 되었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대한제국의 출범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대한제국의 선포와 동시에 고종이 황제로 즉위했는데, 실상 고종의 황제 즉위에 관한 문제는 이미 1884년 갑신정변의 때 김옥균이 최초로 주장한 이래 계속 제기되었다. 청일전쟁 당시에도 일본 공사 오도리 게이스케(大島圭介)에 의



황궁우 환구단의 터에 남아 있는 건물. 환구단은 고종의 황제 즉위식이 열린 곳으로 역대 선왕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일제에 의해 헐리고 지금은 웨스턴 조선호텔이 들어서 있다(문화재청 제공).

해서도 제기되었지만 고종은 이를 거절했다. 황제로 즉위할 상황도 아니었지만 일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황제 즉위건이 다시 거론된 것은 1897년 고종이 환궁한 이후부터다. 당시는 청일전쟁의 결과로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났고 아관파천의 결과 일본의 간섭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웠다. 그리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떠나 환궁함으로써 러시아의 구속이 풀려 정부에 약간의 숨통이 트였던 때였다.¹⁷²⁾ 고종의 황제 즉위에 관한 논의가 정부 측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172) 이민원, 『한국의 황제』, 대원사, 2002, 18쪽.

“첫째, 황제·왕은 비록 글자는 다르지만 한나라를 자주하고 독립하여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뜻을 지닌다. 제위에 오르신다 하여도 만국공법상 조금도 구애됨이 없으므로 정부에서 의논하여 대책을 세우시고 황제의 존호를 올림으로서 존군하는 여정에 부응하시고 문약·의부하는 습관을 깨뜨려야 할 것이다.

둘째, 갑오경장 이후 독립의 이름만 있고 독립의 실이 없다. … 우리나라 국민이 문약한 성품으로 의부하는 성습이 멀리는 이천년, 가까이는 오백년으로 이를 떨쳐 버려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의관문물이 모두 명의 제도를 좇아 그 통을 이었다. 따라서 위호를 바로 세우는 일이 불가할 것이 없다. 청이 우리와 동양에 처해있는 것은 독일·오스트리아가 로마와 인접해 있는 것과 다름없다.

넷째,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임은 만국이 공인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하지 못하는가. 우리나라 강토는 한·당의 옛 땅과 관계있고 의관문물은 송·명의 제도를 모두 좇았으니 그 계통을 접수하여 그 존호를 쓴다고 해도 불가할 것이 없다.

다섯째, 후자는 말하기를 왕이나 군은 한 나라를 다스림을 말하고 황제는 여러 나라를 다스림을 말한다. 하여 영토를 개척하고 백성을 늘려 여러 나라를 통합한 상태가 아니면 황제칭호의 사용이 불가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한을 통합한 것이고 육지강토는 4천리요 인구는 2천만에 모자라지 않는다. 오늘날 폐하의 신민된 자가 지존한 존호를 씌에 누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인가.”¹⁷³⁾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결국 ‘황제의 존호를 씌으로써 문약하고 남에게 의지하는 습관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 갑오경장 당시 밝힌 자주독립의 이름을 황제 즉위를 통해 보다 구체화하자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당·송의 계통을 이은 명나라의 문물을 좇았으니 그 정통을 이은 나라로서 황제의 존호 사용은 타당하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¹⁷⁴⁾

173) 『고종실록』 권35, 광무 원년 9월에서 10월 초 관련 기사 참조(이민원, 「대한제국의 성립」, 『대한제국』 『한국사』 42, 국사편찬위원회, 1999), 22~23쪽에서 재인용.

174) 이민원, 「대한제국의 성립」, 23쪽.

물론 최익현이나 유인석 등 보수적인 유생들은 ‘소중화(小中華)의 나라에서 황제를 칭하는 것은 망녕되어 스스로 높이는 행위’라며 황제 즉위를 반대했고, 독립협회의 윤치호와 같은 신지식인도 ‘나라의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국가의 힘이지 군주의 존호가 아니다. 외국의 군대가 왕궁을 유린하고 국모를 살해하는 마당에 황제 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냐’며 반대하였다. 황제 즉위의 논리를



장지연

뒷받침해 준 사람은 장지연(張志淵, 1864~1921)과 정교(鄭喬, 1856~1925) 등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을 타당하게 여기던 식자들이었다. 고종은 이들의 논리에 따라 자신의 권력을 회복하려 개인적 동기를 넘어서 대외적인 주권의 확립과 대내적인 국민의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황제에 즉위했던 것이다.¹⁷⁵⁾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황제의 절대권 확보와 관련하여 그 물리력으로 작용하는 강력한 군대 건설에 대한 필요성은 황제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식인층에서도 제기되었다. 1897년(광무 원년) 12월 군부협판 주석면(朱錫冕)은 엄격한 군율 제정, 무관학교 설립, 지방 진위대의 증액 및 탁지부를 통한 1년 2회의 군부 경비 지급, 재능에 따른 인재발탁 등을 주장하였다. 당시 독립협회에서도 기왕의 군사제도에

175) 이민원, 『한국의 황제』, 20~21쪽.

대한 비판과 자강을 위한 군사력 정비를 건의하였다. 군사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와 군사력 강화의 요구는 황제권 강화를 바라는 황실의 입장과 결부되어 광무년간의 군사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부국강병’의 목표는 지향점에 불과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갑오경장 이후 약화되었던 군사기구를 자주적 입장에서 강화시키는 일이었다.¹⁷⁶⁾

광무년간의 주체적인 군사개혁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898년 3월 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이 철수한 이후부터였다.¹⁷⁷⁾ 황제는 그간 시행해 온 러시아식 군사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하고, 이제 러시아 사관이 철수하였으므로 ‘군용(軍容)을 더욱 장(壯)하게 할 것’을 군부에 지시하였다. 그해 4월 군부대신 이종건은 무관학교의 설립을 건의하여 재가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 달 26일에는 군부에서는 군법제정에 착수했다. 6월 ‘육해군 친총(陸海軍 親總)’에 관한 조칙이 내려져 각국 대원수 예에 의거하여 황제는 대원수가 되어 친히 육·해군을 총관하고 황태자로 원수를 삼아 일체를 통수케 하되 출정할 때가 아니고서는 비록 황자·황손이라도 대장(大將)을 삼을 수 없도록 하여 황제 중심의 군사편제를 마련하였다. 7월 2일에는 ‘육군 증설과 해군정제(海軍定制)’에 관한 조칙을 내려 군부로 하여금 상비군 준비와 육군 10개 대대의 창설, 해군편제 방법 및 그 경비확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 동안 명목상으로 유지되어 왔던 군주의 군사통수권을 계통적으로 확립하려는 조치들이었다.

176) 조재곤, 「대한제국기의 개혁」, 『대한제국』(한국사 42, 국사편찬위원회, 1999), 52쪽.

177) 『고종실록』 권37, 광무 2년 3월 24일.

이러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적인 개혁 조치는 1898년 1월부터 군부의 최고위직 부장과 참장을 거친 사람들이 매월 3차례의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추진되었다. 그해 2월의 군부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을 보면, 휴직 사관을 수용하고 다시 액외인(額外人)을 임용치 아니할 것, 전에 정지했던 무관학도를 현재 설치한 학교에 붙여 졸업 수용할 것, 동학과 의비(義匪) 초토시 군공이 있는 사람을 수용할 것, 군부 내에 교육국을 설치하고 매주일에 1차씩 각 위관(尉官)의 기예를 시험할 것 등이었다. 이 같은 방침은 갑오경장 이전 인물의 등용이란 점에서 정책적인 선회의 요소가 엿보이는데 군부에서는 1902년까지 과거 통어영·장어영 대관 등 갑오 이전 군인의 이력을 살펴 추천을 받아 복직시켰다.¹⁷⁸⁾

이와 같이 대한제국이 출범하면서 추진한 군제의 개혁은 군비의 확충을 통하여 가시화되었다. 1899년 황실에서는 프랑스·러시아·독일·영국·일본 등과 같은 외국으로부터 각종 총포와 탄약을 구입하거나 자체 제작을 통해 군이 전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 군사비의 지출은 정부 예산안에서 과도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01년 정부 총예산이 802만 151원(元)이었는데 이 중 군부예산은 전체의 44.8%를 차지하는 359만 4,911원이었다. 그리고 1902년의 경우에는 총예산이 758만 5,811원이며, 이 중 36.7%인 278만 6,290원이 군부 예산이었고, 1903년에는 1,076만 5,491원의 정부 예산 중 412만 358원으로 38.1%가 군부 예산이었다. 여기에는 원수부와 호위대의 예산으로 10만원 이상이 계산되지 않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군부의 총예산은 전체 예산 항목의 40% 이상을 지

178) 조재곤, 「대한제국기의 개혁」, 53~54쪽.

출한 것으로 정부 내의 단일 부서로서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군부의 예산은 내장원과 탁지부의 징세를 통한 황실과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확충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¹⁷⁹⁾

이렇듯 황제 중심의 강력한 군대 육성의 움직임은 마침내 1899년 6월 22일 원수부의 설치로 나타났다.¹⁸⁰⁾ 원수부의 설치는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것이었는데, 이는 고종 자신이 직접 군사지휘권, 즉 군령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고 통수기구의 창설이었다. 근대적인 군제의 도입으로 병조가 군부로 개편되면서 군부대신을 통하여 군령을 하달하는 방식을 개편하여 군주인 고종의 명령이 직접 하달될 수 있는 군령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군령권을 국왕에게 집중시켜 황제인 대원수와 황태자인 원수 이외에는 군령을 내릴 수 없도록 제도화시킨 것이다. 원수부는 1900년 3월 20일 제3차 개정으로 관제상의 정비를 완료하고 1905년 9월 24일 제5차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한제국 최고의 군령기관이었다.¹⁸¹⁾

〈원수부 규칙〉에 의하면, 궁성 내 설치한 원수부는 국방과 용병·군사에 관한 명령을 전관하며, 군부와 중앙 및 지방의 각 부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황제가 강력한 권한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⁸²⁾ 그리고 원수부의 관원은 모두 무관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문관은 원수부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원수부는 국방 및

179) 조재곤, 「대한제국기의 개혁」, 54~55쪽 ;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137~143쪽.

180) 『고종실록』 권39, 고종 36년 6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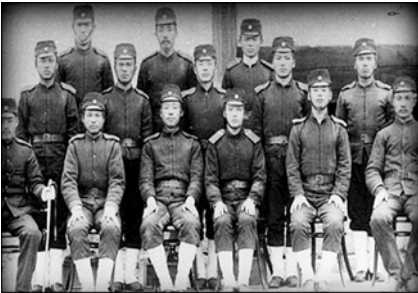
181)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125~127쪽.

182) 『고종시대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0, 905~910쪽 ; 『韓末近代法令資料集』 2 (국회도서관, 1971). 광무 3년 6월 22일. “第1款 第1條 元帥府는 國防과 用兵과 軍事에 各項命令을 掌하며 特立한 權이 有하여 軍部와 京外各隊를 指揮 監督함이라.”

작전계획, 군대편성, 군대교육, 부대검열, 군인상벌, 존안, 회계 등에 관한 광범위한 기능을 가졌다. 산하 기구로는 군무국, 감사국, 회계국, 기록국의 4국이 있었다. 각 국장은 직명을 받아 각부 대신에게 통보하고 중앙 및 지방 각 부대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며 군부대신에게는 추후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원수부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반면, 군부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었다. 따라서 황제의 군령 발동과 주요 군사정책의 결정은 원수부의 보좌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군사정책과 집행은 군령기관인 원수부와 군정기관인 군부의 이원화체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1900년 3월의 원수부관제에서 원수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각 국장의 창호가 총장으로 격상되었고, 지방관에 대한 명령 지휘계통도 원수부 → 군부 → 관찰사 → 군수의 순서로 정리되었던 것이다.¹⁸³⁾

한편 대한제국의 출범(1897. 10)과 동시에 친위, 시위 두 부대를 중심으로 재편된 중앙군과 진위대에다 지방대를 추가했던 지방군이, 1900년에 이르러 중앙의 4개 대대 2연대의 시위대와 4개 대대 2연대의 친위대를 갖춘 중앙군으로 그리고 그해에 지방대의 호칭을 폐지하고 모두 진위대로 편성하여 전국에 6개 연대의 편제를 갖춘 지방군으로 재편되었음은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다. 특히 중앙군 중의 하나인 시위대는 러시아군 편제에 따라 보병 2개 대대 2천여 명과 포병 1개 중대 200여 명으로 총 2,200여 명의 시위연대를 형성하고, 시위기병 1개 대대(4개 중대) 400여 명을 포함하여 2,600여 명의 병력을 시위대라 이름했던 것인데, 이러한 시위대의 편제는 1904년 러일전쟁으로 일제의 침략이 심화될 때까지 대한제국의 기본 편제로서 전형

183) 조재곤, 「대한제국기의 개혁」, 56쪽.



대한제국군(조선군 시위대)



대한제국군 기병대

이 되었다. 여기에 전국 진위대가 6개 연대 17개 대대에 제주 진위대대를 포함하여 총 18개 대대였으니, 1901년 8월 이후 대한제국군은 편제상으로 18,000명의 군사를 보유하는 국방군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셈이다.¹⁸⁴⁾

그러나 일제는 1903년 12월 말 러시아와의 전운이 고조되자 대한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1904년 2월에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야기하면서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을 묵살하였다. 일제는 오히려 대한제국에 군사동맹의 체결을 강요하며 그해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영토를 점령할 수 있는 불법적 군사행동의 합법화를 위한 길을 열어 한반도를 전쟁기지로 삼아 침략정책을 가시화했다. 러시아와의 국교를 단절(1904. 2)한 일제는 임시 파견대 기코시 소장(隊長 木越 少將)을 파견하여 서해를 통해 경성으로 진주시켜 대한제국 정부와 황제의 궁성마저 점령하였다. 그 후 일본군은 병력을 원산(보병 제37연대)과 평양(제12사단)으로 전진배치하고,¹⁸⁵⁾ 한국주차군사령부를 편성하고 그해 4월 3일 경성에 진주시켰다.

184)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217쪽.

185) 金正明 編, 『朝鮮駐紮軍歷史 - 日韓外交資料集成 別冊 1』, 巖南堂書店, 1967, 33쪽.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최고 군령기관인 대한제국군의 원수부도 1904년 9월의 관제개정에서 보듯이 그 성격이 변질되었다. 일제의 군부 고문이 대한제국의 군사권이 원수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문제로 삼아 이때 설치한 참모부와 군부로 분산 이전했다가 1905년 2월에 참모부가 군부에 흡수되자 군부에 통합시켜 버렸다. 대한제국의 군사권이 군부 고문인 일본인의 수중으로 넘어간 것은 장차의 본격적인 군대 해체작업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제는 군사비가 재정을 문란하게 하는 주요인이라면서 대한제국군의 부대 감축을 추진하였다. 1904년 12월에 함경도에 군정이 실시되면서 북청 진위대와 중성 진위대가 해산된 것이 그 단초였다. 게다가 1905년 4월 시위 보병 제1연대 편제를 비롯하여 6개 편제가 공포되어 일본군 편제로 바뀌었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의 늑결로 외교권을 빼앗긴 대한제국의 상황은 반(半)식민지 상태나 다름없었다. 1907년 4월에 다시 추진된 군제의 개편은 대한제국군이 해체로 가는 마지막 수순이었다.¹⁸⁶⁾ 이로써 중앙군은 혼성여단으로 개편되어 2개 시위보병연대로 3,704명으로 조정되었고, 여기에 기병(140명), 포병(165명), 공병(206명)의 511명을 합쳐 4,215명이었다. 지방군인 진위대 또한 시위보병대대의 편제를 준용하여 4개 중대 1개 대대 604명의 편제(대대본부 11명 포함 615명)를 유지하고, 전국 8도에 진위보병대대를 배치하기로 했지만 북청의 제8대대는 성립되지 않아 진위대는 4,305명으로 감축된

186)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의 군대에 대한 평가는 국토방위라는 국방적 측면보다 경찰력의 범주에 가깝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군대는 경찰을 대행하고 있었고, 그 임무도 확연히 분류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군대는 치안확보를 위한 국가권력의 폭력장치로서 경찰의 임무를 대행하는 ‘경찰 아닌 경찰’ 같은 존재였던 셈이다(조재곤, 「대한제국기의 개혁」, 61쪽 ; 러시아 대장성 편, 『국역 한국지』, 707쪽).



청헌당 대한제국의 군사조직의 사령탑 군부의 청사 일부. 본래 광화문 지역의 정부 청사 위치에 있었으나 현재는 육군 사관학교로 이전해 있다(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제공).

셈이었다. 따라서 대한제국군은 중앙군과 지방군을 합치고 헌병대를 포함하여도 모두 8,785명에 불과했다.¹⁸⁷⁾ 결국 1907년 7월 일제에 압력을 받은 고종 황제가 퇴위하게 되자 이를 반

대하는 군중 시위에 대한제국군의 시위보

병 연대 일부가 가담하면서 총격전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제는 이미 형해화된 군대마저 그해 8월 1일부로 해산시켜 버렸다.¹⁸⁸⁾

이렇듯 조선의 광무년간(1898~1904)의 군사적 근대화의 노력은 정치적으로 일본의 침략정책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대한제국의 운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대한제국군은 통수권자인 고종 황제의 조칙에 따라 군부에서 각종 외국의 교범을 번역·발간하여 보급함으로써 정예군을 육성하고자 했고 대한제국의 실정에 맞추어 병서도 편

187)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288~292쪽.

188)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때 대한제국군 전 부대가 모두 해산된 것은 아니다. 당시 대한제국군 9,000명 가운데 왕궁 호위를 위한 시위연대 예하의 보병 1개 대대를 남겨두었다. 몇번의 준폐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931년까지 존속되었다. 그래서 24년간 ‘헛충만 메고 빈 대궐 지키던 조선보병대(朝鮮歩兵隊)’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1920년 초반부터 군비축소의 여파로 해체가 논의되다가 1928년 세계 공황이 오고 이듬해 순종 황제마저 붕어하자 존속 명분이 없어져 1931년 폐지기로 결정하고, 1931년 4월 8일 청헌당(현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해 있었으나 지금은 육군사관학교로 이전)에서 폐단식을 갖고 해체되었다. 그때 병력이 장교 17명을 포함한 209명이었다(이기동, 『비극의 군인들』, 일조각, 1982, 22쪽).

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節)에서 살펴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제의 침략을 완전히 봉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군은 대한제국에서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근대 군대를 육성하고자 안간힘을 쓴 징표였던 것만은 틀림없다. 이제 대한제국군의 군인들은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이나 학교의 체육교사로 전업을 하거나 또 다른 일부는 해외에 근거지를 마련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선봉에서 대대적인 독립전쟁을 전개하는 새로운 항일투쟁의 길을 걸어야 했다.

나. 근대 군제로서의 ‘징병제’ 논의

대한제국의 군사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군사제도의 전형인 징병제(徵兵制), 곧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의 실시가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군사사상적인 측면에서 주목된다. 징병제는 바로 근대적 군사제도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대한제국기에 상비군의 설치와 관련하여 병역제의 개혁 차원에서 징병제가 검토되었다. 그러나 징병제 논의는 그 자체가 조선 정부의 자주적 개혁의지와 대립적인 것이었고, 본질적으로 정부의 정체나 군대의 성격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물론 징병문제나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이보다 앞서서 이미 갑오경장기인 1894년 6월 군국기무처의 건의에 따라 군무아문의 관제를 반포할 무렵, 산하 8개의 국 중에서 친위국(親衛局)의 임무를 ‘일체의 징병·편제하는 사무와 군대의 사무를 총독’ 이라고 규정한 데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징병’은 단순한 군인의 선발을 의미했을 뿐 전면적인 징병제

의 시행과는 거리가 있었다.¹⁸⁹⁾

그 후 1894년 12월에 반포된 「홍범14조」에서 비로소 상비군의 창설을 전제로 한 징병제가 언급되었다. 「홍범14조」의 제12조에서는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정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징병제의 실시를 통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할 것을 천명했다.¹⁹⁰⁾ 이때의 논의는 일본의 논의로 시작된 것으로 그들이 징병법의 시행을 제기한 것은 침략정책을 추진하는데 장애물인 조선의 군사력을 감축시키고 동시에 일본 수중에 장악할 수 있는 군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공사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1835~1915)의 권고에 못이겨 고종이 동의한 징병제의 법제화는 조선정부의 의지와 무관한 조치였다. 따라서 징병제의 실시는 근대적 국민개병제로의 근대화라기보다는 일본의 침략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했다.¹⁹¹⁾

그 이듬해인 1895년 1월 징병제의 실시를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었다. 일본 공사 이노우에가 자국의 징병제를 고종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일본의 현행 징병령에 근거하여 조선군대를 양성할 것을 건의했는데, 고종은 국내 상공업의 발달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실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상비군을 전제로 하는 징병제의 시행 논의는 일단 중지되었다.¹⁹²⁾

결국 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대한제국기로 넘어갔는데, 1901년 징병제 실시를 전제로 하는 병역제도의 개혁이 고종 황제의 관심을 끌

189)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218쪽.

190) 『고종실록』 권32, 고종 31년 12월 12일. “教育將官, 用徵兵法, 確定軍制基礎.”

191) 김세은, 「개항이후 군사제도의 개편과정」, 『군사』 22, 1991, 106~107쪽.

192)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219쪽 ; 「謁見始末報告の件」, 市川正明 편, 『日韓外交史料』 4, 日清戰爭 162, 巖南堂書店, 1966, 339~340쪽.

자 원수부가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¹⁹³⁾ 그해 8월 원수부에서는 외국의 징병법을 참고로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18세부터 병적에 편입시켜 3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했다. 그러나 징병제의 폐단을 거론하는 반대 여론에 밀려 실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이듬해 11월 18일 법부협판 이기동에 의해서 이 문제가 재론되었는데, 그는 토지 1결당 30냥을 추가로 징수하여 이를 징병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기동의 제안은 원안대로 의정부 회의를 통과했으나 징병의 경비로 집행되지 않았다.

1903년 3월 고종 황제는 각국 징병제와 우리의 전통적인 제도를 참작하여 징병제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원수부에 내렸다. 고종 황제는 조칙에서 조선의 군역제도인 병농일치제를 상기시키면서 각국의 징병제도가 조선의 전통적인 군제와 원리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검토하여 군제개혁을 이루길 희망하였다.

“옛날에는 군대가 농군에게 보유되어 사농공상의 백성들이 사람들마다 무예를 익혔다. 나라에 사변이 없으면 각자 생업에 안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사변이 있으면 큰 고을과 작은 고을에서 각자 출병했는데 천하를 지휘하여도 한번 기를 휘둘러서 마치 팔이 손을 부리듯이 잘 되었다. 겸병이 일어나자 법도가 폐지되고 변혁이 무상하게 되자 일정한 제도가 없어져서 군사를 징발할 때마다 바로 소요가 일어났고 또 갑자기 소집하여 마치 시장 사람들을 몰아가듯이 하였으니, 어디에 그 군사를 쓰겠는가? 이것이 나라에 군대가 없는 것이니 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그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짐은 미리 면밀한 방비에 유념한 지

193) 대한제국에서는 1899년 6월 22일 원수부를 두어 군령권을 장악하도록 했는데, 이로써 군부대신은 일반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군정권만을 갖게 되었다. 당시 새로 제정된 「원수부 규칙」에는 원수부의 기능을 국방과 용병·군사에 관한 명령을 전관하며, 군부와 중앙 및 지방의 각 부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황제가 강력한 권한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조재곤,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한국사』 42, 국사편찬위원회, 1999, 55쪽).

여러 해가 되었다. 그러나 각국의 징병제도는 옛날과 상당히 합치하는데 자세함은 보다 더한 것이 있다. 육군과 해군이 제도는 그것을 참작하여 장점을 채택하고, 대오를 편성하여 정리가 되자 또 우리의 제도를 참작해서 서울로부터 지방까지 각자 부서를 나누어 오위에 소속시켰는데, 이것은 실로 도총부의 옛 제도를 따른 것으로 건국 이래의 경장(更張)이다.”¹⁹⁴⁾

고종 황제의 조직에 의하여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듯했다. 원수부에서는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장정을 선비·후비·예비·국민병으로 징집하는 「징병조례」를 반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조례의 세부 시행항목은 그해 12월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재원도 확보되지 못하여 실행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이었다.¹⁹⁵⁾ 1904년 9월 원수부 관제와 제반 규정에 미흡한 점으로 인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육군참모조례, 육군헌병조례, 육군무관진급령 등 16개의 조례를 반포했으나 징병조례는 제외되었고,¹⁹⁶⁾ 1905년 2월 군부관제를 비준하여 반포하면서 동시에 장관급 장교들의 협의체라 할 수 있는 군부 예하의 장관 회의소 규정을 비준했는데 여기에 비로소 징병조례의 증감·개정에 관한 임무를 포함시켜 논의의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다.¹⁹⁷⁾

그런데 실상은 대한제국이 국민개병제를 지향하는 징병제의 시행

194) 『고종실록』 권43, 광무 7년(1903) 3월 15일.

195) 조재곤, 「대한제국기 군사정책과 군사기구의 운영」, 『역사와 현실』 19, 1996, 117쪽. 조재곤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대한제국의 정부가 징병조례를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근대적 국민개병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외적인 측면의 요인일 것이고, 필자는 실제로 대한제국의 내적인 고심 가운데 일제가 ‘보호국화정책’을 앞세워 압박을 가했던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징병제의 시행이 조선에 미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싶다.

196) 『고종실록』 권44, 광무 8년(1904) 9월 24일.

197) 『고종실록』 권45, 광무 9년(1905) 2월 22일.

을 망설였던 실제적인 이유는 징병제가 조선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일제의 침략적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러일전쟁 직후의 일본 측의 태도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더욱 확인해진다. 러일전쟁 직후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다시 조선 정부에 징병제의 시행을 제기했다. 일본 측의 주장은 국가의 막대한 예산으로 운용하는 대한제국군이 용병(傭兵)이므로 의무감이 부족하여 이를 폐지하고 모병에 의한 새로운 군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⁹⁸⁾ 표면적인 이유야 그러했지만 일본의 실제적인 의도는 대한제국군을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군대해산으로 나가려는 것이었다.

결국 일제는 1907년 6월 27일 민사와 형사 소송에 관한 사항과 신문형에 관한 사항 등을 반포하면서 ‘국민의 의무’로서 군대를 징집하는 모병령(募兵令)도 발표하였다.¹⁹⁹⁾ 이는 군대해산을 위한 정책적인 기만이었다. 모병령에서는 대한국의 신민된 남자는 만 17세 이상 만 40세까지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며(1조), 병역을 현역과 예비역, 국민병역으로 구분하고(2조), 현역은 3개년으로서 만 18세로부터 25세까지의 남자 중에서 지원자가 이에 복무하도록 한(3조)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병제도가 아닌 직업군, 용병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²⁰⁰⁾ 일제가 주장한 것과 달리 당시 모병령은 결코 의무병제를 지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직업군 내지 용병주의를 채택한 측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근대적인 의미에서 국민개병제를 명분으로 대한제국군의 제도를 변질시켜 군대 해산을 유도하고자 한 빌미였을 뿐이었다.

198)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291쪽.

199) 『고종실록』 권48, 광무 11년(1907) 6월 27일 ; 「관보」 광무 11년 7월 2일(법률 3호)

200) 정구복, 「갑오개혁 이후의 신군제」,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 후기 편』, 426쪽.

그 후 1920년 3월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국민군이 편성되었다. 비록 140명에 불과한 인원이었지만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국민개병제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표출된 것이었다.²⁰¹⁾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었고, 제도의 실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야 가능했던 것이다. 1948~1949년 사이에 당시 채병덕은 그가 국방참모총장과 육군참모총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군제(軍制) 문제와 관련하여 현대적 군제의 방향을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징병제 도입을 추진하였다.²⁰²⁾ 그 같은 노력에 힘입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국민개병제가 1949년 8월 병역법의 제정으로 실현을 보게 되었다.²⁰³⁾

제2절 병학체계의 형성과 군사교육

가. 병학체계의 형성

이미 개항 이후로 조선에서 교련병대라는 근대적인 서양 군제가 실험적으로 신설되고 서양의 병서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어 활용되었음은 살펴본 대로다. 그 이후로도 서양 병서의 소개는 지속되었는데, 1876년 이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화기서인 『구포기계여장방법(臼砲機械與裝放法)』, 1881년 간행된 일본육군 시찰보고서인 『일

201) 본서의 제5장 제1절 나항 참조.

202) 채병덕, 『국군의 진로와 국민개병의 의의』, 정민문화사, 1949.

203) 1949년 8월 6일 법률 제41호로 공포된 병역법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국민개병제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화였다. 이에 대해서는 백기인, 『건군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308쪽.

본육군조전(日本陸軍操典)』 등이 있었다. 1895년 군제와 군례에 관한 것으로 『군제학교정(軍制學教程)』(최초 1888년 번역), 1897년 『관병식절차(觀兵式節次)』 등의 간행도 눈에 띈다. 또한 한말 조선에 영향을 미친 외국의 병서를 군사교범으로 번역 간행했는데, 주로 일본의 것을 참고한 것이었다. 예컨대, 1898년 간행된 『보병조전(步兵操典)』, 1900년 간행된 『군대내무서(軍隊內務書)』, 1902년 간행된 『육군법률』과 『전술학교정(戰術學教程)』, 1905년 『육군위생학교정(陸軍衛生學教程)』 등이 그것이다. 1907년에는 신식 금속활자를 도입한 박문국(博文局)에서 『동국명장전』을 비롯한 『을지문덕』, 『이충무공실기』, 『필리핀전사(菲律濱戰史)』, 『폴란드말년전사(波蘭末年戰史)』, 『크리미아전사(哥利米亞戰史)』, 『프랑스혁신평전사(法國革新戰史)』, 『프러시아국(普魯士國)』, 『프레데릭대왕칠년전사(厚禮斗益大王七年戰史)』 등 전통시대의 군사 인물이나 서양의 전쟁사에 관한 서적들을 발간하였다.²⁰⁴⁾

이 무렵의 병서들은 근대적인 신식 군대의 규율과 교육훈련, 나아가 부대전술 등을 통하여 서양의 군사지식을 새롭게 수용하고 섭취하여 나름대로 한국적인 근대병학체계를 형성시켜 나가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열강들의 영향 속에서 다양한 군제상의 개편을 반영하는 군제나 훈련, 전술, 군사적 인물, 그리고 전쟁사 등에 관한 병학 서적의 발간은 대한제국군의 가파른 변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구포기계여장방법』은 구포의 장방법과 장진물의 비중 및 구포의 각 부속기계에 대하여 해설하고 이어 구포에 구포환(臼砲丸)이 아닌 화전(火箭)을 사용할 때의 화전방법을 수록한 화기서이다. 구포는 포

204) 김성수·김영일, 「한국 군사류 전적의 발전계보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9, 1993, 109~115쪽 ; 육군본부, 『고병서해제』(병서연구 제6집), 1979, 48쪽.

신이 짧고 구경이 크며 주조 재료가 재래의 것보다 훨씬 세련된 형태의 화기였다. 이 책은 개항 직후 구포의 도입과 함께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일종의 기술교범이었다.

『일본육군조전』은 1881년(고종 18)에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 육군을 시찰하고 돌아온 홍영식(洪英植, 1855~1884)이 일본의 보병·기병·포병·공병 등의 훈련과 대형에 대해서 이론과 그림으로 설명한 보고서이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각개 장교 및 병사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상세한 훈련동작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설명을 가하고 있다.

『군제학교정』은 군제의 기본을 설명한 것으로 두 종류가 있었다. 그 하나는 군제의 기본을 설명한 것으로 결국 창설하지 못한 채 계획으로 끝나버린 1888년(고종 25) 육군무관학교의 군제학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본인 교관 육군대위 후루이치(古市) 외 4명이 저술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학에 관한 것으로 서명이 『군제학교정』이다. 1895년(고종 32)에 편찬되었으며, 한말 일본의 군제를 기본으로 한 한국의 군대를 가르친 군사학 교과서였다. 내용으로는 교련의 목적, 총칙, 기본교련과 전투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국한문혼용으로 근대적인 서술의 형태를 취하였다.

군사교범류인 『보병조전』은 무관학교에서 간행한 것이다. 1898년(광무 2) 군부대신이자 부장(副將) 민영기(閔泳綺, 1858~1927)에 의해서 편찬된 것으로²⁰⁵⁾ 대한제국군에 대한 새로운 군사훈련방법을 수록한 병서로 8년 후인 1906년(광무 10) 개정판을 발간했다. 여기에서는 교련의 목적을 “지휘관과 병사들을 훈련시켜 전쟁에 이바지한다”는 데 두고 중대·대대·연대·여단 전투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군기(軍旗)에 관한 예절과 군도(軍刀)의 휴대 예절을 부록

205) 김동주, 『藏書閣圖書韓國本解題輯 - 군사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200쪽.

으로 수록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 대한제국군의 훈련강화와 자체적인 교범제작·활용이라는 자주적 의지를 반영한 병서의 간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한 대한제국군의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은 대한제국의 성립 직후에 러시아 교관이 철수할 무렵에 더욱 고조되었다. 당시 고종 황제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당시 러시아 교관의 철수를 결정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하여 시위군의 훈련이 약화될 것을 염려하여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군 장령들에게 ‘효과적인 부대운용과 강건한 부대 군대 육성’에 관한 조칙을 하달했다.²⁰⁶⁾ 고종 황제의 조칙에 따라 대한제국 군부에서는 1897년 무관학교의 관제를 개정하고 러시아 교관이 지도할 때와 마찬가지로의 훈련수준을 유지하도록 관심을 기울였다.²⁰⁷⁾

또한 러시아 교관이 3월에 해임되기 이전에는 그들의 지도 아래 러시아군의 교범인 『내무교범』을 한글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신병훈련에 필요한 각종 교범들도 번역하여 훈련지침서로 사용했다.²⁰⁸⁾ 그러나 당시 러시아 교관의 해임과 귀국에 즈음하여 러시아교범을 번역·활용했으나 각국의 훈련기법의 장점을 선택하여 독자적인 훈련교범의 편찬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러시아교범만의 활용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았다.²⁰⁹⁾ 그런데도 『보병조전』은 개정을 거듭하며 간행되었다.

1902년 간행된 『육군법률』과 『전술학교정』도 대한제국군의 근대적인 군사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엿보게 한다. 『육군법률』은

206)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도서출판 혜안, 2000, 111~112쪽.

207) 임재찬, 『구한말 육군무관학교연구』, 제일문화사, 1992, 163~171쪽 ; 차문섭, 『구한말 육군무관학교연구』, 182~184쪽 ;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112쪽.

208)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112쪽 ; 러시아대장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 『한국지』, 1984, 679쪽.

209) 『고종실록』 권36, 광무 1년 11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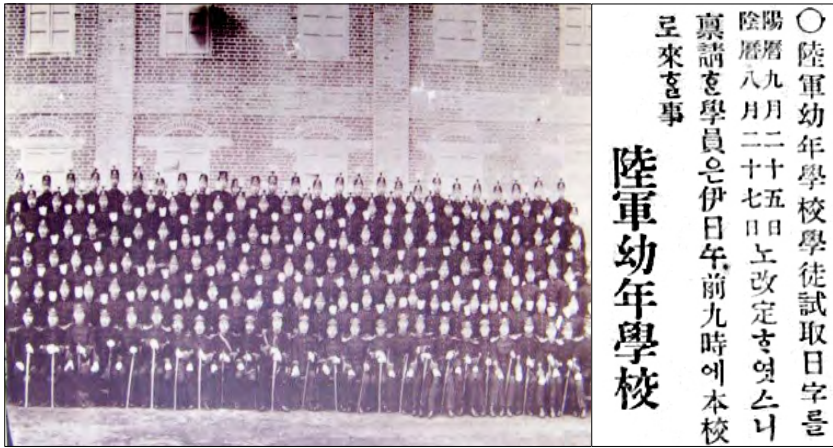
1900년(광무 4)년 고종 황제의 칙령에 의해 조선 말의 법전인 『대전회통』을 비롯하여 신颁법률(新頒法律)과 부례대명률(附例大明律)의 기초 위에서 외국의 육군형법(陸軍刑法)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 규정집이었다. 총 45장 317조로 된 육군법률(陸軍法律)과 총 22장 166조로 된 육군치죄법규정(陸軍治罪法規程)으로 이루어져 있다. 육군법률에서는 법례·죄례·형례·율례를, 육군치죄법규정에서는 육군치죄규정·육군치죄세칙·육군법원소송규정·육군법원처무규칙·육군감독규칙·육군감옥세칙 등을 규정하였다.²¹⁰⁾

『전술학교정』은 군부에서 편찬한 전술학에 관한 교과서였다. 1902년(광무 6)에 제1판을 간행했는데, 편, 장, 절을 갖춘 국한문 혼용체였다. 참고한 서목은 『프랑스 생시르 병학교(佛國聖西爾兵學校) 전술학교정』, 『기본전술』(일본국 육군대학교 독본), 『독일(德國) 전술학교정』, 『독일전략학』, 『독일 육군사관학교 전술교정』, 『수병술(帥兵術)』(일본 육군대학교용), 『오스트리아(奧國) 육군사관학교전술학교정』 등이다. 이 책에서는 전투의 공수문제, 공격의 요령, 역습의 방법, 전투지휘의 요령, 곡지(谷地)에서의 전투, 예비대의 필요성, 하천의 전투, 지중(輜重)의 호위 및 공격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가하고 있다.

또한 광무년간(1897~1906)에 군부에서는 『관병식절차』를 발간하여 황제가 군대를 사열하는 의식절차를 규정한 의전의 규범도 마련하였다.²¹¹⁾ 황제의 열병식을 위한 관병식장을 정하는 일로부터 지휘관이 모든 군대에 퇴장귀영(退場歸營)의 명령을 내리는 일까지 총 23개항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대한제국과 황제의 위상과 통수체계를 군

210) 김동주, 『장서각도서한국본해제집 - 군사류』, 348~351쪽.

211) 김동주, 『장서각도서한국본해제집 - 군사류』, 24쪽.



육군무관학교 교관과 생도들

육군유년학교 응시일 공고
(황성신문, 1905. 9. 18)

례를 통해서 확립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열무의 현대적인 시행 규칙이었다.²¹²⁾ 1907년(광무 11)에는 앞서 열거한 각종 군사인물전과 전쟁사 관련 서적들도 박문국을 통하여 발간되었다. 이 역시 대한제국의 막바지에 제국군의 병학적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렇듯 조선 왕조 말기와 대한제국기에 걸쳐 각종 병서나 근대적인 군사학술에 관한 저술이 활발하게 소개되거나 실제 부대의 교육훈련에 적용되었다. 대한제국의 성립 직후부터 대한제국군의 정예화에 고종 황제를 비롯한 군부 전체가 관심을 갖고 교범과 각종 법제의 형성을 통해 근대적 군사체제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계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훈련의 성과가 궁극적으로 군의 근대화나 실제적인 군사능력의 향상을 가져왔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당시 육군무관학교

212) 백기인, 「조선후기 국왕의 열무 시행과 그 성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 2006, 33~34쪽.

(陸軍武官學校)가 1896년 설립되어 1909년 9월에 폐지될 때까지 13년간 운영되면서²¹³⁾ 전술학, 화기학, 학술학 등의 근대적인 군사교육체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육훈련체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무관학교의 군사교육

대한제국군은 무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육군무관학교, 육군유년학교, 육군연성학교를 두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장교의 양성 교육을 위한 육군무관학교의 교육과 이를 위한 예비 학교의 성격과 예비 과정이 육군유년학교였고, 그리고 장교나 하사관에게 일종의 보수교육을 시키는 군사학술의 심화과정인 육군연성학교였다.

육군무관학교는 초급 장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1896년 1월 11일 세워졌다. 1895년 9월 훈련대가 폐지되자 그 산하에 존재했던 사관양성소를 폐지하고 이를 개칭하여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학도들을 18세에서 27세까지 청년 중에서 천거형식으로 선발했다. 1904년 9월 24일 교육부가 신설되자 육군무관학교는 교육부 교육총감의 지시를 받게 되었고, 1905년 2월 22일 교육부가 폐지됨에 따라 군부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교육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었지만, 1904년 육군유년학교가 설립되면서 그 졸업생들이 입교했으므로 전체 교육기간은 6년이 소요되었다.²¹⁴⁾

213) 육군무관학교가 13년간의 역사를 유지한 한말의 정규사관학교였다고 하지만 그 실제적인 기능이 이루어진 것은 1898년(광무 2)부터 1906년(광무 8)에 걸친 약 6년으로 보기도 한다(임재찬, 「구한말 육군무관학교의 군사교범 - 학술학을 중심으로」, 『3사교 논문집』 제28집, 1989).

214) 임재찬, 『육군무관학교 연구』, 제일문화사, 1992의 제1장 제2절 및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2000, 143~158쪽, 그리고 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164~172쪽 참조.

육군유년학교는 육군무관학교의 예비학교인 셈인데, 1904년 9월 24일 설립되었다. 보통학과와 예비교육을 행하여 육군 각 병과 무관 학도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입학 연령은 15세부터 19세였고, 수업 연한은 3년이었다. 그리고 현역장교나 하사관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육군연성학교가 있었다. 1904년 9월 24일 교육부 내에 설치되었고, 전술·사격술·체조·검술의 학술을 숙련시키고 제 병과의 학술을 연구 심화시키는 과정이었다.²¹⁵⁾

대한제국의 육군무관학교에서는 초창기에 한국어 군사교범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을 초빙하여 외국서를 무관학도들에게 가르쳤다. 대체로 프랑스·독일·영국·청·러시아·일본 등 서양과 동아시아 강국들의 서적이었다. 육군무관학교의 교육과목 및 군사교범류의 편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⁶⁾

〈학과 과목의 강의 수와 비율〉

과 목	강의 수(회)	비율(%)
전술학	85	18
군제학	20	20
축성학	50	10
지형학	40	8
위생학	15	3
병기학	70	14
마학(馬學)	15	3
외국어학	200	40
계	495	100

215) 정구복, 「갑오개혁 이후의 신군제」,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후기 편』, 423쪽.

216) 「陸軍武官學校校則」; 임재찬, 「구한말 육군무관학교의 군사교범」, 『3사교 논문집』 제29집, 1989, 156~170쪽.

〈학과 과목의 군사교범류 비율〉

학과	과목	비율(5)	군사 교범(권)
전술학	전술학	18	전술학교정, 야전요무령, 보병조전, 보병공작교범, 축성학교정 군제학교정
	축성학	10	
	군제학	4	
	소계	32	6
화기학	병기학	14	병기학교정, 사격교범 보병사격교범
	소계	14	3
학술학	지형학	8	지형학교정 위생학교정 마학교정
	위생학	3	
	마학	3	
	소계	14	3

육군무관학교의 전술학 체계 육군무관학교에서는 전술학을 가르치는 목적을 “학도로 하여금 전술의 원칙은 습득케 하고 그 적용능력을 구유케 함에 있는지라 먼저 야전제병의 전술대형운동(戰術隊形運動)과 전투법(기본전술)을 강하고 후에 연합지대의 편합운동(編合運動)과 그 지휘법(응용전술)을 교함이 가하니라” 라고 밝히고 있듯이 기본적인 전술대형과 전술 그리고 합동적인 전술 운용을 위한 군사술의 습득에 두고 있었다. 전술은 각 병종의 조련, 야외연습, 응용작업, 야외전술 등과 병행시켰다. 또한 군제학은 조선 군제의 연혁, 전·평시의 편제, 동원·보충·경리 및 상벌과 군법회의의 구성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축성학은 임시축성과 영구축성으로 대별하며 교통학(交通學)까지 아울렀는데, 임시축성은 재질과 구조법, 진지의 편성 등 응용교수의 방침을 세워 교육하도록 했고, 영구축성은 역시 재질과

성새(城塞)의 편성, 공수 및 해안 방어의 대요를 교육하고 교통은 도로·교량·철도·전신 등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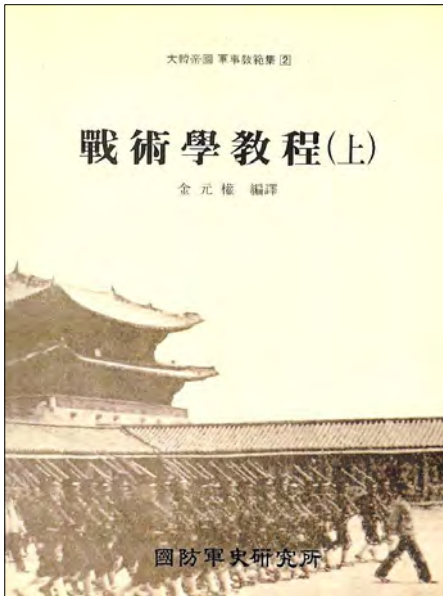
육군무관학교에서 강의된 전술학 과목의 교과서는 앞서 언급한 『전술학교정』으로 프랑스·독일·일본·오스트리아의 전술학 교범을 참고한 서적이다.²¹⁷⁾ 그래도 1902년 출간될 당시만 하더라도 무관학교가 대한제국의 자주적인 역량에 의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각종 전술학을 참고로 종합적인 전술학을 구성할 수 있었다. 당시 전술학의 개념이나 각 병종의 전술 및 병종의 연합과 명령·보고 등에 관한 광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날의 전술학 개념이나 교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전술학교정』에 의하면 용병에 대하여 전쟁의 요리와 전쟁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전쟁은 일국이 타국에 대하여 그 국가의 목표를 관철하고자 하든지 혹은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최후의 무력적인 행위다. 국가와 국가가 갈등을 야기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면 이를 전쟁에 의존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사람간의 차이는 재판관이 있어 이를 재판하지만 국가의 차이는 해결하지 못함에 이르러서는 전쟁이 아니고서는 다른 도리가 없다. 따라서 전쟁은 천지간 고유한 무력재판이요 국가의 성장과 존재상에 필요하며 없을 수 없는 바다. 과거를 징험하건대 그러하지 않은 바가 없고 또 전쟁의 추세가 자연히 나타나서 국제상으로 피할 수 없어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의 도덕론자들은 ‘병은 흉기다’라고 하고 ‘전쟁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여 도덕으로 전쟁을 대신하고자 하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진실로 기대하기 어려운지라 전쟁은 인지를 개발하고 국가의 운세를 진흥함이다.”²¹⁸⁾

217) 『戰術學教程』 卷之三.

218) 『戰術學教程』 卷之一. 『戰術學教程』은 1999년 국방군사연구소에서 편역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한 바 있지만, 여기에서는 필자가 별도로 원문에 준하여 번역하였다.



전술학교정(국방군사연구소 역간본)

이러한 전쟁관은 종래의 재래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탈피한 근대적인 전쟁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체현되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육군무관학교에서 근대적인 전쟁관념이 교육되고 그러한 방향에서 군사력 건설과 운용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한제국기에 와서 군사교육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담보하는 군사학술의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

고 이를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고 할 만하다.

또한 『전술학교정』에서는 전술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술학이란 “군대의 운용과 행군, 주군(駐軍) 및 전투의 방술을 강구하는 것”이라는 개념이었고, 전투를 수행하는 병종은 보병, 기병, 야전포병, 공병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병종들에 의한 전술로는 보병전술, 기병전술, 포병전술 등으로 나뉘었고, 보병부대의 편성은 4개의 소대가 중대, 4~5개의 중대가 대대, 2~3개의 대대가 연대, 2개의 연대가 모여 여단이 되는 방식으로 신축성 있게 편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기병부대는 4개 소대가 중대, 3~4개의 중대가 기병대대가 편성된다. 기병부대의 특징은 기동력을 이용하여 적을 습격하는 것인데, 습격의 방식은 밀집습격과 산개습격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대대 이상의 부대편성이 없으나 서양의 제국에서는 기병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기병사단이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포병부대의 편성은 3개 소대가 중대, 2개 중대가 대대, 야포병 1~2개 대대와 산포병 1~2개 대대를 합한 것을 연대라고 하였다. 포병의 규모는 연대가 가장 상위의 제대이고, 산포병(山砲兵)·야포병(野砲兵) 모두 중대는 포차대(砲車隊)와 제1단열(第一段列) 및 제2단열로 구분되며, 포타대와 제1단열을 전포대(戰砲隊)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밖에 척후, 행군 시의 수색작전 및 위력수색작전, 경계근무로서 행군 시나 주둔 시의 경계요령은 물론 군대의 숙영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전술학교정』의 3권에서는 전투의 공수와 공격 요령, 방어 요령, 그리고 전투의 경과 및 전투지휘 요령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육군무관학교의 전술학의 또 다른 과목은 군제학이었다. 군제학은 국한문 혼용으로 번역된 일본군의 군제를 해설한 『군제학교정』을 교재로 하였다. 비록 다른 과목에 비하여 그 비중이 적고 전술학 강의와 겹하여 교수되었다. 그러나 「육군무관학교교칙」에서 “군제학은 먼저 아국 군제의 연혁과 평시의 편제와 동원, 보충, 정리 및 상벌, 군법회의의 구성 등을 강함이 가하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국내외의 군제를 동시에 교육했음을 알 수 있다. 군제학의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하여 용병학과 비교한 것이 특징적인데, “병력을 활동시키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용병학이라 하고 여기에는 전략과 전술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군제학은 병력을 활동시키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재원을 확보하고 또한 병력을 구성하고 보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편제와 정리가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전술학의 세 번째 과목은 축성학이었다. 축성학은 오늘날의 야전축성을 비롯하여 진지공사 및 통신을 포함한 것으로 광범위한 군사학의 영역을 다루었다. 육군무관학교의 무관학도들이 이수해야 할 군사학의 10%에 해당하고 전술학의 30%에 해당한 만큼 비중이 매우 컸다. 교재는 『축성학교정』이었고, 1902년 나온 『전술학교정』이나 『군제학교정』보다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00(광무 4)년에 발간되었다.

육군무관학교의 화기학 체계 육군무관학교에서는 오늘날 화기학의 관점에서 병기학을 비롯한 사격술에 관한 강의가 교육체계의 14% 정도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병기학교정』, 『사격교범』, 『보병사격교범』 등 3권의 기본 교재가 사용되었다.²¹⁹⁾ 『병기학교정』은 현재 육군사관학교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데, 병기의 정의와 용도에서 시작하여 탄환의 운동과 사격, 조준, 휴대병기 및 일본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기, 연발총, 화약 및 폭약, 화구, 포병재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한 일종의 무기체계에 관한 설명서이다. 『병기학교정』에서는 병기학의 개념을 “군인이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완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의 전투는 옛날처럼 오로지 완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병기의 성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열국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병기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병기는 전투력의 주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병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조작이 어려우며 극히 정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숙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기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병기의 성능과 조작법을 숙지해야만 한다.”²²⁰⁾

219) 임재찬, 「구한말 군사교범 - 화기학을 중심으로」, 『3사교 논문집』 제26집, 1988, 71~86쪽.

220) 『병기학교정』 卷之一 第一編 總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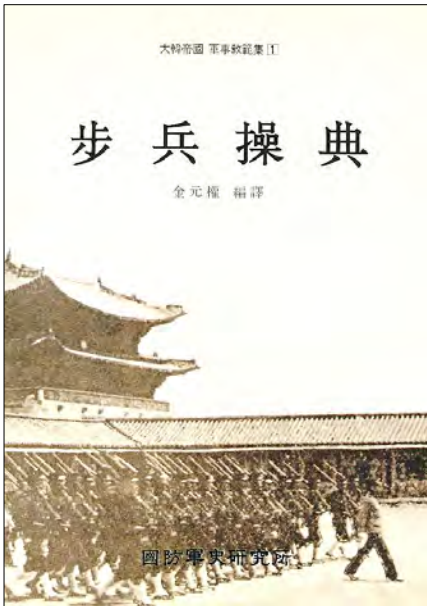
『사격교범』 『보병사격교범』은 동일한 군사교범으로 1900년(광무 4)에 육군무관학교의 학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일본의 무기체계에 맞추어 교육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당시 육군무관학교에서 강의된 화기학은 병기학을 골간으로 이를 지원하는 사격에 관한 군사학술을 교육하였다. 화기는 각 병과별 개인화기는 물론이고 다른 병과의 화기까지 그 성능과 조작법을 익혀 대한제국기의 전투병과인 보·포·기병이 합동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점에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사격에 관한 기본 교육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재래무기에서 서양의 신식 무기체제로 전환되어 가는 근대 군대의 사격술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육군무관학교의 학술학 체계 육군무관학교의 군사학 관계의 학술학은 지형학, 위생학, 마학(馬學) 등으로 이를 교육하기 위한 교범으로는 『지형학교정』 『위생학교정』 『마학교정』 『보병조전』 『육군예식』 『체조교범』 등이 있었다. 학술학은 군사학 중 전술학과 화기학을 제외한 기본 과목으로 무관학교에서 가르치는 훈육과목인 교련·마술·체조·검술·군용문장 등이 포함되었다.²²¹⁾

지형학은 「육군무관학교교칙」에서 “지형학은 지형의 약설과 지도의 견해와 측도법 및 군사상의 지형이 관계를 강수함에 있어서 이를 위하여 지형학 및 전술학 교관은 항상 상호 연계하여 응용전술의 교수를 완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재는 『지형학교정』으로 지형학의 중요성, 지형의 이해, 지도의 정의, 그리고 측

221) 임재찬, 「구한말 육군무관학교의 군사교범 - 학술학을 중심으로」, 221~236쪽.



보병조전(국방군사연구소 역간본)

도법과 방위정법(方位定法) 등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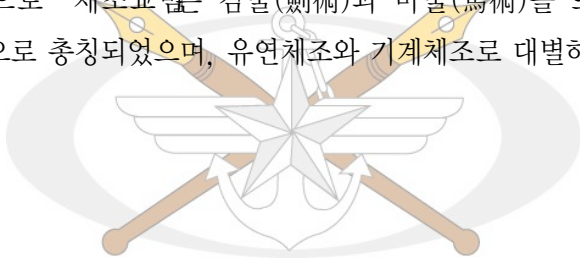
『위생학교정』은 육군무관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위생학 교재였다. 위생학은 그 비중이 매우 경미했지만 “사람의 건강을 유지촉진하고 그 육체와 정신을 튼튼하게 하여 천부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병영에서 숙영지 선정 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땅에서 습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유독가스의 발생을 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옛 절터나 폐허된 가옥, 주밀한 도시와 악취 가스를 발하는 공장 근처나 묘지·병원, 도살장이나 연못, 썩은 물이나 범람지역에 고여 있는 하천 부근은 피할 지역이며, 혹 부득이라도 설영지역은 유기물질을 매몰한 황무지나 계곡 그리고 음지와 산기슭은 피하고 환경사면에 남향한 지역은 무방하므로 숙영지로 선정해도 좋다. 숙영지 근처에 울창한 삼림과 적절한 연습지가 있으면 더욱 좋다”라고 밝히고 있다.

『마학교정』은 마학의 교재인데, 마학이란 “말에 대한 제 조건을 강구하는 학술로 그 범위가 자못 광범위하여 소책자로는 능히 상론하기 어렵고 이 책에서는 먼저 구조의 대의를 논하고 다음에 외모를 설명한 다음, 끝으로 위생요지를 진술한다”라고 하였다. 육군무관학교에

서 다른 마학에는 구조학, 외모학, 위생학의 3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병조전』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 기본 성격이 학술학과 전술학의 내용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육군예식』은 정규 시간의 편성과목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통하여 예식을 행하고 습관화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였다. 그 내용 가운데는 실내에서의 예절로 상관이 오면 의자에서 일어나서 경례를 해야 하고, 혹은 본인 외에 옆에서 용무가 있어 일하던 자도 일체 경례를 행한 후에 다시 앉아서 각기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의장으로는 의장대와 의장위병을 구분하고, 관병식은 열병식과 분열식을 합하여 명칭으로 사용했다. 끝으로 『체조교범』은 검술(劍術)과 마술(馬術)을 포함하여 기술과목으로 총칭되었으며, 유연체조와 기계체조로 대별하여 시행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장

의병과 ‘의병전쟁론’의 형성

제1절 의병과 의병전쟁의 전개

제2절 의병의 이념과 사상

제3절 의병전쟁의 전략전술

제1절 의병과 의병전쟁의 전개

국가가 전란의 위기에 빠졌을 때 충과 의로써 일어난 민군을 의병이라고 한다. 의병의 전형적인 예는 임진왜란을 통하여 일어난 유생 의병이나 승병(僧兵)과 같은 존재이다.²²²⁾ 백암 박은식도 민병의 뿌리가 임진왜란을 거쳐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한 바 있다.²²³⁾ 그가 말한 민병이란 자발적으로 일어나 자국의 정치공동체를 지키려는 민간 무장집단을 가리킨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민병이라고 해서 모두가 의병일 수는 없다. 한말의 의병은 민병이라는 조직의 이념이나 지향, 그 투쟁양식 등을 통하여 ‘의병전쟁’²²⁴⁾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특징과 성격을 잘 드러낸다.

한말의 의병전쟁은 1894년 일제가 경복궁 쿠데타, 즉 갑오변란을 일으켜 군사력을 동원하여 ‘갑오경장’²²⁵⁾을 추진하려 한 데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이때에 처음으로 거의한 의병들의 항일투쟁은 1915년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1894년 6월,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한 뒤 8월에 친일내각을 앞세워 ‘부국강병(富國強兵)’과 ‘문명개화(文明開化)’를 명분으로 개혁을 단행했으나 이는 일제의 침략을 위한

222) 승병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로는 김덕수 편, 『임진왜란과 불교의승군』, 경서원, 1992를 참조.

223) 박성수, 「의병과 독립군 - 조직, 편성의 연속성」, 『한국학의 세계화』(제6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489쪽 ;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상편, 제11장 「각지의병약력」

224) ‘의병전쟁’이란 용어는 박성수 교수가 최초로 사용했다. 종래 의병운동(義兵運動)이란 의미보다 1907년 이후부터 의병투쟁의 성격이 항일전쟁의 성격을 띠면서 보다 조직화되고 장기화된 투쟁양상을 드러낸 데 대하여 이를 ‘전쟁’으로 규정한 것이다(박성수, 「1907~1910년간의 의병전쟁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 1968 ; 박성수, 『독립운동사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80).

225) 김상기, 「갑오경장과 전기의병투쟁」, 『한국근대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97, 168쪽.



안동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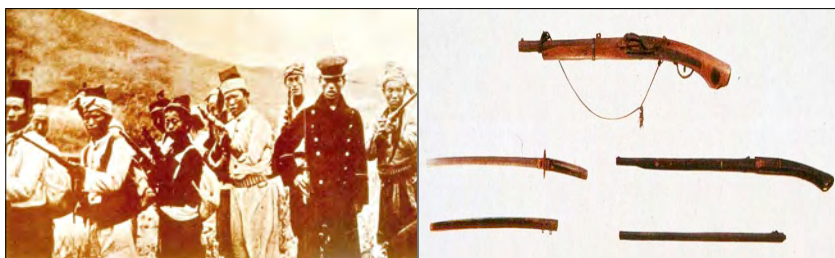
준비단계에 불과했다. 이에 민족존망의 위기감을 느낀 지방의 일부 척사 유생들은 일본군의 무단행위에 저항하면서 의병을 일으켰

다. 안동의 서상철, 지평의 안승우, 홍주의 안창식, 철원의 홍범도, 상원의 김원교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일부 의병활동은 모병단계에 그쳤지만, 서상철과 김원교 등은 무력투쟁의 단계까지 나가 한말 의병의 시발을 이루었다.

최초의 의병 거의자인 서상철은 '갑오변란'으로 경복궁이 유린당하고 고종이 피박당하자 1894년 7월 격문을 발표하고 안동향교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안동부에 의해 저지당했으나 계속 의병을 모집하여 상주의 태봉에 있던 일본군 병참부대와 전투를 벌였다. 상원 의병인 김원교 등은 상원 관아를 공격하면서 반개화·반침략을 기치로 봉기했으며, 을미사변(1895. 8. 20) 직후인 9월 18일에는 무과출신인 문석봉이 '국수보복(國讐報復)'을 기치로 유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 후 의병의 봉기는 1895년 12월 30일 단발령이 공포되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²²⁶⁾

러일전쟁 직후 일제의 한반도 침략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마침내

226) 김상기, 「갑오경장과 전기의병투쟁」, 168~169쪽. 단발령 직후의 안동부에서 거의한 상황에 대해서는 『乙未義兵日記』(國家報勳處, 2003)를 참조.



1900년대의 조선인 의병

의병들이 사용한 총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사실상 국권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민의 반일 적개심이 고조되면서 국권수호를 위한 반일투쟁이 더욱 거센 양상을 띠어갔다. 이때에 을미의병 당시 항전 경험을 축적한 의병들이 상당수 재기하여 전선에 투신하였고, 이들이 의병항쟁을 촉발시켰다. 중기의병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지역적으로 강원·경기·충남·경북·전라도 등 전국에 걸쳐 일어났다. 전투능력도 상당수의 포군이나 포수 및 활빈당 등이 합류함으로써 이전보다 향상된 상태였다.

한편 1907년 고종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의병투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해산된 군인들이 근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지방에 내려가 의병에 가담하여 의병부대의 규모가 커지고 무장과 조직력이 강화되어 전면적인 항일전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의병은 유생과 군인, 그리고 농민·포수·광부·상인 등 각계 각층을 포함하게 되었고, 그 공격대상도 직접 일본군이 되었다. 특히 1908~1909년 사이의 의병전쟁은 호남지역의 의병이 주도했는데,²²⁷⁾

227) 일제가 한국의 강제 병탄이라는 침략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호남의병이 넘어야 할 마지막 장애물이었다. 따라서 남한대토벌작전을 벌여 이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학살을 가했는데, 호남의병은 1907년 8월 군대가 해산되자 장성지역에서 기삼연(奇三衍)이 주도한 호남창의회맹소의 결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09년 9월 일제에 의한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이 실시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초토화작전을 전개한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이제 의병전쟁은 민족을 대표하는 의심할 나위없는 중심적인 항일투쟁이었다.²²⁸⁾

그러나 일제는 군대와 헌병 및 경찰력을 증강, 배치하면서 의병 진압에 필요한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예컨대, 조선주차군의 2개 사단 외에도 1908년 5월 2개 연대 1,600명을 증파했으며, 1909년 6월부터 여단 규모의 임시 한국파견대를 증강 배치하였다.



해외 의병 지도자로서 이토를 포살한 의병 참모
총장 안중근. 신채호는 그의 투쟁을 '의열투쟁
의 전범'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의병들은 주로 황해·경기·강원·함경도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해갔다. 그 활동은 1915년까지 계속되다가 그해 7월 평남 성천에서 대한제국군 부교 출신의 의병장 채운언이 체포됨으로써 국내 의병은 사실상 종식되었다.²²⁹⁾

결국 1910년을 전후로 대부분의 의병장들이 해외로 망명하거나 비밀결사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항일투쟁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국내 의병이 해외로 이주하여 활동의 근거지로 삼은 곳은 만주

228) 조동걸, 「의병전쟁의 특징과 의의」, 『한국사』 43, 국사편찬위원회, 1999, 514쪽.

229) 홍영기, 「의병전쟁」, 『한국군대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97, 286~287쪽.

와 간도, 그리고 연해주가 중심을 이루었다. 연해주에서는 이범윤과 안중근이 연합을 했으며, 1910년 6월에는 유인석이 합류하면서 13도 의군이 결성되었다. 연해주나 간도지역의 의병은 근거지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이며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지향했고, 애국계몽운동가들과도 손을 잡고 민족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목표로 보다 광범위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해외에서의 의병활동은 태평양 건너 미주지역의 네브라스카에서 1909년 박용만이 소년병학교를 창설한 것을 비롯하여 심지어 멕시코에서도 숭무학교(崇武學校)를 창설하며 무력투쟁의 기반을 확대해갔다.

이제 해외에서의 의병투쟁은 이렇듯 투쟁지역, 무장단체의 수나 조직력, 그리고 투쟁의 강도 등이 더욱 강화되면서 단순한 저항을 넘어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전쟁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제2절 의병의 이념과 사상

한말의 의병은 그 단계별로 다소의 이념적 지향에 차이가 있었다. 흔히 1894년 갑오변란과 그 이듬해의 을미사변을 전후로 한 시기를 소위 전기의병 혹은 제1차 의병이라고 한다. 그리고 1904년 2월 10일 일제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침략의 제2단계가 시작될 즈음 한국 정부가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략군을 상륙시킨 일제가 한국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자 이에 전국에서 의병이 쫓기하였다. 제2단계의 항쟁은 1904~1906년까지 3년에 걸쳐 일어난 갑진, 을사, 병오의병을 포함하며 중기의병 혹은 제2차 의병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군의 해산을 전후로 거

의한 의병투쟁을 후기의병, 즉 정미의병 혹은 제3차 의병이라고 한다. 일제의 남한대토벌작전을 전후로 하여 해외의병으로 전환하는 단계가 포함된다.²³⁰⁾

전기의병의 이념은 위정척사를 위한 척사의병이 주류를 이루었다. 위정척사란 성리학을 보편주의의 의식과 질서로 인정하고 서학(천주교)이나 기타 이념을 배격하는 조선사회의 유자들 간에 형성된 주체 의식이다. 위정척사의 논리에 의한 의병투쟁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니고 병자호란 직후에 일어난 북벌론 의식이 위정척사의 논리로 다듬어졌고, 그 후에 다시 실학의 북학론이나 동도서기론이나 개화론에 맞서 계승되어 오다가 일제 침략을 맞아 폭발한 것이다. 전기의병은 척사의병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었지만 동시에 근왕적 성격도 띠었다. 이때의 춘추대의는 충군에 있었다. 척사의병의 성격이 가장 강렬한 의진은 유인석의 호서의진과 기우만의 광산의진이였다.

의병의 성격이 구국의병으로 발전한 것은 중기의병 이후부터다.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리학의 보전을 위해서도 국가의 보위는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전기의병을 유생이 주도했다면 중기의병은 유림이라 해도 최익현·민종식·정환직과 같은 관료 출신자가 주도한 것이 그런 까닭이다. 전기의병이 해산한 후 전국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나면서 조직된 활빈당과 같은 농민조직이 중기의병에 합류하였다.²³¹⁾ 따

230) 의병전쟁의 시기논쟁은 연구자에 따라 2시기, 3시기, 4시기 혹은 5시기로 구분된다. 각 설은 의병전쟁을 이해하는 제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상기, 「의병전쟁에 대한 연구성과와 과제」, 『한국사론』 25, 국사편찬위원회, 1995 ; 유한철, 「중기의병사(1904~1907)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 1,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4 등을 참조.

231) 전기 의병이 평소의 옷을 그대로 입고 무장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무장을 갖추었더라도 포수들의 화승총이 고작이었던 반면, 중기의병은 '자기총(自起

라서 1904년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약 등으로 표현된 일제의 침략에 맞서 반제국주의적 구국이념이 중심 개념으로 부상하였다.

후기의병에 이르러서는 반제국주의적 구국이념이 일반적 성향으로 나타났다. 1907년 고종 황제의 퇴위와 정미조약 그리고 군대해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권상실을 목도하면서 다양한 세력이 의병전선에 참가함으로써 이념도 다원적이고 다양해졌다. 이강년·이인영·이석용처럼 전통 유림의 충군적인 성향도 있었고, 허위·민공호처럼 충군적이지만 근대국가를 지향한 성향도 있었으며, 홍범도·김수민·연기우·지용기·안규홍처럼 평민의병이 추구하는 반봉건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 이념이 분명하지 않은 수많은 의진이 전국에서 항전을 전개하기도 했다.²³²⁾

의병의 이념이 분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이념이 다양해졌고, 또한 이 점은 그만큼 의병전쟁의 목표가 뚜렷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된다. 의병전쟁이 민족운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논리를 극복하고 새 정치이론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당시의 한계였다. 의병이 근대국가의 이념을 확실히 갖추게 된 것은 전환기 의병에 이르러 해외에서 계몽주의자와 함께 독립군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때 계몽주의자는 의병의 정의론과 무장방략을 수용했고, 의병은 계몽주의자의 근대국가 이론을 수용했던 것이다. 연해주에서 의병과 계몽주의자가 연합한 13도 의군의 결성이 그 대표적인 예다.²³³⁾

銃'을 사용했다. 정환직·신돌석·최익현의 의진이 관아를 습격하여 뇌관을 타격, 폭발시켜 총을 쏘는 근대식 자기총을 압수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후기의병에 이르면 해산된 군인들이 참여한 까닭에 개인화기로 화승총을 개조하거나 장총을 단총으로 개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자기총이 일반화되었다(조동걸, 「의병전쟁의 특징과 의의」, 『한국사』 43, 526쪽). 의병의 무기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군사연구소, 『한국무기발달사』, 1984, 588~605쪽 참조할 것.

232) 조동걸,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01), 2007, 29~31쪽.

이러한 한말 의병의 사상과 이념을 조선 후기의 성리학적 계보로 살펴보면 화서학과, 정재학과, 남당학과, 그리고 노사학과로 대별된다.²³⁴⁾ 대부분의 의병장들이 위정척사론에 기초했으나 이들 학파의 영향 속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시기별로 각 학파의 의병전쟁의 이념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개화가 곧 망국이며, 나라의 적을 물리쳐 복수하고, 일본과 전면적인 결전을 통하여 민족의 생존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반침략 의병투쟁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한말의 의병은 각 시기마다 그리고 각 학파마다 의병투쟁의 방향과 목적에 차이가 있었고, 점차 그것이 하나의 점점, 즉 구국의병으로 통합되어갔다고 할 것이다.

백암 박은식(朴殷植, 1859~1925)이 말했듯이 한말의 의병전쟁은



백암 박은식 한국통사(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제공)

233) 조동걸, 「의병전쟁의 특징과 의의」, 『한국사』 43, 521쪽.

234) 각 학파의 자세한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는 김상기, 『한말 전기의병』(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9), 2009, 39~71쪽을 참조하기 바람.

“그 성과보다 죽음을 무릅쓴 저항정신”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한 투쟁이었다.²³⁵⁾ 해외 의병의 선구자인 안중근도 의병전쟁이 완전한 국권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 길은 “국민된 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²³⁶⁾ 그는 법정담판에서 자신을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이라며 ‘전쟁포로’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포살한 자신의 행위가 전쟁행위라고 당당히 주장하며 의병투쟁이 곧 항일전쟁의 일환이었다고 역설하였다.²³⁷⁾ 안중근의 법정담판은 의병전쟁의 현실적 성과를 넘어서서 투쟁의 정당성이나 정신적 가치의 측면에서 의병전쟁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이렇듯 한말 의병은 의병이 일어난 전 시기에 걸쳐 의병전쟁의 성격, 투쟁목표, 지도자와 참여층의 신분, 그리고 투쟁조건 등 여러 변화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에는 유생 의병장들이 강조하듯이 망천하(亡天下)·망국가(亡國家)의 위기를 당하여 절개와 의리를 지키는 유자적인 가치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른바 처변삼사(處變三事)가 그것인데, 첫째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방법(擧兵), 둘째 망명하는 방법(浮海去守), 셋째 순절 또는 자정(自靖)하는 방법이다. 의병에 참여한 유생들은 거병을 선택한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먼저 언론(上疏)으로 저항하다가 전략을 바꾸어 무장행동으로 저항하기로 결심한 일종의 ‘무기를 든 선비’였던 것이다.²³⁸⁾

의병정신의 기저에 선비정신이 관류하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과장

235) 박은식, 「日人弑我國母儒林擧義」(『한국독립운동지혈사』 상편 4장, 『朴殷植全書』 上, 1975, 단국대출판사 所收)

236) 『韓國獨立運動史資料』 6, 국사편찬위원회, 1977, 394쪽.

237) 백기인, 「안중근의 국권수호운동과 사상」, 『청계사학』 13, 1997.

238) 김창순·박성수 편, 『한국독립운동사』, 삼광출판사, 1989, 36쪽.

된 해석이 아니다.²³⁹⁾ 홍주의 의병장 이설(李悛, 1850~1906)은 그의 스승 한원진(南塘 韓元震, 1682~1751)에게 올리는 제문에서 “선생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길 ‘절개가 있고 학문이 없는 자는 오히려 한 사람의 지사로서 살 수 있지만 학문만 있고 절개가 없는 자는 바로 위학이다’ 라 하셨다”고 하며 절의가 선비의 생명임을 천명했다.²⁴⁰⁾ 호남 의병장인 기우만(奇宇萬, ?~1898)은 선비에게는 “병(兵)과 식(食)과 신(信) 세 가지 가운데 부득이 하나를 버려야 할 경우에 우선 병을 버리고 다음으로 식을 버리지만 신은 끝내 버릴 수 없듯이, 오늘 의 일에 있어서도 비록 병과 식은 버릴지언정 선왕의 전례는 버릴 수 없고 선성(先聖)의 정학(正學)은 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²⁴¹⁾ 선비가 절개와 신의를 지키는 방법으로 모색한 것이 의병이라는 뜻이다.

또한 광종석(郭鍾錫, 1846~1919)은 ‘포고천하문(布告天下文)’에서 “아! 나라가 부서지고 임금의 옥을 당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살며, 사람이 금수가 되는데 어떻게 이 땅에 서란 말인가?” 라 하며, “백면 서생이 경서를 던지고 눈을 부릅뜨며 쑥대머리 농민들이 쟁기를 버리고 두 주먹을 두들기며 각처에서 일어나 피와 살이 벌판에 깔리고 처자가 칼날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보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토로하였다.²⁴²⁾ 이제 선비들은 나라의 상황이 지금까지 시도하여 온

239)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80, 101~102쪽.

240) 임한주, 『洪陽紀事』(『독립운동사자료집』 제2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281쪽.
“先生嘗曰。有氣節而無學問者。猶可爲一節之士。有學問而無氣節者。是僞學也。”

241) 기우만, 『松沙集』(『독립운동사자료집』 제3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41쪽.
“兵食信三者。不得已而去。則去兵去食。而信不可去。今日事雖去兵食。而生王典禮。不可去也。生聖正學。不可去也。”

242) 광종석, 「布告天下文」(李正奎, 『倡義見聞錄』 所收, 『독립운동사자료집』 제2집, 103쪽) “於乎, 國破主辱, 生亦何心, 爲禽爲獸, 何以自立爲鄙國臣民者。義不與逆賊, 共戴一天。所以白面之類, 投經而怒目, 蓬頭之氓未而扼腕, 群群蠭起, 不呼而應。雖至血肉膏於原野, 妻子湛於鋒鏑, 有不暇顧者, 上天至仁, 寧不惻然而動心乎。”

상소라는 언론투쟁만으로는 도저히 사태를 바로잡을 수 없는 극한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거병·거의가 선비의 처변삼사에서 가장 우선적인 행동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유생 의병들은 이른바 ‘거의파(擧義派) 유생’으로서 선비의 무사적 정신을 발휘한 이들이었다.²⁴³⁾

이렇게 의병의 거의에는 선비정신이 그 바탕을 이루었는데, 1894년 의병이 거의해서 1915년 종료될 때까지 무려 15만 명의 희생자를 낸 피의 저항을 이끈 원동력도 바로 선비정신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백암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의병은 성패를 가지고 논하기보다 그 정신이 소중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제가 2개 사단 병력으로 7·8년간이나 싸워야 했던 것은 순전히 의병전쟁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그 실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의병의 본질은 ‘죽음을 무릅쓴 저항정신’에 그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백암이 의병전쟁을 평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²⁴⁴⁾

“대체로 의병의 저항 때문에 일인은 무력으로 압박을 가했다. 또 그 때문에 우리의 항거가 더욱 치열해졌으니 의병은 독립운동의 도화선이었다. 만약 그 성패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해를 천박하게 만들 뿐이다.”

박은식은 정신사적으로 의병전쟁을 3·1운동에다 결부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말 의병을 임진의병에, 그리고 임진의병을 다시 삼국시대 이래 의병항쟁으로 소급시켜 역사적인 맥락에서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²⁴⁵⁾ 그래서 의병정신은 민족사를 통하여 외적의

243)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 105쪽.

244) 박성수, 「독립전쟁의 원류 - 박은식의 의병관」, 『한국독립운동사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183쪽.

245) 박성수, 「독립전쟁의 원류 - 박은식의 의병관」, 184쪽.

침략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 결사감전(決死敢戰)하는 기풍으로서 주체적인 항쟁의식으로 표출된 것이고, 그 주체가 유림향신·승려였다고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의병이란 민군(民軍)이다. … 우리 민족은 본래 충의에 돈독하여 삼국시대부터 외환에 대처해왔다. 의병이 수립한 가장 뛰어난 활동은 조선조의 선조 때 왜 구에게 유린당한 8년 간이었다. … 모두 초야에서 분기하여 조정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없이 오로지 충의로서 무리를 모아 민중을 격려하고 결사감전(決死敢戰)했다. … 충의의 피는 우리의 국민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병은 수십년간 줄줄이 일어나 기의토적(起義討賊)했던 것이다. 비록 전술을 배운 바 없고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의 뜻만은 결사순국(決死殉國)이었다. 맨 주먹으로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역대로 나라가 국민의 충의를 배양해 온 결과라고 아니고 무엇인가?”²⁴⁶⁾

백암은 의병정신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민족사의 내면에 관류하는 역대 의병항쟁의 저항의식이 현재에 체현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의병정신에 대한 이해는 박은식은 물론이고 단재 신채호·위당 정인보의 역사세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의병들의 사상이나 감정 그리고 태도가 후일의 독립군이나 광복군의 사상·감정·태도에 전승되었다. 그리고 그 정신은 현대 국군의 정신과 이념적 지향으로도 발현되었다.

한말의 의병정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⁴⁷⁾ 첫째, 국혼·국수론(國魂·國粹論)이다. 백암 박은식이 설파한 대로, 한말 의병은 역사적으로 결코 우연한 돌발사건이 아니고, 위정척사(衛正斥邪)를 제창한 유생들의 고유한 속성도 아니었다. 그것은 결국 한국인의 국성(國性)으로 내재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맨주먹으로 칼을 두려

246) 박은식, 「各地義兵之畧歷」(『한국독립운동지혈사』 상편 11장, 『朴殷植全書』 上)

247) 김창순·박성수 편, 『한국독립운동사』, 49~63쪽.

워하지 않는 결사순국의 정신은 이미 3·1운동 이전인 한말에 그리고 임진왜란 때에 거듭거듭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가 의병정신을 국혼(國魂)이라 한 것도 그러한 까닭이었다. 한국이 반드시 독립하여야 하며 그 어떤 민족에도 동화될 이유가 없다는 것은 국혼이 있기 때문이며, 국혼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의병정신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백암은 “의병은 우리 민족의 국수(國粹)다”라고²⁴⁸⁾ 하면서 항일투쟁(抗日鬪爭)에서 의병전쟁이 필연적으로 무장투쟁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음을 강조했다. 한국의 국혼은 결코 문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강(武強)하다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성패불수론(成敗不須論)이다. 의병정신은 결사순국의 정신으로 세상의 변고를 당하여 자신을 초개처럼 던져서 항거하는 저항정신이다. 의병은 결코 이기고 지는 성패를 따져 싸우는 군대가 아니고 오직 ‘정정당당 의연하게’ 나아간다. 『종의록(從義錄)』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옥산 이정규(李正奎, 1864~1945)도 “큰 환난을 당해서는 우리의 처신이 셋 있으니 의병을 일으켜 적을 소탕하는 것과 돌아가 지키는 것, 그리고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함이라”면서 그 선택은 제 각각의 몫이라고 했다. 실곡 이필희(李弼熙)는 의병의 길로 나서기에 앞서 여러 선비들 앞에서 말하길,

“오늘의 일은 싸우지 않으려면 죽는 길이고, 죽지 않으려면 싸우는 길이니, 그 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일어나 적을 토벌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²⁴⁹⁾ 실토하였다. 이정규는 또 하나의 기록인 『육의사열전(六義士列傳)』에서 주용규(朱庸奎) 의병장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48) 박은식, 「各地義兵之畧歷」(『한국독립운동지혈사』 상편 11장, 『朴殷植全書』 上) “義兵者吾族之國粹也.”

249) 이정규, 『從義錄』(『독립운동사자료집』 제1집), 17쪽.

“우리들이 거사한 까닭은 왕패의 계획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요, 또 군사의 직책에 있어 그 본분을 행하려는 것도 아니다. 진실로 수천 년을 전해오는 도가 끊어지니 선비로서 선왕의 도를 지키는 자라면 어찌 차마 아무런 소리도 없이 보고만 있겠는가. 장차 대의를 천하만세에 퍼자는 것이다. 성패와 이해를 논할 바 아닌즉 다른 병가와와는 너무도 같지 않다. 진실로 마땅히 정정당당하게 의연히 나가다가 다행히 신명의 도움을 힘입어 온 누리를 깨끗이 밝히게 된다면 좋은 일이거니와, 만약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부딪힌다면 뜻을 같이하고 의리를 같이 한 사람들은 다만 죽을 사자를 쓴 부작을 지니고 도와 더불어 존망을 같이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²⁵⁰⁾

이렇듯 의병의 정신은 한결같이 ‘성패를 논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라는 의로운 저항 그 자체였다. 성패를 불문한다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나아가 싸우는 결사감전과 적과의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된다는 비타협주의를 말하는 데, 한국의 민족운동을 통해 결사감전은 항일무장투쟁노선을, 비타협주의는 완전독립론을 끌어내는 정신적 원류였다.

셋째, 반일자주론(反日自主論)이다. 한말 의병은 개화를 반대했는데, 그것은 박은식이 말한 일족수구론(日族讐仇論)과 같은 것으로 일본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반영하고 있었다.²⁵¹⁾ 이남규(李南圭, ?~1907)는 『청절왜소(淸絶倭疏)』(1894년)에서 일본이 “조선을 자주국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조선에 화를 입혔다고 일본의 개화론에 대한 허구성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의병들에게 개화는 곧 망국과 다를 바 없었다. 최익현은 「청토역복의제소(淸討逆復衣制疏)」에서 개화가 망국이요 자주위 상실이며 예측화라고 일갈했는데, 개화를 망국으로 보는 태도는 대부분 유자들의 공통된 관점이었다. 의암 유인석도 해외로 망명한 후 저술한 「우주문답(宇宙問答)」에서

250) 이정규, 『六義士列傳』(『독립운동사자료집』 제1집), 165쪽.

251) 박성수, 「독립전쟁의 원류 - 박은식의 의병관」, 192쪽.

개화와 망국을 일련선상에 놓고서 일본에 의한 개화의 역사를 비판하였다.

“비록 구법이 나라를 망친다고 하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개화 후의 일어난 일이다. 개화를 한다면서 그 하는 바는 국모를 시해하고 군부를 폐하며 인륜을 무너뜨리고 법률과 기강을 문란케 하고 나라를 팔아 결국은 나라가 망함에 이르렀다. 구법을 써서 망하더라도 어찌 개화를 해서 망하는 것보다 심하겠으며 비록 나라가 망하더라도 바르게 하다가 망하고 깨끗하게 하다가 망하는 것이니, 개화를 해서 극악하고 더럽게 망하게 하는 것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²⁵²⁾

이렇듯 의병은 정신적으로 유자들의 실천적 행동과 이념에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성패를 불문하고 일어선 나라의 국혼이자 정수요정기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의병의 지도자들은 개화의 역사를 국권의 자주성을 상실한 망국의 길로 이해하면서 무장투쟁에 의한 국권회복에 나섰던 것이다. 근대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최초의 무장투쟁인 의병전쟁은 요컨대 정통한 역사관과 민족의식과 합치되었고, 무장투쟁에 의한 항일운동으로서 독립전쟁과 결합되어 한국민족운동사의 한 계보를 형성했던 것이다.

제3절 의병전쟁의 전략전술

가. 근거지전략과 ‘연합’작전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군이 해산되면서 근대적인 군사경험을

252) 유인석, 「宇宙問答」, 『毅菴集』卷51, 563쪽. “其雖曰舊法亡國. 亡國在行開化後也. 曰爲開化而其所爲也 弑國母廢君父, 乖倫常敗法綱賣國, 而至於國亡. 使爲舊法而亡國, 其有甚於開化之爲亡於極汚也.”



일제의 군대해산으로 무장해제 당한 대한제국군

가진 해산 군인들이 지방 의병에 가담하자 의병전쟁은 반제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그러나 의병 진영은 공동으로 서울진공작전을 감행하기도 했지만

일본군의 대대적인 의병 근거지에 대한 소탕작전인 ‘초토화작전(焦土化作戰)’으로 인하여 그 대부분이 결국에는 간도나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하여 해외의병 활동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병전쟁이 해외에서의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으로 전환한다는 전략, 바로 그것이 ‘근거지투쟁전략’이다. 이로써 1910년을 전후로 해외에서의 독립전쟁으로 항일투쟁의 방향을 바꾼 민족운동가들은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장기적인 근거지투쟁전략을 구사하였다. 의병의 장기적인 근거지투쟁전략을 대표하는 사례로서는 유인석의 ‘북계(北計)’가 있고, 의병전쟁에서 부대 간의 공동작전인 ‘연합(連合)’ 의병의 사례로는 이인영이 주도한 서울진공작전이 대표적이다.

유인석의 ‘북계(北計)’ 유인석은 초기의병이라 할 수 있는 을미 의병 직후인 1896년부터 의병장으로 등장한 의병전쟁의 선구적인 인물이다. 그는 이항로를 연원으로 하는 위정척사학과 중에서 화서학파의 맥을 잇는 유학자로 제천의병을 비롯한 국내의병의 중심축을 이루었지만 일제의 토벌작전으로 국내에서의 활동 공간이 협소해지자 연



의암 유인석과 강원 춘천시에 세워진 그의 동상(한국 디지털 아카이브 제공)

해주로 이주하여 해외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의 의병투쟁은 단지 투쟁방식이 무장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만이 아니라 전술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인석 의병의 가장 큰 특징은 전략상으로 ‘근거지전략’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그는 1895년 말부터 1896년 5월의 기간 중 거의(舉義) 과정에서 황해도·평안도의 서토강용(西土強勇)에 의한 복진지계(復振之計)를 계획한 바 있었다. 그의 근거지전략은 바로 이에 연원을 두고 있는데, 1907년 7월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의 체결로 국권상실이 확실해지자 더 이상의 국내투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국외에서 의병활동의 근거지를 구축하여 투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 했던 것이다.²⁵³⁾

그는 국가의 변란에 대처하는 방법은 “첫째는 의병을 일으켜 적들을 깨끗이 소탕하는 것이고(舉義而掃淸), 둘째는 나라를 떠나서 자신

253) 백기인, 「안중근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4, 31쪽.

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고(去之而自守), 셋째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自靖而遂志)”이라며 세 가지를 제시하고²⁵⁴⁾ 상황이 급박해지자 국내에서의 계획보다 국외에서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이다. 유인석은 1907년 7월 13일(음력 6. 4) 「여동지사우서(與同志士友書)」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²⁵⁵⁾

“방내를 돌아 보건대 더 이상 계획을 펼 바가 없다. 바야흐로 나라밖으로 나가 그 땅을 점하고 국내의 충의호걸을 맞아 그 세력이 왕성해지기를 기다려 기회가 생기면 흥복(興復)을 도모하려 한다. 국가의 존망, 화맥(華脈)의 존망, 인류의 존망이 이 일거에 달려 있으니, 이는 참으로 큰 일이다.”²⁵⁶⁾

또한 유인석은 13도 창익대진소가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하려 할 당시 각기병(脚氣病)을 치료하기 위하여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는 1908년 대진소에 「여제진별지(與諸陣別紙)」를 보내어 속전속결론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동시에 지구전론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지금의 의거가 지구(持久)에 그 묘책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근거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⁵⁷⁾

“생각해보건대 지금의 의거는 묘책이 지구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구를 하면 반드시 기괄(機括)을 만나게 될 터이니 요는 지구하여 근거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동쪽으로 달리고 서쪽으로 쫓고 하자면 형세가 지탱하기 어려울 터인데 근거지를 얻지 못한다면 이를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허위와 이강년 등에게 보낸 별지에서 드러난 근거지 개념은 전국

254) 유인석, 『毅菴集』 권24, 「與同門士友」(1896. 11. 7)

255) 유한철, 「유한철 의병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117쪽.

256) 유인석, 『毅菴集』 권25, 「與同志士友書」(1907. 6. 4)

257) 유인석, 『毅菴集』 권25, 「與諸陣別紙」 “竊意, 今義舉妙在持久. 持久即必值機括, 要持久得根據地. 乃可顧東驅西遂, 勢難支吾而不得其地, 是將奈何?”

의병의 연대에 의한 지구를 강조하고,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만전의 계책이 북계’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백두산이 지리적으로나 무장투쟁의 사회적 조건 혹은 국제적 조건으로 보아 일국의 근저로 서 북인과 서북간도의 한인, 그리고 청·러와의 연결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근거를 얻는데 용이하다는 것이었다.²⁵⁸⁾ 이러한 그의 근거지 구상은 의병을 일으키는 거의 노선과 화이관에 입각한 항일이념의 구현이 한계에 봉착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급변책이었다.²⁵⁹⁾

「여제진별지」에서 유인석은 동남지방의 의병진이 근기(近畿) 지방에 모여 서울에 입성한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것은 꾀사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일정한 투쟁경험이 있었고 적의 역량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서울진공작전은 일대 장거이기는 했지만 적의 전투역량을 충분히 파악하고 실행한 작전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제시한 방안은 상책과 만전책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유인석은 당시 취할 수 있는 방책으로 각 지방의 의병부대들이 서로 연계해서 벌이는 지구전을 펼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제가 통치체계를 정비하고 확립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에 이 같은 상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북계(北計)’가 만전책이라는 것이었다.²⁶⁰⁾ 지구전을 하려면 근거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가 제시한 적합한 근거지로서는 무엇보다 지리적 조건을 고려할 때 백두산과 그 주변 고을이었다.

258) 姜在彦, 「朝鮮獨立運動의 根據地問題」, 『朝鮮民族運動史』 No.1, 1984, 22~27쪽.

259) 박민영, 「구한말 서북변경지역의 의병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5, 64쪽.

260) 강재언, 「의병전쟁의 발전」, 『한국사』 43, 국사편찬위원회, 1999, 478쪽.

“생각건대 백두산은 일국의 뿌리이다. 그 주변에 있는 무산·삼수·갑산·장진·자성·후창·강계 등 여러 고을은 절협해서 지키기에 요충지가 될 만하다. 여기에 의거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²⁶¹⁾

이러한 지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서북지방의 인적이나 물적인 조건이 근거지의 형성에 적합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는 서북지역의 유리한 점에 대하여 포(砲) 사용에 능한 사람이 많고 군세다는 점, 북간도와 서간도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이 풍부하다는 점, 그리고 병력을 취합시켜 훈련을 시키기에 용이하고 재화나 곡물이나 병기의 구입이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서북지방은 사람이 군세고 포도 잘 쓰며 양간(북간도와 서간도)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매우 많으니 성기(聲氣)가 상통하는 바도 없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병력을 취합하여 훈련시킬 수도 있고 전곡(錢穀)을 넉넉히 마련할 수도 있으며, 병기를 구입하고 만들 수 있다.”²⁶²⁾

특히 유인석은 이 지역이 청과 러시아가 연결되어 있어 국제적 조건에서도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청국과 러시아와 연접하고 있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도래하면 한 번의 호령으로 국내외 의병이 용이하게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이 약하고 러시아가 강하므로 우선 러시아 접경지역에 근거지를 건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²⁶³⁾

“청·러시아 두 나라와 접촉하면 길이 없지도 앓을 터이므로 그곳에 전국의 호걸들을 집합시켜 예기(銳氣)를 가다듬고 기다리고 있다가 호령을 한번 내리면

261) 유인석, 『毅菴集』 권25, 「與諸陣別紙」

262) 유인석, 『毅菴集』 권25, 「與諸陣別紙」

263) 강재언, 「의병전쟁의 발전」, 『한국사』 43, 478쪽.

전국을 움직일 수 있으므로 큰 일을 쉽게 마무리할 수도 있다. 듣자니 삼수·갑산·북청 등지에는 이미 의병이 일어나 매우 씩씩하고 장진과 강계에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니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금 만일 동남의 병력 몇천명을 보내서 이들과 합치게 하면 세력이 굉장해지고 바로 서북 제읍에 확장할 수도 있으니 근거가 꽤히 이루어질 것이다.”²⁶⁴⁾

이렇듯 유인석이 제시한 근거지전략은 의병 투쟁의 근거지를 현지에 구축하고, 여기에 전국의 정예부대를 집결시켜 활동을 시작하면 그것이 타지방에 파급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좋은 기회를 기다려 전국이 움직이면 대사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전국적인 거의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던 것이다.

“지금 동남의 제진은 근거에 집결해 있는데 입성한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다. 입성이 통쾌한 일이지는 하나 매우 위태로운 일이다. 의병은 지금 나라의 명맥이 매여 있는 바이니 어떠한 묘계가 있어 일거에 나라를 회복할 길이 있지 않다면 구태여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또 달리는 계책이 없는데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면 혹 위험을 헤아리지 않고 한번 결말을 내볼 수도 있겠으나 달리 계책이 있으면 그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의 말이 다 그러하니 틀림없이 소견이 있는 말일 터인데 제집사의 생각에는 어떻게 여기는가? 이 사람의 경망한 소견으로는 팔도에 널리 분포하여 서로 연락하면서 대응하고 자구책을 써서 저들로 하여금 조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사세가 지탱하기 어렵게 된다면 만전책은 북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²⁶⁵⁾

유인석의 ‘북계’에 의한 근거지 구상은 독창적이면서 실천적인 독립운동전략이었다. 실제로 근거지전략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264) 유인석, 『毅菴集』 권25, 「與諸陣別紙」

265) 유인석, 『毅菴集』 권25, 「與諸陣別紙」

걸친 독립운동의 방략으로서 중국의 만주지역에서 창설된 근거지를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정작 유인석의 근거지 구상 자체가 그대로 실현된 바는 없었다. 그 이유는 군중을 결속시키기 위한 그의 지도이념이 너무나 정신주의적이었고 유교적이었다는 점에 기인했기 때문이었다.²⁶⁶⁾

유인석은 1908년 8월 노령의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여 연추(煙秋, 크라스키노)에서 최재형·이범운 의병부대에 합류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항일의병전쟁의 근거지를 두자면서 근거지 군중을 결속하기 위한 지도이념으로 1909년 7월 「관일약(貫一約)」을 제시하였다.

“나라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며, 같이 마음을 먹는 것을 하나로 관통하기로 했다. 이는 장차 이 땅에 함께 우거하는 제현들과 우선 일심 단체를 만들어 마침내 온 나라의 일심 단체로 만들어야 하고, 우선 자신을 보전하며 도를 지켜서 국권을 회복하며 인류를 구제하기를 기약하는 것이다.”²⁶⁷⁾



연추 지역 병영근거지 추정지(심현웅 박사 제공)

‘관일약’이란 마음을 ‘4애(愛)’, 즉 애국(愛國)·애도(愛道)·애신(愛身)·애인(愛人)에 두어 ‘일이관지’ 하고,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일이관지’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말하

266) 강재언, 「의병전쟁의 발전」, 『한국사』 43, 479쪽.

267) 유인석, 『毅菴集』 권37, 「通告」

는 나라는 ‘소중화 예의의 나라’를 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복고주의적 근왕주의에 의한 국가관을 견지하는 견해였다.

“대체로 애국(愛國)이라 말함에 애국은 반드시 정직으로 해야 하고, 애도(愛道)라 말함에 애도는 반드시 정직으로 해야 하고, 애신(愛身)이라 말함에 애신은 반드시 정직으로 해야 하고, 애인(愛人)이라 말함에 애인은 반드시 정직으로 해야 한다. 만일 정직으로 하지 않으면 나라는 중화와 예의를 숭상하여 나라가 되는 소이를 버리고 다만 강토만 보존하는 데 머물고, 도는 강상(綱常)과 인의가 도가 되는 소이를 버리고 도리어 간사하고 음란한 데로 나가게 되고, 몸은 선신(善信)과 법도가 몸이 되는 소이를 버리고 겨우 몸의 껍질만 보존하게 되고, 사람은 정대하고 고귀하고 현달하는 것이 사람이 되는 소이를 버리고 금수에 빠지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어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의 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정직을 잃은 것일 뿐이다. 오늘날 화를 면하기를 구할진대 정직으로 하지 않으면 불로 불을 구제하는 것 같아 화가 더욱 화를 구할 것이니 면할 수 있겠는가?”²⁶⁸⁾

한편 그가 연해주 일대에서 활약하고 있던 ‘이범윤 의병부대’에 합류할 무렵인 1908년 10월에 지은 「의병규칙(義兵規則)」에서는 의병진의 정신과 생활준칙 등에 관한 규율을 다루었다.²⁶⁹⁾ 이는 ‘13도 의군’의 행동규약이자²⁷⁰⁾ 실천조직인 ‘관일약’과 함께 의병의 근거지 구상을 다룬 세부적인 실천계획이었다. 「의병규칙」은 35개 항으

268) 유인석, 『毅菴集』 권36, 「貫一約約束」

269) 유인석, 『毅菴集』 권36, 「義兵規則」

270) 13도 의군은 유인석이, 이상설, 이범윤 등과 함께 간도, 연해주 등지의 의병세력을 하나의 편제로 통합함으로써 탄생시킨 의병부대다. 13도 의군은 복국존사(復國存社)·부도보민(扶道保民)을 명분으로 국내와 제휴한 동시 의거를 통해서 일본과의 전면전을 목표로 삼았다. 유인석은 13도 의군이 편성되고, 이상설·이범윤·이남기에 의해 1910년 의군 도총재로 추대되는 과정에서 전 민족적 지도자로 부각되었다(박민영, 「구한말 서북변경지역의 의병연구」, 65쪽; 윤대식, 「의암 유인석의 척사와 실천」, 『동양정치사상사』 제1권2호, 2002, 80쪽).

로 구성되었는데, 내용상으로 조직론(6개항), 운용론(14개항), 전술론(13개항)으로 구분된다.²⁷¹⁾

〈「의병규칙」의 주요 항목〉

구 분	항목 구성
조직론(6개항)	4항(대장) 5항(참모) 6항(총무) 7항(재무) 8항(운량) 9항(조직체계)
운용론(14개항)	2항(단결) 3항(기율) 10항(화목) 13항(신의) 11항(행형) 12항(군례) 14항(호령) 15항(기밀) 16항(상벌) 17항(논판) 18항(참수) 19항(군수) 30항(균등분배) 31항(절약)
전술론(13개항)	20항(대적대상 : 관찰사, 군수) 21항(대적대상 : 일진회 등) 23항(용병) 24항(거국 봉기) 25항~29항(지방 의병 전술) 32항(근거지론) 33항(선지방 후경성 공격)
기타(2개항)	1항(봉기명분) 35항(봉기목적)

「의병규칙」은 의병활동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으로서 내용상으로 보면 조직론, 운용론, 전술론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서 운용론과 전술론의 비중이 가장 크다. 유인석은 의병의 기본 속성이 군대인 만큼 “군대 안의 일이 첫째 법칙도 기율이고, 둘째 법칙도 기율이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엄격한 기율이 군대의 명령체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지금 각국을 살펴보건대 가능성이 많은 나라는 기율이 확일적이니, 기율을 보면 군대의 천연의 규정법칙을 보게 된다. 국가의 명령으로 군대를 출동시키는 데에는 기율이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일반 동포로서 아래로부터 일을 하니, 기율은 마땅히 만 배나 엄격해야 한다. 무릇 의거를 함께 하는 사람은 기율을 아끼기를 마치 상처 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하며, 기율을 겁내기를 마치 저축함을 두려워하는 듯이 하여 일체 기율로 생활의 명맥을 삼을 일이다.”²⁷²⁾

271) 유한철, 「유한철 의병 연구」, 128쪽.

272) 유인석, 『毅菴集』 권36, 「義兵規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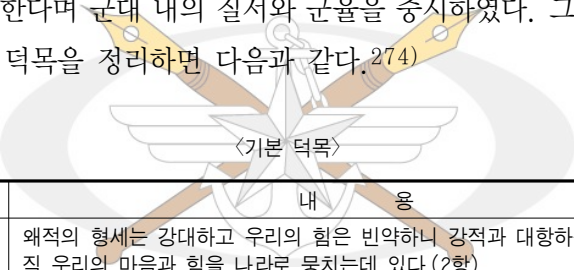
군대의 엄격한 기율체계를 강조한 유인석은 군대 안의 대장을 비롯한 참모와 각 분야별 담당의 기능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군대의 최고 지휘자인 대장은 군대의 운용을 책임지는 주장자로 스스로 착하고 고른 덕을 힘쓰고 엄중한 체통을 지키며, 인자와 위엄으로 아랫사람을 다스려서 일군의 화합과 엄숙함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장좌(將佐) 이하 여러 집사(執事)로는 마땅히 책임자를 뽑아 그 직책을 나누어 맡겨 그 역할을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대장과 장좌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격적 덕목으로 그는 의(義)·신(信)·지(智)·용(勇)을 들었다.

또한 유인석은 참모를 수참모(首參謀), 중참모(衆參謀), 차원(差員)으로 분류하고, 군대 안에서는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무 1명을 두어 관장하게 하며 재용(財用)은 군대의 명맥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장재(掌財)는 사람을 잘 선별하여 정해야 한다고 했다. 운량(運糧) 역시 그 중요성이 장재와 같으므로 인격과 모든 것을 장재에 비견하여 선정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진(陣)의 편성에 관한 논의다. 유인석은 군대의 전투편성과 그에 따른 지휘서계를 분명하게 구획하고자 하였다. 그가 제안한 전투편성은 100명을 1대(隊)로 하고, 대는 제1대, 제2대로 일컫되 대마다 대장(隊長)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예하에 있는 분대장(分隊長)은 각각 군인 50명을 거느리는데 용감하며 담력이 있고 앞장서기를 잘하는 자로 뽑아야 하고, 병사 10명마다 십장(什長)을 두되 미덥고 명철하며 용감하고 겸손하여 대중을 다스리는 도량과 대중을 승복시키는 위엄이 있는 자로 임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으로서 총령장(總領長)을 두는데 그의 지휘통솔은 대장(大將)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로써 부대의 지휘체계는 대장

(大將)-총령장-대장(隊長)-분대장-십장으로 지휘서열을 이루게 된다.²⁷³⁾ 그밖에 지휘관계 안에서는 총령장과 대장(隊長)이 각각 종사(從事)를 두어 주선하고 정참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유인석은 「의병규칙」에서 군대 안의 화목과 단결, 엄격한 체제, 군례의 간소화, 신의에 의한 업무처리, 호령의 명료성, 기밀 누설의 차단, 신상필벌의 신중과 엄격함, 모사로 이익을 얻고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워 승리한 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기율을 능범하거나 이간한 자 혹은 기밀 누설자나 사적인 원한으로 모함한 자나 살인자는 목을 쳐 죽이고, 재물을 훔치거나 여색을 탐한 자도 목을 쳐 죽여야 한다며 군대 내의 질서와 군율을 중시하였다. 그가 밝힌 의병의 기본 덕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⁷⁴⁾



기본 덕목	내 용
단결	왜적의 형세는 강대하고 우리의 힘은 빈약하니 강적과 대항하는 방도는 오직 우리의 마음과 힘을 나라로 뭉치는데 있다.(2항)
기율	군중의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기율로써 유지되는 것이니 기율이 바르면 만 가지 실마리가 다스려지고 만 가지 법이 설립되지 않음이 없다. 기율이 바르지 않으면 스스로 어지러울 뿐이니 어찌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3항)
화목	비유컨대 대장은 머리오, 총무는 몸통이고, 참모는 심장이며, 재무는 위장이고, 종사는 이목과 후설이요, 대장은 수족이며, 사졸은 손톱, 발톱, 어금니이니 군맥이 조화되고 혈세가 유통되어야 일을 이룰 수 있다.(10항)
신의	신의로써 근본을 삼아야 한다. 신의는 모든 사람을 접하고 일을 조치하는 대강령인데 군중에서는 더욱이 신의로써 근본을 삼지 않을 수 없다.(13항)

273) 지휘계통이 대장-총영장-대장-분대장-십장의 체계로 이루어진 5단계 지휘계통의 조직을 형성하고, 또한 총영장 휘하에 2개의 대와 각 대에 2개의 분대, 그리고 각 분대에 5명의 십장을 두는 의진의 제대 편제는 여타 유생의 의병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편성이다. 바로 이 점이 민병 조직이 독립군의 정규조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유한철, 「유한철 의병 연구」, 129쪽).

274) 유한철, 「유한철 의병 연구」, 130~131쪽.

이렇듯 유인석은 의병 병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으로 단결, 기율, 화목, 신의를 강조하였다. 단결과 기율을 서두에서 언급한 것은 바로 의병이 기본적으로 군사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특히 군수물자의 조달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므로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병사(兵事)는 재정과 군량을 근본으로 하는 만큼 나라에서 취하고 백성에게 취할 뿐이지만 그 모든 것이 적의 수중에 있으니 적의 재산을 취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주고 취하는 것을 확실한 의리로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밖에 유인석은 백성으로부터 거두는 추렴을 정당화하면서 추렴의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그가 적시한 원칙은 함부로 취하지 말고 좋은 말로 효유하여 억울한 마음이 없도록 할 것, 만일 협잡배들이 의병을 사칭해 농간을 부리는 일이 있으면 이를 엄징할 것, 재물을 남용하거나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그리고 재물을 취한 후 ‘계권(契券)’에 상세히 기재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릴 것 등과 같이 매우 세부적인 내용이었다.

그가 제시한 의병의 운영을 위한 세부 항목에서 강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⁷⁵⁾

〈세부 항목〉

세부 항목	내 용
행형(行刑)	군중에는 상하의 체제가 엄숙해야 한다. 엄숙하지 않으면 어지럽게 될 것이다. 사졸은 십장에게 대장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
군례(軍禮)	군례는 지극히 중하고도 번거로우니 우선 상하가 접견하는 절차와 청호의 일단을 들어 간편하게 규례를 정한다.

275) 유한철, 「유한철 의병 연구」, 132~133쪽.

세부 항목	내 용
호령(號令)	호령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호령이 분명하면 전군이 복종하여 명령이 잘 시행될 것이다.
기밀(機密)	기밀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기밀이 누설되면 손실이 오는 것은 범사가 모두 그러하나 군중에는 기밀이 많은 까닭에 손실도 더욱 심하다.
상벌(賞罰)	공이 있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벌을 줄 것이다.
논상(論賞)	모사를 잘하여 이익을 얻었거나 웅맹스럽게 싸워 승리를 획득하면 상을 준다.
균등분배 (均等配分)	인심이 단합한 연후에 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유독 재물과 병기가 균일하지 않으면 공을 이룰 수 있겠는가.
절약(節約)	사용하는 데에도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한 가지 일로써 곧 낭패를 당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인석은 의병의 성공을 위하여 사람과 재정과 병기의 삼요소를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의병이 의거를 하기 위해선 사람과 재정과 병기일 뿐이다. 인심이 하나로 합한 다음에 일이 성공이 되는 것임에 재정과 병기도 균일한 다음에 일이 성공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재정이 나는 풍요한데 저 사람이 결핍됨이 있으면 저 사람은 결핍으로 실패하고 나는 홀로 풍요로움으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병기가 나는 예리하고 저 사람은 둔하면 저 사람은 둔한 것으로 실패하고 나만 홀로 예리함으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하면 반드시 성공을 요하니 마땅히 재정을 서로 도와 균일하게 할 것이요, 병기는 서로 빌려서 균일하게 할 것이다. 혹 재정이나 무기에 대한 피차간의 분별로 인하여 반목을 이루고 인심이 어그러져 일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심이 피차간에 합치를 핑계하여 재정과 병기를 장만하기 위하여 돕고 빌리기를 균일하게 하면 일의 성패는 말할 것도 없고 인격의 고하는 또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²⁷⁶⁾

276) 유인석, 『毅菴集』 권36, 「義兵規則」

이인영의 ‘서울진공작전’ 1907년 군대해산 이후 의병 투쟁은 의병부대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전국의 의병이 공동으로 참여한 합동작전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의병전쟁의 중심에 이인영이 인솔하는 관동(關東) 의병부대가 있었다. 당시 그는 충주성에서 철수하여 유인석의 제천 의병에 합류했으나 향리에 은거하며 와병 중인 부친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적 관습과 사상에 얽매어 거의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²⁷⁷⁾

그러던 중 1907년 8월 말 서울 출신의 선비 이구채와 원주 출신의 유생의병장 이은찬이 5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인영을 찾아왔다. 그들은 이인영에게 고종 황제의 밀칙을 내밀면서 원주에 원수부를 세우고 의병장에 오를 것을 요청했는데, 그의 부친은 이인영에게 “이 때처럼 나라와 백성이 너를 필요로 할 때가 있겠느냐”며 출전을 권유했고, 이구채와 이은찬



이인영 의병대장 생가터 복원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이인영 의병대장 기념비 제막식
(오마이뉴스 2010년 3월 27일 보도)

277) 「第1回 李麟榮問答調書」, 『한국독립운동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83(중판), 721쪽.

도 시일을 넘겨가며 “국가 존망의 시기에 국가의 일이 급하고 부자의 은혜는 가벼우니 공을 먼저하고 사를 나중에 함이 마땅하다”며 곡진히 청했다. 이러한 권고를 받아 결국 이인영은 9월 2일 원주에서 거의의 깃발을 들었다.²⁷⁸⁾

이인영이 이구채와 이은찬이 모아 온 500여 명의 병력으로 편성한 의진을 흔히 관동창의진 또는 관동의진(원주의병)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강원도나 원주지역에서 모아온 병력을 토대로 구성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해산된 군대의 군인도 200명 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인영이 이끄는 관동의진은 이강년의 호좌의진, 김현규의 여주의진 등과 공조하여 조령을 방어하는 작전에 참여했다. 이때에 해산 군인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여주의진이 관동의진의 병기를 가로채 간 일이 있었고, 조령에서는 조령의 관문을 지키는 호좌창의장 이강년의 막하장 조동교와 합동작전을 폈으나 조동교의 이탈로 파수군 32명을 잃기도 하였다.²⁷⁹⁾

의병활동 초기에 이인영 부대는 부대원들이 대부분 유생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군사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 군량이 부족하여 포수들이 자주 남의 식량을 약탈하는 문제를 일으켰다. 이인영은 의병들에게 민재(民財)의 약탈을 엄히 금함과 동시에 매국노의 곡식과 무기를 빼앗아 사용하도록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진을 독려했다.²⁸⁰⁾

278) 오영섭, 「한말 13도 창의대장 이인영의 의병활동」,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307~308쪽.

279) 구완희, 「정미의병기 원주의병의 연합노선과 서울진공작전」, 김성찬 편, 『원주 정미의병 연구』, 원주시, 2008, 99쪽.

280) 오영섭, 「한말 13도 창의대장 이인영의 의병활동」, 309쪽.

“가련한 창생에게 침해를 주어 굶주림과 추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차마할 바가 아니며 의병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의사를 대신하여 그들 매국노 오간(五奸)·칠적(七賊)과 신헌약을 체결하는 데 진력한 현 내각원 등의 불의의 재화를 빼앗아 군자를 도울 뿐이다.”

이렇듯 의진 내부를 단속한 이인영은 원주가 사방에서 적의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이기에 친일파를 격퇴하고 일본군을 축출하여 고종 황제를 구출하려는 대사를 무난히 도모하려면 양주(楊州)로 진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이인영은 의병부대의 향후 목표를 서울 공격으로 정한 후 관동지역 의병부대의 편성작업과 통합작업에 착수하였다.²⁸¹⁾ 이로써 서울진격작전을 전개한 13도 창의대진소의 모태인 관동창의군이 결성된 것이다. 이들은 원주에서 지평으로 이동하여 머물면서 일본군과 수차례 전투를 벌이며 서울 진격을 위한 전력을 강화해나갔다.

이러한 군세를 바탕으로 이인영은 친일매국노와 일본군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려면 서울진공작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서울진공작전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대규모 연합부대를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였다. 그는 각도의 의병장에게 다음과 같은 격문을 띄워 보냈다.²⁸²⁾

“용병의 요체는 고립을 피하고 일치단결하는 데 있는 바, 각도의 군사를 통일하여 제방이 붕괴되는 형세를 이용하여 근기(近畿)로 쳐들어가면 천하를 들어 나의 보물로는 하지 못할지언정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게 될 것이다.”²⁸³⁾

281) 당시 편성된 의병부대의 주요 직책자는 관동창의대장 이인영, 총독장 이구채, 중군장 이은찬, 좌군장 방인관, 우군장 권중희, 유격장 김해진, 좌선봉장 정봉준, 우선봉장 김병화, 후군장 채상준, 운량관 현리보, 재무장 신창선·민춘원, 좌총독장 김현복, 우총독장 이귀성, 진위대사령부 민공호 등이었다.

282) 강재언, 「의병전쟁의 발전」, 『한국사』 43, 474쪽.

283) 「의병총대장 이인영 씨의 略史(속)」, 『대한매일신보』(1909. 7. 29)

이인영은 각도 의병장에게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지방으로 진출하도록 호소하였다. 그는 1907년 10월경 서북 양도를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의 의병장들에게 통합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서울로 진격하려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경기도 양주에 모일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김세영을 서울에 잠입시켜 각국 영사관에 의병부대가 애국단체이니 정의와 인도를 주장하는 여러 나라들이 국제공법상의 전쟁단체로 인정하고 성원해주기를 요구했다. 그가 발표한 각국 영사관 및 해외 동포에 대한 호소문은 당당한 항일전쟁선언이었다.²⁸⁴⁾ 그는 다음과 같이 '대한관동창의대장 이인영'의 이름으로 격문을 발표하였다.

“동포들이여, 우리들은 단결하여 우리 조국을 위해 몸 바쳐 우리의 독립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전 세계를 향하여 야만적인 일본인의 흑심한 부정과 난폭함을 호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은 교활하고 또 잔인하며 진보와 인도의 적이다. 우리들은 모든 일본인과 그 스파이 앞잡이 및 야만의 군대를 쳐부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²⁸⁵⁾

그러나 당시 조선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의 체결로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각국 공사관에 전해진 격문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나 지원이 없었다. 전적으로 13도 의병부대의 서울진공작전은 국제적인 고립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양주의 대진소(大陣所)에는 각지에서 분산적인 활동을 지속해 온 약 1만 명의 의병부대가 집결하였다. 이인영의 관동창의군이 양주에 도착한 것은 1907년 12월이었다. 그동안 부대

284) 정달웅, 「한말 의병장 이인영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32~33쪽; 오영섭, 「한말 13도 창의대장 이인영의 의병활동」, 313쪽.

285) 1907년 9월 25일자 *대한관동창의대장 이인영의 명의로 된 격문*은 “Manifest to all Korean in all parts of the world”이 원제목으로 되어 있다.

는 지평·홍천·춘천·양구 등지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의 격돌을 겪었는데, 심산 전투와 마전 전투 등이 그것이다.²⁸⁶⁾

양주에 도착한 관동창의군은 서울 동부 및 강원 영서 일대에서 활약 중이던 허위 부대·민공호 부대를 비롯한 다수의 의병부대와 합류하여 13도 창의대진소를 구성하였다. 양주 집결 이전부터 허위 부대는 이인영 부대와, 이인영 부대는 이강년 부대와 각기 연통하여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부대가 연합의진을 결성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인영의 격문에 호응하여 양주에 집결한 의병부대는 총 48진, 대략 1만 명에 달하였다.

그 구성을 보면, 강원도에서 민공호 부대가 2천 명, 이인영 부대가 1천 명을 비롯하여 강원도 의병이 약 6천 명 정도였고, 경기도의 허위 부대가 약 2천 명, 평안도의 방인관 부대가 80명, 함경도의 정봉준 부대가 80명, 그리고 전라도의 문태수 부대가 100명 등이었다. 그러나 이강년 부대는 아직 충청좌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13도 창의대진에 가담치 못했다. 그들은 1908년 봄에 가서야 경기 동부 및 강원영서 지역으로 올라갔던 것이다.

이렇듯 서울진공작전을 앞둔 시점에서 의병부대가 특정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던 개별 의병부대의 고립성·분산성을 극복하고 양주로 집결하여 대규모 연합부대를 결성한 것은 그 성사여부에 상관없이 의병운동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²⁸⁷⁾

이러한 13도 의진의 구성은 전통적인 팔도체제에 따른 부대의 명

286) 당시 지평을 떠나 양주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의병의 정예부대 400여 명과 일본군 60~70명이 맞붙은 춘천과 양구 사이에서의 두 차례 전투는 격전이었다. 심산 전투와 마전 전투에 대해서는 오영섭, 「한말 13도 창의대장 이인영의 의병활동」, 314~315쪽 참조.

287) 오영섭, 「한말 13도 창의대장 이인영의 의병활동」, 316쪽.

칭을 부여한 것으로 권중희·방인관·정봉준 등 관동의진의 지휘부가 다수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임진강 유역의 의병을 지도하던 허위가 진동창의대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허위가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았던 경기·황해도 지역의 의진을 지휘하는 진동창으로 선임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대장직이 이인영에게 돌아간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²⁸⁸⁾ 나이도 그렇지만 관력으로나 병력수로 볼 때 이인영은 허위나 민궁호보다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장이 된 것은 을사늑약 후 고종황제의 밀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전국적인 연합의병의 편제를 나타낸 13도 연합 의병은 지휘체계와 복잡한 명령체계 및 박약한 기동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근대식 군사훈련을 이수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기가 애초부터 어려웠다. 특히 1만 명의 의병 가운데 재래식 화승총으로 무장한 해산 군인은 3천 명에 달했지만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대항할 수 있는 서양총을 지닌 진위대의 해산병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전력상 크게 열세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하여 13도 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은 그 역사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전개된 것이다.²⁸⁹⁾

의병 1만여 명이 양주에 집결하여 전국적인 연합의병부대가 성립되자 이인영은 13도 창의군의 직임을 분장하였다. 13도 창의대진소의 부대 편성은 최초의 편성 이후 1908년 1월경에 약간의 개편이 이어졌다. 문태수·이강년·신돌석 등 하삼도의 의병장들이 아직 복상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본군수비대와 전투하느라 서울진공작전에 가

288) 구완희, 「정미의병기 원주의병의 연합노선과 서울진공작전」, 118~119쪽.

289) 오영섭, 「한말 13도 창의대장 이인영의 의병활동」, 317~319쪽.

담하지 못한 부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의병의 부대편성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⁹⁰⁾

〈표〉 13도 창의진의 부대 편성

구 분	1차 편성(1907. 12)	개편(1908. 2)
13도 창의대장	이인영	이인영
군사장		허위
경기	허위	권의회(겸 황해도)
충청	이강년	이강년
전라	문태수	
경상	신돌석	박정빈
강원	민공호	민공호
황해	권중희	권의회(겸 경기도)
함경	정봉준	정봉준
평안	방인관	방인관

이 같은 조직 개편은 아직도 영·호남지역에서 활동 중인 문태수·신돌석을 배제하고, 조만간 상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충청도의 이강년을 그대로 두고, 경기도를 맡은 진동창의대장 허위를 군사장(참모장)으로 승급시킨 조치였다. 허위가 1개월 사이에 13도 창의대 진소의 제2인자로 부상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였다. 그의 군사장 취임은 13도 창의대진소의 의병권력을 이인영과 허위가 동등하게 소유하거나 행사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은찬이 구상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탈환작전의 기본 구상은 병력을 이끌고 동대문밖 30리 지점에 집결하여 대오를 정비한 다음 정월

290) 「第3回 李麟榮問答調書」, 『한국독립운동사』 1, 738쪽; 구완희, 「정미의병기 원주 의병의 연합노선과 서울진공작전」, 120쪽.

을 기하여 서울에 입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인영의 서울진공작전의 목적은 일제 통감부에 타격을 가해 새로운 조약을 맺고 종래의 신탁약을 파기하여 대대적인 항일활동을 벌인다는 것이었고, 조선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황실의 안전을 꾀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이인영은 허위로 하여금 300명의 선봉대를 이끌고 진군하도록 했다. 서울로 진격한 허위의 선봉대는 미처 본대가 도착하기 전인 1908년 1월 15일 경 매복 중이던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받고 장시간의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형세가 불리하여 후퇴하고 말았는데, 허위의 선봉대는 무기가 열세했을 뿐만 아니라 전군이 약속한 기일 내에 도착하지 못했다. 급기야 3일 후에 이인영이 약 2천 병력을 거느리고 동대문밖 30리 지점에 당도하여 후군의 도착을 기다렸으나 선봉대의 패배로 의병의 사기가 이미 상당히 꺾인 상태였다. 게다가 탄약의 재고량도 수십 회의 격전을 치른 상황에서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²⁹¹⁾

이러한 상황으로 서울진공작전이 무산될 위기에서 1월 28일 이인영은 부친의 부음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이인영은 “나라에 불충함이 부모의 불효함이 되고 부모에 불효함이 나라에 불충함이 된다. 그 도는 하나며 둘이 아닌 것인즉 나는 국풍을 지켜 3년상을 치르고 효도를 마친 후 재기하겠다”며 후사를 군사장 허위에게 당부하고 문경의 본가로 귀가하였다. 그가 귀향하면서 ‘의(義)’를 중시하라는 통문을 각 진에 배부했기 때문에 모든 의병부대는 서울 진격을 중지했다. 결국 경기·충청도 의병들이 연합하여 일시에 서울을 탈환하려던 도성탈환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송상도의 『기려수필』에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291) 오영섭, 「한말 13도 창의대장 이인영의 의병활동」, 320~321쪽.

“군사(軍師)가 군대를 정돈하고 출발을 준비했다. 이때에 이인영은 각도의 의병에게 명령하여 일제히 진군할 것을 재촉하면서 스스로 300인을 거느리고 먼저 동문밖 30리에 이르렀으나 각 군이 이르지 않았고 일본군이 먼저 이르러 서로 격렬하게 전투했으나 대적하지 못하고 드디어 군대를 물렸다. …… 대군이 여주에 이르러 계속 패했는데 부친의 병환이 갑자기 심해져 상을 당했다. 이에 이인영이 전군의 지휘권을 허위에게 부탁하고 드디어 통곡하고 돌아갔다.”²⁹²⁾

사실상 13도 창의군은 이인영이 이끌던 관동의진에 임진강 유역에서 활동하던 허위의 의병부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강년 부대가 화악산 일대까지 북상하여 이를 엄호했고, 그밖에 몇몇 소규모 의진이 북상하여 참여하였다. 민공호의 경우는 서울진공작전에 호응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북상하여 강릉을 치고 인제·춘천까지 올라갔지만 일본군의 저지로 이를 물리치고 도성까지 다다를 수가 없었다.²⁹³⁾

일제의 헌병과 경찰은 총대장 이인영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이인영은 3년 상을 치르고 다시 거의할 생각이었다. 유인석이 외국으로 피신하도록 권유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일본군의 수색이 심해지자 ‘이시영(李時榮)’으로 개명하고 두문불출하였다. 노모와 슬하에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상주에 머물다가 다시 황간으로 이거했는데, 결국 부친의 3년 상을 미처 마치지 못한 채 1909년 6월 7일 문경에서 대전의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서울로 압송된 그는 최후의 진술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의병으로서 다음과 같이 의연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292) 宋相燾, 『騎驢隨筆』, 「李麟榮」

293) 구완희, 「정미의병기 원주의병의 연합노선과 서울진공작전」, 122쪽.

“내가 국가를 위하여 창의하여 충군애국의 뜻은 물론 나의 성의로 이를 받기 시킨 것이다. 세사는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친상(親喪)을 당하여 얼굴도 배견치 못하고 충효(忠孝) 공히 죄인으로 천지에 몸을 가둘 데 없다. 이 이상은 죽을 수밖에 없다. 처분을 기다릴 뿐이다. 더욱 바라건대 일본에 보내 줄 수 있다면 일본 정부에 직접 의견을 진술하고 싶은 희망이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다.”²⁹⁴⁾

이인영의 의병전쟁에는 의병의 투쟁정신과 목적이 분명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가 주도한 13도 창의군은 의병부대의 전국적 연합작전의 실행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907년 12월의 서울진공작전은 종래 의병전쟁의 최고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비록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장차 의병전쟁의 투쟁전략이나 그 방향에 새로운 시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의병투쟁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그러나 의병총대장 이인영은 자신의 부친상을 당하여 사상적 분열을 겪으면서 의병의 한계를 드러내어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상적 과제를 노출시켰다.²⁹⁵⁾ 유교사상으로 본다면 부자관계에서의 효는 ‘천합(天合)’이고, 군신관계에서의 충은 ‘의합(義合)’이다. 효는 천합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지만 충은 의합이기 때문에 의에 맞지 않으면 군신관계에서 물러설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효를 우선시한 이인영은 근본적으로 유학자의 길을 우선시한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의병전쟁에서 유교사상의 한계였다. 의병장이 지역적으로 혹은 전국적인 명성만을 가지고 의병장이 되는 한, 또는 의병장 자신이 그러한 유교사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의병전쟁을 국민적인 저항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없음을 드러냈던 것이다.

294) 「第3回 李麟榮問答調書」, 742쪽.

295) 강재언, 「의병전쟁의 발전」, 『한국사』 43, 476~477쪽.

나. 민군합일의 군사조직화

임병찬의 군정부 수립계획 일제에 의하여 한일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척사유림의 의병 항쟁은 계속되었다. 그러한 식민지 상황 하에서도 의병을 조직적으로 재정비하여 일제의 총독부를 축출하고 독자적인 정부를 조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의병에 의한 군정부 건설의 추진은 척사유림이 지향한 복벽주의(復辟主義)의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훈운동의 성격을 띤 것이지만 항일무장투쟁이 의병전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려는 정치적 전망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병 진영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군정부 건설은 임병찬이 주도한 대한독립의군부(大韓獨立義軍府)이다. 대한독립의군부의 조직은 의병의 근거인 향촌조직과 민병조직을 재건하여 정부를 수립하고자 한 것으로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항하여 지하의 의병왕국을 건설하며 독립을 쟁취하고자 한 것이다. 임병찬은 낙안과 임실 군수를 지낸 인물로서 후기의병의 중심지였던 호남의병의 발화점인 태인 의병을 1906년 4월 면암 최익현과 함께 주도했다. 태인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거의한 임병찬 의진은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정읍과 순창을 지나 장성과 곡성 등지로 진출했다. 그러나 전투다운 전투도 해보지 못한 채 10일 만에 광주관찰사 이도재가 해산을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전주·남원 진위대와 격돌하게 되자 최익현마저 “동족끼리 싸울 수 없다”며 해산을 종용함으로써 지체하다 체포되어 막을 내리고 말았다.²⁹⁶⁾

그러한 태인 의병을 거의한 경험을 가진 임병찬이 대한독립의군부를 결성한 것은 고종황제의 밀칙에서 비롯되었다. 1912년 9월 공주

296) 이상식, 「의병전쟁연구」, 『국사관논총』 제23집, 1991, 209~210쪽.



무성서원 고려시대에 건축한 태산사로 최치원을 제향했으나, 1696년(숙종 22) 사액을 받아 무성서원으로 개칭하였다.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위치해 있다(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제공).

유생 이식과 1913년 전 참판 이인순이 의병규합의 밀칙을 가져와 임병찬은 아들 응철을 상경시켜 확인하니 2월 4일 그가 다시 밀조를 가지고 왔으므로 계획에 착수했던 것이다. 고종 황제의 밀칙에 의하여 임병찬은 전라도순무총장(全羅道巡撫總長)의 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전국 8도에 도 대표를 고 우선 전라도에는 각 군 대표까지 선임하였다. 1914년 2월 서울로 올라간 임병찬은 그곳에서 이명상·이인순 등과 함께 3월 23일 독립의군부의 편제를 완성하였다.²⁹⁷⁾ 의군부의 구성은 총인원 327명 모두가 유생이었다. 그러나 1914년 5월 이 같은 움직임이 발각되어 의군부의 조직이 봉쇄당함으로써 유림 세력은 의병을 일으키기도 전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²⁹⁸⁾ 독립의

297) 권대웅,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5), 2008, 78쪽.

298) 일제의 『고등경찰요사』에 의하면, 대한독립의군부는 서울에 독립의군부 중앙순무총장을 두고 각 도에는 도순무총장을 각 면에는 군수, 면에는 향장을 배치하고 조선

군부는 전국 각 군 조직을 마친 후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일시에 축출 각서를 보내고, 일본 정부와 외국 정부에도 항의 각서를 송달하면서 의병을 일으킨다는 계획과 동시에 대한제국을 다시 복구한다는 것이었다.²⁹⁹⁾ 따라서 독립의군부의 조직 파괴는 위정척사적 복벽주의 세력이 붕괴하게 된 고비였던 것으로 이때에 유림으로 주목받던 인사가 많이 유배당했고 임병찬도 거문도 유배 중에 1916년 5월 23일 순국했던 것이다.³⁰⁰⁾

의군부의 상부조직은 임병찬이 쓴 『돈헌유고(遯軒遺稿)』의 「관견(管見)」을 통하여, 그리고 하부조직에 관해서는 이종면(李鍾冕)의 유고인 『정실록(精實錄)』을 통하여 살필 수 있는데 그 조직과 방략은 다음과 같다.

저 각 도에서 충의지사 2명을 택임하여 순무총장(巡撫總長)과 참모약장(參謀約長)을 삼으면 8도에 16명이다. 다음 전국 13부에 각각 관찰사와 도약장 1명씩을 뽑으면 6명이다. 그리고 전국 340군에 각각 군소와 군약장을 임명하면 모두 680명이다. 이것이 민사행정조직이며 군사행정조직으로는 중앙에 원수부(元帥府)를 두고 경(京)과 4군(郡)에 5영(營)을 설치하여 사령총장(司令總長)과 참모부약장(參謀副

총독부 대소 관헌에게 국권반환요구의 서면을 돌리고 해외에 대해서도 한국인에 대한 일본 지배의 부당성을 알렸으며, 한국인에게도 국권회복의 여론을 환기시켰다. 이 조직에 관계되는 인사로는 전북 정읍의 임병찬과 그 동생 임병대 및 임응철을 비롯하여 경기도 양주의 김병기, 충북 영동의 이증묵, 경남 의령의 조재학, 경북 문경의 이은영, 강원도 원주의 채상준과 안태준, 서울의 이인순과 김두선, 전용규, 윤돈규, 그리고 황해도 해주의 변항과 황찬근, 전남 담양의 송주영 등이었다(『高等警察要史』(1934), 「獨立義軍府事件」(『韓末義兵史料集』, 담양향토문화연구회, 1997, 493쪽 소수).

299) 조동걸, 『한말의 의병전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204쪽.

300) 조동걸,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 2007, 84쪽.

約長)을 임명한다. 이렇게 조직이 완료되면 비밀리에 날짜를 약속하여 한 날 한 시에 일본 관헌과 각국 공사관에 독립장서(獨立長書)를 보내어 한국민의 의사를 내외에 알린다. 그 문장은 장황하게 쓰지 말고 3, 4행으로 줄여 “아국은 독립하고 여등은 철병 퇴거하라”는 뜻을 전달한다.³⁰¹⁾

독립의군부 관작제식(官爵制式)을 보면, 민사행정 하부조직과 군사행정의 하부조직이 별도로 조직된다. 독립의군부는 민사와 순무의 기능으로 구성된 이원체제였으나, 중국적으로 민사행정이 순무총장에 의해 일원적으로 통제되는 계엄군체제와 같았다. 민사행정의 하부조직은 군에는 군수와 군약장이 임명된다. 그 밑에는 중·좌·우·전·후 5향장(鄉長)과 향약장(鄉約長)이 임명되고, 다시 그 밑에는 면장 5인과 면약장 5인이 임명된다. 면장과 면약장 밑에는 5리장(里長)이 임명되고, 또 그 밑에는 5로장과 5약장이 같은 요령으로 임명된다. 그 밑에는 다시 통수(統首) 2명이 각각 임명되는데 5호(戶)를 다스리는 약수(約首)가 의군부 조직의 최하단위가 된다. 즉 ‘민호오호(民戶五戶)는 작일통치통수(作一統置統首)하고 매통에 치약장일인(置約長一人)하니 차향약규례(此鄉約規例)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조직 원리였다. 이렇듯 대한독립의군부의 민사행정의 하부조직은 중앙에 원수부를 두고 각도에 순무총장, 부에 관찰사, 군에 군수·군약장을 두었으며, 군 밑에는 향, 면, 리, 통의 순으로 장, 약장을 임명하여 결국 5호를 1통으로 묶는 것이 최하단위였다.³⁰²⁾

군사행정의 하부조직은 순무총장이 각 부의 소모총장과 경리총장을

301) 박성수, 「의병과 독립군 - 조직, 편성의 연속성」, 『제6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96쪽.

302) 박성수, 「의병과 독립군 - 조직, 편성의 연속성」, 『제6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I』, 497쪽.

절제할 권한이 주어져 있었고, 또 중군장과 선봉장 및 좌군장 우군장 전군장 후군장 등 6군장을 통괄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 6군장이 각각 1,489명의 장졸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1,489명의 장졸은 민사행정조직의 최하단위인 십호에서 1명씩을 소집하는 원칙에 의해서 구성된다.

그러나 대한독립의군부는 군정체제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봉기를 포기하고 일제정신투서작전(一齊挺身投書作戰)으로 일제통치를 규탄하는 평화적인 방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무력항쟁이 위험하다고 본 것은 무력으로 일제를 제압한다는 것은 전혀 승산이 없는 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익현과 함께 거병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임병찬은 무력투쟁을 포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³⁰³⁾

“국내외에 의병봉기를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고 듣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승산이 없다고 본다. 첫째, 우리는 불습병사(不習兵事)한 국민으로서 포수 아니면 동학여당 그리고 의병산줄밖에 싸울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군율을 모르는 오합지졸이며 선비는 말만 잘하지 군사를 모른다. 농민 역시 총기를 다룰 줄 모른다. 둘째, 국민성이 제각기 잘난체만 하고 남을 헐뜯어 단합할 줄을 모른다. 우리는 문벌과 당색만 논하다가 나라를 망친 국민이다. 해외동포도 마찬가지다.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비록 전 국민이 편운운동(編運運動)을 통해 이기 기 어려운데 하물며 몇몇 사람이 움직인다 하여 이길 수 있겠는가.”

결국 임병찬의 방략은 ‘이문대무(以文對武)’로 귀결되고 말았다. 무장능력의 한계를 인식하여 문화투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인식적 전환의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임병찬의 대한독립의군부는 1919년 대한제국광복군정사와 같이 의병재건운동으로 계속되

303) 박성수, 「의병과 독립군 - 조직, 편성의 연속성」, 『제6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I』, 498쪽.

었다.³⁰⁴⁾ 다시 말하면, 의병에서 독립군으로의 이행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유생 의병 중심의 독립운동이 여전히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독립군의군부가 전라도와 충청남도 등 서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복벽주의 유림단체였다면, 충청북도과 경상북도 등 동남부 지방의 복벽주의 유림 조직은 민단조합이었다. 그러나 민단조합은 규모가 작았고, 연해주나 만주로 망명한 경우가 많았다.³⁰⁵⁾ 예컨대, 충북의 척사유림으로 유인석의 호좌의진 이후 함께 망명한 경우가 그것이고, 을미의병의 중심이던 안동 유림의 이상룡·유인식 등은 1904년부터 계몽주의자로 변신하여 1911년 신민회를 따라 서간도로 망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민단조합은 지방의 척사적 복벽주의의 단체로서 작은 규모로 밖에 성립할 수 없었다.

민단조합은 1915년 문경 새재 주변에 거주하던 유생들에 의해서 조직되었다. 한말 의병장인 이인영·이강년과 인연이 깊은 이동하·이은영·김낙문·이시재·최옥영 등이 조직했으나 군자금 모집과정에서 1915년 발각되고 말았다. 이렇듯 척사적 복벽주의에 의한 투쟁은 계획단계에서 봉쇄당하고 말았다.³⁰⁶⁾ 복벽주의의 대중적 기반이 사라져가고 있었고, 결국 국내에서 척사유림의 의병조직은 민단조합으로 끝을 맺었던 것이다.

304) 당시 전라·충청지역에서 대한독립의군부가 조직되었다면 경상도지역에서는 민단조합·조선국권회복단·대한광복회 등이 비밀결사로 조직되어 의병전쟁의 맥을 이어갔다(홍영기, 「의병전쟁」, 『한국근대사강의』, 도서출판 한울, 1997, 287쪽). 또한 대한제국광복군정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성수, 「의병과 독립군」, 『한국독립운동사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251~254쪽을 참조.

305) 조동걸,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84쪽.

306) 조동걸,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85쪽.

이강년의 ‘속오작대법’ 이강년의 의병부대에서 보듯이 의병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의병부대의 편성이나 전투방식에도 조직화와 체계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의병부대의 군사조직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이강년의 ‘속오작대법(束伍作隊法)’이다.

이강년(李康年, 1858~1908)은 철종 9년(1858) 경북 문경군 가은면 도태리에서 이기태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낙인(樂仁), 호는 운강(雲崗)이며, 전주가 본관이다. 어머니 남씨가 태양을 삼키는 꿈을 꾸었다 하여 아명을 출양(出陽)이라고 불렀다. 8척 2촌의 장신에다 용력이 출중하였고 병서에 조예가 깊어 일찍부터 장군감으로 지목되었다.



운강 이강년



고종 황제가 이강년에게 보낸 칙령
(국가보훈처 제공)

1880년 23세라는 젊은 나이에 무과에 급제한 그는 선전관이 되었으나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그리고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그 이듬해인 1896년 1월 11일 가산을 정리하여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때 안동관찰사 김석중과 수검 이호윤·김인담을 체포하여 농암 장터에서 효수하였다. 이어 제천으로 유인석을 찾아가 그의 사문이 되었고 유인석 의병진의 유격장으로서 문경·평천·줄형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이해 4월에 장기림이 거느린 관군과 제천에서 싸워 패한 다음, 유인석이 요동으로 망명하자 그는 의병을 해산하고

은신하였다. 그러다가 1897년 5월 유인석을 찾아 요동으로 갔으나 그해 7월 다시 귀국하여 단양 금채동에 우거하였다.³⁰⁷⁾

단양 금채동으로 돌아온 후 10년간 의암 유인석의 문인으로서 학문에 정진했으며, 화서 이항로의 문집을 간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강년은 또 다시 거의할 것을 결심하여 1907년 4월에 을미의병 동지인 안성해와 함께 제천에서 궐기하였다. 그 후 1908년 7월 충북 청풍의 까치성 전투에서 체포될 때까지 1년 3개월간 단양·제천·원주·연풍·영월·횡성·강릉·청풍·충주·문경·예천·영주·봉화·안동 등 경북·강원·충북 일대를 돌며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일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여 의병항쟁사에서 보기 드물 정도의 수많은 전투 경력과 전적을 남겼다.

이강년은 1907년 8월 1일 군대해산 이전에 의병을 일으켰다. 군대해산이 단행되자 민공호의 원주 진위대가 봉기하였고, 이때 이강년은 그들과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이강년과 민공호는 강원도·충청도·경상북도 일대에서 용맹을 떨쳐 양대 의병장으로 일제의 군경들이 크게 두려워하던 인물이었다. 이강년이 무과출신으로 구식 군대의 맹장이었고 민공호가 신식군대의 대표적인 의병장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합은 신식 군대와 구식 군대의 조화로운 연합이나 다름없었다.³⁰⁸⁾

이강년은 1908년 7월 2일 적에게 잡힌 뒤에도 비굴한 행동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상처의 치료는 물론 음식도 거절하였다. 그는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당당하게 피력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307) 박성수, 「이강년의 의병활동」, 『한국사』 43, 국사편찬위원회, 1999, 460쪽.

308) 박성수, 「이강년의 의병활동」, 460~462쪽.

“나는 38세부터 의병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행동하였다. 이에 51세, 13년간 거의 종시 국가를 위하여 신력을 다하다가 지금 불행히 체포의 몸이 된 후 일이 이렇듯 절망이니 무엇을 신문할 것이 있겠으며, 무엇을 포상할 것이 있으랴!”³⁰⁹⁾

이강년은 사형 선고를 받고 그해 10월 13일 오전 10시에 51세를 일기로 순국하였다. 그가 의병으로서 활동한 시기를 보면, 그는 1895년 을미사변 직후인 1896년 1월 11일 문경에서 거의할 당시인 이



운강 이강년의 묘(국가보훈처 제공)

른바 전기의병과, 1907년 3월 이후에 전개된 후기의병이 활동한 기간에 이루어진 의병투쟁에 참여하였다. 이강년의 전기의병인 문경의 진(聞慶義陣)이 유림인사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면, 그의 후기의병은 지도층과 참가층에 차이가 있었다.

그의 의병부대의 구성은 지도층이 장임부(將任部)와 참모부(參謀部)를 합쳐서 전체 223명 중 57명이며, 그 가운데 호를 가지거나 과거 관직자의 수는 8명으로 지도층의 14%가 양반층이었다. 참가층은 종사부(從事部)와 좌종사부(坐從事部)를 합쳐서 166명인데 그 가운데 호를 가지거나 과거 관직자 수가 종사부에 6명, 좌종사부에 28명으로 참가층 20%가 양반층에 해당되고 나머지 80%는 평민층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³¹⁰⁾

309) 「李康年被逮記錄」, 『한국독립운동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83(중판), 721쪽.

310) 전문진, 「한말 이강년 의병부대의 조직과 활동」, 『부산사학』 제19집, 1995, 514~515쪽.

〈표〉 이강년 의병부대의 인적 구성

구분	지도층		참가층		계
	장임부	참모부	종사부	좌종사부	
전체 인원(비율)	43명(100%)	14명(100%)	68명(100%)	98명(100%)	223명(100%)
호·전 관직자	6명(14%)	2명(14%)	6명(9%)	28명(29%)	42명(19%)
평민층	37명(86%)	12명(86%)	62명(91%)	70명(71%)	181명(81%)

이강년 의병부대는 지도층과 참가층을 합하면 양반층이 전체 인원 223명 가운데 42명으로 19%에 해당하고, 평민층은 132명으로 의병진에 가담율이 81% 선이었다. 이렇듯 이강년 의병부대의 신분적 구성은 평민층의 수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군수조달의 측면에서 보면 이강년 의병부대는 활동지역을 계속 이동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서 군수물자의 조달에 어려움이 많았다. 전기의 의병들이 향촌의 유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해결이 가능했던 것과는 상황이 달랐다. 특히 일제가 조선의 완전한 식민지화를 획책하면서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南韓大討伐作戰)’ 등 초토화작전(焦土化作戰)을 실시하던 상황이었기에 보급문제가 심각하였다.

이강년 의병부대는 처음 그가 거의하던 전기의병 당시에는 문중으로부터 조달을 받았으나, 후기의병에 와서 그가 의진을 다시 일으켰을 때는 대개 백성들로부터 조달하거나 지방유지로부터 조달하는 방식, 그리고 문중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으로 보급물자를 충당하였다.³¹¹⁾ 의진은 이동하는 곳마다 그곳 주민들로부터 지공(支供)으로 식사나, 의복, 식량, 담배 등을 대접받거나 지방 유지들로부터 돈이나 쌀 혹은 황소 등을 지급받았고 문중에서 제공하는 총검이나 돈으로

311) 전문진, 「한말 이강년 의병부대의 조직과 활동」, 520~521쪽.

군수물자를 마련하였다. 주로 돈과 쌀, 황소, 떡, 고기, 과일, 화약, 자기항, 담배, 술 등 생필품에서 무기·장비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품목을 현지조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백성들로부터 조달받은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제공한 것은 현납액이 2,200량, 쌀 5짐과 280말이나 되었다. 당시 백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현납량의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이렇듯 평민층이 의병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재정적인 후원자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그런데 이강년의 의병진에서 실제로 군량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방수장체제가 활용되었음은 주목된다.³¹²⁾ 방수장(防守將)은 을미의병 당시에 수성장 체제하에 존재했던 조직이다. 이강년 의병진은 방수장 체제를 통하여 가평 일대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 그는 병력을 이끌고 인근의 여러 마을을 순회하기도 했는데, 대체로 군량을 확보하기 위한 선무공작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주변의 마을로부터 각종의 곡식과 피복을 공급받았으며 각 마을로부터 적정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받았다.

이러한 방수장체제를 통하여 군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강년은 촌락을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시했다. 당시 가평 일대에 이강년 의진(義陣) 외에도 여러 의병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인영이 주도한 서울진공작전에 동참하는 많은 의병부대가 이곳을 찾아들어 민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의병부대가 주둔하면서 군정에 가까운 지역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었지만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수 없었다. 당시 각 의진은

312) 구원회, 『한말의 제천의병』, 집문당, 1997, 328쪽.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따라서 의병대장의 책임 하에 ‘적을 토벌하고, 나라의 원수를 갚는 일’을 들어 마을단위로 군수물자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일로 간주하였다. 이강년은 격문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었다.

“군대에 재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니 호곡·결전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부자와 귀한 손님들의 도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호곡은 본래 국가가 용병하는 재원이나 근래 흉적이 혁파하였으니 의병에게 써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결전은 국가의 공화인데, 근래 원수 오랑캐가 거두어 쓰니 군사를 여기에 의지하여 먹어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위한 일’으로 공적인데서 취한다’는 도리입니다.”³¹³⁾

그러나 이강년은 엄격한 통제 밖에 있는 일부 의병들의 개별적인 물자징발은 작폐로 치죄하였다. 당시 패전이나 도망으로 인하여 흩어진 포군들이 많았는데, 민간에 다니면서 군수품을 빙자하여 폐단을 끼치는 경우가 잦아서 이들의 작폐를 근절하는 것이 바로 현지민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강년 부대가 화악산 일대에서 주둔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진동대장 황순일 휘하의 중군 이세창, 도령장 김창석 등이 춘천의 곡운면에 들어와서 막대한 물자를 약탈해 갔다 하여 열두 마을에서 호소해 왔다. 이때 이강년은 황순일에게 보낸 편지에서 “요즈음 의병은 많지만 …… 탐하는 것은 군수물자와 군의(軍衣)이고, 회피하는 것은 도적의 칼날과 포탄이다”고 비판하며 이세창이 곡운 등지에서 빼앗은 물자의 일부를 찾아서 돌려주도록 하고 김창석을 잡아 죽였다.

그리고 그는 각 마을의 책임자들에게 글을 보내어 ‘의병을 칭탁하

313) 「再檄告文」, 『雲崗遺稿』 1, 19쪽(구완회, 『한말의 제천의병』, 361쪽에서 재인용).

여 잔민을 침학하는' 행위를 두려워 말고 고하여 징계하도록 하라고 계시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군량을 부담시켰다. 또한 현지 거주민 중심장섭을 금난장(禁亂將)으로 임명하여 흩어진 군사들이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폐단을 엄하게 단속하도록 제도화했다. 이강년 부대는 의병의 활동을 위한 물자를 현지조달 형태로 보급을 받으면서도 민간 사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엄격한 기율과 통제를 가하면서 일정 지역을 배타적으로 관리하며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³¹⁴⁾

한편 이강년 의병은 '속오작대법'을 통하여 의병부대의 기본편제를 거의 완벽하게 유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속오작대법에 따르면, 그의 부대는 기본적으로 10명을 기준으로 하는 편제를 유지하였다. 그의 속오작대법은 전통적인 군사제도의 유제로 조선후기에 지방군제에서 강조된 속오군제의 기본 편제를 변형시킨 편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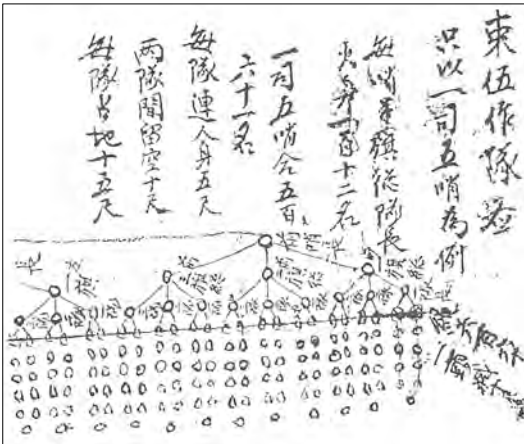
현재 남아 있는 「속오작대도(東伍作隊圖)」에는 의병부대의 조직, 편제, 대오, 행진법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의병군의 최하위 기본 대형인 대(隊)의 편성은 병사 10명이 좌우 이열종대로 서고 선두에 대장(隊長) 1명, 후미에 화병(火兵) 1명이 서는 것이 기본 대형이었다. 10명 단위의 편성은 『기효신서』의 원앙진(鴈鵞陣)에 기초한 기본전술편제와 유사하지만³¹⁵⁾ 속오작대법에서는 후미의 화병 1명이 추가된 것이 다르다. 각 대는 각각 셋으로 묶어 3개 대 36명을 1기로 하여 기총 1명이 이를 통솔한다. 그리고 이 36명 단위의 기는 다시 셋씩 묶어서 3기가 1초로 편성되며 초장 1명이 통솔하게 된다. 따라서 1초는 모두 108명이고, 기총 3명과 초장 1명을 포함

314) 구완회, 『한말의 제천의병』, 330쪽.

315) 백기인, 『조선후기 국방론연구』, 도서출판 혜안, 2004, 196쪽 ; 백기인, 『중국 군사사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6, 192쪽 참조.

하여 112명이 1층의 총원이다.

이렇게 의병부대의 최하위 부대편제가 3·3의 원칙으로 편성된다면, 그 위의 상부단위는 5·5의 원칙에 의해 조직된다. 그것은 5초 5영의 원칙에 따른 것인데, 초는 중초와 좌·우·전·후초의 5초이고, 이들 5초를 1영으로 묶어 영사(營司) 1명이 이를 지도하며, 영 역시 중영과 좌·우·전·후영의 다섯으로 나누어 5영이 된다. 따라서 5초는 560명이며 이들이 1영이 되고, 다시 이들이 5영을 구성하니 총병력이 2,500명이 되었다.³¹⁶⁾



속오작대도의 일부

또한 「속오작대도」에서는 각 대간의 대오 11명을 편성함에 있어서 맨 앞에 대장이 서고 그 뒤에 좌우로 5명씩 늘어서며, 대원간의 거리는 5척이고 각 대간의 거리는 10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진

법에 있어서 행진할 때에 먼저 북을 울리되, 한번 치면 1보씩 가고 소리에 맞춰야 하며, 조금씩 빨리 쳐서 속도를 내며, 대열의 행진순서를 전영(前營), 전사(前司), 전초(前哨), 일기(一旗)가 제일 앞서고, 제1대, 제2대, 제3대의 순서로 간다. 1기의 뒤로는 2기, 3기의 순서로 정하고, 기통은 제3대의 뒤에 서며 초장은 좌 1초의 가운데, 대장은

316) 박성수, 「의병과 독립군 - 조직, 편성의 연속성」, 『제6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93쪽.

중영에 따라간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³¹⁷⁾ 또한 금고령에서는 북을 한 번 치면 일어나고 두 번 치면 나아가며, 징을 한 번 치면 멈추고 두 번 치면 물러서며, 북과 징을 같이 치면 퇴병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끝으로 대오의 편성 및 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련을 거듭할 것과 실제 전투에 임할 때 차질이 없도록 경계하고 있다.³¹⁸⁾

이러한 이강년 의병부대의 기본 편제를 보여주는 속오작대법은 향촌의 민보체제를 계승한 것이었다. 속오작대법에 의한 의병의 부대편성은 조선후기에 지방군제인 속오군제가 19세기에 유명무실해지자 민보체제로 대체되던 상황에서 향촌의 조직과 민병조직이 맞물린 전통적인 유제가 여전히 의병조직을 통하여 지속되었음을 잘 보여준다.³¹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17) 「속오작대도」(박성수·손승철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의병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476~484쪽.

318) 「속오작대도」,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의병 편』, 485~486쪽.

319) 백기인, 「동아3국 근대전법형성의 군사사상적 배경」, 『군사』 제48호, 2003을 참조.

제 4 장

독립군과 ‘독립전쟁론’의 실현

제1절 독립군과 독립전쟁의 양상

제2절 독립군의 이념과 사상

제3절 독립전쟁의 전략전술

제1절 독립군과 독립전쟁의 양상

일제에 의해 강제로 병탄된 한국은 일제의 무단통치로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국내의 의병들도 이미 해외에서의 의병전쟁으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일부는 계속적인 봉기와 비밀결사를 통한 지하조직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해갔다. 특히 무장 항쟁의 성격을 띤 해외에서의 의병전쟁은 1909년 일제의 ‘남한대토벌작전’을 피하여 간도나 연해주 방면으로 이동하여 근거지전략에 의한 장기적인 투쟁의 형태로 지속되었다.

1910년 강제 병탄 이후 국내에서 의병투쟁이 1915년까지 있었다지만 소규모의 활동에 불과했으며, 일제는 1912년 소위 105인 사건을 조작하여 신민회를 해산시키는 한편, 민족지도자들을 체포하거나 감금하고 모든 집회와 결사를 금지시켰다. 결국 1910년대 항일투쟁은 비밀·지하운동의 형태를 띠었고 서로 연결되지도 못했다. 따라서 국권회복운동은 점차 만주와 연해주 등 해외에서의 근거지운동을 중심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렇게 1910년을 전후하여 새로운 활동기지를 찾아 해외로 이동할 당시 만주와 노령의 연해주 일대에 이주한 교포사회를 중심으로 교육운동과 군사훈련을 통하여 민족의 힘을 기르고, 나아가 무장 군사조직을 통하여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하는 등 문화투쟁과 무장투쟁이 결합된 이른바 ‘독립전쟁론’의 구현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었다.³²⁰⁾

우선 서간도 지역으로 진출한 신민회 중심의 독립군 기지 건설운동

320) 박민영,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한국사』 48, 국사편찬위원회, 2001, 199쪽.

이 있었다. 신민회가 추진한 해외독립운동기지 개척운동은 교육기관·군사기관·산업시설의 설치 등 폭넓은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이회영·이시영 형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민들이 개척한 서간도 지역의 유하현 삼원보(柳河縣 三源堡)에는 경학사(耕學社)라는 자치기관이 설치되어 구국의 인재를 양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모체로 독립군의 기간요원을 양성하는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가 설치되었는데 1919년 그 명칭을 신흥무관학교로 바꾸었다. 그밖에도 북간도 지역에서는 서일이 중광단(重光團)을 조직하고, 윤세복은 흥업단(興業團)을 조직하여 동창학교(東昌學校)를 세우기도 하였다.

서간도와 마찬가지로 북간도 지역에서도 독립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갔다. 을사늑약의 체결 이후 이상설과 여준 등이 1906년 8월부터 북간도 용정촌(龍井村)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러한 노력으로 용정에 서전서숙을 설립하고 청년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한 이래, 북간도 지역에는 명동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한인학교가 설립되어 독립전쟁의 근간이 되는 인재들을 육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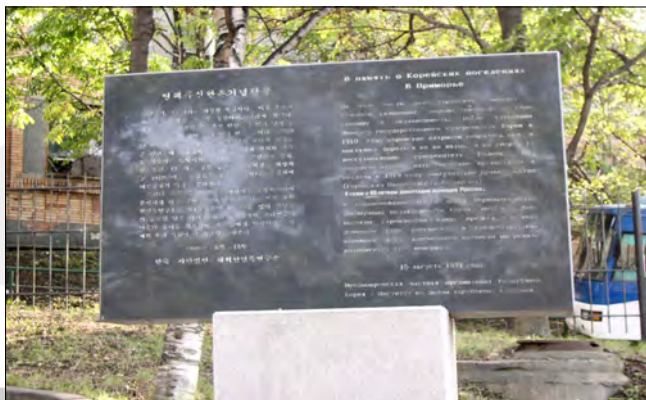
러시아의 연해주 일대에도 한인촌(韓人村)을 중심으로 항일투쟁의 근거지가 마련되었다.³²¹⁾ 이미 1905년 한국인 자치기관인 한민회(韓民會)가 조직되었고, 한민학교 등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실력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연해주 지역에서는 『해조신문』이나 『대동공

321) 러시아 연해주 한인독립운동 현장에 대한 답사 및 조사에 대한 보고로는 심현용, 「러시아 연해주 하산 지역의 한인민족운동 현장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와 활용성 연구」(한민족학회, 2010)로 제출된 바 있다. 심현용 박사는 이 지역에 대한 세 차례(2004, 2007, 2008)의 현장 조사를 통한 보고서에서 한인 의병부대의 특정 근거지와 활동공간 등을 비정하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민족운동 현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보』 등을 발간하여 한인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며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1910년 이상설·이범윤 등은 성명회(聲明會)를 조직하여 각국 정부에 일제의 강제 병탄과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의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해외 항일운동의 거점이었던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에 세워진 신한촌 한인독립운동 기념비
(한민족운동사학회 제공)

그리고 1914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대한광복군정부(大韓光復軍政府)가 수립되었는데, 이는 장차 임시정부가 탄생하는 기반이었다.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의 항일운동은 자체의 실력양성과 그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한국을 강점한 일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사기지를 공격하기도 하는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항일투쟁의 조직화와 전략화로 ‘독립운동의 기지’가 형성되어 독립운동단체와 무장독립군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났다.

독립군의 항일투쟁은 국내의 무장투쟁세력이 합류하면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서의 항일투쟁은 1919년 3·1운동 직후에 거의 동시에 다발적으로 항일전을 표방한 수많은 독립군 부대의 편성으로 나타났다. 당시 북간도에 조직된 독립군단은 대한군정서와 대한국민군을 비롯하여 대한독립군, 군무도독부, 대한의군부 등 대규모 군단에서부터 대한광복단과 의민단, 대한신민단, 대한정의군정사 등 중·소 규모의 여러 독립군단이 있었다. 그리고 서간도에서도 서로군정서와 대한독립단 등을 비롯하여 광복군총영, 광복단, 의성단, 천마대 등 수십 개의 대소 군단이 독립전쟁을 표방하고 나섰다.³²²⁾

그들은 주로 국경 부근에서 일본군과 교전하거나 두만강·압록강을 건너와서 일본군이나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을 주된 투쟁의 방식으로 삼았다. 3·1운동 직후부터 서북간도의 독립군은 압록강·두만강 국경 부근으로 접근하여 한국의 병탄 이후 계속적으로 시도된 무장력에 의한 국내진입작전에 돌입하였다. 초기 해외 의병으로서 안중근과 홍범도 등이 두 차례에 걸친 실시한 적이 있었지만,³²³⁾ 국내진입작전은 1919년 8월 무렵 이후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독립군의 국내진입작전을 선도한 인물은 홍범도였다. 그는 1919년 9월에 이범윤·황병길 등의 독립군 지도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백두산 부근에 근거지를 두고 다방면에서 대규모 국내진입작전을 전개할 계획을 세워 놓고 이를 상해 임시정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1920년에 들어와서 독립군의 국내진입작전이 더욱 왕성해졌다. 홍범도를 비롯

322) 박민영,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200~201쪽.

323) 「禹德淳先生の回顧錄」(윤병석 편역, 『安重根傳記全集』, 국가보훈처, 1999 소수) ; 柳在城, 『義兵抗爭史』,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310~311쪽.

하여 최진동·안무·등이 지휘하는 독립군이 수시로 국내진입작전을 펼쳤다. 그러한 투쟁 중에는 1920년 3월 벌어진 온성 전투가 특기할 만하다. 3월 15일 독립군 200여 명이 두만강을 건너 온성군 유포면 풍리동 주재소를 공격하면서 시작된 18일간의 지속된 전투에서 독립군의 조직적 작전능력이 과시되었다.³²⁴⁾

항일무장투쟁사 차원에서 1920년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거둔 독립군의 봉오동 승첩과 청산리 대첩은 빛나는 성과였다.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1개 대대를 역습하여 약 500명을 사살하였다.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대적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는 일본군과 교전 끝에 1,200여 명을 사살하는 승전을 올렸다. 그러나 일제는 청산리에서의 패전을 설욕하고자 증원부대를 계속 증파하여 독립군을 추격하고, 재만한인 부락을 초토화하는 작전을 감행하여 무조건 살상하는 이른바 ‘경신참변(庚申慘變, 1920)’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³²⁵⁾ 간도 한인사회에 자행된 일제 침략군의 만행은 1920년 10월 초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계속되었다.

당시 한인이 당한 참변의 실상에 대하여 박은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아! 세계민족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자 수없이 많지만, 어찌 우리 겨레처럼 남녀노소가 참혹하게 도살을 당한 자 있을 것이리오. 역대 전쟁사상 군사를 놓아 살육 약탈한 자 수없이 많지만, 저 왜적처럼 흉한 포악한 자는 들은 적이 없다. … 저 왜적이 우리 서북간도의 양민동포를 학살한 일 같은 것이야 어찌 역사상에 있었던 일이겠는가. … 각처 촌락의 민가·교회·학교 및 양곡 수만석을 모두 불태웠다. 남녀노소를 총으로 쏘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매질하여 죽이고, 폭박하여 죽이고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발로 차서 죽이고 찢어 죽이고 생

324) 박민영,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214~216쪽.

325) 박환, 『만주벌 호랑이 김좌진 장군』, 선인, 2011, 118쪽.

매장하고, 불에 태우고 가마에 싣고 해부하고 코를 꿰고, 옆구리를 뚫고 배를 가르고 머리를 베고, 눈을 파내고 가족을 벗기고 허리를 베고, 사지를 못박고 손발을 잘라서 인류로서는 차마 볼 수 없는 일을 저들은 오락으로 삼아 하였다. 우리 동포는 혹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죽고, 혹은 부자가 함께 참륙당하고, 혹은 남편을 죽여 아내에게 보이며, 혹은 형을 죽여 아우에게 보이며, 혹은 상제로 혼백 상자를 품고 난을 피하다가 형제가 함께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산모가 기저귀에 싣은 어린애를 품고 화를 피하다가 모자가 같이 명을 끊었다. 그밖에 허다한 일은 이루 다 적을 수 없다.”³²⁶⁾

정신참변 이후, 서간도나 북간도 지역의 독립군 부대들은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일단 러시아와 만주 국경에 위치한 밀산부(密山府)에 모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연해주로 건너가 러시아 적군과 연합전선을 펴려하였다. 그들은 1921년 1월 각 부대별로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가 이만(현 달네레첸스크)에 집결하였다. 대한독립군단 소속의 독립군들은 일단 무기를 극동공화국정부에 맡기고, 3월 초 열차편으로 이만을 출발하여 중순경에 자유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그곳에서 군사지휘권을 둘러싼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사이의 내분에도 약소 민족을 지원한다는 적군의 배신으로 인하여 이른바 자유시참변(1921. 6)을 겪고 강제로 무장해체를 당하고 말았다.³²⁷⁾

326)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상해, 유신사, 1920, 165~166쪽(박민영,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246쪽에서 재인용).

327) 황민호·홍선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2), 2008, 158~164쪽. 독립군 부대들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부대를 재정비하면서 통합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24년 임시정부 직할의 참의부가 결성된 것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 정의부와 신민부가 조직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1928년 3부가 국민부로 통합되어 민정 기능을 갖춘 한인들의 군정부로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일제에 의해 괴뢰국인 만주국이 수립되면서 독립군의 활동도 제약을 받았다. 투쟁노선도 이념에 영향을 받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투쟁 양상으로 나뉘어졌다. 전자의 대표적인 단체는 이청천이 총사령관으로서 이끈 북만주 지역의 한국독립군과 양세봉이 이끈 남만주 지역의 조선혁명군이고, 후자는 주로 동만주 지역에서 한인사회주의자들이 유격대 활동을 전개하거나 중국공산당의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한 형태로

이처럼 여러 단체와 독립군단이 형성된 것은 한민족의 독립을 향한 고조된 열기가 일시에 분출된 결과였다. 대체로 네 가지 계통이 있었다. 즉 의병과 유생들로 구성된 독립군, 기독교와 대종교 등 종교를 중심으로 편성된 독립군, 그리고 출신 지방별로 뭉쳐서 편성된 독립군 및 특별한 연고 관계없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편성된 독립군이 그들이다.³²⁸⁾ 수많은 항일단체와 독립군단으로 항일독립운동의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도처에 난립한 독립군은 활동 면에서 각기 고립 분산적으로 항일전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결국 전력의 분산이라는 한계를 노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여러 항일단체와 독립군단은 각기 조직을 정비하면서 항일전을 수행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상호 통합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당시 조직된 독립군을 보면 다음과 같다.³²⁹⁾

〈표〉 독립군의 편성

지역	명 칭	전 신	대표 인물	활 동
북간도	대한 군정서 (북로군정서)	중광단 (대종교)	서일 등 대종교 인사	· 1911. 3. 왕청현에서 항일의병을 규합하여 중광단조직 ·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독립군단인 정의단으로 확대 발전 · 1919. 8. 군정회로 개칭, 10월 군정부로, 12월 상해임시정부 국무원령에 의해 대한군정서로 바꾸고 임정 산하의 군단이 됨. · 김좌진 등 지휘관 부임으로 사관훈련소 설치하여 무관 양성에 주력함. - 1920. 8. 현재 병력 약 1,200명, 소총 1,200정, 탄약 24만 발, 권총 150정, 수류탄 780발, 기관총 7정 등 보유

전개되었다. 만주지역에서의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에 걸친 항일무장투쟁에 대해서는 채영국,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0), 2007 및 장세운,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1), 2009나 신주백, 「만주사변 이후 만주 한인 항일운동세력의 동향과 변천」(만주사변 80주년기념 학술대회,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9. 17) 등을 참조할 것.

328) 신재홍, 「독립전쟁」, 『현대사 속의 국군』, 전쟁기념사업회, 1990, 105~106쪽.

329) 박민영,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201~211쪽을 참조하여 작성함.

지역	명 칭	전 신	대표 인물	활 동
북간도	대한 국민군	간민회 (전통 계승)	구추선 등 기독교도, 후에 불교· 천도교도 가담	3·1운동 직후 연길의 춘양향 하마탕에서 조직된 한인 민정기관 대한국민회(북간도 전역의 지방조직) 산하의 독립군단 1920. 8. 현재 안무가 인솔. 병력 약 450명, 소총 600정, 탄약 7천 발, 권총 160정, 수류탄 120개 등 보유 -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나 최진동의 군무도독정 부와 공동작전 전개
	대한 군무도독부		최진동 (명목) 김성극 박영 최정화 박시원 최태여	- 왕청현 춘화향 봉오동에 본부 1920. 3~6. 두만강 대안에서 국내진입작전 전개 주도 1920. 8. 현재 병력 약 600명, 소총 400정, 권총 50정, 수류탄 20개와 기관총 2문 보유
	대한 북로독군부		홍범도 안무 최진동	1920. 5.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안무의 대한국민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가 단일 연합부대로 결성 : 통합군단으로 국내진입작전 수행 1920. 6. 봉오동 승전 거둠. - 대한독립군 계통 : 병력 460명, 소총 200정, 탄약 4만 발, 권총 50정 전력 구비 - 대한국민군 계통 : 병력 280여 명, 소총 200정, 탄약 1만 2천 발, 수류탄 120개, 기관총 2문 보유
	대한 의군부 (의군부)		이범윤 허근 조상갑 최우익	- 북간도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다 1920년 전후로 편성 추정 - 연길현 명월구에 근거지를 둠. - 병력은 100명의 대한의군전위대와 대한의군산포대로 구성된 특공부대 160여 명으로 구성 → 대한의군으로 통합
	훈춘한민회		이동휘 계열의 기독교인	- 훈춘현 사도구 소항구에 본부 - 총 회원 2만 1천 명, 1920. 8. 현재 병력 250여 명, 소총 300정, 기관총 3정
	대한 광복단		이범윤 김성극 김성륜	- 공교회(孔敎會) 인물 중심으로 조직 - 왕청현 대감자와 의란구 등지에서 활동 - 공화제를 반대하고 복벽(復辟) 주장 1920. 8. 현재 병력 200여 명, 소총 400정, 탄약 1만 2천 발, 권총 30정 구비
	대한 신민단 (신민단)		김규면	- 러, 블라디보스톡에서 조직, 왕청현 춘화향 석현에 지단 본부를 둠. - 후에 연길현 승례향 묘구 방면으로 근거지 이동 1920. 8. 현재 병력 200명, 소총 150정, 탄환 9,600발, 권총 30정, 수류탄 48개 보유
	대한 의민단 (의민단)		천주교도 (단장 방유훈)	1920. 4~5. 연길현 승례부 묘구에서 조직된 독립군단 1920. 8. 현재 병력 300명, 소총 400정, 탄약 4만 발, 권총 50정, 수류탄 480개 보유

지역	명 칭	전 신	대표 인물	활 동
서간도	서로 군정서	한족회	이석 이상룡 김동삼 지청천	• 1919. 3. 13. 3·1운동 직후 부민단이 한족회로 확대 개편 • 1919. 4.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그 산하에 군정부 역할 담당하기로 하고, 명칭을 서로군정서로 변경함. • 1919. 5. 신흥학교를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하고 독립군 간부 양성에 주력 - 신흥무관학교는 본교를 통화현 합니하, 분교를 통화현 쾌대모자 및 유하현 고산자에 둠. 초대 교장 이세영, 연성대장 지청천, 교관은 오광선·신팔균·이법석·윤경천 - 하사반, 장교 및 특별훈련반으로 편성 : 하사관 3개월, 장교 6개월, 일반 사병 1개월 과정 - 1919. 11. 3,500여 명 독립군 양성
	대한 독립단		박장호 조맹선 백삼규 전덕원	• 1919. 4. 유하현 삼원포서 조직 - 보약사, 향약계, 동무계의 통합 확대 • 서간도 및 국내 각지에 지단과 지부 설치 - 군인정보, 군자금 모집 활동으로 전력 강화 - 수시로 압록강 대안의 국내로 잠입, 일제 군경과 교전 • 1919. 8. 총수가 1,500명 - 1919년 말, 이념상 분열로 조직 양분 (북벽주의 계열 : 기원독립단, 공화주의 계열 : 민국독립단)
	대한 독립군비단		이태걸 양현경 김정의 김도준 김찬 이동백	• 1919. 5. 함경도 출신의 항일지사들 주축으로 백두산 서남방의 장백현에서 결성 • 임시정부의 지도 하에 남북만주 여러 지역과 국내에 지단 설치하고, 만주와 노령지역의 무장투쟁세력 총동원계획 수립 - 수시로 압록강을 넘어 국내로 진입, 유격전 전개
	광복군총영		조병준 조맹선 변창근 오동진 홍식 최시홍 최찬 김창곤	• 1919. 12. 관전현 향로구에서 대한청년단연합회 대표 안병찬·김찬성과 대한독립단 대표 김승학 등이 통합을 위한 회의 개최 • 1920. 2. 김승학·안병찬·이탁 등이 상하이로 파견되어 통일기구 조직 결의 사항을 보고 - 임시정부, 남북만주에 임시정부 직속기관인 광복군 설치 결정, 그 부속 기구로 민정을 관할할 참리부, 군사활동을 관장할 사령부 및 독립군영의 설치 승인 • 1920년 초, 임시정부 결정에 따라 광복군 조직, 그해만도 일본군경과 교전 78회, 일제 주재소 습격 56개소, 면 사무소 및 영림창 소각 20개소, 일제 경찰 95명 사살

이렇듯 독립군은 3·1운동을 계기로 만주와 연해주 각지에서 본격적인 항일전에 돌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해의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 말 “독립전쟁의 최후수단인 전쟁을 대대적으로 개시하여 규율적으로 진행하고 최후 승리를 지시하기 위하여” 독립전쟁의 ‘준비’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임시정부는 독립군단의 편성과 정비, 군인모집과 군사훈련, 그리고 군비확충 등을 가장 중요한 시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안창호가 1920년 정초에 행한 연설에서 그 일단이 잘 드러난다.³³⁰⁾

“우리 당면의 대문제는 우리 독립운동을 평화적으로 계속하려는 방침을 고쳐 전쟁하러 함이요 … 진실로 우리는 시기로 보든지 의로 보든지 아니 싸우지 못할 때라고 단정하시오 … 군사적 훈련을 아니 받는 자는 국민개병주의에 반대하는 자요 국민개병주의에 반대하는 자는 독립전쟁에 반대하는 자요 독립전쟁에 반대하는 자는 독립에 반대하는 자요.”(《우리 국민이 斷定코 실행할 六大事》, 《독립신문》 제35호, 1920. 1. 8.)

임시정부의 군무부에서도 1920년 1월 〈포고〉 제1호를 발표하였다. 포고문에서는 “충용한 대한의 남녀여, 혈전의 시(時), 광복의 추(秋)가 래(來)하였도다. 너도 나아가고 나도 나아갈지라. 정의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총(銃)과 혈(血)으로써 조국을 살릴 때가 이때가 아닌가?”라고 독립전쟁의 시작을 선포하며 독립군의 사기를 독려했다. 당시 독립군단들은 늠름한 기상과 충만한 사기를 응축한 ‘독립군가’를 부르며 항일투쟁의 새로운 장도에 올랐다.³³¹⁾

330) 박민영,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211쪽.

331) 박민영,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212쪽.

“나아가세 독립군아 어서 나가세
이대를 기다리고 10년 동안에
나아가세 대한민국 독립군사야
정의의 태극깃발 날리는 곳에

기다리던 독립전쟁 돌아왔네
갈았던 날랜 칼을 시험할 날이
자유 독립 광복할 날 오늘이로다
적의 군세 낙엽같이 쓰러지리라

보느냐 반만년 피로 지킨 땅
듣느냐 이천만 단조(檀祖)의 혈손
양만춘 을지문덕 피를 받았고
나라 위해 목숨을 터럭과 같이
탄환이 빗발같이 퍼붓더라도
대한의 용장한 독립군사야
최후의 네 핏방울 떨어지는 날
네 그리던 조상나라 다시 살리라

오랑개 말발굽에 밟히는 모양
원수의 칼 아래서 우짖는 소리
이순신 임경업의 후손 아니냐
싸우던 네 조상의 후손 아니냐
창과 칼이 네 앞을 가로막아도
나아가고 나아가고 다시 나가라
최후의 네 살점이 떨어지는 날
(네 그리던 자유꽃이 다시 피리라”
《독립신문》 제47호, 1920. 2. 17.)

제2절 독립군의 이념과 사상

1910년대의 독립운동은 한말의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세력이 전개한 항일투쟁의 양상이 결합되는 양상을 띠었다. 국권을 강점당한 상황에서 종래의 국권회복운동의 방략인 실력양성론과 무장투쟁론이 가지는 한계와 객관적 조건은 새로운 독립운동의 방략과 노선으로의 재편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일독립운동은 의병전쟁에 있어서 무장투쟁을 독립군적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계몽운동에서도 실력양성운동을 반성하고 독립군 양성교육으로 개편함으로써 독립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³³²⁾ 그러므로 ‘독립전쟁론’이란 한말 의병

332) 독립군에 의한 항일무장투쟁의 단계는 종래의 의병 부대에 의한 의병전쟁과는 그 활동이나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이 단계의 항일 무장투쟁을 ‘독립전쟁’으로 표현해도 좋을 듯하다.

전쟁 계열의 무장투쟁론과 계몽운동 계열의 실력양성론을 하나로 결합시킨 독립운동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설치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후 적당한 시기에 일제와 혈전을 통해 빼앗긴 국권을 되찾는다는 독립운동상의 투쟁방략이었다.³³³⁾

이렇게 1910년대 독립운동은 한말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된 항일투쟁의 방식이 상호 결합적인 양상을 띠고 출발한 것이었다. 국권을 침탈당한 상황에서 이제 투쟁방식의 이원적인 분리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1910년 4월 항일투쟁의 방식을 놓고 무장투쟁론과 실력양성론의 결합적 가능성이 논의된 회의가 열렸다.³³⁴⁾ 청도회담(靑島會談)이 그것이다. 청도회담은 신민회를 중심으로 서간도 독립운동과 독립군 기지건설을 추진하려던 시점과 맞물려 있고, 또 실제로 참석자들의 상당수가 신민회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민회의 전략회의로서 내부적인 노선갈등으로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도회의가 신민회 간부회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많고, 그 회의에서 독립운동기지 또는 독립군 기지건설을 결의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청도회의는 일제 강점 전후 안창호가 망명한 북경에 갔다가 동지들이 청도에 있다는 말을 듣고 청도로 가서 가졌던 모임이었다. 주요한

333) 권대웅,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5), 2008, 63쪽 ; 윤병석, 『1910년대 한국독립운동 시론』, 『사학연구』 27, 한국사학회, 1977 ; 조동걸, 『1910년대 국외에서의 한국독립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334) 청도회의가 개최된 일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박성수 교수는 1910년 4월(박성수, 「신민회와 이동녕」, 『한국독립운동사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316쪽), 조동걸 교수는 1910년 5월(조동걸,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78쪽)이고, 서중석 교수의 경우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안창호의 망명을 1910년 4월로 기술하고 있어 청도회의가 안창호의 망명 직후에 개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4월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진다(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39쪽).

에 의하면, 이 회의에는 안창호 · 유동열 · 신채호 · 이동휘 · 이종호 · 김지간 · 조성환 · 이강 · 박영로 · 김희선 · 이종만 등이 참석했다. 이광수가 쓴 『도산 안창호』에서는 이동휘와 이종만이 빠져 있다. 당시 청도회담의 상황에 대해서 주요한, 이광수, 그리고 안창호 자신의 신문조서 등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³³⁵⁾

“유명한 청도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불행히 이때에도 의견은 두 갈래로 갈리게 되었다. 하나는 당장에 만주로 가서 광복군을 조직하여 일본과 개전하자는 이른바 급진론이요, 하나는 해외 동포를 조직, 훈련하여 실력을 기르면서 장래의 기회를 기다리자는 점진론의 대답이었다.”(『안도산전서』, 114쪽)

“그러나 이 회의의 결과는 도산이 바라던 바와 같지는 못하였다. 의론이 합치 아니되는 점은 급진과 점진에 관하여서니, 이것은 차후로도 줄곧 양립한 대로 기미3·1운동에 이르렀다. 급진이라 함은 서북간도와 러시아령에 있는 재력과 인력을 규합하여 당장에 일본에 대한 무력의 독립운동을 일으키자는 것으로, 이동휘가 이 주장의 대표자요, 점진론이란 것은 실력없는 거사를 하면 달걀로써 돌을 때리는 것이라, 성공할 희망이 없을뿐더러 재외동포의 경제력과 인명을 소모하고, 국내 동포에 대한 적의 경계와 압박이 더욱 엄중하여 문화와 경제력 향상이 저지될 것이니, 우선 서북간도, 러시아령, 만주 등에 체류하는 동포의 산업을 진흥시키고 교육을 보급시켜서 좋은 기회가 돌아오면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준비공작을 하자는 것이니, 이것은 물을 것도 없이 도산의 주장이었다.”(『도산 안창호』, 49쪽)

“(청도에서) 유동열과 김희영 2인은 그 돈으로 잡지 및 신문 경영을 하자고 말하고, 피고인과 이강은 계획대로 농촌 개척을 하자고 말해 양자가 의견이 충돌하여 어떤 것도 실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다시 판사가 해외에 가 선내와 연락하여 조선민족의 자립자존을 꾀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전술과 같이 만주의 황지를 개척하여 조선민족을 이주시켜 농촌을 개척하여 조선민족의 자립자존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판사가 그 뒤에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어떤

335)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39~40쪽.

하였느냐고 묻자) 블라디보스톡에서도 피고인과 이갑 2인은 전과 같이 농촌 개혁의 초지를 굽히지 않고 역설하였고, 김희영과 유동열 2인은 만주에서 조선군인을 양성하자고 말했기 때문에 이 역시 의견의 일치를 볼 수가 없어 …”(『안창호 신문조서』, 『조선사상운동조사자료』 제2집, 106~107쪽)



이회영

그러나 청도회의의 역사적인 의의는 이동휘의 참석 여부나 혹은 무관학교의 건립을 결의했느냐 하는 문제에 있기보다는 안창호의 민력양성론(民力養成論)에 맞서서 군력양성론(軍力養成論)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있었다.³³⁶⁾ 안창호는 결국 모스크바를 거쳐 미국으로 되돌아갔지만 간도로 돌아간 이른바 무장투쟁파 인사들은 무관학교를 세워 독

립군을 양성하였다. 1910년 4월의 청도회의를 계기로 1908년 이상설·이회영 등이 추진하려던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건설을 비롯한 항일 무장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그해 8월 하순에는 신민회 간부인 이회영과 이동녕, 이회영과 행동을 같이했던 장유순, 이회영이 데리고 있던 소년 이관식 등이 상인으로 가장하여 초산진(楚山鎭)으로 가서 압록강을 넘었다. 그들은 압록

336) 박성수, 「신민회와 이동녕」, 『한국독립운동사론』, 318쪽. 박성수 교수는 이동휘와 안창호 그리고 미국에서의 박용만과 이승만이 서로 독립운동의 방략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사실은 장차 수립될 상해 임시정부의 지도자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동휘와 안창호의 의견대립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승만과 박용만의 사이였고, 이것이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운명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고 지적한다.

강 주변의 안동에서 500리쯤 떨어진 횡도천(橫道川)에 임시로 자리 잡고 남만주 일대를 시찰한 후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이회영은 건영·석영·철영·시영·호영 등 형제들과 모임을 갖고, 6형제가 가족과 함께 서간도로 가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할 것을 논의하고 이를 결정하였다. 이석영이 만여 석의 재산과 토지를 모두 방매한 것을 포함하여 형제들이 재산을 처리한 후 이회영 6형제의 대 소가와 권속 50~60명은 12월에 6~7대로 분산 편성하여 12월 30일 압록강을 건넜다. 그들이 목적지인 추가가(鄒家街)에 도착한 것은 1911년 2월 초순이었다. 이로써 서간도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 건설운동 주력의 한 부대가 만주로 이주한 것이었다.³³⁷⁾

“지금 한일합병의 괴변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산하가 왜적의 것이 되고 말았다. 우리 형제가 당당한 명문 호족으로서 차라리 대의가 있는 곳에 죽을지언정 왜적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구차히 도모한다면 이는 어찌 짐승과 다르겠는가? … 나는 동지들과 상의하여 근역(楸域)에서 하던 모든 활동을 만주로 옮겨 실천하려 한다. 만일 뒷날 행운이 있어 왜적을 부숴 멸망시키고 조국을 다시 찾으면, 이것이 대한민족된 신분이요 또 왜적과 혈투하시던 백사(白沙) 공의 후손된 도리라고 생각한다.”³³⁸⁾

그들은 추가가에서 3~4km 떨어진 곳인 삼원포(三源浦, 일명 三源堡 혹은 三合浦) 일대를 독립운동 기지로 정하고 경학사(耕學社)를 설립했다.³³⁹⁾ 남산·홍석진·마록구 등 세 지역에서 흘러온 물이 합쳐지는 곳이라 하여 그렇게 이름을 붙인 그곳은 서간도 독립운동과 한국 독립군 기지 건설운동의 요람이었다. 이회영·이동녕 일행이

337)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94쪽.

338) 李丁奎·李觀植, 『友堂 李會榮略傳』, 을유문화사, 1985, 145~146쪽.

339) 서중석은 경학사가 1911년 늦봄에서 음력 5월 14일 이전 여름에 추가가 대고산 노천회의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94쪽).

1910년 8월 서간도에 갔을 때 그곳에 와 있는 한국인 지사나 이주민들로부터 여러 정보를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답사를 하여 삼원포 일대를 독립운동 기지로 정했던 것이다.³⁴⁰⁾

1911년 5월 14일 경학사 산하의 학교로 신흥강습소가 설립되어 개학하였다. 이것을 모태로 신흥무관학교가 창설되었는데, 1912년 7월 합니하에 새로운 교사를 신축하고 낙성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신흥강습소는 일정한 군사훈련과 중등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상당한 시설을 갖춘 학교가 되었다.³⁴¹⁾

결과적으로 신민회는 창건이념대로 그 방략으로, 정신적 자강론을 강조하고 즉전즉결론(卽戰卽決論)에 따라 무장투쟁론을 지지하면서 그 간부들을 주축으로 서간도 일대에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항일무장투쟁의 근거지를 마련하였다.³⁴²⁾ 당시 계몽운동 계열의 안창호와 같이 실력양성론에 중점을 둔 ‘준비론’에 빠지지 않고, 군사력 강화에 의한 독립운동방략을 실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910년대에서 1920년대 초반까지 대체로 의병전쟁에서 해외에서의 독립전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실력양성론과 독립전쟁론이 독립운동의 양대 사상적 주류를 이룬 셈이다. 그러나 무장투쟁론자들은 무장투쟁을 강조하면서 독립군에 의한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항일투쟁의 방향을 설정했으며, 특히 신민회 인사들이 독립군 기지 건설과 전투원 양성을 통해 실력양성론과 독립전쟁론을 결합시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340)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65쪽.

341)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05~106쪽. 합니하에서 교사를 신축한 후 교명을 ‘신흥중학’ 이라고 했는데, 신흥중학이란 대외 명칭으로 사용했던 것이고 이때부터 이회영은 신흥무관학교라고 불렀다고 한다(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12~113쪽).

342) 박성수, 「신민회와 이동녕」, 『한국독립운동사론』, 319쪽.

한편 3·1운동 직후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독립군에 의한 독립전쟁은 독립군 부대에 의해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군사조직에 의한 활동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성립 초기에 독립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독립외교’에 의한 외교노선과 항일투쟁방식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20~30년대 독립운동의 방향은 뚜렷한 합의적인 일치 없이 독립군의 군사 활동, 임시정부의 독립외교 활동, 그리고 비밀결사에 의한 의열투쟁 활동을 제 각각 전개하는 상황이었다.

임시정부의 상황이 이러하자 민족진영의 일부에서는 ‘외교론’에 반대하고 무력투쟁을 중심으로 한 ‘군사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³⁴³⁾ 이에 통합 임시정부는 무장투쟁노선을 견지하던 이동휘 세력을 포함하여 서·북간도의 무장 독립군을 참여시켜 군사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는데, 이로써 종래의 외교론·준비론보다 무장투쟁을 강조한 ‘독립혈전론’이 힘을 얻었다.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는 독립전쟁의 개시와 강화를 명백히 천명했고, 독립군 편성을 위한 법령정비도 구체화했다.³⁴⁴⁾ 그러나 군사론은 무장투쟁단체에서, 외교론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측의 주된 독립운동노선으로 삼고 있어 여전히 서로 통합되지 못한 상태였다.

343) ‘독립전쟁론’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본서의 제5장 제1절에서 다루겠지만, 대체로 임시정부가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한 것을 계기로 촉발되어 1920년도 1월에 발표한 군무부의 포고문 등에 의해 고무되었다[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편찬위원회, 「포고문」(1920. 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국사편찬위원회, 2006, 161~162쪽].

344) 백기인, 「임시정부가 꿈꾼 국방·외교」, 『독립정신』 46,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09, 20~21쪽.

특히, 1923년 국민대표회의의 실패로 임시정부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군사적 활동은 주로 시베리아와 만주 일대의 독립군 단체에 기대했다. 당시 만주에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와 같은 군사단체 등 22개 약 2,000명의 무장군인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임시정부의 직속 기관으로 독립전쟁을 수행한 유일한 단체는 대한광복군총영뿐이었다.³⁴⁵⁾ 요컨대 1920년대 초기까지도 독립군의 군사활동을 주축으로 한 무장투쟁에 의한 ‘독립전쟁’은 독립군 부대의 전유적인 활동이었다. 그들의 사상적 이념적 기반은 여전히 ‘독립전쟁론’이었다.

제3절 독립전쟁의 전략전술

가. 병력 동원 및 편성

독립군이 전개한 무장투쟁에 의한 독립전쟁의 전략전술은 모병 및 편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의병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군대 양성과 운영의 형태를 잘 보여준다. 독립군은 기본적으로 징집에 의한 모병의 형태를 취하여 병력을 획득하였다. 징병은 독립운동단체가 소속 독립군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기 자기 단체의 관할지역 내 주민들에 대하여 징병제를 실시한 것이다. 대한국민회는 호구조사를 실시한 후 18~40세까지의 장정을 매호당 1명씩 징집했으며, 한족회에서도 17~30세까지의 장정 중 선발하여 징집하였다. 주민을 많이 관장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5호 중 1명을 징집하고 징집

345) 백기인, 「한국 광복군 창군과 항일투쟁」, 『군사논단』 45, 한국군사학회, 2006, 23~24쪽.

되지 않은 나머지 4호는 징집된 호구의 생계를 돌보도록 했던 것이다.³⁴⁶⁾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한 단체는 북로군정서(대한군정서의 별칭)였다. 북로군정서에서는 평균 30호를 1구(區)로 정하고 18~35세의 건강한 신체를 지닌 자를 매 구당 15~25명을 선발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격자에게 즉시 입대시켰으며, 나머지는 군정서가 필요로 할 때 즉시 소집에 응하도록 서약하게 했다. 35세 이상의 자로서 상당한 지식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각 부대나 각 구의 간부로 임명했으며, 입대자에게는 급료 및 여비로 50원을 지급하였다.³⁴⁷⁾ 그 실례로 북로군정서 4대대는 1920년 8월 1일부터 관할구역인 연길현 수신향 이도구 방면에서 장정을 모집했다. 그밖에 북로군정서는 국내나 러시아에서도 모집 활동을 했고, 심지어 현지의 중국인 장정도 모집했다.³⁴⁸⁾

모병의 경우, 지원자 외에 간도지역에서 활동하는 국민회·북로군정서·광복단·군무부독부·의군단·대한독립군·신민단 등과 같은 독립운동 단체가 모집을 통해 병력자원을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한 단체들은 세력 확장을 통해 독립군의 병력원을 확보하고자 초모활동을 전개했는데, 무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군에 참여하는 것이 국사에 종사하는 명예와 개인의

346) 신재홍, 『항일독립운동연구』, 신서원, 1999, 209~210쪽.

347) 신재홍, 『항일독립운동연구』, 210쪽.

348) 박환,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단체」, 『만주한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116~117쪽. 또한 북로군정서의 교육 중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중국인으로서 지휘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금 200원을,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60원을 급료로 각각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생활이나 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명을 통하여 다수의 참가자를 획득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원자들에게는 응모자나 승인자 관계없이 일정한 양식의 군권(軍券)을 교부하여 그의 신원에 대한 확인을 해주었다.³⁴⁹⁾

독립군의 부대 편성은 지휘관의 군사경력에 따라 대한제국의 편제를 적용하거나 일본군·중국군의 편제를 적용했으며, 또는 부대의 규모와 지역 사정에 따라 부대를 운영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독자적인 편제를 사용하기도 했다. 대부분 독립군 부대의 편제는 소대·중대·대대의 3각 편제였다. 독립군의 편성 규모를 가장 상세히 알 수 있는 북로군정서의 경우로 창설 초기 병력이 적었을 때는 25명을 1개 소대로 하고, 2개 소대 50명을 중대로 했으며, 2개 중대 100명을 대대로 편성했다. 그러나 후에 병력이 증가하면서 50명을 소대로 하고, 2개 소대를 1개 중대로 그리고 4개 중대를 1개 대대로 했으며, 각 제대에는 대장(隊長) 1명을 두어 부대를 지휘하도록 하였다.³⁵⁰⁾ 실제 북로군정서에서는 모집된 장정을 400명의 보병대(步兵隊)로 편성하고, 그들에게 숙성교육으로 군사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중교 이념과 공화주의 사상을 교육하고 평상시에는 관할 구역내의 안녕질서에 힘쓰고 유사시에는 전투에 출전하도록 했다. 그 결과, 북로군정서는 1920년 10월 경 간부와 병사를 통틀어 약 1,600여 명의 군대로 만주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단체로 성장했던 것이다.³⁵¹⁾

홍범도 부대의 경우에 처음에는 대한제국군대의 편제를 참작하여 분대(25명)를 최소 단위로 하여 2개 분대를 1개 소대(50명), 2~3개

349) 「間島에 있어서의 不逞鮮人團의 狀況」(大正 9년 11월 28일, 高警 제34318호), 『한국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3, 634쪽.

350) 신재홍, 『항일독립운동연구』, 211쪽.

351) 박환,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단체」,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117쪽.

소대를 1개 중대(100~150명)으로 편성하고 각각 중대장-소대장-분대장의 지휘체계를 갖추었다.³⁵²⁾ 그리고 3·1운동 직후에 창설한 ‘대한독립군’은 소대-중대-대대의 편제를 채택하여 1개 소대를 50명으로 하고, 2개 소대를 1개 중대, 4개 중대를 1개 대대로 편성했다. 대한독립군은 처음에 3개 중대를 유지했고 1919년 8월의 봉기를 계기로 ‘독립전쟁’을 전개하면서 과감한 작전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³⁵³⁾

한편 독립군은 생활의 근거지를 위한 병영과 건축을 축조하여 운영했는데 그러한 장소는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하기 곤란한 지형적으로 오지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삼림의 오지와 같은 곳에 설치한 병영시설은 막사와 연병장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그 같은 독립군의 병영건설은 무엇보다 일본군의 습격을 피할 수 있고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고려한 것으로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일본 측의 정보 문서에 의하면, 독립군의 병영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그곳은 삼림의 오지가 되므로 수목을 벌채하여 중국 면적으로 약 5~6상지(晌地)를 평지로 만들고 그곳에 병영을 세운 것인데 가옥 구조는 중국식 6간방(間房) 5동, 5간방 2동을 세워서 1동은 사무소로 충당하고 1동은 노동자의 거처로 충당하며 그외의 5동은 전부 군인 등이 기거하게 하였다. 그 1동의 길이는 60척, 폭은 20척으로 구조는 외벽(外壁)을 통나무로 엮은 것이지만 빈틈이 없어 판자 울타리 대용으로 되었고 천정은 천축(天竺) 목면을 펼쳐서 중량을 높게 하여 비·이슬을 막을 수 있는 천막이다.”³⁵⁴⁾

352) 신용하, 「홍범도 의병부대와 독립군과의 관계」, 『의병과 독립군의 무장독립운동』, 지식산업사, 2003, 182쪽.

353) 「洪範圖 口述 自傳」,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홍범도 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13쪽.

354)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1976, 146~147쪽.

나. 장비와 무기

독립군의 군자금 조달은 만주지역의 교민들에 의한 납세 형식의 징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납세 방식의 징수는 교민 사황에 일정한 군정이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재산 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한 것인데, 대개 빈민층이 많은 교민들에게 일시불로 징수하기 어려워 분납제를 적용하여 1년에 전·후기로 나누어 분납하게 했다. 토지 5정보(15晌) 이상을 소유한 부유한 교민들에게는 재산 정도에 따라 100원 이상을 할당하여 납부하게 했는데, 일반민들에게는 호당 평균 조(粟) 2말과 집신(草鞋) 2켤레가 징수되었다.³⁵⁵⁾

대한독립군의 경우, 5등급으로 나누어 1등 5원(元), 2등 3원, 3등 2원, 4등 1원 5각(角), 5등 7각반을 징수했다. 화룡현(化龍縣)에서 결성된 대한독립이사회는 3등급으로 나누어 부호는 조(粟) 5말(斗)과 현금 10원을, 빈호는 3말과 5원, 극빈호는 5되와 1원을 징수했다. 흥법도 부대에서는 각 호에 곡(穀) 3말과 가죽신(革鞋) 1족을, 연길현에서 군자금 모금을 전담하기 위해서 결성된 독립단총재소(獨立團總財所)는 5원에서 100원까지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부금을 징수하였다.³⁵⁶⁾

독립군은 부족되는 자금을 국내의 모금으로 충당하였다. 북로군정서, 즉 대한군정서에서는 엄선된 대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대상자는 상당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그 사람을 원적지로 파견하고 그곳에서 친척이나 그 지방의 지면

355) 「間島에 있어서의 不逞鮮人團의 狀況」, 『한국독립운동사』 3, 634쪽.

356) 신재홍, 『항일독립운동연구』, 213쪽.

인사들에게 독립운동자금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그들로부터 의연금을 받아냈던 것이다. 의연은 강제 징수가 아닌 국민에 호소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간도지방의 독립군 모금에서는 상당한 부작용도 나타났다. 간도지방의 여러 개의 독립운동 단체가 존재했으므로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교민들에게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주었다. 게다가 독립군을 빙자한 무뢰배들이 독립운동단체의 간판을 걸어놓고 교민을 충기로 위협하여 강제로 재산을 약탈함으로써 교민들의 민심을 독립운동으로부터 이반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독립군 부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부족한 군자금을 충당하고자 국내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모금이 이루어지는 부작용이 야기되었던 것이다.³⁵⁷⁾

이렇게 군 자금이 마련된 대로 독립군은 시베리아나 연해주로부터 장비와 무기를 구입하였다. 무기와 탄약은 1920년대 초까지는 러시아 방면이나 상해 방면으로부터 구입했고, 1920년대 중반부터는 주로 만주의 중국군이나 공산주의 계열의 홍군(紅軍)들로부터 조달했다. 1930년대에 와서는 만주지역의 독립군의 경우 만주의 중국군을 통하여 조달하였다.³⁵⁸⁾

무기의 반입 경로를 살펴보면, 우수리(烏蘇里) 방면과 추풍(秋風) 방면, 그리고 남부 연해주 방면의 세 계통이 있었다.³⁵⁹⁾ 우수리 방면으로부터 왕청현 오지 지방으로 들어오는 것은 철로로 ‘니코리스크를 경유하고 또는 스파스카야’ 유정구역(柳亭口驛) 방면으로부터 육로

357) 「間島에 있어서의 不逞鮮人團의 狀況」, 『한국독립운동사』 3, 628~634쪽.

35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무기발달사』, 1994, 620쪽.

359) 『독립운동사자료집』 10, 155~156쪽 ; 「間島에 있어서의 不逞鮮人團의 狀況」, 『한국독립운동사』 3, 635~636쪽.

국경역 ‘프르라니츠야’ 부근으로 나와서 국경을 넘는 경로였다. 이렇게 국경을 넘은 반입로는 다시 둔전영(屯田營) 통로나 삼차구(三岔口)를 경유하여 대조사구(大鳥蛇溝)와 수분하원(綏芬河源)을 돌아서 왕청현 오지 나자구 지방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추풍 방면에서 왕청현 오지 방면으로 반입하는 것이나 니코리스크 지방과 추풍 지방으로부터 왕청현 오지 방면으로 반입하는 것은 동령현(東寧縣)이 국경 호포도하(胡布圖河) 연선 또는 삼차구로부터 국경을 넘는 경로인데, 대조사구로부터 물길을 따라 노흑산으로 나와 칠십이개정자·나자구 등을 거쳐서 훈춘현 대황구나 왕청현 춘명향 서대파 방면으로 반입하는 경로다. 이 경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남부연해주 지방으로부터 훈춘현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있었다. 훈춘현 국경 방면에서는 주로 홍기하·상원 지방의 삼림지대와 바라반 방면으로에서 국경의 감시망을 피하여 훈춘의 오지로 들어오는 방법이었다.

그밖에도 독립군은 시베리아로 출병한 체코슬로바키아군이 철수하면서 과거 헝가리제국의 압제를 경험한 처지여서 한국에 동정을 베풀어 막대한 무기를 싸값에 판매한 것을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무기상이나 중간 무기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은 고가로 구입했으며, 구입한 무기는 철로로 소만국경까지 운반되면 직접 독립군 본부로 운반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³⁶⁰⁾

무기의 종류는 소총이 중심이었지만 권총이나 기관총, 수류탄 등도 있었다. 개인 무기와 장비는 대체로 소총 1정, 탄약 500발, 수류탄 1개에다 휴대품으로 도정한 조(精粟) 6되(升)의 비상 식량과 신발 1켤레를 소지하였다. 대한군정서는 초기에 부대 전체가 총 병력 500여 명에 장총 500정, 권총 40정, 그리고 기관총 3문의 장비를 갖추었다.

360) 「間島에 있어서의 不逞鮮人團의 狀況」, 『한국독립운동사』 3, 635쪽.

그 후 1920년 8월 총병력이 1,600명을 돌파할 당시에는 장총 1,800정(1정당 탄환 800발), 권총 150정, 기관총 7문, 대포 3문과 다수의 수류탄을 보유하게 되었다.³⁶¹⁾

이렇게 독립군이 사용한 무기와 장비는 국적별로 보면 주로 러시아제와 일본제였고, 일부가 중국제와 미국제였다.³⁶²⁾ 대체로 1920년대 중반에는 러시아식 소총·중국식 소총·28식 소총·30년식 소총·무라다(村田)식 소총·러시아식 엽총·러시아식 권총·나간트 권총·브라우닝 권총·스미스식 권총·무라다식 자동권총·다이나마이트·독일식 폭탄·러시아식 폭탄 등이었다. 그 후 모제르 권총이나 브라우닝 권총이 주종을 이루었고, 권총을 사용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다. 군사교육과 전략전술

1910년 일제에 의하여 조선이 강점되고 국내에서의 무장투쟁이 어려워지자 의병들은 근거지를 서간도나 북간도 지역으로 옮겨 항일투쟁을 계속해나갔다. 의병부대들은 생계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독립군 양성, 무기조달, 군자금 마련을 위하여 각각 자치 기관 겸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서간도 지역에서는 경학사, 부민단 등 몇몇 독립운동 단체들이 활동했고, 북간도 지역에서는 간민회, 간민교육회 등이 재만 동포의 자치 기구이자 독립운동단체로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3·1운동을 계기로 더욱 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이 늘어났

361) 신재홍, 『항일독립운동연구』, 211쪽.

36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무기발달사』, 621쪽.

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서간도 지역에서는 대한독립단과 서로군정서이고, 북간도 지역에서는 대한국민회와 북로군정서였다.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는 각각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기관을 근거지 내에 갖추고 있었다. 예컨대, 서로군정서의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와 북로군정서의 사관연성소(士官練成所)가 그것이었다. 신흥무관학교와 북로군정서의 교육은 비단 군사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일독립전쟁을 지속해나가는 정신적 동력으로서 민족교육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 후 독립전쟁을 위한 독립군의 양성은 그 폭을 넓히면서 중국 국민당의 협조 하에 중국군관학교의 입교나 특별교육, 그리고 한인 지도자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족운동의 지도자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신흥무관학교의 교육체계 신흥무관학교는 본래 이회영 일가가 만주로 건너가 경학사와 신흥강습소를 세우고 장차 독립군을 양성할 무관학교로서의 기틀을 마련한 데서 출발하였다. 교명을 신흥(新興)이라고 한 것은 신민회의 ‘신(新)’자와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흥(興)’자를 붙인 것으로 신민회의 구국투쟁정신을 계승하려는 뜻이었다. 그러나 학교 명칭을 강습소라고 한 것은 중국 토착민들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신흥강습소는 사실상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무관학교였던 것이다.

신흥강습소에는 본과와 특별과의 두 과정이 있었다. 중학반과 군사반이 그것인데, 본과의 보통중학과정은 장도순·윤기섭·이규봉과 중국인 모(某)씨 등이 교사로 활동하였다. 특별과는 군사학을 전수하는 과정이었다. 김창환·이관직·이장녕 등이 교육을 담당했는데, 그들

은 구한말에 군인으로서는 대일항쟁을 전개했던 인물로 학생들에게 우수한 군사교육은 말할 것 없고 민족의식도 배양하였다.³⁶³⁾ 특히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에서 활동하던 일본군 보병 중위 이청천(李青天), 기병 중위 김경천(金擎天) 등이 만주지역으로 망명해 와서 합류함으로써 무관학교는 날로 발전하였다.³⁶⁴⁾



김경천 교관

신흥강습소는 합니하로 이전하면서 1913년 5월 교사 낙성식을 갖고 학교 명칭을 신흥중학으로 개칭했는데, 이것이 사실상의 신흥무관학교였다. 신흥중학은 무관 양성을 숨기기 위한 목적상 대외 명칭을 그렇게 사용한 것이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는 애국 청년들이 압록강을 건너 와서 입교하기를 원했다. 이에 서간도 지역의 무장투쟁을 주도한 독립군단의 하나인 서로군정서에서는 그 시급함을 인정하고 즉시 유하현 고산자(孤山子) 하동 지역에 40여 간의 광대한 병사(兵舍)와 수만 평의 연병장을 부설하여 이들의 교육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³⁶⁵⁾ 그리하여 1919년 5월 3일 신흥중학은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하게 되었고, 서로군정서에서 가장 역점을 둔 독립군 양성의 근간이 되었다.

363) 박환, 「이회영과 그의 민족운동」,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281쪽.

364) 「신흥무관학교 - 원병상 수기」, 『독립운동사료집』 제10집, 29쪽.

365) 박환,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단체」,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47쪽.

신흥무관학교에 근무했던 인물들을 보면, 한말의 육군무관학교, 신흥강습소, 신흥중학 외에 이청천, 김경천 등 일본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이범석 등 중국 운남육군강무학교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로써 학생들은 최신 일본식이나 중국식 무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³⁶⁶⁾

〈신흥무관학교의 교원 일람표〉

성 명	직 위	출 신 지	학 력	비 고
이천민	교장	충남 청양	와세다대 중퇴	고산자 고등군사반
양규열	부교장	경기 양평	육군무관학교	"
윤기섭	학감(교감)	경기 파주	보성중학교	"
김창환	훈련감, 교장서리	서울	육군무관학교	"
이청천	교육대장(교성대장)	서울	육군무관학교	"
계용보	교관	평북	신흥중학	"
원병상	교관	강원	신흥중학	"
백종열	교관	강원 회양	신흥중학	"
오상세	교관	경기	신흥중학	"
김경천	교관	함남	일본 육군사관학교	"
김승빈	교관	경기	신흥중학	"
손무영	교관	충북 진천	육군무관학교	"
신팔균	교관	서울	신흥중학	"
김성노	교관	충남 천안	육군무관학교	합니하 초등군사반
이장녕	훈련감, 교장	서울	신흥강습소	"
성준용	교관, 학도대장	충남 부여	신흥중학	"
박영희	교관	경기 용인	신흥중학	"
오광선	교관	서울	운남육군강무학교	"
홍종락	교관	서울	신흥중학	"
이범석	교관	서울	신흥중학	"
총종린	교관		신흥중학	"

366) 박환,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단체」,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48쪽.

신흥무관학교에서는 1911년 추가가(鄒家街)의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것으로부터 신흥강습소가 합니하로 옮겨간 시기를 거쳐 1920년 8월 폐교될 때까지 총 3,500명의 독립군 기간요원을 양성하였다.³⁶⁷⁾ 특히 3·1운동 이후 유하현의 신흥무관학교에서는 2년제 고등군사반을 두어 고급간부를 양성했고, 통화현 합니하, 칠도구(七道溝), 쾌대모자(快大帽子), 쾌당모자(快當帽子) 등에 분교를 두어 초등군사반을 편성하여 3개월간의 일반훈련과 6개월간의 후보훈련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분화와 심화를 통한 군사교육의 전문화를 이루어 가고 있었다.³⁶⁸⁾

신흥무관학교의 교훈은 조국의 광복을 목표로 인격을 연마하고 군사 지식을 배양하여 부과된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었다. ‘구국의 대의’를 생명으로 하는 목표 아래 생도들의 실천 좌우명은 다음과 같았다.³⁶⁹⁾

- ① 불의에 반항 정신 ② 임무에 희생 정신 ③ 체면에 필승 정신
④ 간난에 인내 정신 ⑤ 사물에 열결 정신 ⑥ 건설에 창의 정신

이렇듯 신흥무관학교의 무관교육은 대체로 구한말 육군무관학교의 것과 비슷했던 것이다.³⁷⁰⁾ 기본적으로는 군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

367) 「신흥무관학교 - 원병상 수기」, 『독립운동사료집』 제10집, 32쪽. 신흥무관학교의 폐교에 대해서 원병상은 1919년 11월 폐교되었다고 했지만 1920년 8월 폐교가 옳다.

368) 박환,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단체」,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49쪽.

369) 「신흥무관학교 - 원병상 수기」, 『독립운동사료집』 제10집, 22쪽.

370) 독립군단의 무관학교에서 행해진 군사교육이 구한말 무관학교의 교육체계와 유사했음은 북간도 지역의 북로군정서가 운영하던 사관연성소(士官鍊成所)에서 이루어진 군사교육·훈련을 통해서 입증된다. 1920년 9월 28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김좌진이 소장을 겸하던 사관연성소에서는 구한국 군대식 훈련을 기본으로 하고, 1정보 넓이의 연병장에서 상시로 사격훈련을 실시했으며, 교재로는 『보병조전』 『축성교범』 『군대내무서』 『야외요무령』 등을 사용하였다(황민호·홍선표, 『3·1운동 직후의 무장투쟁과 외교활동』(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2, 2008, 63~64쪽)).

애했으며, 1일 14시간 정도의 학과교육과 70리의 야간 행군 등 강도 높은 군사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 내용은 정신교육에 치중하여 학과 10%, 교련 20%, 정신교육 50%, 건설 20%였으며, 학교 건물 연병장 건설 등은 모두 자체에서 해결하였다.³⁷¹⁾ 당시 무관학교에서 사용한 병서는 윤기섭이 일본군과 중국군의 병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맞게 새롭게 편술한 것이었다.³⁷²⁾

또한 수업 이외에도 『신흥학우보』를 통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군사학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였다. 「보병전투연구(속)」와 같은 글이 대표적인 예다.³⁷³⁾ 군사이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실제 훈련을 통하여 독립군으로 양성되었다. 그리고 무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민족 정신의 함양에도 노력했는데, 투철한 민족의식을 가진 학생의 양성이 일제를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국어·국사·지리·노래 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러한 과목의 교재로는 현재의 『유년필독』과 같이 1909년 총감부에 의해 발간폐지를 당한 책들도 있었다. 민족의식의 함양을 위한 노래 교육으로서는 학교의 교가 제창이 그것이었다. 학생들은 교가를 부르며 조국 광복의 맹세를 거듭 다짐했던 것이다.³⁷⁴⁾

“칼춤 추고 말을 달려 몸을 연단코
새론 지식 높은 인격 정신을 길러
썩어지는 우리 민족 이끌어내어

371) 신재홍, 『항일독립운동연구』, 202쪽.

372)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大韓民國公報處, 1949, 53쪽.

373) 「보병전투연구(속)」는 『신흥학우보』 제2권 2호, 1917에 게재된 군사학에 관한 소개 논문이다.

374) 박환,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336~337쪽.

새나라 세울이 뉘노
우리 우리 배달 나라의
우리 우리 청년들이라
두팔들고 고향쳐서 노래하여라
자유의 깃발이 뿔다”

신흥무관학교의 교가에는 나라 잃은 민족의 설움을 딛고 일어서서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배달민족의 국가를 건설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민족 청년의 혼을 일깨우는 듯하다. 교가를 제창할 때마다 그들은 마치 새벽을 흔들어 깨우듯 민족의 비상을 향한 독립과 자유에의 소명을 느끼며 가슴 벅찬 애국의 열정으로 불탔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무관학교에서는 교관과 교직원 및 학생이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을 기원하면서 애국가를 제창했다고 한다. 식사가 끝나면 집합 나팔소리에 조례가 시작되었다. 조례식에는 교직원 전원이 배석하고 엄격히 점명(點名)을 하였다. 애국가는 다음과 같다.³⁷⁵⁾

“화려강산 동반도는 우리의 본국이요
품질좋은 단군자손 우리 국민일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우리나라 우리들이 길이 보존하세”

이러한 애국가를 부르는 생도들 앞에서 여준(呂準) 교장은 양쪽 눈에 망국한의 뜨거운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기도 하였다. 윤기섭 당시 교감은 평소에 “한쪽 눈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를 지적해 말할 때 한쪽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장점을 들어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진실하고 인자한 성격에서 우리나라의 교감의 교육적 지침

375) 박환,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337~338쪽.

은 일거일동(一舉一動), 일언일행(一言一行)이 애국의 정열에서 지성·궁행·실천으로 숭선수범으로 무관학교의 전통을 일구어나갔던 것이다.³⁷⁶⁾

이밖에도 각종 군가·민요·창작 노래도 불렀다.³⁷⁷⁾

① 군가

“슬프도다 우리민족아!
오늘날 이 지경이 왜 말인가?
4천년 역사국으로
자자손손 복락하더니
오늘날 이 지경이 왜 말인가?
철사주사로 결박한 줄을
우리 손으로 끊어 버리고
독립만세 우레 소리에
바다가 끓고 산이 동하겠네”

② 독립군가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리 이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 이 너와 나로다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건가
정의의 날센 칼이 비끼는 곳에
이길이 너와 나로다

376) 「신흥무관학교 - 원병상 수기」, 『독립운동사료집』 제10집, 21쪽.

377) 김삼웅,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와 항일무장독립운동』(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1. 5. 13), 22~23쪽.

(후렴)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또한 무관학교에서는 근대적인 인간 교육을 위한 일반 학과의 수업도 병행하였다. 보통경제학, 윤리학교과서, 사범교육학, 신편화학, 중등생리학 등 일반 교육과 경제·과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들이 겪었던 교육적 여건은 매우 열악했다. 당시 교육 훈련의 상황을 신흥무관학교 교관 원병상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학과로는 주로 보·기·포·치(緋)의 각 조전(操典)과 내무령·측도학·훈련교범·위수복무령·육군징벌령·육군형법·구급의료·총검술·유술·격검·전략·전술·축성학·편제학 등에 중점을 두고 가르쳤다.

술과로는 넓은 연병장에 김창환 교관의 명랑 쾌활한 구령 아래 주로 각개 교련과 기초 훈련을 해왔다.

야외에서는 이 고지 저 고지에서 가상적에게 공격전·방어전·도강·상륙작전 등 실전 연습을 방불하게 되풀이하면서 이 산 저 산 기슭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던 나팔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들려오는 것 같다.

체육으로는 엄동설한 야간에 파저강(婆娑江) 70리 강행군을 비롯하여 빙상운동·춘추대운동·축구·목판·철봉 등 강인 불굴의 신체 단련을 부단히 연마했다.”³⁷⁸⁾

그리고 무관학교의 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했다.

“새벽 6시 기상 나팔 소리 ‘또-또-따’ 잠든 생도들의 귓전을 울리면 각 내무반의 생도들은 일제히 일어나 신변 환경을 정리하고 3분 이내에 복장을 단정히 하고, 각반 차고 검사장에 뛰어 나가 인원 검사를 받은 다음 보건체조를 한

378) 「신흥무관학교 - 원병상 수기」, 『독립운동사료집』 제10집, 23~24쪽.

다. 눈바람이 살을 도리는 듯한 혹한에 아침마다 윤기섭 교감이 초모자를 쓰고 흙옷을 입고 나와서 체조를 시키면서도 그 활기찬 목소리에 그 늙은 기상과 뜨거운 정성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 체조가 끝나고 청소와 세면을 마치고 각 내부반별로 식탁에 앉는다.

주식물이라고는 부유층 토인들이 이삼십 년씩 창고 안에 저장해 두어 열도에 뜨고 좀먹은 좁쌀이었는데 솥뚜껑을 열면 코를 찌르는 쉰 냄새가 날뿐 아니라 날아가 버릴 정도로 끈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영양 가치도 전무한 토인들 가축용의 썩은 곡식을 삶은 명색의 밥이었다. 토인들은 매일 격증하는 이주 동포를 상대로 내 버리게 된 양곡을 돈 받고 팔기에 형안이 되었다. 돈도 없고 식량도 없는 우리들인지라 이거나마 사먹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 당시의 처참한 실정이었다.

부식이라고는 콩기름에 절인 콩장 한 가지뿐이었다. 썩은 좁쌀밥 한 숟가락에 콩장 두어 개를 입에 집어 넣으면 그만이다. 그나마 우리는 양껏 배부르게 먹지 못했다. 굶지 않은 것만이 다행으로 알면서 교직원이나 생도들은 함께 모여 항상 화기에애한 가운데 식사 시간을 보냈다.”³⁷⁹⁾

학교의 기본 편제는 연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토착인들에게 배척받는 이역이었기 때문에 일체 표면화할 수 없었고 계급도 사용하지 않았다. 복장은 교직원은 사계절 백색 무명으로 상의에는 단추 다섯 개가 달렸고 하의는 통으로 된 옷을 입었다. 생도들은 현지에서 생산하여 염색한 ‘다치푸’라는 천을 구입하여 균일한 제복으로 상·하의를 만들었고 양식은 교직원과 동일했다. 모자는 학생모였고 신발은 대개 만주인이 일상 생활에서 항상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³⁸⁰⁾

무관학교의 교관과 생도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군사훈련을 통하여 만주는 물론 국내에까지 그 이름이

379) 「신흥무관학교 - 원병상 수기」, 『독립운동사료집』 제10집, 19~20쪽.

380) 「신흥무관학교 - 원병상 수기」, 『독립운동사료집』 제10집, 22~23쪽.

알려졌다. 김산은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간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³⁸¹⁾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내가 군학교에 들어가려고 하자 사람들은 겨우 16세밖에 안된 꼬마였던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최저 연령이 18살이었던 것이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아서 엉엉 울었다. 내 기나긴 순례여행의 모든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자 학교 측은 나를 예외적인 존재로 취급하여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리·수학·국어에서는 합격했지만 국사와 엄격한 신체검사에서는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코스에 입학하도록 허락받았고 수업료도 면제받았다.

학교는 산속에 있었으며 18개의 교실로 나뉘어 있었다. 한 눈에 잘 띄지 않게 산허리를 따라 나란히 줄지어 있었다. 18살에서 30살까지의 학생들이 100여 명 가까이 입학하였다. 학생들 말로는 이제까지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내가 제일 어리다고 하였다.

학과는 새벽 4시에 시작하여, 취침은 저녁 9시에 하였다. 우리들은 군대전술을 공부했고 총기를 가지고 훈련을 받았다. 그렇지만 가장 엄격하게 요구했던 것은 산을 재빨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었다. 『게릴라전술』 다른 학생들은 강철 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었고 등산에는 오래전부터 단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도움을 받아야만 간신히 그들을 따라갈 수 있었다.

우리는 등에 돌을 지고 걷는 훈련을 하였다. 그래서 아무 것도 지지 않았을 때에는 아주 경쾌하게 달릴 수 있었다. ‘그날’을 위해 조선의 지세, 특히 북한의 지리에 관해서는 주의깊게 연구하였다. 방과 후에 나는 국사를 열심히 파고 들었다. 얼마간의 훈련을 받고 나자 나도 힘든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며, 그러자 훈련이 즐거워졌다. 봄이면 산이 매우 아름다웠다.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으며 기대에 넘쳐 눈이 빛났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못할소나.”³⁸²⁾

그러나 무관학교는 교포들의 성금이 중단되면서 학교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학교 당국에서는 이른바 ‘둔

381) 김삼웅,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 21쪽.

382) 님 웨일즈, 조우화 역, 『아리랑』, 동녘, 1993, 87~88쪽.

전병제도’를 운영하였다.³⁸³⁾ 춘경기에 토착인들의 야산이나 황무지를 빌려 생도들을 동원하여 밭을 일구어야 했다. 생도들은 일과 후 편대를 지어 각조 별로 직접 경작에 나섰으며, 또 하기 방학이 되면 교직원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각 지방에 흩어져 각자의 기술에 따라 벌어들인 수익으로 학교 유지비의 일부로 충당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엄정한 군기를 유지했는데, 밤중에 비상 검사가 있을 때는 캄캄한 밤이라도 각반을 차고 복장의 단추 한 개까지 낱낱이 검사하는 군기 유지에서는 일체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했고, 총가에는 암흑 칠야에도 자기 이름이 붙은 개인 소총을 찾아 휴대하여야 하는 등 항상 임전태세를 갖추어야 했다. 그야말로 생도들은 엄정한 군기와 교육 훈련을 통하여 조국의 광복을 쟁취할 군사적인 전술전기와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되고 있었다.³⁸⁴⁾

사관연성소의 교육체계 북간도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독립단체인 북로군정서에서도 독립군 양성을 위한 사관연성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북로군정서는 대중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한 독립단체로서 총재부와 사령부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사령부는 1919년 2월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대한독립의군부(大韓獨立義軍部)의 후신인 길림군

383) 전통시대에 둔전제도(屯田制度)는 국가재정의 압박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었다. 현지에서 직접 물자를 조달함으로써 군의 보급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전문적인 전투력을 육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농사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하천의 부설이나 도로공사, 나아가 광산개발·운수 등 공사나 생산사업 분야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평시 군의 역량을 다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제기되곤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기인, 『중국군사제도사』, 국방군사연구소, 1998, 336~338쪽 참조.

384) 「신홍무관학교 - 원병상 수기」, 『독립운동사료집』 제10집, 23~24쪽.

정사와 서로군정서 산하의 신흥무관학교 출신자, 그리고 대한제국 군인들 출신 등 주로 군사전략에 뛰어난 인물들로 조직되었다.³⁸⁵⁾

학력상으로 북로군정서는 무관학교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으로는 김좌진, 이장녕, 홍충희, 나중소 등을 들 수 있다. 사관연성소의 소장인 김좌진은 대한제국의



이범석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노백린과 윤치성(尹致晟) 등과 교분을 갖고 새로운 군사지식을 습득하였다. 나중소의 경우 1882년 무과에 급제한 후 육군무관학교를 거쳐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수학한 인물이기도 했다. 북로군정서의 총사령, 참모장, 참모부장 등 고위직 간부들은 모두 대한제국군 출신들이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는 박영희, 백종열, 오상세, 김춘식 등이었고, 그밖에 운남성육군강무학교의 기병과를 졸업한 이범석이 있었다. 지도부가 대한제국의 육군무관학교 출신이었다면 행동대들은 신흥무관학교와 운남성 육군강무학교를 졸업한 인물로 구성된 것이 당시의 북로군정서였다.

북로군정서는 독립군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독립군을 지휘할 간부의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하여 1920년 2월 초 왕청현 서대파 십리평(十里坪)에 사관연성소가 설치되었다. 학교 관계자로는

385) 박환,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단체」,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105~106쪽.

사령관인 김좌진이 연성소의 교장을 겸임했고,³⁸⁶⁾ 북로군정서 요원의 상당수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였다. 사관연성소의 교육 관계자는 대한제국의 육군무관학교, 중국의 운남강무학교,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러시아의 사관학교,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당시 주변국의 근대 군사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인물들의 총집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관연성소에서 사관교육을 담당한 주요 인물을 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³⁸⁷⁾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의 주요 간부 일람표〉

성 명	직 위	학 력	비 고
김좌진 나중소	소장 교수부장	육군무관학교 육군무관학교 일본육군사관학교	
이장녕	교관	육군무관학교	구한국 육군부위
이범석	교관	운남성 육군강무학교	구한국 육군부위
김규식	교관		
최상운	교관		
이천을	교관		중국어 담당
윤창현	교관		도윤공서(道尹公署) 통역담당
전성호	교관		홍업단에서 파견
강승경	교관		홍업단에서 파견
강필립	교관		
김관	교관	러시아 사관학교	
마츠커델	교관	러시아 사관학교	러시아 과격파
김흥국	교관		
박영희	학도단장(사령관부관겸임)		
최준형	제1학도 대장		
오상세	제2학도대장 서리	신흥무관학교	
강화린	제1학도대 제3구대장	신흥무관학교	
백종열	제2학도대 제3구대장	신흥무관학교	
이교성	제1학도대 제3구대장		
허활	제2학도대 제3구대장		
김춘식 (김훈)	구대장	신흥무관학교	
한근원	구대장		

386)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Ⅲ, 東京, 原書房, 1967, 278쪽.

387) 박환,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단체」,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114~115쪽.

사관연성소의 교육과정은 생도들에게 6개월 동안 사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사관교육의 대상자들은 15세 이상 40세까지의 청·장년들로 첫 모집에 400명이 입학하였다. 그중에서 298명이 1920년 9월 9일 제1회 졸업생으로 배출되었다. 졸업생 중 80명은 소위로 임관했으며 나머지 200여 명은 교성대(敎成隊)를 조직하여 북로군정서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되었다.

교육 내용은 근대적인 학문 교육 속에서 민족정신의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이 강조되었고, 특히 일본의 조선침략사나 세계 각국의 독립역사가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사관연성소에서는 엄정한 군기를 유지한 가운데 군사교육도 실시했는데, 육군징벌령에 근거하여 엄격한 내무생활을 실시하였다. 군사교육의 교재는 신흥무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 러시아 사관학교,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의 교재 등을 참조한 것이었다. 과목으로는 보병조전, 육군내무서, 야외요무령, 축성교범, 육군형법, 육군징벌령, 군총취급방법, 체육, 규령법(叫令法), 부대의 지휘운영법, 중국어, 총창술 등이었다. 이들 교재는 총재부 인쇄국에서 인쇄되어 대량으로 보급되었다.³⁸⁸⁾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의 교육체계 의열단원으로서 1926년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운영하는 황포군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김원봉은 남경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朝鮮革命軍事政治幹部學校)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1930년대 의열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독립운동의 투쟁을 전쟁 차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이를 위한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한 군사행동에는 우방인 중국의 선의의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황포군관학교

388) 박환,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단체」, 『만주한민족운동사연구』, 115~116쪽.

의 동기생인 승걸(勝傑)이라는 중국인을 통하여 교장인 장개석에게 1932년 만주사변이 발발한 이듬해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³⁸⁹⁾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문무합일의 혁명간부훈련반을 창설하여 중국과 한국 본토 양 방면에서 ‘강도 일본’을 타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겠다는 한국의 청년지사들을 우선 단기 훈련하여 복국운동(復國運動)에 필요한 각종 군사지식과 기술을 익히게 하여야 하겠으니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과 물자 및 훈련 장소를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이 지원은 장개석 영도 하의 중국만이 가능하며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악산 김원봉

김원봉의 제의는 일제의 침략인 만주사변을 맞아 다급해진 장개석에 의해 즉각 받아들여졌다. 의열단이 1932년 10월부터 1935년 9월에 이르는 3년여 동안 운영한 조선혁명군 사정치간부학교는 정식 명칭이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 간부훈련반 제6대’였다. 남경 근교 탕산(湯山)의 초라한 고찰(古刹)에서 40여 명의 제1기생 입학식을 거행한 것이 독립군양성소의 첫 출발이었다.

훈련 기간은 6개월의 단기 과정이었고, 나머지 6개월은 학생을 모집하여 매년 1기에 50~60명의 학생을 양성하여 졸업생 전원을 중국·만주·한국 등지의 전선 및 적 후방에 공작원으로 파견하였다.³⁹⁰⁾ 일과는 오전 6시에 기상을 시작으로 오전의 학과 교육과 오

389) 박성수, 「의열단과 민족혁명당」, 『한국독립운동사론』, 698쪽.

390) 박성수, 「의열단과 민족혁명당」, 『한국독립운동사론』, 698쪽.

후의 야외훈련으로 편성되었다. 간부학교의 교육내용은 크게 정신 교육, 정치 교육, 군사 교육이었다. 정신 교육은 단체 생활수칙, 혁명 정신 및 인생관의 배양에 치중했고, 정치 교육은 한국 역사, 주의·사상, 정치 제도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군사 교육의 역점은 군사 법령, 군사 지식, 정보·폭파·전술 등 군사 기능의 숙련에 있었다. 제1기부터 제3기 간부학교에서 행해진 교육 내용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³⁹¹⁾

〈교육과정과 내용〉

기수	구분	교육 내용 및 담당 교관
1기	정치 과목	정치학: 한모(韓某, 韓一來) 경제학: 왕현지(王現之) 사회학·조직 방법: 김정우(金政友) 철학: 김원봉
	군사 과목	보병조전: 신악(申岳) 진중요무령·촉도·폭탄제조법: 이동화(李東華) 사격교범: 김종(金鐘) 축성학: 권준(權駿)
	실습 과목	부대 교련: 신악·이모(이동화)·노을용(盧乙龍) 기관총조법·폭탄사용법·실탄사격: 이동화
2기	정치 과목	경제학: 왕현지 철학·중국 혁명사·조선 운동사·각국 혁명사·당 조직 문제·의열단사: 석정(石正, 윤세주) 정신학: 조모(曹某, 曹斌) 삼민주의: 유모(劉某, 중국인) 조선 정세: 김원봉
	군사 과목	간이촉도·축성학: 이상지(李相之, 李復源) 전술학: 김준(金俊, 金鐘) 진중요무령·폭탄제조 및 사용법: 양진근(楊振莚) 기관총학: 김세일(金世日) 보병조전: 신악
	실습 과목	사격: 이상지 야간 연습: 김세일

391)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271~274쪽.

기수	구분	교육 내용 및 담당 교관
3기	정치 과목	조선혁명에 관한 훈화: 김원봉 정치학·당 조직과 선전: 양민산(楊民山, 楊振崑) 세계경제지리·칸트철학: 석정 경제학: 왕현지 정보학·중국 혁명사: 반해량(潘海亮, 李春岩) 각국 혁명사: 김영주(金營珠, 金尙德)
	군사 과목	보병조전·기관총 해부학·야외 연습 상정: 김세일 전술학·도상 전술: 김준(金鍾) 군대 내무와 육군 예식·지형학·축성학·기관총학·군사간이 측도: 이상지 진중요무령: 오균(吳均) 군제학: 신악 야간 교육: 하진동(河振東)
	실습 과목	집총 각개훈련
	기 타	한글·한국 역사·한국 지리: 김두봉(金斗奉) 만주 지리: 김영주

간부학교의 교육 내용은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의 그것과 유사했고, 일제에 대한 파괴·기습·유격전 등 특무활동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교육의 내용은 간부학교의 설립 목적과 1930년대 의열단의 항일 투쟁전략에 맞추어져 있었다. 간부 학교의 교육은 일제와의 총결전시 투쟁 주체가 될 대중 조직 구축을 위한 선행 단계로 대중 역량의 조직화·체계화를 선도할 중견 간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간부학교의 입교생들은 졸업 후 특무활동을 통한 의열단의 항일투쟁 역량의 과시와 함께, 민족혁명당 및 조선의용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1930·40년대 한인독립운동과정에서 김원봉과 의열단의 활동 공간을 넓혀갔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의 운영과정에서는 김원봉이 의열단의 투쟁노선에 좌파 전략전술론을 대폭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³⁹²⁾

392)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275~2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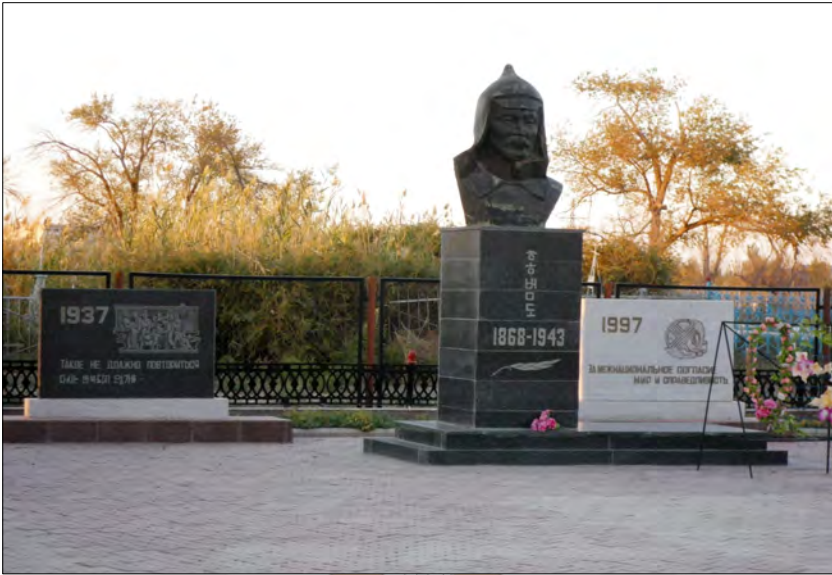
전략전술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가 일제에 의해서 해산된 후 군인과 각계각층이 합세하여 전국적인 항일의병전쟁을 전개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함경도 지방에서 일어난 홍범도의 의병부대는 주로 백두산이나 개마고원 일대에서 산 짐승을 사냥하던 포수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다. 일본군은 홍범도 의병부대가 정규군보다 더 막강한 기동성과 전투능력을 갖춘 의병부대임을 인정하고 있었다.³⁹³⁾

그 무렵 함경도 북청군 안산사(安山社)와 안평사(安坪社) 두 곳의 직업적 산포수들은 ‘안산사포계(砲契)’라는 동업조합을 만들어 조직화된 포수생활을 하였다. 홍범도는 1893년부터 가입하여 1907년 당시에는 통칭 포연(捕掇)대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일제가 북청의 파발교 부근에 병참주재소를 설치하고 각 면의 산포수들의 총기를 회수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때 홍범도는 이를 거부하고 의병을 일으키자고 제의하여 이른바 ‘홍범도 의병부대’의 항일의병투쟁이 시작되



홍범도

393) 홍범도가 봉오동 전투의 주동적인 인물로 제기된 것은 일본측 정보보고서를 연구에 활용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이 문제는 청산리 전투의 주도자가 김좌진으로 정착된 것과 동일한 역사의 기억에 대한 표준화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주백, 「한국현대사에서 청산리 전투에 관한 기억의 流動」,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7집, 2011, 93~121쪽 참조.



카자흐스탄 꼬즐오르다시 시립 중앙공원묘지의 홍범도 동상(서인한 박사 제공)

었다.³⁹⁴⁾

홍범도의 인솔 아래 약 70명의 포수들은 머리에 혁관을 쓰고 1907년 11월 15일 북청군 안평사 엄방동에 모여 의병에 봉기하였다. 그들은 대원 69명을 7개 대대로 편성하고 지휘자를 도독(都督), 그 밑에 부도독(副都督) 2명을 두었다. 도독의 자리는 공석으로 비워두었고, 부도독은 홍범도와 차도선이 임명되었다. 봉기 당시는 1대가 10명씩 십장제를 유지했지만 봉기 1년만에 1대가 150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병력이 1,050명에 육박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성장한 홍범도의 의병부대는 구 한국군의 편제를 참작하여 분대(25명)를 최소 단위로 하고, 2개 분대를 1개 소대(50명), 2~3개

394) 신용하, 「홍범도 의병부대와 독립군과의 관계」, 『의병과 독립군의 무장독립운동』, 지식산업사, 2003, 180~181쪽.

소대를 1개 중대(100~150명)로 편성하여 각각 중대장-소대장-분대장의 지휘체계를 갖추었다. 군율을 제정하여 이를 관장하는 도감사(都監司)와 헌병에 해당하는 군중기찰(軍中機察)을 두었으며, 일본군 수비대의 동태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는 정보원으로서 약 38명의 유사(遊士)를 두었다. 군량보급의 책임자로 군량도감(軍糧都監)을 두고 활동지역의 곳곳에 있는 민가에는 비밀리에 병참부(兵站部)를 두었다.

홍범도 의병부대의 무기는 대부분 화승총이었다. 1개 중대 150명의 구성상으로 보면 화승총 136정(90.6%), 단발총 9정(6%), 30년식 총 3정(2%), 10연발총 1정(1.4%)이었다. 화승총의 탄약은 화약으로 제조하여 처음의 상당 기간은 자체 조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전투력으로 의병 봉기 이후 일본군과 벌인 전투는 후치령 전투 외에 약 37회에 걸친 전투에서 일본군의 수비대를 섬멸하거나 때로는 고전도 했지만 대체로 일본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³⁹⁵⁾

그러나 홍범도 의병부대는 영동 전투(靈洞戰鬪)를 끝으로 탄환이 고갈되어 1908년 9월 소부대로 분산하여 계양동(啓陽洞) 우릉골에 근거지를 설치하고 탄환보급책을 추진하던 중 여의치 않자, 결국 국외로 망명할 것을 결심하거나 귀가할 것을 희망하는 의병을 제외한 의병들만 이끌고 1910년 3월 만주의 장백현 왕개둔(汪開屯)으로 갔다. 그는 망명지에서도 함경북도 경원지역의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하거나 1912년에는 의병장 채응언(蔡應彦) 등과 회동하여 비밀요원을 국내에 파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왕개둔 근거지 일대의 경제적 궁핍이 심각하여 1913년 다시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로

395) 신용하, 「홍범도 의병부대와 독립군과의 관계」, 『의병과 독립군의 무장독립운동』, 182~184쪽.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의병항쟁사』, 1984, 300~306쪽을 참조.

이동하였다.

홍범도는 3·1운동이 본국에서 일어난 직후에 3월 13일 간도의 용정(龍井)에서, 그리고 3월 17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나자 독립군을 창설하기 위하여 무기구입에 전력하였다. 그 결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도와 러시아령에 흩어져 있던 구 의병과 그곳의 철도공사 등에 종사하는 한인을 중심으로 조직한 노동회(勞動會)의 회원들을 골간으로 ‘대한독립군’이라는 독립군 부대를 창설할 수 있었다.³⁹⁶⁾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조직은 소대-중대-대대의 편제를 채택하여 1개 소대를 50명으로 하고, 2개 소대를 1개 중대, 4개 중대를 1개 대대로 편성하였다. 이런 편성법에 따라 처음에 대한독립군은 3개 중대를 유지하였다. 홍범도를 사령관으로 한 대한독립군은 1919년 8월의 봉기를 계기로 ‘독립전쟁’을 전개하면서 과감하게 국내진입작전을 시도하였다.³⁹⁷⁾ 그리고 9월에는 함남 갑산군의 주재소를 습격했고, 10월에는 강계와 자성으로 진출하여 일본군과 교전하여 일본군 70여 명을 살상하고 일본군을 패주시키는 승전을 거두었다.

이러한 대한독립군의 활동에 힘입어 1920년대 봄이 되자 대한독립군은 물론 3·1운동 후 조직된 여러 독립군 단체들이 국내진입작전에 온 힘을 쏟았다. 대한독립군은 대규모 국내진입작전을 위해 간도의 국민회군과 군무도독부와 연합하여 1920년 5월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路督軍府)를 편성하고, 이들은 그 근거지인 왕청현 봉오동에 집결시켰다. 이 무렵 일본군 19사단이 추격대대를 편성하여 독립군을 토

396) 신용하, 「홍범도 의병부대와 독립군과의 관계」, 『의병과 독립군의 무장독립운동』, 193~196쪽.

397) 「洪範圖 口述 自傳」,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홍범도 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13쪽.

벌하겠다고 두만강을 건너 봉오동까지 왔다가 대한북로독군부의 매복에 걸려 섬멸당했는데,³⁹⁸⁾ 바로 그것이 ‘독립전쟁의 제1회전’이라고 부르는 봉오동 전투다.

홍범도는 당시의 상황을 「홍범도 구술 자전」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19년 10월 14일 불엄 20년 3월 초일에 루단보에 나가 사흘 유숙하고 있다가 행군하여 봉오골 최진동진과 연합하여 1920년 시월 초 3일 일병과 접전하여 일병 370죽고 저녁편에 소낙비가 막 쏘다 지은데 운무가 자욱하게 끼여 사람이 보이지 않자 자욱하게 끼운데 일본후원병 100여 명이 외성으로 그 높은 산뒤에로 영상에 올라서자 봉오골서 썩하 든 남은 군사 퇴진하여 오든 길로 못하고 그 산으로 오르다가 신민단 군사 80명이 동쪽산에 올랐다가 일병이 저이 있는 골으로 당진하니까 내려다 총질하니 일병은 갈독이 없어서 맞우 총질한즉 올라가는 철에 후병이 몇이 죽으니까 썩썩포로 내려다 불니니 신민단 군사 한 개도 없이 죽고 일병이 수백명이 죽고 서로 코코소리듯고 총소리 끊어지었다. 그때 왓던 일병이 오육백명 죽었다.”³⁹⁹⁾

홍범도가 취한 전술은 우선 사전 정보파악을 통하여 일본군 1개 대대가 독립군 소부대를 추격하여 봉오동에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사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매복작전을 실시하는 것이었다.⁴⁰⁰⁾ 1920년 6월 7일 오전 6시 일본군의 야스가와(安川) 추격대대가 봉오동 골짜기 입구에 도착하였다. 이에 홍범도 부대는 일본군의 추격대가 완전히 독립군의 포위망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도비닉을 유지하고 있었다.

398) 「북간도에 재한 아독립군의 전투정보」, 『독립신문』 제88호(1920. 12. 25)

399) 「洪範圖 口述 自傳」,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홍범도 편』, 13~14쪽.

400) 「최계립의 편지」,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홍범도 편』, 77쪽.

이때 홍범도는 대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⁴⁰¹⁾

“장비를 전부 가지고 산에 들어가 잠복하라. 일본군은 마을과 사방을 수색한 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후 틀림없이 학교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 재빨리 사방을 포위하라. 그리고 내가 발포하거든 학교를 향하여 총사격을 하거라. 그러나 절대로 헛 쏘지는 말라. 탄환은 곧 목숨이다. 탄환이 없는 총은 몽둥이에 지나지 않는다. 꼭 적을 쓰러뜨릴 자신이 있을 때에만 사격하여야 한다.”

홍범도는 전투명령에서 철저한 사격통제를 강조하였다. 그가 수립한 작전은 매복의 전술적인 기본 원칙이기도 하지만 기도비닉 속에서 포위망을 유지하다가 일제사격을 통하여 화력을 집중시켜 적에게 기습타격을 가하겠다는 전술적 판단에 따른 군사행동이었다. 그가 “탄환은 곧 목숨이다”라고 언명하면서 엄격한 사격통제 속에서 실효적인 사격행위를 주문한 것 역시 전투의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전투요령이었다.

특히 봉오동 전투에서 야스가와 부대를 매복지역의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작전이 주효했다. 홍범도는 작전에 투입된 4개의 중대 가운데 제2중대 제3소대 제1분대장 이화일(李化日)에게 1,200미터의 고려령(高麗嶺) 고지와 그 북쪽 마을에 대기하고 있다가 일본군이 나타날 때 교전하는 체 포위망으로 유인하도록 했다. 결국 포위망에 빠진 일본군은 3시간에 걸친 필사의 응전을 했지만 사상자가 격증하여 후퇴했는데, 이때 강상모(姜尙模)가 지휘하는 독립군 제2중대가 일본군을 추격하여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⁴⁰²⁾

401) 신재홍, 「독립군」, 『현대사 속의 국군』, 전쟁기념사업회, 1990, 124쪽.

402) 신재홍, 「독립군」, 『현대사 속의 국군』, 124쪽 ; 「북간도에 재한 아독립군의 전투 정보」, 『독립신문』 제88호(1920. 12. 25)

이렇듯 홍범도가 지휘하는 독립군은 근대적인 개인화기를 중심으로 한 기본 무기를 갖추면서 일정한 전술적 능력을 발휘하였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적 정보의 활용과 매복 및 유인작전 등을 결합시켜 독립군의 근대적인 무기체계와 전술운용능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것은 현지 지형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이를 통한 전술적 방어능력의 보장, 그리고 지역민들 간의 협력 등이 어우러진 작전적인 우위에 의한 승리였다.

봉오동은 지금의 도문시에서 서북쪽으로 15리 떨어져 있으며 동북방으로 뻗은 25리에 달하는 긴 골짜기다. 봉오동 계곡으로는 실개천이 흐르고 있으며, 골짜기 어구로부터 8리 떨어진 곳에 초모자 형의 높은 산이 있어 중국인은 이곳을 초모정자(草帽頂子)라 불렀다. 1920년 당시에는 하·중·상촌 3개의 한인마을이 자리잡고 있었다. 봉오동은 동·서·북 삼면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와 같았는데, 하촌에는 최진동 일가가 살고 있었다.⁴⁰³⁾ 최진동의 일가가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험준한 사방의 고지를 활용한 매복작전과 일본군을 충분히 유인하여 포위하고 기습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다시 추격으로 섬멸한 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의 전술적 승리의 관건이었던 것이다.⁴⁰⁴⁾

홍범도의 군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사사상적인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구술자료가 있으나 충분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의미에서 ‘봉오동 전투’는 전술적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1920년 최진동과 협력하여 종성 삼둔자(三屯子) 부근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격전을 벌여 전과를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403) 박민영,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218쪽.

404) 최진동에 대해서는 金春善 外, 『崔振東將軍』,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06을 참조.

일본군의 추격대가 움직였고,⁴⁰⁵⁾ 그 결과 두만강 대안의 봉오동에서 일본군 대부대를 전멸시킨 접전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합동 및 연속작전의 성과였다. 이러한 전투의 성과는 독립군이 분명 게릴라식의 일회성적인 전투를 넘어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투체계에 의한 정규적인 전투형식에 맞설 수 있는 전투능력을 체득해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만하다.

당시 중국의 신문에서는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⁴⁰⁶⁾

“6월 6일 일본군 수명이 강을 건넜다가 독립군에 체포되어 그중 5명이 죽었다. 대안의 (일본군) 대대는 이 전투의 소식을 듣고 모두 강을 건너 사격을 개시했으나 뜻밖에 독립군이 산길을 모두 잘 알고 서로에 잠복하여 기습공격을 했으므로 일본군은 대패했으며, 당시 전사자가 150명, 부상자가 수십 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강을 건너 도주하였다. 이번의 전쟁에서 (독립군은) 소총 160정, 기관총 3정, 수쟁(手鎗) 수 개를 노획하였다. 일본군은 이번의 실패 후에 장차 우리의 화룡현(和龍縣)이 관할하는 흠강(淸江)의 도구(渡口)의 통행을 모두 봉금하고 교통을 끊을 것이라고 한다.”

김좌진 장군이 이끈 ‘청산리 전투’ 역시 독립전쟁사에서 전술적 의미가 큰 항일전의 승리였다. 이는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 새벽까지 약 6일간에 걸쳐 전개된 전투였다. 일본군 동지대(東支隊)가 이도구와 삼도구 일대와 독립군 부대들을 포위 섬멸하려고 시도하다가 김좌진이 지휘하는 북로군정서 등 독립군 부대들이 반격을 가하여 일본군을 격파한 것이다. 청산리 일대의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천

405) 박성수, 「해제」,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흥범도 편』, vii쪽.

406) 『上海新聞報』(1920. 6. 27)[신용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독립전쟁」, 『의병과 독립군이 무장독립운동』, 206쪽에서 재인용]

수평, 완루구, 어랑촌, 고동하곡 등지에서 10여 차례의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청산리 독립전쟁’이라고 명명하거나⁴⁰⁷⁾ 혹은 ‘청산리 대첩’이나 ‘청산리 전역’이라 불렀다.⁴⁰⁸⁾

청산리 전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범도 부대와 최진동 부대가 합동으로 작전을 전개한 봉오동 전투



백야 김좌진



청산리 대첩 기념비

407) 신용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독립전쟁」, 『한민족독립운동사』 4(독립전쟁), 국사편찬위원회, 1988, 113쪽.

408) ‘대첩’이란 표현은 방상현이 처음 사용한 듯하며(『만주독립군의 경신대첩』, 『백산학보』 30·31합집, 1985), 이 역시 ‘청산리 전투’의 전투의 강도나 규모 나아가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윤병석(『독립군사』, 지식산업사, 1990)과 박민영(『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한국사』 48, 국사편찬위원회, 2001, 199쪽)은 ‘청산리 대첩’이란 표현을 그대로 채용했다. 특히 윤병석은 대첩이란 용어와 ‘회전(會戰)’이란 용어를 병기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했다. 최근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의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반병률은 ‘청산리 대첩’ (49권), 황민호·홍선표는 ‘청산리 독립전쟁’ (22권)으로 정리했다. 박환은 『만주벌 호랑이 김좌진장군』 (사단법인 백야 김좌진장군 기념사업회, 2011)에서 ‘청산리 독립전쟁’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보다 더욱 발전적이고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 부대 간의 협력과 합동작전의 성공적인 결과였다. 다시 말하면, 삼도구 청산리의 김좌진이 지휘하는 북로군정서와 이도구의 홍범도 연합부대와 일본군을 전제로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⁴⁰⁹⁾ 이를 실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군사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당시 이도구의 홍범도 연합부대는 대한독립군(약 300명), 국민회군(약 250명), 대한신민단(약 200명), 의군부(약 157명), 의민단(약 100명), 그리고 한민회군(약 200명) 등 5개의 독립군 부대를 규합한 독립군연합부대를 편성한 직후였다. 따라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독립군연합부대가 결정한 일본군에 대한 연합적 대응은 독립군 부대를 토벌하고자 한 일본군에 맞선 독립군 부대의 총력적 대응의 형태를 띠었다.

북로군정서의 연성대장 이범석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⁴¹⁰⁾

“청산리 싸움 직전, 바로 음력 초이렛날 적의 대병력이 속속 포위권을 형성하고 물려들어오기 시작하니 4개의 독립단체가 대표를 북로군정서로 파견하여 연합작전을 의논케 되었다. … 독립군을 양성한 목적이 일본군과 싸워 이기자는데 있고 지금이 바로 천재일시(天載一時)의 좋은 기회라는 대의명분에 공명한 것이다.”

김좌진 부대와 홍범도 부대의 합동작전회의⁴¹¹⁾에서는, 일본군과

409) 서인한 외, 『독립군항쟁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81쪽 ; 이범석, 『우등불』, 사상사, 1971, 88쪽 ;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49), 2009, 233~235쪽.

410) 이범석, 『우등불』, 88쪽.

411) 이 회의는 묘령(廟嶺)에서 열린 회의인데, 이범석은 그의 전기에서 연합작전회의라고 했으나 김춘선은 합동작전회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김춘선, 「발로 쓴 청산리 전쟁의 역사적 진실」, 『역사비평』 가을호, 2000, 272쪽).

교전에서 승패는 미지수지만 독립군의 전쟁은 중국 측의 감정을 해하고 일본군의 증파를 결과할 것이므로 분전의 호기가 아니니 은인자중하여 피전하자는 ‘피전책(避戰策)’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도구와 삼도구 일대를 포위한 일본군 동지대가 김좌진 부대와 홍범도 연합부대를 섬멸하겠다고 포위망을 좁히면서 추격해오자 독립군 부대들은 피전책을 버리고 적극적 반격으로 돌아섰다.⁴¹²⁾

이렇게 하여 청산리 전투의 최초 전투인 백운평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는 1920년 10월 21일 오전 9시경 삼도구 청산리 백운평 부근에서 일본군 야마다 보병연대를 매복과 기습으로 격퇴했다. 그 무렵 홍범도가 지휘하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완루구 전투에서 일본군을 공격하여 큰 성과를 냈다. 그리고 북로군정서는 천수평 전투에서 다시 일본군 기병연대 전초대를 습격하여 섬멸하였다. 또한 뒤이은 어랑촌 전투에서 북로군정서가 주력으로, 홍범도 연합부대가 지원군으로 혈전을 벌인 끝에 독립군과 일본군이 다 같이 많은 사상자를 냈다.

독립군 부대들은 맹개골 전투와 천보산 전투 등의 소규모 전투에서 기습으로 일본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오지의 밀림으로 들어간 일본군 수색토벌대 중에서 기무라(木村) 지대 등은 큰 전투없이 작전을 완료했으나 동(東, 이즈마) 지대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연합부대와 연이은 유격 기습전에 걸려 참패했던 것이다.⁴¹³⁾ 일본군의 전사자는 당시 상해의 『독립신문』에서는 1,200명으로 추산했고,⁴¹⁴⁾ 박은식은 2,000여 명으로⁴¹⁵⁾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 참가한

412) 신용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독립전쟁」, 『의병과 독립군의 무장독립운동』, 214쪽.

413) 신용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독립전쟁」, 『의병과 독립군의 무장독립운동』, 232쪽.

414) 「我軍의 活動」(『獨立新聞』, 1920. 12. 13)

415)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1920, 132쪽.

이범석은 약 3,300명으로 회상했으며,⁴¹⁶⁾ 아군의 피해는 임시정부의 파견원인 안정근이 보고한 대로 300여 명에 달했다.⁴¹⁷⁾

청산리 전투에서 주목할 만한 전투는 어랑촌 전투다. 이 전투는 김좌진의 전술적 식견과 홍범도 부대와 연계한 합동작전의 실행, 나아가 김좌진의 군사적인 안목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병력의 숫자만으로 보면 600명에 달하는 백운평 전투에서 승리를 달성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완루구에서 승첩을 달성한 1천여 명이 넘는 홍범도 부대의 참전이었지만 작전적인 주도권이 김좌진 측에 있었다.

작전적으로 보면,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이 어랑촌 후방 고지를 선점하여 일본의 진출로를 차단하고, 홍범도의 연합부대가 같은 고지의 최고봉에 포진하여 김좌진 부대를 지원하는 형태였다.⁴¹⁸⁾ 양 부대는 항전의식이 투철한 데다 지형상 유리한 높은 지점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돌격을 내려다보면서 사격할 수 있었다. 한 차례 20여 분 동안의 공격에서만도 3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가 가능했던 것도 그러한 사전에 준비된 지점에서 실시한 선제공격의 위력이었다. 어랑촌 전투의 승리는 북로군정서가 기선을 제압하여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선제공격을 가하는 적극적인 작전을 전개한 것이 주요한 결과였다.

실제로 북로군정서는 천수평 전투에서 일본군 수색기병대를 섬멸한 후 숨돌릴 사이도 없이 다음 전투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천수평에서 도망간 4명의 일본군 기병이 어랑촌에 있는 일본군 기병 연대사령부에 사태를 보고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

416) 이범석, 『우등불』, 83쪽.

417) 황민호·홍선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2), 2008, 134쪽.

418) 윤병석, 「청산리 대첩」, 『독립군사』, 지식산업사, 1990, 191쪽.

대부대의 공격이 있을 것이 틀림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기회를 봐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어랑촌의 서남단고지’를 선점하는 작전을 개시했던 것이다.⁴¹⁹⁾

일본군도 얼마 후에 이 고지를 선점하려고 달려왔지만 이미 북로군정서 독립군이 선점한 상태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공격을 단념하지 않고 기병대로 하여금 천수평의 서방고지를 따라 독립군 진영의 측면 공격을 시도했고, 포병과 보병을 정면에 내세워 격렬한 공격을 재개했다. 오전 9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된 양 진영의 공방전 속에서 결국 지형적인 우세를 점한 독립군이 우세를 점하였다.

그러나 전투의 상황은 치열했고 정규군과 맞붙은 독립군의 항전은 결사적이었다. 수없이 나는 포탄의 바람결에 김좌진 장군은 군모가 벗겨졌지만 맨 머리로서 전투를 지휘할 정도였다.⁴²⁰⁾ 북로군정서의 기관총 중대장인 최인걸(崔仁杰)은 기관총 사격수 태반이 부상을 입거나 전사하자 스스로 기관총을 새끼로 자기 몸에 묶고 올라오는 일본군을 집중 사격하여 패주시킨 후에 기관총 탄환이 떨어지자 기관총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기도 했다.⁴²¹⁾ 교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상황이 이러자 병사들은 굶주림조차 의식할 수 없었는데, 부근 촌락의 주민들이 치마 폭에 밥을 싸가지고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산에 올라와 독립군 병사들의 입에 넣어주었다.⁴²²⁾ 고지에 어둠이 내리면서 일본군의 공격이 약화되었고 김좌진의 북로군정서를 중심으

419) 신용하, 「독립군의 청산리 독립전쟁의 연구」, 『한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480쪽.

420) 이범석, 『우등불』, 67쪽.

421) 이범석, 『우등불』, 71쪽.

422) 이범석, 『우등불』, 69쪽.

로 한 독립군은 다시 부대를 나누어 안도현 방면으로 이동함으로써 어랑촌 전투는 종결되었다. 어랑촌 전투는 청산리 전역 가운데 가장 치열하고 규모가 컸던 전투로 독립군이 대승을 거둔 격전이었다.

청산리 전투는 외적으로 보면 ‘유격전의 묶음’이었다. 즉 공격하고 달아나는 것을 기본 전술로 하고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기습하고 철수하는 것을 전술적으로 기민하게 활용한 유격전이었다.⁴²³⁾ 그러나 청산리 전투는 군사학적으로 ‘청산리 전역’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전투의 성격 자체가 일반적인 전투와는 달랐다. 청산리 전투를 단순한 유격전이나 유격전의 묶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투의 전역적 성격을 축소해석함으로써 청산리 전투를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⁴²⁴⁾

또한 전투의 수행방식에서도 그 이전과 차이를 드러냈다. 1920년 당시의 독립군이 그 이전의 의병이나 독립군과 달리 더 이상 게릴라가 아니었고, 전술에서도 적의 후위부대나 보급부대를 골라 공격하는 비정규전만을 수행한 것도 아니었다.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 부대는 적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화력과 병력에서 월등히 우세한 일본군을 상대로 정규전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의 무장단체임을 자임하면서 병영을 운영하며 엄격한 편제를 갖추며⁴²⁵⁾ 정규부대에 준하는 전투부대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청산리 전투는 그 같은 외형적 성장에 따른 전투부대를 육성하고 운영하는 핵심에 바로 김좌진과 같은 근대 무기체계와 전술 능력을

423) 신용하, 「일본의 봉오동 전투·청산리 독립전쟁 부정론 비판」, 『의병과 독립군의 무장독립운동』, 234~235쪽.

424) 조필균, 「청산리 전역의 군사사학적 재조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8집, 2011, 271쪽.

425) 조필균, 「청산리 전역의 군사사학적 재조명」, 271쪽.

습득하여 이를 실제 전투에서 발휘하는 군사적인 전문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북로군정서의 서일 총재는 당시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⁴²⁶⁾

“이번 전투에 백반(百般)의 승산을 유한 적은 하(何)로 인하여 반反히 대패를 초(招)하였으며, 백반의 준비가 부족한 아군은 능히 전승을 득하였는지 차(此)를 약진(略陳)함.

적의 실패 이유

1. 병가의 가장 기피하는 경적하는 행위로 험곡장림을 별로 수색도 없이, 경계도 무히 맹진하다가 항상 일부 혹은 전부의 함몰을 당함이며,
2. 국지전술에 대한 경험과 연구가 부족하여 삼림과 산지 중에서 종종의 자상 충돌을 생함이며,
3. 일본 군인의 염전심과 피사도생(避死圖生)하는 겁나심(怯懦心)은 극도에 달하여 군기가 문란하며 사법이 부정확하여 1말의 효가 무한 난사를 행할 뿐이더라.

아군의 전승 이유

1. 생명을 불고하고 분용결투(奮勇決鬪)하는 독립에 대한 군인정신이 먼저 적의 지기(志氣)를 압도함이요,
2. 양호한 진지를 선점하고 완전한 준비로 사격 성능을 극도로 발휘함이요,
3. 임기응변의 전술과 예민 신속한 활동이 모두 적의 의표에 출함이라. 오호라, 3일간 전투에 양도(糧道)가 구절(俱絕)되어 다만 5~6괴(塊)의 감저(甘藷)로서 아장을 근충하고, 일일일야에 능히 150여 리의 험산 밀림을 통행하되 일호도 탈기(奪氣)함이 무하며, 전투 후에 또한 수천백 리 삼림장설중(森林長雪中)을 통과하여 동상한 자가 적지 아니하되 반점(半點)의 원회(怨悔)가 무함은 참으로 독립이 장래를 위하여 희망하는 바이다.”

426) 「大韓軍政署報告」, 『독립신문』 제95호(1921. 2. 25)

제 5 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과 군사사상적 지향

제1절 임시정부의 군사정책 및 전략

제2절 의열투쟁의 행동과 이념

제3절 광복군의 창설과 사상적 지향

제1절 임시정부의 군사정책 및 전략

가. 임시정부의 군사적 기반 형성

1919년 9월 11일 기존의 대한민국임시정부(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가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상해와 노령의 정부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통합정부를 구성하면서 독립국가의 수립을 위한 정부활동에 들어갔다. 3·1운동 직후, 국내외로 운동이 확산되면서 3월과 4월 노령의 대한민국의회정부, 상해의 임시정부, 그리고 한성임시정부 등 6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이들이 통합협상과정을 거쳐 1919년 9월 통합적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성립시킨 것이다.⁴²⁷⁾

당시 임시정부는 실질적인 군사조직이 없었다. 1920년 내무총장 안창호는 임시정부의 독립방략으로서 군사·외교·교육·재정·사법·통일을 제시하는 가운데 군사·외교가 절대적인 수단이라 역설했지만,⁴²⁸⁾ 실제적인 조직으로는 육·해군을 관장하는 군무총장만을 기구 편성에 두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임시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군사제도에 대한 법제화 과정이 시작되었음은 주목되는 사실이다. 군사문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통합정부를 결성하기 전부터 군사문제는 거론되었다. 1919년 4월 11일 통과된 임시헌장 6조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이라는 내용이 담겨졌다. 이는 대한민국의 기본 군사조직의 운영을 위한 병역을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한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의 지향을 표방한 것이었

427) 정용대, 『대한민국임시정부외교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30~58쪽.

428)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도산안창호전집』 6, 2000, 220~221쪽.

다.⁴²⁹⁾ 그만큼 국가기구로서 군사조직에 대한 정규적인 조직의 당위적인 필요성을 인식했던 것이다.

임시정부는 그해 9월 11일 개정 헌법을 공포한 다음, 1주일 후인 9월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정방침’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정방침’에서는 독립운동의 최후수단이 전쟁임을 명시하고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을 천명했는데, 여기에서는 군사 경력자 소집,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군사력으로 10만 명 넘는 의용병 조직, 비밀 군사조직 통할, 국내 지원의용병 모집과 비밀조직 건설, 사관학교 설립, 비행부대 편성, 무기 제조와 사용법 학습, 전시대비 기술자 양성, 외국에 군수물자 교섭, 그리고 군사선전원 파견 및 군법과 규율 제정 등 임시정부가 목표로 하는 군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⁴³⁰⁾

임시정부가 지향하는 군사정책의 방향이 제시된 가운데 그해 11월 5일 개정 공포된 「대한민국임시관제」(법률 제2호)에서는 임시정부의 군사기구 및 지휘체계에 관한 대강을 밝혔다. 임시정부의 군사기구로서는 임시대통령을 원수로 하는 군사에 관한 최고 통솔기구로서 ‘대본영’(大本營)을 설치하고, 그 안에 주요 간부(主幹)로서 국무총리 및 참모총장을 두어 지휘와 작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하게 한 것이다. 또한 임시대통령의 직할기관인 참모부에서는 국방과 용병에 관한 일체의 계획을 관장했으며, 참모부는 총장 1명과 차장 및 참모 약간 명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임시대통령의 자문기관인 군사참의회에서 중요 군무에 관한 자문을 받도록 명시하였다.⁴³¹⁾

429)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 상해시기』 I,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119쪽.

430)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 상해시기』 I, 119쪽.

431) 「법률 제2호 : 대한민국임시관제」(『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호외』, 1919. 9. 11)

이러한 임시정부의 군사기구는 국무원 소관의 군무부가 군사행정을 지원했고, 군무부의 수장인 군무총장이 육해군의 군정에 관한 군무를 관장하면서 육해 군인의 군적을 통할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다시 말하면, 군령기구로서 대본영과 참모부를 두고, 이를 지원하는 군정 기구인 군무부를 분리시켜 이원화하는 편성이었다. 오늘날 국방부의 성격에 해당하는 군무부에서는 당시 독립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제1의 급선무로 전투의 기초인 군인 양성과 군대 편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었다.

“충용한 대한의 남녀여 혈전의 시(時), 광복의 추(秋)가 래하였도다. 너도 나아가고 나도 나아갈지라. 정의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철(鐵)과 혈(血)으로써 조국을 살릴 때가 이때가 아닌가. 혼(魂)있고 피있는 대한의 남녀여 선조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무도한 외적에게 학살을 당하는 너의 부모 형제 자매를 위하여 희생을 공(供)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중략) 우리의 충용과 우리의 피와 우리의 신성과 우리의 권위로서 나아가 전(戰)하려면, 전(戰)하여 승(勝)하려면 무기(武器)를 말하니보다 자금(資金)을 논하니보다 제1의 급선무는 전투의 기초인 군인의 양성과 군대의 편성이라. 이것이 과연 우리의 정당한 요구요 필요한 사실이요 완전한 자각이라 하면 주저말고 고려말고 하루 바빠 너도 나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군인이 되며 나도 나가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어 2천만 남녀는 1인까지 조직적으로 통일적으로 광복군이 되기를 서심단행(誓心斷行)할지이다.”⁴³²⁾

그때 실질적인 군사조직을 갖고 있지 못한 임시정부로서는 군대의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출발 시부터 투쟁노선을 둘러싸고 군사론과 외교론으로 나뉘면서 군사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9년 말 임시정부의 육군무관학교가 개교하여 ‘초급 장교’를 중심으로 한 군사간부를 양성하는 군사학교로서의

432) 「군무부포고 제1호」(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12호), 대한민국 2년 2월 12일)



군무총장 노백린

기능을 수행하였다. 임시정부의 무관 학교는 일제의 프랑스 조계 당국에 대한 압력 및 임정의 재정난으로 1920년 말을 고비로 중단되고 말았지만 임시정부의 군사교육계획은 한국노병회 등을 통한 중국 군벌 정권 소속의 군사학교 위탁교육 및 황포군관학교 입교 등의 형태로 지속되었다. 이와 함께 임시정부에서는 1920년 1월부터 비행대대 편성 및 비행사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상해에서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비행기를 구입했고, 미주에서는 군무총장 노백린(盧伯麟, 1875~1926)을 중심으로 비행사 양성소 설립 작업이 구체화되어 그 해 2월 20일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에 양성소가 들어섰다. 그밖에 1920년 1월 31일에는 대한적십자사에 간호사양성소가 부설되어 위생병 역할을 맡은 간호사를 양성하기에 이르렀다.⁴³³⁾

또한 1920년대에 들어와서 독립군을 조직하거나 군사력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직할부대를 편성하거나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약하던 군사조직을 임시정부 아래로 편입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특히 임시정부는 만주지역의 독립군 조직을 내세워 독립전쟁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정부 하에 의용단이 조직되어 독립전쟁을 대비한 왕성한 활동을 함으로써 의열투쟁과 같은 항일투쟁이 임시정부의 주도 하에 전개되었다.

433)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 지성사, 1994, 104~105쪽.



미 캘리포니아주에 설립한 한인 비행학교 모습
(1920)

윌로우스 한인 비행대가 사용한 건물의
현재 모습(국방홍보원 제공)

그러나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임시정부의 공식 군대인 광복군이 창설되기까지는 20여 년의 세월이 걸려야 했다. 1920년대 중반 임시정부의 세력이 약화되어 활동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1930년대의 의열투쟁으로 항일투쟁을 이어나갔고, 다시 그 위에서 1940년 비로소 광복군을 창설하여 연합국과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42년 좌·우익 간에 통합의회가 구성되면서 광복군에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광복군은 독립운동의 군사조직으로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⁴³⁴⁾

나. 임시정부의 독립방략과 군사정책

임시정부의 독립방략 1919년 3·1운동 직후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조직된 직후부터 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한 임시정부의 일정한 방향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초기에는 3·1운동 직

434) 조동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이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1999, 679쪽.

후에 고무된 인도주의나 비폭력주의의 영향 하에서 평화주의적 독립운동 방략이 수립되었고, 그 후 통합 임시정부가 성립되면서 점차 그 방향에 변화가 수반되어졌다. 말하자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략은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시정방침을 통해서, 그리고 1939년 독립운동방략과 1940년의 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 및 1941년의 대한민국건국강령 등이나 각종 법령 등을 통해서 더욱 체계화되고 구체화되었다.

임시정부가 조직된 직후에는 ‘평화주의적 방략’을 유지하고 있었다.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령’ 제1호와 제2호에서 독립을 위한 국민행동지침으로서 2가지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납세 거부운동과, 적의 재판과 행정상 모든 명령을 거절하라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다.⁴³⁵⁾ 당시의 국민행동지침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라는 적극적 방식보다는 통치권에 대한 거부라는 소극적 방식을 취한 것이었다. 그것은 폭력적이거나 군사적인 투쟁의 방법을 억제하는 방략이었다. 이러한 방략은 임시정부와 국내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임시연통제’의 규정에도 잘 나타났다. 연통제 기관은 군인·군속의 정모, 군수품의 징발·수송이라는 군사적 임무가 있었지만 이는 ‘장래 외지(外地)에서 전쟁할 시(時)’, 즉 미래에 주어질 임무였을 뿐이다.

시정방침에서도 임시정부의 초기에는 외교에 중점이 두어지고 군사 부문에 대해 소홀했던 것이 드러난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초의 시정방침 연설이 이루어진 1919년 5월 12일 국무원의 결의사항과 경과사항의 보고에서는 ‘군무부에는 계획이 별무(別無)하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시정방침의 연설은 1919년 7월 8일 임시의정원 제5회 회의에서 있었다. 이때 내무총장 안창호가 인구조사,

435) 한시준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 국가보훈처, 1999, 92쪽.

공채 발행, 인두세법 시행, 군사상의 노력, 구국재정단 조직, 외교, 한일관계 자료 조사 등 7가지 사안을 제시했는데, 이때에도 군사 면에서는 ‘가급적 군사상에 노력할 것’을 밝히는 정도였다.⁴³⁶⁾

임시정부의 방략은 정부의 통합을 거치면서 무장투쟁을 포괄하는 독립운동 방략으로 변화되었다. 지도자 간의 노선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군사론으로서 ‘독립전쟁론’과 외교에 의존하는 ‘외교론’이 공존하였다. 그런데도 결국 양자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1920년대 중반 이후 임시정부 하에서 독립운동은 군사활동보다 해외에서의 외교활동이 우세한 상황이 되었다.⁴³⁷⁾

한편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시대통령의 임무를 ‘민국의 독립과 내치 외교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었고, 임시대통령이 ‘육해군을 통솔’하고, ‘개전강화를 선고하고 조약을 체결’할 직권을 갖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법률 제2호로 제정된 「대한민국임시관제」를 통하여 독립군의 편제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했는데, 특히 임시대통령의 직할기관으로서 대본영, 참모부, 군사참의회 등 군사기구를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본영은 임시대통령을 원수로 한 군사의 최고 통솔부이고, 참모부는 국방 및 용병에 관한 일체의 계획을 통솔하는 기구이며, 군사참의회는 중요사무에 대한 임시대통령의 자문기관이었다. 그밖에 육해군 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군무부를 설치하고 군무부령 제1호 「임시군사주비단체」를 제정·공포하여 독립전쟁의 준비를 맡았다.⁴³⁸⁾

436)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략」,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 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1999, 690~693쪽.

437) 백기인, 「임시정부가 꿈꾼 국방·외교」, 『독립정신』 제46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09, 21쪽.

438)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략」, 693~694쪽.

이렇듯 임시정부의 제반 군사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가운데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방략을 놓고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1920년대의 독립전쟁 방략은 ‘절대독립’이라는 목적에서는 분명히 인식을 같이한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행동방법에서는 ‘혈전론’과 ‘외교론’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이다. 안창호는 초기 임시정부를 대변하는 독립운동 방략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으로서 공식적인 국무총리직까지 겸임하면서 초기 임시정부의 기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안창호는 1920년 1월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하면서 독립전쟁 준비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군사·외교·사법·재정·통일 등 6대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고, 군사 모집과 훈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안창호의 독립전쟁론은 일종의 독립준비론이었다. 그는 임시정부에서 추진한 대중시위·납세거부·일화배척·송사거부 등을 ‘평화적 전쟁’의 개념으로 파악했고, 외교에 대해서는 독립전쟁 준비로서 외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는 전쟁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⁴³⁹⁾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정부의 독립방략은 사실상 현실적인 전략으로는 논전이 오간 상태라고 하겠지만 의정원이나 시정방침 등을 통해서도 독립전쟁론을 공식화하고 있었던 셈이다. 다만 문제는 독립전쟁을 바로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준비를 거쳐서 시행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임시의정원의 건의에서는 독립전쟁을 독립외교와 독립역량 강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보고 즉시 독립전쟁 수행을 촉구하는 ‘즉결전쟁론’을 제기하는 입장이었다.

439) 『독립신문』(1920. 1. 8)[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임정 편 II), 정음문화사, 1968, 66~48쪽.]

그리고 1920년 시정방침에서는 ‘군사’ 부문에서 ‘개전준비’ 항목을 설정하면서 독립전쟁을 지구전 개념으로 파악하고 작탄대(炸彈隊)를 편성하거나 감사대(敢死隊)를 편성하여 독립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간주하였다. 요컨대, 통합 정부 이후에는 독립외교와 평화적 시위방법 뿐만 아니라 독립군 모집 및 조직화, 전쟁외교, 의열투쟁, 독립전쟁 등의 방안이 종합되었던 것이다. 1920년 12월 1일 국무총리 이동휘가 강조한 바와 같이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전쟁 준비를 위해 간도와 노령의 무장 독립군을 임정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편성하려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예컨대, 의용단(義勇團)⁴⁴⁰⁾의 조직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1920년 12월 대통령 이승만이 상해로 온 이후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방략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승만도 독립전쟁 준비 방략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말하는 준비는 정부 차원의 조직적 준비가 아닌 개개인 각자의 준비였고 적국인에 대한 비인도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작탄을 사용한 의열투쟁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1922년 국무총리 대리 신규식(申圭植, 1880~1922)의 시정방침이나 한국노병회의 결성 등을 통해서 ‘완전 독립·절대 독립’에 대한 표명이 있었고, 실제로 1926년 1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은 병인의용대를 조직하여 의열투쟁을 조직화했던 것이다.⁴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에서 1930년 초반까지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독립운동방략이 외교활동을 중심으로 한 독립외교에 쏠리고 있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다가 1930년대 들어와서 점차 중

440) 의용단은 임시정부가 대일 선전포고를 하는 즉시 ‘순국할 각오로 동원될 의군’ 같은 조직이었다.

441)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략」, 699~703쪽.

전의 전면적 개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병력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전술을 채택하여 적에게 타격을 가하는 전략적 사고를 취하기 시작했고, 만주사변을 거쳐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전시참전외교’로 전환하게 되었다.⁴⁴²⁾

임시정부에서는 1937년 이후 독립전쟁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가 1939년 11월 12일 의정원 회의에서 의결된 「독립운동방략」이었다. 이는 독립전쟁 수행 3개년 계획으로서 당·정·군의 삼각 협력체제에 의한 독립운동방략을 제시한 것이었다. 1940년대의 독립운동은 바로 이에 입각하여 추진되었으며, 그 의미있는 성과가 바로 광복군의 창설이었다.⁴⁴³⁾

임시정부의 군사정책

1920년대 군사정책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하면서 외교론과 준비론에 치우쳐 있었다 하더라도 군사적인 활동이나 군사정책을 결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률 제2호 제정된 「대한민국임시관제」에서는 임시대통령 직속의 군사기구의 설치는 물론 「대한민국 육군임시군제」에서는 군대의 편성을 분대·소대·중대·대대·연대·여단·군단으로 편성하고, 국민의 병역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서 ‘국민개병제’에 의한 근대적인 군제와 병역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국민개병제에 의한 근대적인 군대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1919년 육군무관학교를 개교하여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했던

442) 백기인, 「임시정부가 꿈꾼 국방·외교」, 23쪽.

443)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략」, 708쪽.

것이다.⁴⁴⁴⁾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법제적으로 국민개병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군사조직이 없었다. 따라서 초창기 임시정부의 군사활동은 주로 시베리아와 만주 일대의 독립군단체에 의지하는 상황이었다. 1920년대 임시정부의 군사정책은 이렇듯 만주, 시베리아의 독립군 단체를 보존하는 형태의 사관학교 설립, 비행대 편성문제, 군사법규 정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무관학교 관계 이외는 거의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⁴⁴⁵⁾ 이렇듯 임시정부가 군사조직을 갖추는 데 미흡했던 것은 임시정부 군무부를 정점으로 서간도군구, 북간도군구, 시베리아 강동군구의 3개 군사지역이 구획은 되어 있었지만 각 지역의 교포를 통합할 만한 물적 기반이나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더욱이 재정 곤란까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독립전쟁이 전혀 수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당시 만주나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전쟁에 독립군단 등이 독립전쟁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이들 외곽단체와 연계한 간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주지역의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와 같은 22개 약 2,000명의 군사조직 가운데 임시정부의 직속기관으로 독립전쟁을 수행하던 유일한 단체가 대한광복군총영뿐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1920년대 임시정부의 군사활동은 제한적인 것이었다.⁴⁴⁶⁾

444)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정책」,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14~19쪽.

445)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정책」, 20쪽.

446) 백기인, 「한국 광복군 창군과 항일투쟁」, 『군사논단』 제45호, 한국군사학회, 2006, 23~24쪽.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1921. 1. 1)

한편 1920년 9월 북경에서는 박용만·신채호·신숙이 중심이 되어 군사통일촉성회를 조직하고, 1921년 4월 20일 북경 교외 삼패자(三牌子) 화원에서 군사통일준비회를 열고 군사통일방침을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노령주재 대한독립군단의 국내 대진공작전과 만주 근변의 여러 부대가 국경 주변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은 수립했으나 지휘권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가 급기야 임시정부의 해산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후 1923년 군사통일회는 국민대표회의를 추진했고, 국민대표회의가 창조파와 개조파로 분열됨으로써 독립운동은 균열을 가져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채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와중에도 1922년 10월 28일 김구·여운형 등은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를 조직하여 1922년부터 1932년까지 1백만원 자금

확보와 노병양성을 위한 10년계획을 세우고 활동하였다. 한국노병회는 소련노병회(soviet)와는 다른 것으로 임시정부의 소속 조직은 아니었다. 결성 초기에 한국노병회는 다수의 청년들을 중국의 여러 무관학교나 강무당에 파견하여 군사간부로 육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이 조직이 내건 ‘독립전쟁준비방략’은 국제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거기에 휘말릴 때를 기다리면서 독립전쟁에 필요한 조건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방략으로 하고 있었는데, 임시정부에서는 이를 선택하고 정부의 이름이 아니라 외곽조직으로서 그 몫을 맡겼던 것이다.⁴⁴⁷⁾ 그러나 군자금의 문제와 1923년 이후 상해 정계의 혼란 등으로 점차 쇠퇴했다가 1932년 10월 자연 해산되고 말았다.

또한 1920년 비행대 편성문제가 활발히 진행되어 비행기 구입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독자적인 공군창설로서 비행대대 편성 및 비행사 양성운동은 좌절되었고,⁴⁴⁸⁾ 그 대신에 미주를 비롯하여 중국 관내 및 소련지역에서 다수의 한인 비행사가 양성되었다.⁴⁴⁹⁾ 그 대표적인 예가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이 1920년 2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치한 한인 비행사양성소다.⁴⁵⁰⁾ 그곳에서는 그해 5월 비행기 2대를 구입하여 미국인 기

447) 김희근, 「독립전쟁준비론과 한국노병회」, 『대한민국임시정부 - 상해시기』 I,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192~198쪽.

448) 당시 임시정부에서 공군 창설이란 비행대대나 비행사 양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최초로 1919년 11월 5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관제」에서 육군과 해군이 각각 비행대를 관리할 사항으로 규정되었고, 그 후 임시정부 아래에서 1940년 한국 광복군 비행대의 편성과 작전계획에 따라 일부 비행사가 참여함으로써 공군 창설계획이 추진되었다.

449) 정제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비행사 양성과 공군 창설계획」,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49쪽.

450) 임시정부의 비행학교가 설립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윌로우스 부근이었는데, 노백린 당시 군무총장은 1920년 3월 1일자 윌로우스 데일리 저널(Willows Daily Journal)의 인터뷰를 통하여 “한국인들에 의해 이곳에 설립될 비행학교는 1년 전

술자 1인과 비행사 6인으로 교관단을 구성했으며, 1923년에는 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무선통신 장비를 갖춘 비행기도 5대를 구비하였다.

그밖에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전쟁에 대비한 위생병의 양성도 계획하였다. 이는 상해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한 것으로 1920년 1월 31일 간호원양성소를 부설기관으로 개설하여 3개월 과정으로 13명의 남녀 간호병을 양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도 결국 재정적인 곤란으로 1기생을 배출한 후 중단되었다.

1930년대 군사정책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임시정부의 침체가 쉽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임시정부는 군사정책의 일환으로서 의열투쟁을 통한 항일투쟁을 추진하였다.⁴⁵¹⁾ 의열투쟁은 인물·재정난을 극복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었다. 한 두 지도자의 영도 하에서 소수 인원으로도 전개할 수 있는 투쟁방식이었기 때문에 의열투쟁이 1930년대 초기에 임시정부의 가장 적절한 독립운동으로 간주되었다.⁴⁵²⁾ 1933년 12월 말 임시의정원 정기회의에서도 ‘특수한 직접행동’을 고려하고,⁴⁵³⁾ 집단적인 무력전쟁을 전개하며 민중운동을 무장·조직화하고, 장교 양성과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무기준비 등을 구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전체역량을 군사활동

시작된 독립운동의 연장선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일본과의 전쟁에 참가할 수도 있는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일보』, 2011년 8월 16일, 12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비행학교에 대해서는 재미언론인 한우성이 연재한 『국방일보』 2011년 6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의 연재를 참조할 것.

451) 의열투쟁의 전반적인 전개에 대해서는 김인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열투쟁 방략과 단체」,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를 참조할 것.

452)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정책」, 27쪽.

453) 당시 ‘특수한 직접행동’이란 의열투쟁 방략을 의미한다.

방면에 집중하여 전 민족으로 하여금 실전시기(實戰時機)로 돌진케 한다고 결의했다.⁴⁵⁴⁾

의열투쟁은 처음에는 기성단체인 한국독립당·의경대·병인의용대·의생단·한중항일대동맹·한인청년당 등이 이끌었다. 그 후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특무공작에 대한 전반에 걸친 일은 김구의 한인애국단이 주도하였다. 임시정부의 승인 하에서 1930년대 초반에 의열투쟁을 주도한 한인애국단은 임시정부의 특무대로서 국무회의를 거쳐 결성된 극비의 결사체였다. 단장인 김구가 특무활동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특무활동을 결행할 인물을 선정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태극기 앞에서 입단 선서문을 목에 걸고 사진을 촬영하면 입단절차가 끝났다.⁴⁵⁵⁾ 이렇게 임시정부가 항일투쟁의 방향을 의열투쟁에 비중을 두게 된 것은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 한국독립운동의 기반을 붕괴시키자 이에 임시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듭하며 대책을 논의하여 군사작전을 능가할 공포작전으로서 특무공작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일제에 철퇴를 가해 전 세계에 임시정부의 존재를 알리기로 한 결과였다.

임시정부는 이봉창·윤봉길의 의열투쟁이 성공하자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에 한인군관학교를 설치하고 군사간부를 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친 졸업생이 1936년까지 250명에 달했고, 이들은 뒷날 한국광복군의 기간요원이 되었다. 1934년과 1935년 항주에 머물고 있던 임시정부에는 한인군관학교 외에 특무활동으로 한인애국단과 1934년 12월 한국특무대독립군이 조직되었고,

454) 한상도, 『대한민국임시정부 - 장정시기』 II,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16~17쪽.

455) 조범래, 『의열투쟁 - 한인애국단』 II,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6~17쪽.

다음 해 2월 학생훈련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학생훈련소는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 입교생에게 예비교육을 행한 훈련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⁴⁵⁶⁾

당시 김구 주도 하에 운영되기 시작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군사노선으로 정립하고 있었다. 1936년 11월 개최된 임시의정원에서는 “우리의 광복을 완성하는 데에는 적으로 더불어 일전(一戰)을 결(決)하는 외에 타도(他道)가 없고”라고 하여 군사인재 양성, 군사기구 설치, 특무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을 위한 본격적인 군사 활동으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임시정부로서는 전시체제에 대한 대비와 보다 적극적인 군사 활동이 절실했다. 임시정부는 중일전쟁을 민족해방과 한국독립의 촉진매체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1937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군무부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규정에 의하면 독립전쟁의 연구계획, 광복군 양성, 군사지식의 습득을 위한 서적 편찬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군사 활동이 제시되었다.⁴⁵⁷⁾ 임시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의 폭발 가능성을 예견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한인독립운동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군사 활동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⁴⁵⁸⁾

“시국이 점점 절박하여 중·일의 전운이 날로 긴밀하여지는 것을 관찰한 본 정부에서는 이에 부응할 각항 중요계획을 급하게 실시할 필요를 느껴, 먼저 군사

456)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정책」, 28쪽.

457) 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1974, 743~744쪽.

458) 한상도, 『대한민국임시정부 - 장정시기』 II, 228쪽.

인재를 집중하여 본년 7월 중에 군무부에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군사시설에 관한 필요한 예비공작을 행하게 하였으며, 중일전쟁이 이미 개시된 금일에 있어서는 왜적에 대항할 특무공작이 시급히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요원에게 전입하여 적극 진행토록 하였고, 또 군사운동도 적극 진행하려 함은 물론이거니와, 멀지않은 장래에 대부대 규모의 군대를 편성하려면 군대의 간부인재가 얼마든지 많아야 하겠으므로, 정부에서 속성과로 훈련소를 설립하여 최단 기간 내에 우선 제1기로 초급장교 약 200명을 양성키로 하였다.”⁴⁵⁹⁾

이와 같이 임시정부는 기구의 확대와 더불어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조직의 건설에 착수했고, 이를 추진해나갈 군사특파단의 구성과 임시정부가 추진할 3개년 계획으로서 ‘독립운동방략’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1937년 중일전쟁이 한·중 공동의 적을 선명히 부각시킴으로써 중국의 지원에 대부분 의존했던 임시정부의 군사활동을 보다 적극적인 대일전의 성격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광복군 창설의 군사정책은 군사력을 배양하여 독립전쟁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시킨다는 오랜 숙원과제이자 임시정부의 새로운 군사정책의 지향이었다.

제2절 의열투쟁의 행동과 이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에 걸쳐 의열투쟁을 독립투쟁의 방략으로 채택하여 실행하였다.⁴⁶⁰⁾ 1930년대 임

45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6(임시의정원 V), 26쪽(한상도, 『대한민국임시정부 - 장정시기』 II, 229에서 재인용).

460) 의열투쟁은 한말 일제 침략의 과정에서 전개한 의사와 열사들의 순국·의열투쟁이 전범이 된다고 하겠다. 이들은 국권수호운동 차원에서 의열투쟁을 전개한 것이고,

시정부의 의열투쟁은 윤봉길·이봉창을 필두로 하는 한인애국단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임시정부의 초기에 항일투쟁의 방략이 격론을 거치면서 외교독립론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나마 의열투쟁을 통하여 임시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전략을 실행하려 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특히 한인애국단의 경우, 임시정부가 항일투쟁의 주체로서 그 역할이 침체에 처했을 때 새로운 타계책의 일환으로 결성되어 단순한 ‘테러활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⁴⁶¹⁾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의열투쟁방략에 의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중국과의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⁴⁶²⁾

이러한 의열투쟁에서 발현된 항일투쟁의 의지는 초기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평화적 수단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군사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잘 드러났다. 그러므로 초기 임시정부가 여건상 외교독립론을 유지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급변하는 국제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그와 함께 임시정부의 군사정책이 기본적으로 ‘개전준비’를 목표로 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파리강화회의의 대표단의 파견이나 독립청원과 같은 외교독

여기에서 다른 의열투쟁은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독립운동방략의 일환으로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의열투쟁을 가리킨다. 한말의 순국·의열투쟁에 대해서는 오영섭, 『한말 순국·의열투쟁』(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4, 2009)를 참조할 것.

461) 작탄투쟁이나 암사파괴운동을 포함한 의열투쟁은 형태론적 견지에서 테러리즘에 속하며, 일종의 ‘저항적 테러리즘’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의열투쟁과 테러는 다르다. 테러가 권력 유지나 탈취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행하는 무차별적 폭력행위를 가리킨다면, 의열투쟁은 인류 보편 양심과 정의감이라는 윤리적 가치에 입각하여 구체적 표적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제한적 폭력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의열투쟁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영범, 『의열투쟁 - 1920』 I(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6), 2009, 282~283쪽을 참조.

462) 김창수, 「한인애국단의 성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립노선은 열강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장벽에 부딪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군사투쟁·의열투쟁이 과감히 제기되었고, 그 결과 임시정부가 지원하는 만주지역의 각종 독립전쟁이나 국내외의 의열투쟁이 고무되었던 것이다.⁴⁶³⁾

특히 임시정부가 의열투쟁노선을 선택함으로써 정규전을 통한 항전의지를 고양하는 한편, 하나의 독립전술로서 투쟁노선에 배합시킨 것은 의미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독립전쟁론과 외교론·준비론 사이에서 항일투쟁의 방향을 놓고 대립하던 상황에서 의열투쟁이 민족진영의 내부에 새로운 무력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단재 신채호도 「조선혁명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의열단’의 투쟁 이념을 강화하면서 일본 침략에 맞서는 의열투쟁을 통한 투쟁의 적극적인 에너지를 발견했고, 가장 실질적인 저항의 수단으로서 무장투쟁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⁴⁶⁴⁾

임시정부가 1919년 5월 공포한 「시정방침」에서 청년감사대(靑年敢死隊)와 작탄대(作彈隊)를 조직하여 적괴(敵魁)와 창귀(尙鬼)의 격살 및 영조물의 파괴를 단행하려 했던 것도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1919년 11월 임시정부의 산하 단체로 김성근(金聲根)을 중심으로 한 구국모험단을 발족시키고 여기에 의열단을 직할로 포함시킨 것도 마찬가지였다. 임시정부의 「시정방침」 제1항에서는 통일적 해방운동을 위하여 반도(半島)의 처지를 설명하고, 제2항에서 ‘필요로 인정되는 시기에는 작탄 등으로 적괴 및 창괴를 격살하고 혹은 그 영조물을 파괴한다’고 하면서 이에 국내 및 국외에 감사대를 조직하여 국민에게 임시정부의 시정행위를 고취하고 이 모든 일에 선봉이 되도

463) 김인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열투쟁 방략과 단체」, 121쪽.

464) 「新教育과 愛國」, 『丹齋 申采浩全集』下,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1948, 131쪽.

록 할 뿐만 아니라 작탄대를 편성하여 작탄제조 및 작탄 사용술을 학습하도록 했던 것이다.⁴⁶⁵⁾

이렇듯 임시정부 하에서 추진한 의열투쟁은 운동의 조직성이나 대중성 그리고 연속성 측면에서 근대적 민족운동노선으로서 제약이 많았다. 따라서 임시정부가 직접 선도하여 관할하고 실천할 만한 독립방략으로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더군다나 국제열강과의 관계나 정통성 측면에서 정부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임시정부는 의열투쟁을 두 방면에서 연속적이고 파상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하나는 연통제나 교통국을 통한 국내 독립운동 조직을 동원한 투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만주지역 특히 서북간도의 여러 독립단체를 통한 의열투쟁이었다. 특히 임시정부의 특파원이 직접 총포를 가지고 국내에 잠입하여 공작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⁴⁶⁶⁾

의열투쟁에서는 투쟁의 대상 또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었다. 임시정부가 마련한 의열투쟁의 방침에 입각하면 의열투쟁의 대상은 공식적으로 ‘7가살(七可殺)’이라고 불렸다. 『독립신문』의 논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7가살’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의 적이 누구누구뇨. 전시의 적에게는 사형이 유할 뿐이니라. 과거 1년간 우리는 피등(彼等)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나니 1년의 기간은 피등에게 과분의 은전이니라. 이미 은전의 기간이 진(盡)하였도다. 동포여, 용감한 애국자여 주지할 것 업시 살(殺)할 자는 살하고 분(焚)할 자는 분할지어다. 피등은 양심이 엷은 금수니 금수의 흉악한 자에게는 사(死)맞게 줄 것이 업나니라. 생명을 살함이 엷지 본의리오. 저 금수 갓흔 일명(一命)으로 하여 국가가 대해(大害)를 수한다 할진대 아니 살코 엷지하리오.”⁴⁶⁷⁾

46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 임시정부사』 4, 1983, 259~260쪽.

466) 김인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열투쟁 방략과 단체」, 123~124쪽.

467) 『독립신문』 제43호(1920. 2. 5)

임시정부가 ‘7가살’의 범주에 포함시킨 대상들은 적괴, 매국적, 창귀, 친일부호, 적의 관리, 불량비, 그리고 모반자 등이었다. 적괴는 조선총독이나 정무총감과 같이 한국독립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유력 일본인들을 말한다. 그리고 한국독립운동 및 그 지도자를 깔보고 낮추어 말하는 정치가·학자·신문기자·종교가·불령일인, 우리 동포를 학대해 온 일인 헌병·경관 등이 포함되었다.

매국적은 이완용·송병준·민원식 등은 물론 한국 독립을 반대하고 적의 통치에 복종을 주장하는 흥적들, 즉 민원식·선우순·유일선·협성구락부 등의 추류다. 창귀는 고등정탐 혹은 일반 형사로 한국의 독립운동의 비밀을 밀고하거나 독립지사를 체포하며 동포를 구타한 추류(醜類)들로서 선우갑·김태석·김극일 등과 같은 흥적들이 이에 속한다.

친일부호는 일시 자기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과 통하여 적의 군인과 경찰의 보호를 받거나 혹은 일신의 안전을 탐하여 적국으로 도주하거나 누차 권유하여도 독립운동비의 납금에 응하지 않거나, 특히 현금을 권유하는 지사를 적에게 밀고한 자이다. 용천의 최가와 철원의 고가 등이 그들이다.

적의 관리는 독립운동 제 단체의 퇴직 권유가 세 차례 이상 있었으나 개오할 줄 모르는 자와 적의 수하가 되어 독립운동을 비방하고 홍보는 자, 국민의 애국심과 용기를 감손시키는 자, 적의 위세를 믿고 동포를 압박하는 자 등이다.

불량비는 유언비어를 전파하여 독립운동을 해하고 민심을 현혹시키는 자, 독립운동자로 모칭하고 동포의 애국의연금을 횡령한 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자로서 변심하거나 겁을 먹고 그 기간 내에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 중요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지에 대한 신

의를 배반한 자, 동지 간에 반간(反間)을 행한 자 등이다.

모반자는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생사를 맹약한 동지로서 중도에 뜻이 변하여 독립운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자, 특히 사당(私黨)을 만들어 정부를 비방훼손하며 반대하여 독립운동에 장애가 되게 하는 자 등이다.

이렇듯 임시정부는 의열투쟁의 대상을 구체화시켜 제시했으며, 정부 자체가 전담 행정 조직을 연계시켜 독립전쟁의 준비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적 방책으로서 의열투쟁을 설정하고 있었다. 임시정부가 의열투쟁노선을 적극적으로 견지했음은 폭탄제조학습소를 설치한다든가 폭탄거사의 행동대인 구국모험단을 조직한 데에서 잘 드러났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임시정부가 1923년 1월부터 시작된 국민대표회의를 통해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면서⁴⁶⁸⁾ 결국 회의가 결렬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 중반의 항일투쟁이 지지부진하였다. 국민대표회의의 결렬은 창조파와 군사투쟁을 중시해 온 무장투쟁론자들에게는 깊은 좌절을 안겨주었다.⁴⁶⁹⁾ 결국 임시정부는 각 정파와 단체를 통일하고자 했다가 오히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작탄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의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했지만 성과도 미진하였다.

그러던 중 1926년에 들어와서 민족·사회주의자 간의 연합을 통해

468) 1921년 1월 상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에는 일본·조선·중국·러시아 등 각 곳에서 온 다양한 계파의 한인단체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이르크츠크파 공산당과 상해파 공산당이 서로 경쟁적으로 민족주의 대표들을 분열시키고자 하였다. 이르크츠크파는 현 임시정부를 해산하고 새 정부를 조직하자는 '창조론'을, 상해파는 현 임시정부를 고치자는 '개조론'을 주장했다[김구, 『백범일지』(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제2권, 1999 소수), 284쪽].

469) 김화곤, 「국민대표회의와 임시정부의 대응」, 『대한민국임시정부 - 상해시기』 I, 179~191쪽.

노선과 이념상의 혼란을 극복하고 단결하여 일제에 대항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임시정부의 외곽단체인 병인의용대가 창립되면서 암살과 테러를 통해 국권회복과 임시정부의 권위수호, 나아가 임시정부 주변의 공산주의자들과 일제의 밀정이나 주구배 등을 처단하고 임시정부를 수호하고자 했던 것이다.⁴⁷⁰⁾

“본대는 임시정부의 기치하에 철혈주의(鐵血主義)로 독립운동에 예신자진(銳身自進)하는 의용청년(義勇靑年)을 체맹(締盟)하여 적의 모든 시설을 파괴하고 적에 부수하는 일체의 이적행위를 서제(鋏除)” 하기 위해 이를 선언한다. … 본대는 3·1선언의 기본약속을 극존(克尊)하여 1인 1각까지 최후의 노력으로서 민족의 전위를 자임하고 사회의 거울을 엄수하여 전선의 통일을 보유하는 산성(神聖)으로서 전운동의 대본영(大本營)인 임시정부의 권위와 정신을 옹호선양하여 적의 정치상·경제상 모든 시설을 파괴하고 침략정책을 주모행사하는 적리(敵吏)와 제국주의의 주구배인 한간(韓奸)을 습격 암살하는 적극행동을 취한다.”⁴⁷¹⁾

한편 이러한 적극적인 투쟁으로서 의열투쟁이 주목되는 가운데 의열투쟁을 개인적인 폭력투쟁에서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투쟁방법상의 전환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의열단은 1920년대 후반에 개인적 폭력투쟁에서 무장투쟁노선으로 방법적인 전환을 한 대표적인 예이다.⁴⁷²⁾ 1928년 10월 발표한 강령에서 “민중 경찰을 조직하고 민중 무장을 실시할 것”을 내세우는 등 무장독립론을 구체화해갔다. 의열단은 1919년 결성된 해로부터 이러한 노선을 가시화하여 1926년까지 대소 수백회의 테러와 폭탄투쟁을 전개했고, 그 참여 인원도 수천 명에 이르렀다.

470) 김도형,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친일파 처단과 의열투쟁」,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215~216쪽.

471) 國會圖書館, 『韓國獨立運動史料』中國編, 1976, 576~577쪽.

472) 김인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열투쟁 방략과 단체」, 130쪽.



윤봉길 의사의 선서문

의열단원이 된 직후의 윤봉길

또한 1930년 1월 ‘이당치국(以黨治國)’을 기치로 여당적인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이 창당됨으로써 정당조직에 기초한 정부체제가 마련되었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정당활동에 기반한 권력구조와 정부조직을 연계시킨 정치체제의 틀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당시 임시정부가 특무공작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무대(특공대)를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임시정부의 재정수입금 반액을 특무대 활동에 지원하기로 한 것도 이를 잘 말해준다.

특무활동의 계획 및 실행 전반에 관한 사항은 김구에게 일임되었다. 이에 김구는 임시정부 산하에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이란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한인애국단은 침체와 위기에 처해있던 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김구의 책임 아래 결사대원 80여 명을 모아 조직한 것이다. 단장과 특수공작원이 직결된 비밀결사인 한인애국단의 핵심 단원은 안공근·엄항섭·김동우·안경근·손창근·백구파·김의한·김현구·김홍일·손두환·이덕주·유상근 등이었다. 한

인애국단은 1931년 12월 이봉창을 단원으로 받아들여 그 이듬해 1월 8일 이봉창 의거를 시작으로 의열투쟁을 전개했으며, 4월 29일에는 윤봉길 의거, 그리고 5월 23일과 24일 최홍식·유상근의 ‘국제연맹 릿튼조사단’ 암살미수사건 등의 의열투쟁을 벌여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⁴⁷³⁾

의열투쟁의 의의에 대해 홍구공원의 의거를 결행한 윤봉길 의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현재 조선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본에 반항하여 독립함은 당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강국피폐의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야말로 조선은 물론이고 각 민족이 독립하고자 할 것이다. 현재의 강국도 나뭇잎과 같이 자연조락의 시기가 꼭 온다는 것은 필연의 일로서 우리들 독립운동자는 국가성쇠의 순환을 앞당기는 것으로써 그 역할을 삼는다. 따라서 한 두 명의 상급 군인을 살해하는 것만으로 독립이 용이하게 실행될 수는 없다. 따라서 금회의 사건과 같은 것도 독립에는 당장 직접 효과가 없음은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오직 기약하는 바는 이에 의하여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다시 세계로 하여금 조선의 존재를 명료히 알게 하는데 있다. 현재 세계지도에 ‘조선’은 일본과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각국인은 조선의 존유를 추호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차제에 ‘조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러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 넣는 것은 장래 우리들의 독립운동에 관하여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굳게 믿는다.”⁴⁷⁴⁾

1930년대 초반 임시정부는 의열투쟁의 방략을 통해 대내외에 임시정부의 존재와 독립운동의 의지를 알릴 수 있었다. 이봉창·윤봉길 의거는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으로부터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473) 김도형,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친일파 처단과 의열투쟁」, 217쪽.

474) 일본 내무성 보안과, 「上海ニ於ケル尹奉吉爆彈事件顛末」(昭和7年7月)(조범래, 『의열투쟁』 II,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7, 2009, 277~278쪽에서 재인용).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윤봉길 이후 상해를 떠난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항주·진강·남경·가흥으로 분산되면서 일제에 의해 대거 검거되거나 안창호·김덕근·장현근 등 주요 독립운동자들이 피체되는 등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검거·수색이 강화되었다.⁴⁷⁵⁾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초 암살·폭파 등을 중심으로 한 의열투쟁은 일제의 식민지배체제에 타격을 가하면서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당시 임시정부가 의열투쟁 방략을 채택한 것은 일제가 대륙침략을 단행하여 중국 내에서도 반일적 분위기가 일면서 한국과 중국의 협동전선이 요구되었고, 그런 까닭에 중국 정부의 지원과 연대를 통하여 본격적인 항일전선을 형성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것과도 연관이 있다. 민족운동사적인 측면에서 의열투쟁은 임시정부가 국내외의 대표적인 독립기관임을 드러내고 그 존재를 각인시키며 중국에서 지속적인 항일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제3절 광복군의 창설과 사상적 지향

가. 광복군의 창설과 그 성격

광복군(Korean Independence Army)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식 군사조직이었다. 민족의 구성원에 의한 주체적 역량으로서 광복군은 ‘민족해방’과 ‘국가건설’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감당해야 했다. 그것은 ‘혁명군’으로서 임무와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건국군’으로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475) 김도형,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친일파 처단과 의열투쟁」, 218~222쪽.

광복군은 총사령부성립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광복군은 일찍이 1907년 8월 1일 군대 해산 시에 끝이어 성립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적인이 우리 국군을 해산하던 날이 곧 우리 광복군 창설의 때인 것이다”라고⁴⁷⁶⁾ 하여 바로 그 역사적 연원을 의병정신과 결부시켰다. 광복군은 대한제국군의 해체와 동시에 거의한 의병, 그리고 독립군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자처했다.⁴⁷⁷⁾ 이렇듯 광복군은 대한제국기의 ‘국군해산’에 역사적 연원을 두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역사의식을 견지하였다.

광복군은 정부의 정식 군사조직으로서 출발한 것이지만, 그 창설은 임시 정부의 수립 직후부터 시도되었다. 임시 정부는 1919년 12월 대한민국 육군임시군제(大韓民國陸軍臨時軍制) 및 군구제(軍區制) 등의 법령을 마련하고 군단(軍團)을 목표로 한 군대편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적·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중경에 정착하면서 비로소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⁴⁷⁸⁾ 임시정부가 그 의미를 강조한 것은 “독립군의 전투역량을 좀 더 위대히 발휘하며 작전지휘를 좀 더 영민히 실시하기 위해 계통이 정연하고 조직이 엄밀하게 정리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곧 남북만주와 연해주에서 1920~30년대에 걸쳐 강인한 항일독립전쟁을 벌인 독립군의 전투역량·작전·지휘·조직 등을 집약하여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 광복군이라고 자부했던 것이다.⁴⁷⁹⁾

47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韓國光復軍總司令部成立報告書」,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趙素昂篇 4), 1997, 315~317쪽.

477) 「韓國 光復軍 復員宣言」, 韓國臨時政府宣傳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文類』, 建國大出版部, 1976, 10쪽.

478) 한시준, 「한국광복군 창설」, 『대한민국임시정부 - 중경시기』 III(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5, 2009), 18쪽.

479) 국회도서관, 「임시정부포고문」,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1974, 765~766쪽.

1939년 10월 임시 정부의 국무회의에서는 조성환을 주임으로 한 군사특파단을 구성하여 서안으로 파견하였다. 당시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화북지역에는 약 20만명의 한인들이 이주해 있었는데, 임시 정부는 그 지역과 최전선을 이루는 서안에 군사특파단을 파견하여 한인을 대상으로 병력을 모집하는 한편, 광복군의 창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하와이를 비롯한 미주지역 교포들의 지원도 요청했다. 미주에서는 『신한민보』의 주도 하에 광복군의 조직을 3·1운동 이후의 대사로 간주하고 “힘이 있으면 힘을 돈이 있으면 돈을 내자”며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광복군 창설에 대한 교섭도 벌여 “광복군을 편성하여 대일항전을 수행하고, 일본군에 있는 한인사병들을 빼내면 적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화북을 안정시키려면 먼저 동북을 수복해야 하고, 동북을 수복하려면 한국독립을 원조해야 한다”고 하면서 광복군의 편성이 중국의 항일전에 유익하다는 논리를 펼쳤다.⁴⁸⁰⁾ 1940년 5월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장 김구의 명의로 된 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韓國光復軍編練計劃大綱)이 중국측에 전달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⁸¹⁾

광복군편련계획대강

1. 임무 : 한국광복군은 왜적을 토벌하는 한인무장세력의 정식 기본부대이다. 중국 항일군의 작전을 유리하게 하고, 적군내의 한인무장대오를 돌아서게 하며, 적의 이한제화(以韓制華)의 음모를 박멸한다. 중한연합작전의 의의를 내외에 선전 과시하고, 중국 작전부대와 동일한 보조를 취하며, 관외(關外)에 상당수의 광복군을 조직하여 전민총동원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480) 한시준, 「한국광복군 창설」, 『대한민국임시정부 - 중경시기』 III, 19쪽.

481) 「韓國光復軍編練計劃大綱」(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白凡金九全集』 6, 대한매일신보사, 1999), 279~293쪽.

2. 병액 : 잠시 일사(一師)로 표준을 삼는다.
 3. 예속 : 한국광복군총사령부에서 관할하고, 중국군사최고영수는 중한연합군총사령관의 자격으로 이를 통솔, 지휘한다.
 4. 편제 : 사령부를 편제하고 사령부에 정치와 특무를 부설한다. 부대편제는 소단 위제를 채용하여 혼성여(混成旅)를 최고단위로 삼는다. 편제순서는 상층조직에서부터 착수하되, 현재 인원으로 사령부를 조직하고 병액의 증가에 따라 수시로 대오를 조직한다.
 5. 징모방법 : 동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옛 한국독립군 중에서 모집, 윤함구(淪陷區) 내의 한인장정을 모집, 국내와 동북지방에 군령을 내려 응모, 적군 내 한적사병의 귀순종용 및 한적포로를 편입한다.
 6. 활동구역 : 익주, 섬주, 예주, 노, 진 및 동북 4성을 활동구역으로 한다.
 7. 동북방면에 있는 한인무장대오에 대한 처리방법 : 본래 있던 조선혁명군을 모두 한국광복군으로 개편한다. 적색군대도 광복군에 편입시켜 일치한 행동을 취한다. 한국인 무장자위대도 편입한다.
 8. 한국광복군의 속성방법과 선전요령 : 관내 각 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군관들을 소집하여 기본으로 삼고, 중국인과 한국사병을 소집하여 1단 내지 1려를 편성한다.
 9. 특무기관 부설 및 진행방략 : 총사령부 안에 특무부를 부설하고, 선전, 조직, 모집, 정찰, 선동, 파괴 등 공작을 실행한다.
 10. 요구사항 : 광복군을 속히 인준하고 중국 장정들을 초모하여 혼동편제케 한다. 준비 비용 50만원과 경상비, 병기 등은 군사인원에 따라 지급해준다.
- ※ 총동원방략 : 적국, 한국, 동북지방, 중국관내, 미국 등 각지의 교포와 민중을 총동원한다. 특히 동북4성 교포 3백만의 조직을 새로 정리하고, 무장군대를 조직 훈련하여 적의 군사시설을 파괴한다. 한편으로는 광복군을 편성, 훈련시켜 중국항일군과 공동으로 싸우게 하고, 많은 군사인재들을 양성하여 장래 광복군의 기간에 충당한다.

광복군의 편련계획대강은 그 핵심이 광복군을 편성하여 한중연합군으로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중국과의 관계는 다만 연합작전을 전개하는데 있어 중국 군사최고영수가 중한연합군총

사령관 자격으로 광복군을 지휘통솔하며, 광복군의 편성·훈련과 함께 가능한 모든 한인들을 동원하여 선전·훈련·정찰·파괴 등 특무 공작에 투입시킨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편력계획대강은 1940년 5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개석(蔣介石)의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그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사위원회의 실무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협조적이었다.⁴⁸²⁾ 중국 측은 광복군이 한국광복군총사령부에 예속될 것이 아니고 중국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 직접 그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중국군사위원회의 광복군 예속 의도는 임시정부 측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광복군의 성립문제는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결국 광복군창설위원회는 중국 측과 사전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광복군 창설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1940년 8월 4일 광복군총사령부(The Headquarters of Korean Independence Army)를 조직했고, 이어 9월 15일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창설한다는 내용의 한국광복군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한국광복군선언문은 임시정부 주석 겸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 위원장 김구 명의로 이루어졌다.⁴⁸³⁾

한국광복군선언문(1940. 9. 15)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통 장개석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내에서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총사령부를 창설함을 이에 선언한다.

한국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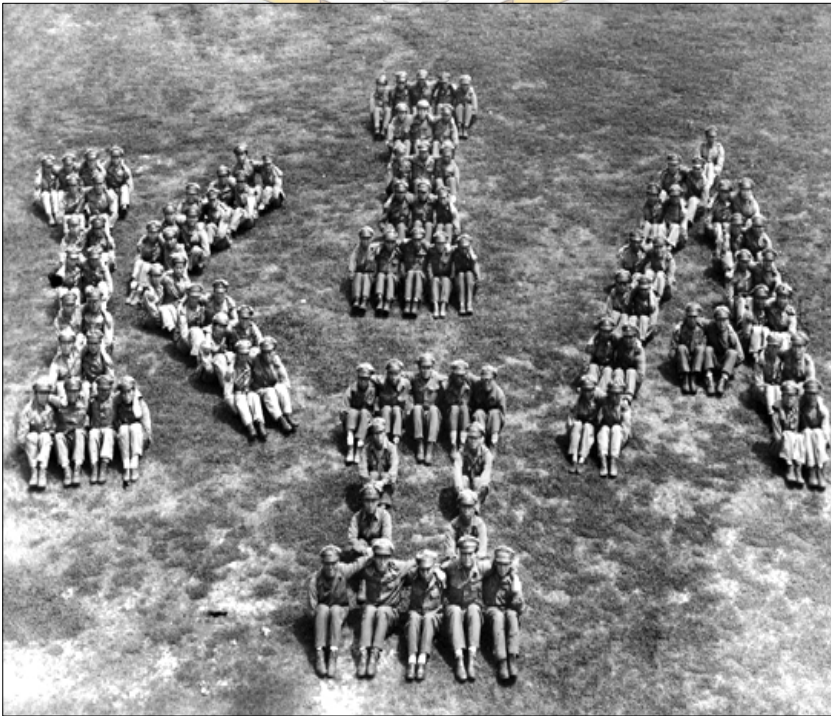
482) 김광재, 『한국광복군』(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2, 2007), 49~51쪽.

483)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白凡金九全集』 6, 294쪽.

과거 삼십년간 일본이 우리 조국을 병합 통치하는 동안 우리 민족의 확고한 독립 정신은 불명예스러운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자비한 압박자에 대한 영웅적 항전을 계속하여 왔다. 영광스러운 중화민국의 항전이 4개년에 도달한 이때 우리는 큰 희망을 가지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의 전투력을 강화할 시기가 왔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중화민국 최고영수 장개석 원수가 한국민족에 대하여 원대한 정책을 채택함을 기뻐하며 감사의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우리들은 한중연합전선에서 우리 스스로 계속 부단한 투쟁을 감행하여 극동 및 아시아 인민 중에서 자유·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위의 ‘한국광복군선언문’에서 보듯이, 임시정부는 독자적이고 자주권을 가진 광복군을 창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날을 기해서 임시정부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연합군’의 일원으로



광복군 제2지대원들이 몸으로 새긴 광복군의 영문 약칭(독립기념관 제공)

투쟁하고, 중국군과는 ‘한중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중국과 연합전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이 같은 광복군의 투쟁적 전망은 항일 운동을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장차 영국이나 미국 등 연합국과의 작전도 가능하게 하는 일대 진전이었다. 마침내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가 열리게 되었다.⁴⁸⁴⁾

그런데 광복군은 자신들의 창설일을 이날로 보지 않았다. 광복군은 자신들의 창설일을 정신적으로 이보다 앞선 대한제국군이 해산한 날로 소급하여 인식하고자 했던 것이다. 「광복군성립보고서」에서 보듯이 대한제국군의 해산일인 1907년 8월 1일을 광복군이 창립된 날이라고 선언하였다.

왜추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와 적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가 국방군 해산을 음모하였다. 그때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 대장이었던 박승환(朴昇煥) 장군(참령)은 자기 총으로 자기 가슴을 쏘았다. 박장군의 총소리는 우리 국군이 적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나팔이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군대는 서울의 적군을 모조리 도살하여 거리를 선혈로 물들였다. ... 몇 날이 안되어 의병과 국군이 서로 배합하여 혈전을 계속하였으며, 전후 10년 동안 적에게 도살된 자가 무려 50만이며 적군이 우리에게 섬멸된 것이 무수하였다. 말하자면 1907년 8월 1일 국방군 해산의 날이 곧 광복군이 창립된 날이라 할 것이다.⁴⁸⁵⁾

광복군 창군의 주역들이 광복군 창설일의 연원을 1907년 8월 1일 군대해산일로 비정한 것은 바로 광복군이 대한제국군을 계승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 근거이다. 「광복군의 성립보고서」에서는 대한제국 국군의 항일전인 1907년 8월 1일의 남대문 전투⁴⁸⁶⁾를 상기시키면서

484) 「韓國光復軍總司令部成立報告書」(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趙素昂篇 4, 1997, 315쪽)

485)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白凡金九全集』 6, 313~319쪽.

광복군이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군을 계승하고 있다는 의식을 강하게 제기했던 것이다.⁴⁸⁷⁾

이렇듯 광복군은 민족정기의 계승 차원에서 자신들이 대한제국의 국군을 계승하고, 민족사의 정통 국군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민족운동의 혁명군이자 대한민국 건국의 건국군으로서 광복군은 의병전쟁과 독립군의 항일전쟁, 그리고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서 민족 군대의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던 것이다.

나. 광복군의 군사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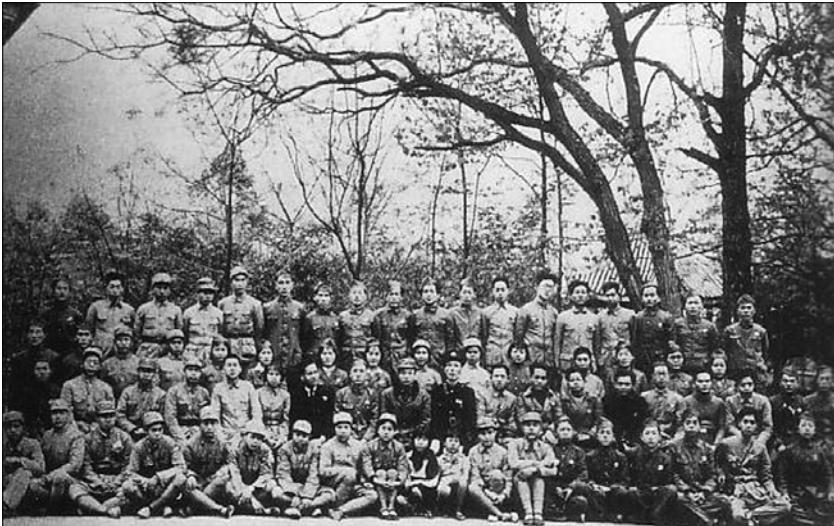
교육과 활동 광복군은 성립전례를 마친 후, 1940년 10월 9일 공포된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조직조례」에 근거하여 총사령부의 새로운 조직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조례에서는 총사령부의 위상 및 지휘계통, 간부진의 역할 및 부서 등을 규정한 것으로 광복군이 임시정부의 국군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총사령이 광복군에 대한 지휘·통솔과 각종 사무를 관장하고, 군의 동원 및 작전계획은 총참모장에게, 예산·인사 등 군정은 군무부장에게 지시받도록 하여 지휘계통을 이원화했다. 그 외에 참모장을 중심으로 10개 처의 부서를 설치하고, 특무대와 헌병대를 두었다.⁴⁸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광복군총사령부의 조직체제 확립과 더불어 대

486) 남대문 전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南大門附近韓國叛兵鎮定詳報及第十三師團戰鬪詳報」(陸軍省受領：密受 제286호, 1907. 8. 7)가 있다. 이 기록은 호세가와 한국주차군사령관이 테라우찌 육군대신에게 보낸 보고서다. 현재 일본의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에서 열람할 수 있다.

487) 박성수, 「한국광복군의 창설」, 『대한민국임시정부 80주년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73쪽.

488) 김병기, 「한국광복군의 조직과 활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79쪽.



광복군 청년공작대원들

한민국 임시통수부를 구성하였다. 임정은 집단지도체제에서 주석지도 체제로 전환되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통수관부제」를 제정 공포 함으로써 통수부를 설치하여 통수체계를 정립했던 것이다. 통수부에는 주석 김구, 참모총장 유동열, 군무부장 조성환, 그리고 내무부장에는 조완구가 임명되었다. 이로써 김구 주석을 최고통수권자로 하고, 이청천을 사령관으로 하는 광복군의 지휘·명령체계가 확립되었던 것이다.⁴⁸⁹⁾

광복군은 창설 직후 총사령부를 서안으로 이전했다. 서안의 광복군 총사령부가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단위부대를 편성하는 일이었다. 총사령부는 중경에서 파견되어온 인원과 군사특파단 인원을 중심으로 제1·2·3지대를 편성하고, 또 서안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한국청년전지공작대를 1941년 1월 1일부로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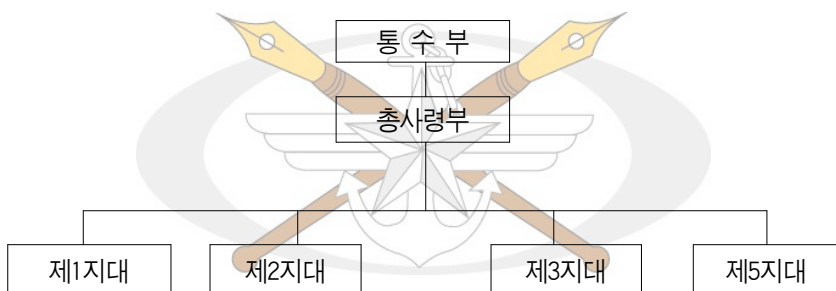
489)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號外(1940년 10월 9일자)

켰다. 이로써 광복군이 총사령부만으로 창설된 지 3개월만에 통수부와 총사령부의 상부조직을 구성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4개 지대의 편성을 완료하였다. 지대의 편성은 병력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추진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인원으로 지대를 편성한 뒤 그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었다.⁴⁹⁰⁾

그 편성과 각 지대의 간부 및 활동구역은 다음과 같다.⁴⁹¹⁾

【표】 광복군 총사령부 편성 및 각 지대의 간부/활동 구역

① 광복군 서안총사령부 편성



② 각 지대의 간부 및 활동 구역

구 분	지대장	간 부	근거지	활동지역
제1지대	이준식	노태준, 안춘생, 노복선, 조인제, 이석화, 김자동, 이건우	산서성 대동	산서성, 하남성
제2지대	고운기	나태섭, 고시복, 지달수, 유해준	수원성 포두	차하르성, 하북성
제3지대	김학규	오광심, 신송식, 신규섭, 김광산, 오영희, 지복영	안휘성 부악	안휘성, 강소성, 산둥성 일부
제5지대	나월환	김동수, 박기성, 이하유, 이해평	서안	하남성, 하북성

490) 김병기, 「한국광복군의 조직과 활동」, 80쪽.

491) 김광재, 「한국광복군」, 109~110쪽.

당시 광복군은 창설 1년 이내에 최소한 3개 사단 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력모집을 통해 군대를 증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임시정부에서는 광복군의 징모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네 개 지대장에게 징모분처의 주임을 맡겨 사병의 초모를 독려했다. 그러나 각 지대 대원들은 자기의 활동구역에서 사병의 초모사업, 선전공작과 적 정보수집, 반정공작 및 유격전 감행 등을 전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군은 총사령부 성립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약 450여 명의 병사를 가진 군대로 발전해갔다.⁴⁹²⁾

광복군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초모활동, 교육과 훈련, 그리고 선전활동 등 자체적인 운영 및 조직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초모활동은 만주지역에 거주하는 120만 명의 한인 외에 중국대륙 각지에 이주한 한인들이나 일본군 점령지역에 한인들이 존재한다는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⁴⁹³⁾ 1940년 11월 서안에 총사령부 설치 무렵에는 군무부가 초모활동을 주관했다. 그 후 지대 편성과 함께 별도의 기구로 징모분처가 설치되었다. 대개 징모분처는 지대가 겸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지대의 창설 요원들은 징모분처의 책임자인 지대장의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병력을 모집하여 지대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⁴⁹⁴⁾

광복군은 초모활동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처음에 제2지대는 2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1945년 8월 약 250여 명의

492) 「光復軍現況」, 『韓國獨立運動史資料』 1(臨政編), 國史編纂委員會, 1970, 475쪽.

493) 한시준, 「한국광복군의 활동과 역할」, 『한국광복군의 창군과 역할』(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 한국광복군 창군 59주년기념 학술회의, 1999. 9. 21), 65쪽 ; 韓志成, 「目前環境與朝鮮義勇隊今後工作方向」, 『朝鮮義勇隊』 제34기(1940. 5)

494) 한시준, 『韓國光復軍研究』, 일조각, 1993, 237쪽.

병력으로 확대되었다. 제3지대는 8명의 징모 제6분처로 시작하여 1945년 6월 약 180여 명의 인력으로 늘어났다. 이제 1940년 9월 30여 명으로 창설된 광복군은 1945년 8월 총사령부를 비롯하여 3개 지대에 최소한 700여 명 이상의 병력을 가진 군대가 되었다.⁴⁹⁵⁾

교육과 훈련은 한국청년훈련반과 한국광복군훈련반에서 실시하였다. 한국청년훈련반은 전지공작대·제5지대·제2지대로 이어지는 서안지역 광복군을 담당한 훈련기관인이었다. 여기에서는 3개월간의 훈련을 마치면 중국군 소위로 임관시켰다. 그리고 한국광복군훈련반은 안휘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징모 제6분처에서 설치 운영한 훈련기관으로 주로 징모 제6분처의 기간요원들이 교육을 담당했다. 교육생들은 5개월간의 교육훈련을 마친 후 중국군 소위가 되었지만, 졸업



광복군 제2지대원과 미국 OSS대원(독립기념관 제공)

495) 한시준, 『韓國光復軍研究』, 241쪽.

생 가운데는 임정과 총사령부가 있는 중경으로 간 경우도 있었다.

선전활동은 광복군의 창설 사실과 그 존재를 알리고 광복군의 활동상을 국내·외에 알려서 국내외 동포들의 참여와 지원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광복군은 정훈처에 선전과를 설치하여 선전활동을 추진하였다. 주로 적 점령지역내에 있는 동포들이나 일본군내에 있는 한적사병(韓籍士兵)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중국전선에 있는 일본군의 사기 저하를 목표로 한 대적선전활동도 전개하였다. 그들은 심리전 활동을 통하여 일본군들에게 반전·염전사상을 유포하거나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하고 패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각종 외국어로 잡지나 전단 및 벽보를 만들어 배포했으며, 방송·전단·연극공연·음악활동도 중요한 선전활동의 매체로 활용하였다.⁴⁹⁶⁾

연합군과의 연합작전 광복군이 실시한 연합군과의 공동작전은 중국군, 영국군, 그리고 미국군과의 연합작전이었다. 중국군과의 관계는 대체로 국민당군과의 연합군으로서의 관계를 말한다. 광복군이 한·중 양군의 동맹군으로서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 반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중국군사위원회에서는 시종 광복군을 예속 관계에 두고자 했다. 따라서 이른바 ‘9개 준승’⁴⁹⁷⁾을 강요당한 지 3년 6개월만에 광복군이 독립성이 회복되었지만 양국의 연합관계는 상당 기간 불안정한 관계가 계속되었다.

496) 김병기, 「한국광복군의 조직과 활동」, 93~95쪽.

497) 정식 명칭은 ‘한국 광복군 9개항 행동준승’이다. 이는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1931년 11월 15일자로 광복군 총사령부 이청천에게 보내온 것인데, 기본적으로 광복군을 중국군의 예속 하에 둔다는 입장에서 광복군총사령부의 기구를 축소시켜 광복군의 지휘체계를 장악하고자 한 의도였다(한시준, 『韓國光復軍研究』, 167쪽).

반면에 영국군과 미국군과의 관계는 군사적으로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연합관계에 있었다. 광복군의 영국군과의 공동작전은 영국군의 요청에 의하여 인도 미얀마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면서 이루어졌다. 1942년 겨울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총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민족혁명당의 최성오·주세민 등 2명의 요원을 인도에 파견한 것이다.⁴⁹⁸⁾ 그들의 활동에 만족한 영국군은 더 많은 인원의 파견을 요청했는데, 그해 7월 민혁당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결국 광복군총사령부에서 신체조건과 어학능력을 고려하여 제1, 2지대에서 9명을 선발하여 인도파견공작대를 편성하였다.⁴⁹⁹⁾ 영국군에 배속된 광복군은 1944년 초 임팔(Imphal) 전선에 투입되어 최전선에서 대적 방송, 적문서 번역, 전단 제작, 포로 신문의 역할을 담당했다. 광복군은 소수였지만 영국군을 도와 심리전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광복군 대원들은 미얀마 탈환작전에도 투입되었다. 일본군에게 총반격을 개시한 영국군은 인도군을 비롯하여 중국군과 미국군 그리고 광복군을 동원하여 1945년 5월 수도 랑군(Rangoon)을 탈환하고, 7월에는 일본군을 완전히 패퇴시켰다.⁵⁰⁰⁾ 이로써 광복군의 활동범위가 인도와 미얀마 전선까지 확대되었고, 그 역량도 연합군과의 공동 연합작전을 수행할 정도로 향상되었다.

미국군과의 연합작전은 이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협력적이었다. 미군과의 연합적 관계는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창설한 후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대일전에 참가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황에서 미국을 위시한

498) 한지성, 「인도공작대에 대하여」, 『독립』 제3권 제75호(1945. 6. 13)

499) 한시준, 「한국광복군의 활동과 역할」, 77쪽.

500) 한시준, 「한국광복군의 활동과 역할」, 82쪽.

연합국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임정 승인과 전시참전외교를 시도한 결과였다. 1945년 5월 초 임시정부와 미국 간에 광복군이 임정의 군대임을 명문화한 새로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광복군의 미 전략첩보국(OSS : Office of Strategic Services)과의 합작훈련을 위한 긴밀한 관계가 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인들로 구성된 전투부대의 창설이 검토되었지만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⁵⁰¹⁾

그 후 OSS는 주미 외교부와 중경임정을 통하지 않고 소수의 한인을 모집하여 직접 훈련시키는 비밀작전인 냅코작전(Napko Project)과 독수리작전(Eagle Project)을 세웠다. 냅코작전은 재미 한인과 전쟁포로들을, 그리고 이글작전은 광복군과 일본군 부대에서 탈출한 학도병 등을 선발대상으로 한 특수작전이었다.⁵⁰²⁾ 냅코작전에는 특공대원으로 19명이⁵⁰³⁾, 독수리작전에는 58명의 한국인이 참가했지만, 그들은 전쟁이 끝날 무렵에야 훈련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일전에는 투입되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⁵⁰⁴⁾

광복군의 활동은 영국군과 합작으로 인도·미얀마 등에 펼친 공동작전은 물론이고 미 OSS와의 합작으로 항일독립전쟁의 활동범위와 합작대상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질적으로도 심화되었다.⁵⁰⁵⁾ 그러나 미 OSS와의 합작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해방을 3~4개월 앞두

501) 백기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지도자들의 국방·군사관」, 『군사논단』 제69호, 2012, 224~227쪽.

502) OSS를 통하여 추진된 한미공동작전으로서 ‘이글작전’과 ‘냅코작전’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다. 전반적인 안내로서 김광재, 「한국광복군의 한미공동작전과 의의」, 『군사』 제52호, 2004를 참조. OSS에 관한 자료로서는 『OSS 재미한인자료』(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30, 미주 편 ⑧), 국가보훈처, 2005가 있다.

503) NAPKO PROJECT OF OSS, 국가보훈처, 2001, 754~771쪽.

504)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출판부, 2004, 452쪽.

505) 김창수, 「大韓民國臨時政府의 軍事活動」, 『한민족독립운동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90, 342쪽.

고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성과 차원에서 볼 때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것은 미국 정부나 중국 국민당정부의 임정 및 광복군에 대한 통제라는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군의 군사 활동은 정보 및 심리전 분야에서 현대적인 군사사상과 전술을 섭취할 기회가 되었다.

광복군의 심리전이나 정보 분야에 대한 경험은 후일 통위부의 정보국 편성과정에서나 국방부의 제4국(정보국) 설치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대북첩보활동과 탐색공작을 위해 특수정보국의 설치는 이범석 장관의 강력한 의지로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의 반대를 극복한 결과였다는 점에서⁵⁰⁶⁾ 광복군의 정보 분야에 대한 경험적 유산이 그대로 건군 과정에서 구현된 것이었다고 하겠다.

건군을 향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추진한 국군의 건설 노력은 광복군의 창설로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과 경험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건군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하고 국방 건설을 도모하는 토대가 되었다. 군사사상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건군사상과 국방 건설의 방향에 기여를 한 대표적인 인물은 이범석, 김홍일, 채병덕 등이다.

이범석은 광복군 참모장을 역임한 인물로 초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국방부훈령」(제1호)를 통해 건군목표와 정신을 명확히 하면서 국군의 성격을 국방군(國防軍)으로 규정하는 한편, 장병의 정신자세 및 군기와 실천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 장관은 국방군의 정신적 요체로서 진충보국, 군기엄수, 친애협동, 미덕발양, 근면충실, 정

506) 백기인,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21쪽.

성단결을 제시했으며, 건군의 지도지침으로서는 정병양성을 위한 사병제일주의를 내세웠다.⁵⁰⁷⁾

또한 중국군에서 군사적인 경험을 채득하고 광복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김홍일은 군의 이념 및 정신무장 분야에서 실무적인 성과로 건군작업에 기여하였다.



새로 편성된 정부의 조직으로서 국방부의 정치국(후에 제2국을 거쳐 정훈국으로 개칭)에서 장병사상의 선도와 정신무장을 위한 제반 군사업무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⁵⁰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현대적인 개념의 국방관념과 사상 등을 피력한 저술을 남겨 한국군의 현대적인 군사력 건설의 방향과 성



김홍일과 그의 저서 '국방개론'

격을 조망해볼 수 있는 업적을 남겼다. 그는 한국군이 근·현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군사관념에서 탈피하여 근대적인 군사관념을 체득할 실제적인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507)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훈령」(국방부훈령 제1호, 1948. 6. 16)

508) 國防部, 『國防部史』 제1집, 1954, 203쪽. 국방부 초기의 조직에 대해서는 國防部, 『國防部史』 제1집, 1954 및 國防部, 『政訓大系 I』 제1집, 1956 등을 참조할 것.

김홍일은 국방의 본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⁵⁰⁹⁾

사람은 살아야 한다. 입고 먹고 살 것은 생활의 절대적 조건이다. 절대조건인 의·식·주를 어떻게 획득할까는 생활을 위한 자위력(自衛力)이다. 이 자위력을 국가민족에다 확대시킨 것이 「국방」이다. ... 그러기에 이해가 상반되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집단은 점차로 적대행위를 시작하여 냉전(冷戰)에서 혈전(血戰)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그로세웨치는 “인류의 적대감정과 적대의도는 인류투쟁의 2대 요소”라고 했거니와 이 적대감정과 적대의도야말로 「국방」 건립의 정신적 원인이다.

김홍일은 국방에 대하여 철학적 성찰을 하면서 국가생활에 필요한 목적물을 획득하는 데는 소극작용과 적극작용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 여하에 상관없이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방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민족국가 간에는 그 천연자원의 보유 정도와 산업기술의 발전 정도가 달라 결국 국방의 형식과 내용에 변화가 생긴다고 보았다. 그러한 국가 간의 불균형 속에서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방의 건설, 개선, 증강이란 민족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국가와 국가간의 국방역량은 장기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요구하는 「안전」은 끊이지 아니하고 위협을 받게 된다. 육·해·공군을 완비하지 못한 국가민족은 완비한 국가민족에게, 육·해·공군 역량이 박약한 국가민족은 확후한 국가민족에게, 기술이 낙오된 국가민족은 기술이 진보된 국가민족에게 항상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것으로 보아 인류가 자연을 정복하는 방법이 휴지되기 전에는 국방의 건설, 개선, 증강도 결코 휴지되지 않을 것이다. ... 국방이란 국가자존의 길이다. 인민의 생명재산과 국가 영토주권과 사회

509) 金弘壹, 『國防概論』, 고려서적주식회사, 1949, 11~13쪽.

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는 이외 국책의 수행과 국가기능을 발휘하는 원동력이라 말로 국방력이다.⁵¹⁰⁾

이러한 인식 하에 그는 평화를 보장받으려면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대에 와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쟁의 양상이 참혹한 양상을 띠게 되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현대적인 전쟁이 비극적인 실상을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전쟁을 면할 수 있지만 언제나 ‘노예의 철쇄(鐵鎖)와 멸망의 비운은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⁵¹¹⁾

그런데 ‘현대전쟁’은 그 양상이 ‘전체성 전쟁’인 만큼 국가총동원에 의한 총력국방이 요구된다. 그러나 총력국방에 의한 현대전쟁의 수행은 일국의 총력국방 만으로는 ‘힘의 부족’ 때문에 승리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현대전쟁의 성격상 집단과 집단 간의 ‘연합전쟁’으로 변화된 까닭에 ‘연합국방’이 요구된다.⁵¹²⁾ 이러한 점에서 연합국방은 다분히 전략적 의미를 갖는데, 김홍일은 연합국방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방전략을 감안하면서 동시에 국방건설론과 결부시켜 상론하였다.⁵¹³⁾

김홍일은 국방의 요소를 인적 요소, 물적 요소, 종합 요소 등 3요

510) 金弘壹, 『國防概論』, 14~15쪽.

511) 金弘壹, 『國防概論』, 18쪽.

512) 金弘壹, 『國防概論』, 23~24쪽.

513) ‘연합국방’의 개념은 신생 대한민국 초기의 국방전략·정책이기도 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공산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방국, 특히 미국과의 연합이 중시되는 전략적 연합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백기인, 「건국 직후(1948~1950) 국방정책의 형성과 그 성격」, 『군사』 제46호, 2002를 참조.

소로 구분하고, 특히 종합 요소를 사람·물질·정신을 고려할 수 있지만 기술과 조직으로 국한시켜 검토하였다.⁵¹⁴⁾ 그가 말하는 기술이란 인력과 물력의 종합으로 물질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국방기술을 가진 국방인력이 요구되며, 그 근간에 기술·공업·과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 전쟁의 양상이 과학적인 동시에 조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국방조직의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국방조직은 군사조직과 생산조직, 정치조직, 문화조직 및 총동원조직으로 나누어지며 무엇보다 경제동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서는 자본의 생산과 축적, 자원의 사용과 배분, 그리고 재정금융의 조절과 통제를 통하여 이른바 ‘경제동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국방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⁵¹⁵⁾

결국, 경제는 국방의 기초이고, 국방건설은 바로 먼저 경제동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론이었다. 이러한 입론에 기초하여 그는 국방건설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진행했는데, 그에 의하면 국방건설은 크게 볼 때 국방군 건설과 국방경제 건설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국방군 건설을 위해 병력과 그 편성 및 장비와 간부의 양성 문제를 중시하고, 군사인력의 양성체계를 예비사관학교와 사관학교 및 각군 대학과 국방대학원의 형태로 구획하였다. 또한 국방경제 건설이 산업의 공업화와 군사화라면서 국가경제의 중공업, 군수공업, 교통의 건설 등에 대한 계획적 추진을 강조했다.⁵¹⁶⁾ 그가 국방건설을 단순히 군사력 건설에만 국한하여 인식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

514) 金弘壹, 『國防概論』, 25~36쪽.

515) 金弘壹, 『國防概論』, 37~77쪽.

516) 金弘壹, 『國防概論』, 95~96쪽.

서 경제건설문제와 연계시켜 국가건설·발전과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했던 점은 매우 특징적이다.

한편 초대 국방참모총장을 역임한 채병덕은 한국군의 건군 이념과 군제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제시하며 국군의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병역제도의 시행을 추진하였다. 그가 제시한 건군의 이념과 국군의 사명 그리고 군제에 관한 입론은 다음과 같다.⁵¹⁷⁾

건군의 기본이념 : 우리는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토와 민족을 보위하는 정당한 권위를 보유하는 국방군을 창설한다.

국군의 사명 : 군의 사명은 국토와 민족방위, 즉 국방은 외국의 내침에 제하여 국토를 방위하고 민족을 보위하며 주권을 옹호하는 3대 조항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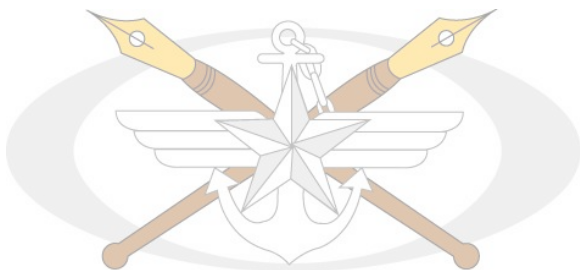
군제 : (가) 군을 편제하고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일, (나) 군을 일정한 의도에 의하여 민활히 지휘 운용하는 일, (다) 군의 질서를 유지하고 규율을 확립하는 일로 대별하는데, 즉 (가)는 군정(軍政) 사항, (나)는 군령(軍令) 사항, (다)는 군법(軍法) 사항이라는 것이다.

군제에 있어 군정과 군의 관계 : 상기 상술한 요강에 있어 항상 논의가 되는 것은, 즉 군정과 군령의 관계이며 이 양자를 여하히 관련시키는 것이 유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연구사항이다(중략 : 세계 각국과의 비교).

이러한 관점에서 채 총장은 군제를, 헌법체제를 통한 군령의 확립과 통수권 행사에 관한 헌법상 조직으로서 내각제와 대통령제 하 통수권의 수립, 나아가 그 기초와 원칙이 “민족의 군대요 국가의 군

517) 채병덕, 「건군의 기본 이념과 군제 편제」, 『수산경제신문』(1948. 10. 12)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8, 1998, 693~694쪽.

대”라는 점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한민국 국군이 일 개인이나 장령의 군대가 아닌 ‘헌법에 의해 창설된 진정한 민주주의 국군’ 이라고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을 시행함으로써 현대적인 의미에서 징병제에 의한 국민개병제를 실현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맺 음 말

19세기 중엽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일본의 대응은 인접국인 중국이나 한국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이었다. 1853년 7월 페리 제독의 함포외교에 수호조약(1854)으로 응대하며 전격적으로 개항한 일본은 1880년대를 거쳐 자국의 산업혁명의 성공에 힘입어 1890년대에 들어와서 대륙침략의 길로 나섰다. 메이지정부 초기에 제기된 정한론(征韓論)에 바탕을 둔 일본 제국주의는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강력한 상대자였던 청을, 그리고 1904년 노일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다시 러시아를 배제시키면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했다.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한국사의 마지막 왕조국가인 조선은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내수적 대응’을 포함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권을 수호하고 자강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국 조선은 자구적인 노력에 의한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하고 일제에 의한 식민지의 질곡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군사적으로 조선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물리적인 수단으로서 근대적인 군사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열강의 이권쟁탈전 속에서 고식적인 제도의 개편을 반복하다가 1907년 군대마저 강제로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국가 최후의 방호수단인 군대가 없어진 조선왕조는 1910년 마침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병탄되고 말았다.

한국의 역사상 조선 왕조 말기로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45년 광복에 이르는 역사적 경험은 군사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의 모든 역량이 민족의 독립과 독립국가의 건설에 집중되었던 만큼 ‘군대의 건설’과 근대적인 국가의 형성 안에서 새로운 국방·군사체제를 모색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근대적인 군사이론과 사상을 배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정부의 군제개혁과 그 한계

1866년 제너럴셔먼호의 침공을 받은 조선의 조정은 해방(海防)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계 강화를 지시하는 등의 군비증강을 서둘렀다. 이 시기의 실질적인 집권자였던 대원군은 삼군부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 군사의 최고기관으로 삼고, 중앙 군영의 상비군적 성격을 지닌 급료병을 대폭 증강함과 동시에 포군 중심으로 군 정예화를 시도하였다. 각 영의 병력을 보충했으며, 넓은 군기를 수선하고 전선을 즉각 보수하며 주포소를 신설해 화포 제작을 도모함으로써 군비증강에 힘썼다. 재정적으로도 각 도의 주세 수익을 병영에 배정하여 군수비로 삼았다. 이로써 노약자로 가득 찬 1만 6천 명의 오군영 병력을 교체하여 그 면모를 정비했으며, 특히 강화도에는 도성방위의 전초기지로서 진무영을 설치하여 외침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보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제한적인 성과에 그쳤다. 대원군의 군사개혁의 목표는 왕권강화에 있었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외세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대원군이 대외정세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내수 위주의 외세에 대한 고식적인 방책에 불과했다. 해방령이나 이른바 ‘쇄국정책’의 의지가 말해주듯이 대원군은 전통적인 육방(陸防)이란 관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위협세력으로서 해방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나 그가 인식한 해방은 지역성에 치중한 것으로 위협의 대상인 외압의 실체와는 거리가 있는 해방관념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유원지의(柔遠之義)’의 원칙에 입각하여 강고한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을 견지하고 외세를 배격한다는 종래의 쇄국노선을 고수하였다.

결국 개방의 속도와 능력이 문제였다. 개방은 시기적으로 좀 더 늦어지면서 외압에 대한 조선의 자주적인 대응력을 더욱 협소화시켰다. 더군다나 개방 이후 열강의 이권쟁탈이 가속화된 대외적인 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조선이 근대화를 이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1873년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자 조선 정국은 문호개방의 움직임 속에서 복잡한 세력 갈등으로 요동쳤다. 국왕 고종이 할 수 있는 조처는 왕권 호위 차원에서 군사적 기구에 변화를 시도하는 것뿐이었다. 1876년 일본에 강제로 개항한 이후에야 군사개혁이 본격화되었다. 고종은 1880년대까지 2차에 걸쳐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 근대화의 실상’을 확인했으며, 청에는 자문을 구하며 이른바 ‘무비자강(武備自強)’을 내걸며 군사 근대화에 부심하였다.

그런데 고종은 일본의 군사교관을 영입하면서도 청국식 무기체계를 들여오려는 이중성을 보였다.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결과 종주국인 청국에도 의존하려는 심리 양상을 띠었던 것이다. 청국도 일본을 견제할 의도에서 이홍장을 내세워 이른바 ‘외교적 지도’라는 명분으로 조선의 서양 열강과의 통상 체결을 중용하며 조선에서의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국왕이 스스로 대외정세의 변화를 인식하고 서양의 근대문물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신식 군대를 창설하여 부국강병을 도모한 것은 큰 변화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고종이 ‘군사적 신식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에 왕조의 여건이 너무도 열악한 상태였다. 무엇보다 재정의 부족, 신식 무기 제조에 대한 유학생들의 학습능력의 미달, 그리고 국왕 자신의 건강 악화 등이 겹쳤고, 임오군란(1882)마저 일어나 결국 조선의 자주적인 군 근대화를 좌절시키고 말았다.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통해 1884년

정령'을 내걸고 다시 군제개혁을 제기했으나, 정변의 실패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일본으로 망명한 박영효가 군제개혁안을 1888년 '건백서'로 성안하여 조선의 근대적인 군제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바로 실현될 수 없었다.

결국 조선의 군사적 상황은 외세의 영향에 의한 정국 변화에 따라 청 군제나 혹은 미국과 러시아 군제 등의 영향 속에서 혼재된 신식 군대의 면모를 보였다. 조선의 군제는 외적으로 청국의 영향 하에서 친군4영을 두었으나 1888년 통위영, 장위영, 총어영 등 3영으로 개편되었고, 다시 1891년 북한산성의 수비를 명목으로 경리청을 추가했다. 그 후 1894년 갑오경장으로 친일정권이 들어서자 박영효가 주도하는 군제개혁이 시도되었다. 그가 '건백서에 의한 개혁안'을 일시적으로나마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고종은 아관파천을 통하여 일본 세력을 배제한 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자주적인 군사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고종 황제는 1899년 원수부를 설치하여 통수권을 장악하고 군사력 강화에 주력하였다. 군령기관으로서 원수부는 군정기관인 군부와 함께 이원적 국방체제를 형성하게 되었고, 러시아식 편제에 의한 시위대를 기본 편제로 중앙군과 지방의 진위대를 기본 군사조직으로 편성하였다. 대한제국군은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편제상 18,000명의 군사를 보유하는 국방군으로 발전해갔다.

그러나 일제는 러일전쟁을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한국주차군사령부'를 설치하고 대한제국군의 원수부를 무력화하는 한편, 참모부와 군부를 통합하여 부대의 감축을 단행하고 일본식 군대로 재편하여 대한제국의 군대를 무장해제하는 수순을 밟았다.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이 사실상 반(半)식민지로 전락하자 마침내 일제는 고종 황제 퇴위에 반대하는 군중 시위에 시위대

가 가담한 사건을 빌미로 1907년 8월 1일 강제로 군대 해산을 단행하였다.

절충과 수용의 전환기적 병학사상 태동

고종이 군 근대화를 본격화한 이래 조선군은 신식군대의 체제를 갖추어가는 가운데 외국 병학을 수용하며 근대적 병학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중국식 양무자강운동이나 아니면 메이지유신을 따를 것인가 혹은 유교사상을 고수하면서 서양의 기술만을 채용할 것인가 하는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부국강병을 지향한 것은 공통적이었다.

신현의 주도로 훈련도감에서는 무기제조와 함께 실제 무기나 화약 등에 관한 병서를 편찬하였다. 『훈국신조군기도설』이나 『훈국신조기제도설』 그리고 화약의 제조법을 다룬 『자초신방』 등이 그것이다. 또한 『손자수』와 같이 전통적인 병서를 병인양요의 체험과 결부시켜 해석하면서 전통 병서의 가치를 재검토했던 병서도 나타났다. 이와 거의 동시대에 발간된 『병략신문』에서는 서구의 외적으로부터 조선을 방어하고 그 내실을 위한 방책을 제시했는데, 병(兵)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과 서양 세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별개로 보지 않고 동일시한 점이 특징이다.

이 무렵부터 근대적인 군사제도에 대한 시찰보고서나 병서 및 전쟁사 관련 서적 등이 소개되거나 군사교범의 형태로 간행되었다. 이 제는 임진왜란 당시 들어와서 조선후기 내내 활용된 『기효신서』와 이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개조한 『병학지남』에서 벗어나 새로운 근대적인 군제와 병학에 관한 서적들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외국의 병학서들이 다수

간행되었는데, 주로 일본의 것을 참조한 것이 많았다. 기술교범으로서 일종의 화기서인 『구포기계여장방법』, 일본육군 시찰보고서인 『일본육군조전』, 군제와 군례에 관한 『군제학교정』, 『동국명장전』, 『을지문덕』, 『이충무공실기』, 『비율빈전사』, 그리고 전쟁사류인 『파란말년전사』, 『가리미아전사』, 『법국혁신전사』, 『보노사국』, 『후레두릭대왕칠년전사』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이렇듯 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각종 병서나 근대적인 군사학술에 관한 저술이 활발하게 간행되는 가운데 실제 부대의 교육훈련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대한제국 성립 직후부터는 대한제국군의 정예화에 고종 황제를 비롯한 군부 전체가 큰 관심을 갖고, 교범과 각종 법제의 형성을 통해 근대적 군사체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1896년 설립한 육군무관학교에서는 전술학, 화기학, 학술학 등의 근대적인 군사교육체제를 운영하였다. 당시의 병서들은 국한문 혼용체로 근대적인 서술체계를 갖추었고, 러시아 교관의 지도처럼 일부 외국인의 참여가 있었지만 대한제국기의 군사 교재나 교범의 발간은 적어도 대한제국 정부의 자주적인 의지의 산물이었다. 『보병조전』이 개정을 거듭하고 『육군법률』이나 『전술학교정』 등의 발간이 군부(軍部)의 주도로 추진되는 가운데 근대적인 전쟁관념을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군사력 건설과 운용을 도모했던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특히 대외관계의 변화 속에서 조선의 해방 관념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조선 정부의 해방책은 사사로이 외국인과 교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금(海禁)’·‘변금(邊禁)’이 기본 원칙이었다. 외교적으로 사대교린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근 연안에서 발생

하는 우발적 접촉이나 교류에 대해 ‘배타적 선린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조선의 종래 해방관념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원칙이 도전을 받았다. 18세기에 들어와서 조선 연해에 이양선이 출현한 것과 연계하여 새로운 해방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물론 청의 침공도 가상한 해상방어론이 대두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의미있는 해방론의 변화는 19세기에 들어와서였다. 근대의 전쟁 양상을 이해하기 시작한 조선 지식인들은 서양 세력의 침략적 본질을 간파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했다. 처음에는 서양의 침략에 대해 ‘내수적 대응’의 대책이 고작이었다. 그러던 중 1866년 병인양요와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겪은 이후 새로운 해방론을 제기하면서 보다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서양의 직접적인 무력침공인 양요를 겪으면서 조선의 해방론은 크게 제도의 개선과 전략전술의 변화라는 두 측면으로 전개되었다. 제도 개선에서는 제한적이었지만 해방과 관련된 무기체계의 변화로 서양 함선을 격침시킬 무기 제작이 수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비로서 공격을 삼는다’는 지구전 전략과 무력충돌을 회피해야 한다는 ‘피전의식(避戰意識)’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해상 전투보다 강방(江防)에 중점을 둔 것도 그러한 반증이었다. 다시 말하면, 서양의 무력 침공 앞에서 전술적인 이점을 살려 강안으로 끌어들여 전투를 한다는 제한적인 군사방책의 제시였다. 따라서 당시의 해방론은 ‘부국강병’의 창으로서 서구 해양세력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그 힘의 실체를 이해하며 조선의 근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상적 선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해방에 대한 관념은 갑신정변 이후 1883년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의 창설로 근대적 해군 건설에 첫 발을 내딛게 하는 사상적

전환을 거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1893년 강화도에 해군학당(海軍學堂)을 세워 근대적인 해군교육제도를 실험적으로나마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군사사상적인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의병부대와 ‘의병전쟁론’의 형성

한말의 의병투쟁은 1894년 일제가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이른바 ‘갑오변란’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하여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과 1907년 군대해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의병의 정신은 유생 의병장들이 강조했듯이 ‘처변삼사(處變三事)’의 하나로 위기의 때에 ‘무기를 들고 일어난 선비의 정신’, 바로 그것이었다. 의병 진영에서는 점차 상당수의 포군이나 포수와 활빈당 등이 합류함으로써 전투능력을 향상시켰다. 특히 군대해산 이후에는 해산된 군인들마저 가담하여 유생과 군인 외에도 농민·포수·광부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구성을 이루었고, 그 조직력이 그 이전보다 수월해졌다.

흔히 중기의의병이라고 말하는 1904년 이후의 의병전쟁에서부터는 구국의병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투쟁의 양상은 반제국주의적 구국이념 하에서 일본 군대를 직접 공격의 목표로 삼은 전국적인 ‘의병전쟁’의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의병전쟁은 아직은 복辟주의(復辟主義)를 전제로 한 근왕운동(勤王運動) 차원의 국권수호운동이었다. 일제는 이에 대하여 ‘남한대토벌작전’이라는 초토화작전을 통하여 의병 부대를 무력화시켜 나갔고, 이로써 1910년을 전후로 대부분의 의병들이 만주와 간도 그리고 연해주 등 해외로 망명하거나 비밀결사의 형태로 투쟁방식을 전환해야 했다. 해외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한 의병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근대국가의 이념 하에서 공화제를 전망하면서 독립과 국가건설을 목표로 독립군 부대를 통

한 독립전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의병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의병정신은 국혼·국수론(國魂·國粹論), 성패불수론(成敗不須論) 그리고 반일자주론(反日自主論)이었다. 백암 박은식이 말했듯이 그들은 ‘성과보다 죽음을 무릅쓴 저항정신’을 무기로 일어난 민병(民兵), 곧 국민의 군대였다. 그래서 의병의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초개처럼 버리는 결사감전(決死敢戰)의 정신은 민족사를 통하여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 일어난 주체적 항쟁의식에 맞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병은 군대해산으로 군사경력자 등이나 산포수와 같은 사격술이 능한 자들이 합류함으로써 그 투쟁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을미의병 직후에 거의한 유인석 의병장은 의병전쟁을 단지 무장투쟁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근거지’를 마련하여 장기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방략을 제시하고 실천하였다. 이른바 ‘근거지전략’이란 국내에서의 투쟁 근거지를 마련하고, 북계(北計)에 따라 한반도의 서북지역과 간도 지역 등 러시아 접경지역에서 의병전쟁을 전개한다는 지구전(持久戰) 전략이었다. 지리적인 것은 물론이고 인적·물적 조건이 근거지 형성에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가 1908년 8월 이범윤 부대에 합류하면서 제시한 ‘관일약’이나 ‘의병규칙’은 근거지 군중의 결속과 의병의 정신 및 생활준칙을 명문화 한 것으로 의병전쟁의 정신적 요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의병의 속성이 군대인 만큼 엄격한 기율체계가 중요하고, 따라서 전투편성이나 명령체제 나아가 군대의 재정과 화목·단결 등이 의병진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의병전쟁은 의병부대 간의 연계가 크게 강화되면서 전국적인 합동작전의 단계로 발전되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이인영이 이끈 13도 의병연합진이다. 총대장 이인영은 관동의병부대를 위시하여 대규모의 연합부대를 편성하고 서울로 진격하여 친일매국노와 일본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자 이른바 ‘서울진공작전’을 계획했다. 그러나 13도 연합의병은 형식적으로 전국적인 편제를 취했지만 지휘체계가 복잡하고 기동성이 미약하여 근대적인 전투력을 갖춘 일본군과의 접전이 애시당초 어려웠다. 해산 군인 3천 명이 합류했지만 화력마저도 재래식 화승총에 의존하던 터라 전력상으로 크게 열세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개시된 서울진공작전은 허위의 선봉대와 이인영의 본대 간의 작전적 연결이 실패한데다가 부친의 부음을 접한 이인영이 효(孝)와 충(忠)이 별개가 아니라며 귀향하여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13도 의병연합은 의병부대 간의 연합작전을 통해 전쟁의 목적과 전투의 목표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것은 의병전쟁의 조직력이나 체계적인 투쟁의 방식에 대한 각성의 결과였고, 그만큼 치열해진 제국주의 일본군을 타도하겠다는 투쟁의지의 강화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에서 의병정신의 본래 바탕이기도 한 유교사상 내의 가치대립을 겪으면서 한계에 직면함으로써 의병이 유교사상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의병전쟁을 국민적인 저항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없음을 드러냈던 것이다.

한편 경술국치 후에도 계속된 의병의 항일투쟁에서는 단지 일본군의 침략에 물리적으로 맞서는 것 외에도 독자적인 정부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었음이 주목된다. 군 정부의 건설이 복벽주의에 입각한 일종의 근왕운동의 성격이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지만 의병전쟁을 정부 구성과 연계하여 전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태인 의병 출신의 임병찬이 주도한 대한독립의군부가 대표적이다. 대한

독립의군부는 군정체제로 중앙에 원수부를 두고 그 예하에 민사행정의 하부조직과 군사행정의 하부조직으로 편성되었다. 전통적인 민보조직이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투쟁의 방식은 무력투쟁을 포기하고 일제의 통치를 규탄하는 평화적인 형태를 채택하였다. 독립군으로 이행하기 직전의 의병에 의한 군 정부건설운동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1919년 대한제국광복군정사와 같은 의병재건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점차 북벌주의의 대중적 기반이 사라져 갔기 때문에 결국 의병전쟁 계열의 정부 건설 운동은 3·1운동 직후에는 공화제를 전망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듯 민간의 향촌질서와 군사조직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일체화하는 움직임이 의병부대의 편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말하자면, 민군합일의 무장투쟁성을 갖춘 의병조직이 형성된 것이다. 이강년이 이끈 의병부대의 편성은 그러한 면모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한말 무과 출신의 의병장 이강년은 유인석 의병의 유격장으로서 전기 의병 때에도 활약했지만, 특히 후기의병이라고 할 1907년 이후의 의병전쟁에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일본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의병항쟁사에서 보기 드문 엄청난 전투경력과 전적을 남겼다. 구식 군대의 맹장이었던 그는, 신식군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민공호의 의병진과 연합했으니 이들의 의병투쟁은 신식 군대와 구식 군대의 조화로운 연합이었다. 그의 의병부대는 일본군의 대토벌작전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방수장체제를 운영함으로써 군수물자의 조달을 효율화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 평민층은 직접 몸으로 의병진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부대 구성원의 80%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강년은 군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촌락을 보호하는 일에 신경을

졌으며, 특히 일부 의병들의 개별적인 물자징발을 작폐로 단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했다. 그의 부대는 엄격한 기율과 통제 하에서 가평 일대 등 일정한 지역을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했는데, 그의 의병진에 대한 편성이 ‘속오작대법’을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확인되고 있다. ‘속오작대법’에 따르면 그의 부대는 기본적으로 10명을 기준으로 하는 편제를 유지하는 조선후기의 지방군제에 잔존한 속오군제의 부대 편성을 변형시킨 것이었다. 향촌의 민보체제를 계승하면서 향촌 조직과 민병 조직을 결합시켜 의병부대의 전투편제를 구성한 것이 이강년 부대의 특징이었다. 이는 이강년 의병부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쟁능력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독립군 부대와 ‘독립전쟁론’의 전개

1910년 경술국치를 전후로 의병전쟁의 주된 무대는 만주·연해주로 옮겨졌다. 투쟁의 주체도 종래의 의병부대 형태에서 탈피하여 점차 다양한 계통의 인사들에 의해 근거지를 기반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군사교육훈련을 거쳐 양성된 자원들이 담당하였다. 그들은 전문적인 군사지도자들에 의해서 지휘되는 독립군 부대의 편제 안에 편성된 전문 전투원들이었다. 이제 독립군 부대는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무장투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항일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들의 군사사상은 오직 독립을 우선시하는 ‘독립전쟁론’으로 집약되었다.

3·1운동 직후에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항일전을 표방하고 일어난 독립군 부대는, 처음에는 게릴라전 형태의 작전방식을 취하면서 국내진공을 시도하거나 일본군의 초소나 보급기지 등을 공격 목표로 삼고, 부대 간의 연합작전을 도모하여 정규 일본군과 대담

한 전투를 전개하기도 했다.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등이 그 대표적인 성과다. 그러나 독립군 부대는 대대적인 일본군의 토벌 작전과 러시아 지역에서 적군의 배반 등으로 인해 독립전쟁에 타격을 입고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주도하는 ‘독립전쟁’에 가담하거나, 혹은 만주지역에서 독립전쟁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10년 의병전쟁이 해외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열전 청도전략회의는 문화투쟁과 무장투쟁의 결합적 가능성을 타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그 무렵 신간회가 주도한 서간도 독립운동과 독립군 기지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즉전즉결론(卽戰卽決論)을 실현할 무력조직으로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신흥무관학교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독립군 부대가 주축이 되어 독립군 기지건설과 독립전쟁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독립군은 기본적으로 징집과 모병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독립군의 부대 편성은 독립운동단체가 이미 근대적인 군사제도와 전투방식을 실현해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부대의 병력은 징병의 대상을 평균 30호를 1구(區)로 구획하고, 15~25명을 선발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병의 경우에도 독립운동지도자들이 초모하여 입대한 후 소정의 증명서를 발급하여 그들의 신원을 증명하였다. 편성 및 장비는 대한제국의 편제를 적용하거나 일본군·중국군의 편제를 적용했고, 부대 규모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편제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개인장비는 소총 1정에 탄약 500발을 휴대했고, 수류탄과 비상식량도 일정량 휴대했으며, 부대 전체적으로 약간의 기관총을 보유하기도 했다. 군사적 요충지에는 근거지를 마련하고 막사와 연병장 등의 시설을 갖춘 병영을 건설하여 교육과

훈련을 겸하면서 항일독립정신과 구국의 의지를 불태웠다.

예컨대, 신민회의 구국투쟁정신을 계승한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보통학교 교육은 물론 군사학을 전수하는 특별과정을 두어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의식을 일깨우며 만주지역에서의 독립전쟁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였다. 독립군 부대인 서로군정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독립군 양성의 근간으로서 당시 신흥무관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육 내용은 근대적인 인간교육을 위한 기본 교육과 시대적 과제인 민족의 독립을 일체화시킨 항일투쟁정신에 뿌리를 두었다. 학교의 편제는 기본적으로 연대를 기준으로 한 군대의 부대 편성을 유지했고,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둔전병제도와 같은 현지 경작을 실시하기도 했다. 교육의 일과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면서 항전태세 하에서 군사적인 전술전기와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한 독립군으로 양성되었다.

북간도의 대표적인 독립단체인 북로군정서가 운영한 사관연성소의 교육체계 또한 독립군 양성을 위한 문무교육을 실시했는데, 당시 주변국의 근대 군사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인물들이 총집합하여 실시한 군사교육이었다. 교육과정은 6개월에 불과했지만 북로군정서에서 가장 강한 군대인 교성대(敎成隊)를 조직할 정도로 독립군의 골간이 되었다. 교육 내용은 근대적인 학문 교육 속에서 민족정신의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과 함께 엄정한 군기를 유지한 가운데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형태였다. 대한제국의 육군무관학교의 전통이 외국의 군사교육적 경험과 결합되어 더욱 근대적인 교육체계를 형성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만하다.

한편 독립군의 양성을 위한 교육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1930년대에는 중국 군사교육기관에서 수학한 한인들에 의해서 직접 군사교육

기관이 운영되기도 하였다. 김원봉이 설치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가 대표적이다. 교육 내용은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의 그것과 유사했다. 일제에 대한 파괴·기습·유격전 등 특무활동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교육훈련 기간은 6개월의 단기 과정이었다. 일과는 오전 6시에 기상을 시작으로 오전의 학과 교육과 오후의 야외훈련으로 편성되었다. 간부학교의 교육내용은 크게 정신 교육, 정치 교육, 군사 교육이었다. 정신 교육은 단체 생활수칙, 혁명 정신 및 인생관의 배양에 치중했고, 정치 교육의 내용은 한국 역사, 주의·사상, 정치 제도 등이었다. 군사 교육의 역점은 군사 법령, 군사 지식, 정보·폭파·전술 등 군사 기능의 숙련에 있었고, 일제와의 총결전사 대중 역량의 조직화·체계화를 선도할 중견 간부 양성에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독립군 양성을 위한 군사교육은 독립군에 의한 독립전쟁의 각 전투에서 그대로 전투역량으로 발휘되었다. 홍범도 부대는 독립전쟁을 전개하면서 과감한 국내진입작전을 시도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군 19사단의 추격대대를 봉오동에서 매복작전을 통해 섬멸하여 독립전쟁사에 봉오동 전투의 명성을 떨쳤다. 봉오동 전투에서 최진동 부대와 합동작전을 전개한 것도 특징적이지만, 사전에 정보파악을 통하여 적을 매복지역 깊숙이 끌어들이는 유인작전이 주효한 전투였다. 기본 무기로 근대적인 개인화기를 구비하여 일정한 전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화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적 정보의 활용과 유인작전 등을 근대적인 무기체계와 결합시키는 전술적 운용력을 발휘한 결과였다. 홍범도 부대의 전술적 작전에 의한 승리는 독립군 부대가 군사적으로 게릴라식의 일회성적인 전투를 넘어서 보다 조직적인 전투 체계에 의한 정규적인 전투형식에 맞설 수 있는 전투능력을 체득했음을 잘 보여준다.

김좌진이 주도한 청산리 전투는 백운평 전투를 비롯하여 어랑촌 전투, 그리고 천수평 전투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유격전의 묶음’이었다. 그래서 청산리 전역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단순한 유격전이나 유격전의 묶음을 넘어선 발전된 독립군의 전투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삼도구 청산리의 김좌진 부대(북로군정서)와 이도구의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 간의 합동작전은 봉오동 전투보다 더욱 발전적이고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 독립군 부대가 이룩한 성공적인 결과였다. 일본군의 정규군과 맞붙은 독립군의 항전은 결사적이었고,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의 무장단체로서 병영을 운영하며 엄격한 편제를 갖추고 일본군 정규부대와 맞서는 전투력을 발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독립군 부대의 군사적 성과에 힘입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1920년대 초기부터 독립운동의 방략을 ‘독립전쟁론’으로 규정하고 이념적으로나 정책·전략적으로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근대 군대의 건설과 국민개병제의 지향

1919년 9월 여러 임시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정식 군사조직은 없었지만 군사·외교·교육·재정·사법·통일 등의 정부 조직을 편성하고 군사제도의 법제화를 시도했다. 외형적으로 군무부를 두어 군사행정을 관장하게 하고 제도적으로 육군과 해군의 편성을 구상하였다. 임시현장에서 교육과 납세·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 의무로써 병역을 적시함으로써 국민개병제에 의한 군대 건설을 분명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대한제국에서도 검토한 바 있었지만 국민개병제는 근대의 국민국가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규 국군의 편성과 운영의 원칙이었다. 임시정

부가 ‘독립전쟁론’을 독립방략으로 채택하고 독립운동의 최후의 수단이 ‘독립전쟁’이라고 천명하면서 정규적인 군사력 건설이 초미의 과제가 되었다.

임시정부 초기에 군사 경력자를 소집하여 10만 명 넘는 의용병을 조직하고 비밀 군사조직을 통할하며, 사관학교와 비행학교를 설립하거나 무기 제조와 외국의 군수물자를 교섭하는 것 등을 임시정부가 군사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던 것에서도 정부의 정규적인 군사조직이 절실히 요청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1920년 비행대대의 편성이나 미주지역에서 비행사 양성소와 간호사양성소 설립은 그러한 임시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았다. 게다가 독립군 부대를 직할부대로 편성하거나 만주지역의 독립군 조직을 내세워 독립전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도 그러한 까닭이었다.

이렇듯 임시정부는 무장투쟁을 포괄하는 독립전쟁방략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군사적 수단의 제한으로 ‘독립전쟁론’과 ‘외교론’을 병행하며 현실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외교에 치중한 독립운동을 전개해나갔다. 일시적으로나마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방략에 대한 논의는 무장투쟁 수단을 놓고 정부의 분열로 연결되었고, 결국 작탄대를 편성하거나 의열단과 같은 단체가 수행한 의열투쟁을 독립전쟁의 한 방법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1930년대에 와서 일본이 만주사변에 이어서 본격적인 대륙침략을 감행하자 임시정부는 김구의 주도 하에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특무활동과 의열투쟁을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한편, 전시외교로 전환하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와 협조 하에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군사활동과 연합작전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군사력 건설은 당시 국가건설 과정의 정당운동과 함께 추진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념의 영향을 크

게 받았다. 정당에 따라 무장투쟁노선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국공합작이나 국공분리의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항일무장투쟁의 좌·우 분리현상은 당시 국제적인 정세의 직접적인 영향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임시정부는 다시 한번 독립에 필요한 정규적인 군사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기왕의 군대건설 추진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광복군의 창설이 그것이다. 1940년 9월 17일 창설된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군사력 건설의 결정판으로서 종래 당군(혁명군)의 형태로 독립전쟁을 전개하던 단계를 넘어 건국군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광복군의 창설은 임시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좌우 이념적 대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 통합적인 근대 국가건설의 기간으로서의 군대건설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광복군은 교육과 훈련에 의한 양성·충원·운영의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성을 구비하면서 국제적 조건 하에서 연합작전을 추진함으로써 독립전쟁을 국제적 연대와 협력 속에서 한국인의 자주적 독립을 위한 투쟁적 성과를 담보했다.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미 전략첩보국(OSS)나 영국군과 연합적인 활동을 전개한 것은 독립전쟁을 통해서 한국군에게 새로운 현대군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현대전 수행에 관한 귀중한 경험적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추진한 국군의 건설 노력은 광복군의 창설로 결실을 맺었고, 광복 이후 그러한 정신과 경험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건군운동에 투영되었다. 그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과 교훈이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하는 데 이념과 국방 건설의 기초적 토대가 되었음은 자명하다.

초대 국방부 장관 이범석은 국군의 성격을 국방군(國防軍)으로 규

정하는 한편, 장병의 정신자세 및 군기와 실천 정신을 강조하면서 정병양성을 위한 사병제일주의를 천명하였다. 또한 김홍일은 군의 이념과 정신무장 분야에서 한국군의 근대적인 군사관념의 형성에 기여했다. 그는 현대전쟁의 양상에 맞는 ‘총력국방’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전략적으로 ‘연합국방’을 국방력 건설의 방향으로 역설하였다. 국방건설의 시작을 경제건설로 본 그는, 국방군 건설을 위해서는 병력과 편성 및 장비, 그리고 간부의 양성문제를 중시하고, 군사인력의 양성체계를 예비사관학교와 사관학교 및 각군 대학과 국방대학원의 형태로 구획하였다. 그가 국방경제 건설이, 산업의 공업화와 군사화하면서 국가경제의 중공업, 군수공업, 교통의 건설 등에 대한 계획적 추진을 강조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문제를 유기적인 연계구조로 파악한 점은 현대 국방건설에 있어서 매우 시사적이다.

군제의 제도화 과정에서는 초대 국방참모총장을 역임한 채병덕의 역할이 컸다. 그는 한국군의 건군 이념 방향을 모든 침략전쟁의 부인과 국토와 민족의 보위에 두고, 군대의 성격을 명백하게 국방군으로 규정하였다. 채 총장은 군제를, 헌법체제를 통한 군령의 확립과 통수권 행사에 관한 헌법상 조직으로서 내각제와 대통령제 하의 통수권 수립, 나아가 그 기초와 원칙이 “민족의 군대요 국가의 군대”라는 점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한민국 국군이 어떤 한 개인이나 장령의 군대가 아닌 ‘헌법에 의해 창설된 진정한 민주주의 국군’이라고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의 시행을 통하여 현대적인 의미에서 징병제에 의한 국민개병제를 실현하였다.

요컨대, 근대 한국의 군사적 전개는 조선왕조의 몰락으로 일제의 식민통치 하에서 국가의 독립을 쟁취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하

는 과정과 합치되었다. 3·1운동을 전후로 복벽주의를 지향한 의병전쟁은 공화제를 정치체로 하는 독립전쟁으로 발전했고, 임시정부의 출범으로 정당정치의 기반이 마련되면서 국가의 정규적인 군사조직에 대한 전망도 분명해졌다.

의병이나 독립군에 의해 수행된 대부분의 작전은 제한된 군사력에 의한 유격전이었다. 유격전의 방식은 전통적인 민보방위전략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근거지전략을 마련한 결과였고, 그 군사적 운영도 전통과 신식 군제가 혼재된 양상이 상당기간 지속된 과도적인 형태를 띠었다. 독립군 부대가 수행한 독립전쟁에서는 근대적인 유격전과 정규군의 배합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비밀결사나 의열투쟁 같은 전민적 투쟁역량의 결집도 나타났다.

근대 군대의 건설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이자 근대국가 형성의 일부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근대 국방조직을 건설하고, 그 운용을 위한 재정·교육훈련·국민개병주의에 의한 징병제의 실현을 제도화했다. 그 과정에서 근대 국가의 ‘국민군대’ 건설은 국가의 경제 건설과 병행되어야 하며, 전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킨 ‘국민의 군대’로서 근(현)대적인 총력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근간이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1. 원전 자료

① 한문류

『고종시대사』

『고종실록』

『광복』

『구한국관보』

『금당초고』

『기려수필』

『다산시문집』

『단재신채호전집』 상·하(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1948)

『대한매일신문』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국가보훈처, 1999)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호외』(1919. 9. 11)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국회도서관, 1974)

『독립신문』

『동사강목』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만기요람』

『매천야록』

『무비요람』

『민보의』

『박은식전서』 상·중·하(단국대출판부, 1975)

『백범김구전집』 6(대한매일신보사, 1999)

『백범일지』

『병기학교정』

『병학지남연의』

『선조실록』

『성호사설』

『숙종실록』

『순암집』

『승정원일기』

『신대장군집』

『안중근전기전집』(윤병석 편역, 국가보훈처, 1999)

『여유당전서』

『연려실기술』

『영조실록』

『완당선생전집』

『운강유고』

『운강창의록』

『을미의병일지』(국가보훈처, 2003)

『의암집』 권24~25, 36~37.

『일성록』

『자초신방』

『전술학교정』

『조선책략』

『증보문헌비고』

『청장관전서』

『풍천유향』

『하거집』

『한국독립운동문류』(건국대출판부, 1976)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 국사편찬위원회, 1968.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6, 국사편찬위원회, 1977.

『한국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3.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조소앙 편 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홍범도 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한국독립운동지혈사』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국회도서관, 1970)

『한말의병사료집』(담양향토문화연구회, 1997)



『한성순보』
 『해국도지』
 『해영계록』
 『환재집』
 『훈국신조군기도설』
 『훈국신조기계도설』
 「속오작대도」
 「우덕순선생의 회고록」
 「한국광복군 복원선언」
 「한국광복군편력계획대강」
 「홍범도 구술 자전」

② 영문·중문·일문류

『南大門附近韓國叛兵鎮定詳報及第十三師團戰鬪詳報』(陸軍省受領 : 密受 제286호, 1907. 8. 7)
 『高等警察要史』(1934)
 『OSS 재미한인자료』(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30), 미주 편⑧), 국가보훈처, 2005.

國會圖書館, 『韓國獨立運動史料』 중국 편, 1976.

金正明 編, 『朝鮮義勇軍歷史-日韓外交資料集成 別冊 1』, 巖南堂書店, 1967.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Ⅲ, 東京, 原書房, 1967.

徳富猪一郎, 『公爵山縣有朋傳』下卷, 東京, 民友社, 1933.

市川正明 編, 『日韓外交史料』4(日清戰爭) 162, 巖南堂書店, 1966.

③ 기 타

러시아대장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 『韓國誌』, 1984.

2. 2차 자료

① 국문 단행본

강성문, 『한민족의 군사적 전통』, 봉명, 2000.

- 고정훈, 『비록 군』, 동방서원, 1967.
- 구완회, 『한말의 제천의병』, 집문당, 199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의병항쟁사』, 198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독립군항쟁사』, 1985.
- 권대웅,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5),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8.
- 김광재, 『한국광복군』(『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2),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 김덕수 편, 『임진왜란과 불교의승군』, 경서원, 1992.
- 김도형,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친일파 처단과 의열투쟁』,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 김동주, 『장서각도서한국본해제집 - 군사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김명호,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역사비평사, 2006.
-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0.
- 김원모, 『근대한미교섭사』, 홍성사, 1980.
- 김재승, 『근대 한영해양교류사』, 인제대학교 출판부, 1997.
- 김창수, 『한인애국단의 성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 님 웨일즈, 조우화 역, 『아리랑』, 동녘, 1993.
-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도산안창호전집』 6, 2000.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임시정부사』(『독립운동사』 4, 1983)
-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나남출판, 1996.
- 박성수, 『독립운동사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80.
- _____, 『한국독립운동사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상해, 유신사, 1920.
- 박 환, 『만주별 호랑이 김좌진 장군』, 선인, 2011.
-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 배향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백기인, 『중국군사사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6.
- _____, 『중국군사제도사』, 국방군사연구소, 1998.

- _____, 『건군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_____,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해안, 2004.
-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1993(경부, 자부).
- 서인한, 『병인 · 신미양요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6.
- _____, 『한민족전쟁통사』 4, 국방군사연구소, 1997.
- _____,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도서출판 해안, 2000.
-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 연구』, 해안, 1999.
- 송병기, 『근대한중관계사연구』, 단국대출판부, 1985.
- 신광식, 『대한국군발달사』, 동원문화사, 1959.
- 신용하, 『한민족독립운동사』 4(독립전쟁), 군사편찬위원회, 1988.
- _____, 『의병과 독립군이 무장독립운동』, 지식산업사, 2003.
- 신용하 · 이광린 편저,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 근대 편』, 일지사, 1989.
- 신재홍, 『항일독립운동연구』, 신서원, 1999.
- 심현용,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_____,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역사학회 편, 『한국사자료선집 - 최근세 편』(1975. 1)
- 연갑수, 『대원군 집권기 부국강병책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오영섭, 『한말 순국 · 의열투쟁』(『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4),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 육군본부,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후기 편』, 1977
- 육군사관학교 사학과, 『참고자료 : 한국군사사상사』, 육인창, 1972.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학예지』 제5집, 1997.
- 이광린, 『한국사강좌』(근대), 일조각, 1981.
- _____, 『한국개화사연구』, 일조각, 1995.
- 이기동, 『비극의 군인들』, 일조각, 1982.
- 이민원, 『한국의 황제』, 대원사, 2002.
- 이범석, 『우등불』, 사상사, 1971.
- 이병주, 『한국의 군인정신』, 삼화출판사, 1978.
- 이성무 외,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 이정규 · 이관직, 『우당 이회영약전』, 을유문화사, 1985.
-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 이현희, 『정한론의 배경과 영향』, 대왕사, 1986.
- 임재찬, 『구한말 육군무관학교연구』, 제일문화사, 1992.
- 장세윤,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1),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 장학근, 『한국 해양활동사』, 해군사관학교, 1995.
- 정용대, 『대한민국임시정부외교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정해은, 『조선후기 국토방위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조동걸, 『한말의 의병전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조범래, 『의열투쟁 - 한인애국당』 II(『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7),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 채병덕, 『국군의 진로와 국민개병의 의의』, 정민문화사, 1949.
- 채영국,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0),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 최병옥,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경인문화사, 2000.
-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 지성사, 1994.
- , 『대한민국임시정부 - 장정시기』 II(『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4),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8.
-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 중정시기』 III(『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5),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 , 『한국 광복군 연구』, 일조각, 1993.
- 황민호 · 홍선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2),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8.
- J. K. Fairbank et al., 고병익 외 역, 『동양문화사』 하, 을유문화사, 1985(12판).
- Peter Duus, 김용덕 역, 『일본근대사(The Rise of Modern Japan』, 지식산업사, 1985(3판).

② 국문 논문류

- 강재언, 「의병전쟁의 발전」, 『한국사』 43, 국사편찬위원회, 1999.
- 권정의, 「신현의 군제개혁론」, 전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김갑천 역, 「박영효의 건백서」, 『한국정치연구』 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0.
- 김광재, 「한국광복군의 한미공동작전과 의의」, 『군사』 제52호(2004. 8)
-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략」,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1999.
- 김병기, 「한국광복군의 조직과 활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 김병륜, 「한국의 병서」, 『국방일보』(2010~2011년 기획연재물)
- 김삼웅,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와 항일 무장독립운동』(신흥무관학교 100주년기념 학술회의, 2011. 5. 13)
- 김상기, 「의병전쟁에 대한 연구성과와 과제」, 『한국사론』 25, 국사편찬위원회, 1995.
- , 「갑오정장과 전기의병투쟁」, 『한국근대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97.
- , 『한말 전기의병』(『한국독립운동의 역사』 9),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 김성수·김영일, 「한국 군사류 전적의 발전계보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9, 1993.
- 김성찬, 「정미의병기 원주의병의 연합노선과 서울진공작전」, 『원주 정미의병 연구』, 2008.
- 김세은, 「개항이후 군사제도의 개편과정」, 『군사』 22, 1991.
- 김영호, 「근대 한국의 부국강병 개념」, 『세계정치』 25-2,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4.
- 김원모, 「병인일기의 연구」, 『사학지』 17, 1983.
- , 「서면호 사건과 미국 함대의 침입(1866~1871)」, 『동양학』 제28집, 1998.
- 김인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열투쟁 방략과 단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 김창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90.
- 김창순·박성수 편, 『한국독립운동사』, 삼광출판사, 1989.
- 김춘선, 「발로 쓴 청산리 전쟁의 역사적 진실」, 『역사비평』 가을호, 2000.
- 김현철, 「박영효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군사』 34, 1997.
- , 「박영효의 근대국가구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노영구, 「선조대 기효신서의 보급과 진법 논의」, 『군사』 34, 1997.
- , 「조선시대 병서의 분류와 간행 추이」, 『역사와 현실』 30, 1998.
- , 「18세기 말 양원의 전차, 기병, 보병 통합전술」, 『군사』 제64호, 2007.
- 민두기, 「명치유신의 성격」, 『세계대백과사전』 제7권, 학원사, 1975.
- , 「19세기 후반 조선왕조의 대외위기의식」, 『동방학지』 제52집, 1986.
- 박광용, 「탕평책 실시의 배경」,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 박명림, 「내가 겪은 6·25와 대한민국 - 군과 함께 60년」, 백선엽, 『중앙일보』 2011. 1. 19. (10면)
- 박민영, 「구한말 서북변경지역의 의병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5.
- ,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한국사』 48, 국사편찬위원회, 2001.
- 박성래, 「대원군 시대의 과학기술」, 『한국과학사학회지』 2-1, 1980.
- 박성수, 「1907~1910년간의 의병전쟁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 1968.
- , 「의병과 독립군 - 조직, 편성의 연속성」, 『한국학의 세계화』 (제6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제6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 「의병과 독립군」, 『한국독립운동사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 「독립전쟁의 원류 - 박은식의 의병관」, 『한국독립운동사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 「이강년의 의병활동」, 『한국사』 43, 국사편찬위원회, 1999.
- , 「한국광복군의 창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 박성수·손승철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의병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박 환,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단체」,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 박 훈, 「吉田松陰의 대외관 - '적체'와 팽창의 이중구조」, 『동북아역사논총』 30, 2010.
- 방상현, 「만주독립군의 경신대첩」, 『백산학보』 30·31합집, 1985.
- 백기인, 「산현군벌의 정치화 과정에 대하여 - 산현 제1차 내각(1889~1891) 성립과 관련하여」, 서울대 동양사학과 논문집, 1988.
- _____, 「안중근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4.
- _____, 「명치초 한국침략에 대한 일본군부의 역할」, 『군사』 제30호, 1995.
- _____, 「안중근의 국권수호운동과 사상」, 『청계사학』 13, 1997.
- _____, 「고대 중국의 군사조직과 진법운용」, 『군사』 36, 1998.
- _____, 「18세기 북벌론과 대청방어전략」, 『군사』 제41호, 2000.
- _____, 「건국 직후(1948~1950) 국방정책의 형성과 그 성격」, 『군사』 제46호, 2002.
- _____, 「동아3국 근대전법형성의 군사사상적 배경」, 『군사』 제48호, 2003.
- _____, 「조선후기 국왕의 열무 시행과 그 성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 2006.
- _____, 「안중근 의병의 전략전술적 성격」, 『군사』 제70호, 2009.
- _____, 「임시정부가 꿈꾼 국방·외교」, 『독립정신』 46,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09.
- 서인한, 「병인양요의 작전일지」, 『병인일기』, 『전쟁과 유물』 제3호, 2011.
- 손형부, 「19세기 초·중엽의 해방론과 박규수」, 『전북사학』 7, 1993.
- 신용하, 「한국광복군의 창군과 그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 한국광복군 창군 59주년기념 학술회의』, 1999. 9. 21.
- 신재홍, 「독립군」, 『현대사 속의 국군』, 전쟁기념사업회, 1990.
- 신주백, 「한국현대사에서 청산리 전투에 관한 기억의 유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7집, 2011.
- _____, 「만주사변 이후 만주 한인 항일운동세력의 동향과 변천」(만주사변 80주년기념 학술대회,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9. 17)
- 연갑수, 「대원군 집권기 대외정책」, 『서울문화』 9집, 2005.

- 오영섭, 「한말 13도 창의대장 이인영의 의병활동」,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 원재연, 「조선후기 서양에 관한 저술의 조사 연구」, 『국사관논총』 81, 1998.
- 유한철, 「중기의병사(1904~1907)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 1,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4.
- , 「유한철 의병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윤대식, 「의암 유인석의 척사와 실천」, 『동양정치사상사』 제1권2호, 2002.
- 윤병석, 「1910년대 한국독립운동 시론」, 『사학연구』 27, 한국사학회, 1977.
- 이겸주, 「임진왜란과 군사제도의 개편」,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 편), 육군본부, 1977.
- 이민웅, 「18세기 강화도 수비체제의 강화」, 『한국사론』 34, 서울대, 1995.
- 이민원, 「대한제국의 성립」, 『대한제국』(한국사 42), 국사편찬위원회, 1999.
- 이병주, 「이홍장의 대한정책」, 『육사논문집』 제2집, 서울, 육군사관학교, 1965.
- 이상식, 「의병전쟁연구」, 『국사관논총』 제23집, 1991.
-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정책」,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 이원영, 「개화사상의 구조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 이태진, 「한국사의 발전과 군사사」, 『이 땅을 지켜온 역사』(군사제도사 및 강역에 관한 연구 사업 기념 학술토론회, 2011. 11. 3)
- 이현주, 「병인양요 직전 강위의 어양책」, 『한국사연구』 124, 2004.
- , 「강위의 개국론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 「문호개방 직전의 해안방위론과 국방개혁론」, 『이 땅을 지켜온 역사』, 2011.
- 이현수, 「북한산성 축조와 경리청의 설치」, 『육사논문집』 31, 1986.
- , 「18세기 북한산성의 축조와 경리청」, 『청계사학』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이흥두, 「호란 이후 조선군의 전술변화」, 『군사사연구총서』 제2집, 2002.
- 임재찬, 「구한말 군사교범 - 화기학을 중심으로」, 『3사교 논문집』 제26집, 1988.
- , 「구한말 육군무관학교의 군사교범 - 학술학을 중심으로」, 『3사교 논문집』 제28집, 1989.

- _____, 『육군무관학교 연구』, 제일문화사, 1992.
- 장영숙, 「고종의 대외인식전환 연구(1863~1881)」, 『상명사학』 6, 1997.
- 장필기, 「정조대 화성건설과 수도방위체제의 개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 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 장학근, 「왜군 격토의 전략전술」, 『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1995.
- _____, 「조선의 근대해군 창설 노력」, 『해양제국의 침략과 근대 조선의 해양정책』,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
- 전문진, 「한말 이강년 의병부대의 조직과 활동」, 『부산사학』 제19집, 1995.
- 정경현, 「19세기의 새로운 국토방위론」, 『한국사론』 4, 서울대, 1978.
- 정구복, 「갑오개혁 이후의 신군제」,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후기 편』, 육군 본부, 1977.
- 정달웅, 「한말 의병장 이인영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 정제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비행사 양성과 공군창설 계획」,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 조동걸, 「1910년대 국외에서의 한국독립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 _____, 「의병전쟁의 특징과 의의」, 『한국사』 43, 국사편찬위원회, 1999.
-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이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1999.
- _____,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 한국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 조명철, 「러일전쟁과 국제질서」,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7.
- 조재곤, 「대한제국기 군사정책과 군사기구의 운영」, 『역사와 현실』 19, 1996.
- 조필균, 「청산리 전역의 군사사학적 재조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8집, 2011.
- 조혁상, 「19세기 병서 『손자수』 연구」, 『군사사연구총서』 5, 2008.
- 차선훈, 「1884년 정령의 군제 개혁구상과 성격」, 『역사와 현실』 제30호, 1998.
- 최보영, 「고종의 「수이제이」 적 일본인식과 무비자강책(1876~1881)」,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7집, 2011.
- 최석완, 「일본의 동아시아 질서 재구축과 청일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7.

- 최희재, 「1874~5년 해방육방논의의 성격」, 『동양사학연구』 제22집, 1985.
- 한상도, 「한국광복군의 창군과 역할」, 『한국광복군의 민족사적 재조명』 (한국광복군 창군 제64주년 기념식 및 대학술회의, 2004. 9. 17)
- 한시준, 「한국광복군의 활동과 역할」, 『한국광복군의 창군과 역할』(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 한국광복군 창군 59주년기념 학술회의, 1999. 9. 21)
- , 「한국광복군 창설」, 『대한민국임시정부 - 중경시기』 III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5),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 한철호, 「『매천야록』에 나타난 황현의 역사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5집, 2010(겨울호).
- 허선도, 「병장도설 해제」,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 홍영기, 「의병전쟁」, 『한국근대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97.
- 황하현, 「구한말(1894~1904년의 재정정리와 세입세출예산」, 『재정론집』 창간호(한국재정학회, 1987)

③ 영문·중문·일문류

- 姜在彦, 「朝鮮獨立運動의 根據地問題」, 『朝鮮民族運動史』 No.1, 1984.
- 金春善 外, 『崔振東將軍』,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06.
- 范中義, 「戚繼光軍事學說及其歷史地位」, 『兵家史苑』第2집, 1990.
- 王家倫, 「清季의 海防論」, 『歷史學報』12期, 臺北, 國立臺灣師範大學, 1967.
- 佐藤昌一郎, 「國家資本」, 大石嘉一郎 編, 『日本産業革命の研究』, 東京大學出版部, 1983(第3刷).
- 蔡世華, 「魏源的“夷務”思想」, 『歷史教育』(1995年 第2期)
- 和田 清, 「清祖發祥の地域について」, 『東亞史研究』(滿州篇), 東京, 東洋文庫, 1955.
- Immanuel C. Y. Hsü, “The Great Policy debate in China, 1874 : Maritime Defense vs. Frontier Defens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25(1964~1965).
- Roger F. Hackett, *Yamagata Aritomo in the Rise of Modern Japan, 1838~1922*, Harvard U. P., 1971.
- Y. D. Eleanor Westney, “The Military”, M. B. Janson & Gilbert Rozman, eds., *Japan in Transition ; from Tokugawa to Meiji*, Princeton U. P., 1986.

〈색 인〉

(1)		(陸)	
13도 의군	149	陸軍武官學校校則	131
(2)		(李)	
28식 소총	223	李丁奎	213
		李觀植	213
(3)		(上)	
30년식 소총	223	上海新聞報	248
(F)		(佐)	
F. A. Mckenzie	52	佐藤昌一郎	31
(I)		(國)	
Immanuel C. Y. Hsü	66	國會圖書館	281
(R)		國防概論	301
Roger F. Hackett	30	(增)	
(Y)		增補文獻備考	61
Y. D. Eleanor Westney	24	(大)	
(金)		大石嘉一郎	31
金正明	116	(宋)	
(柳)		宋相燾	179
柳在城	202		

(市)

市川正明 120

(德)

德富猪一郎 30

(毅)

毅菴集 160

(獨)

獨立新聞 251

(王)

王家倫

(申)

申大將軍集

(與)

與猶堂全書 62

(荷)

荷居集 77

(蔡)

蔡根植 228

(阮)

阮堂先生全集 67

(雲)

雲崗遺稿 192

(青)

青莊館全書 61

(韓)

韓國 光復軍 復員宣言 285

韓國光復軍總司令部成立報告書 290

(風)

風泉遺響 61

(騎)

騎驢隨筆 179

(ㄱ)

가리미아전사 314

가평 191

가흥 284

간도 147

간도군구 269

간호원양성소 272

감사대 267

감산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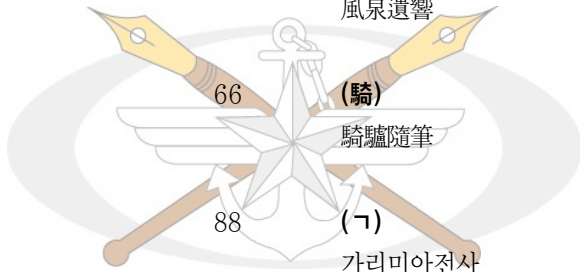
감신일록 96

감신정변 58, 79, 311

감오개혁 57

감오경장 96

감오변란 105, 143, 147, 316



강도	60	경복궁 쿠데타	143
강릉	188	경비감축	18
강방	69	경술국치	318
강상모	246	경신참변	203
강성문	11	경운궁	106
강승정	236	경학사	200, 213
강위	68	계용보	226
강재언	162, 173	고니시 유키나가	12
강필립	236	고대의 전쟁	24
강화도조약	50, 84	고동하곡	249
강화린	236	고등경찰요사	182
강화유수	38	고려령	246
강화중군	49	고병서해제	125
개병주의	88	고병익	27
개조파	270	고시복	293
개항	28	고운기	293
개화론	148	고정휴	298
개화파	46	고종시대사	39, 114
거문도	183	고종실록	39, 41
거함청야전술	67	곡성	181
건군사	124	공격력	14
건군운동	299	공주	181
건군의 기본이념	304	곽종석	152
건양개혁	105	관동의진	172
격물입문	79	관동창의진	172
결사감전	154	관방	78
결일	51	관병식절차	125
경략	12	관일약	164, 317
경리청	48, 101	광무개혁	58, 105
경복궁	46	광복군	154, 263, 268, 284, 326

광복군성립보고서	290	국민개병제	87, 119, 259, 268, 305
광복군창설위원회	288	국민개병주의	29, 89, 124
광복군총사령부	288	국민국가	28
광복군총영	202	국민대표회의	270, 280
광복단	202, 217	국민부	204
광산의진	148	국민회	217
광성보	41, 78	국민회군	244
광주유수	100	국방군	312
교도중대	101	국방군사연구소	223
교통수사	49	국방대학원	327
교련병대	53, 56, 100	국방부훈령	299
교선	73	국방일보	272
교성대	237	국방참모총장	124
교육부 교육총감	130	국수	155
교통학	132	국수론	154
구분신참	58	국수보복	144
구선	80	국정개혁에 관한 건백서	97
구완희	172	국제연맹릿튼조사단	283
구진강	71	국훈	154
구포기계어장방법	124, 314	군국기무	39
구포환	125	군국주의	29
국가건설	284	군기	41
국가보훈처	264	군기고	38
국가체제	28	군대건설	28
국군의 사명	304	군대내무서	125, 227
국권수호운동	316	군대의 건설	309
국권회복운동	147, 209	군대해산	149
국내진입작전	202	군량도감	243
국립중앙박물관	11	군력양성론	212
국무총리	260	군례	169

군무6조	86	군제개혁안	312
군무도독부	202, 244	군제학	131
군무부	265	군제학교정	125, 314
군무부독부	217	군중기찰	243
군무아문	100, 101	군징계령	102
군무총장	259	군총취급방법	237
군부	108	군함	89
군부관제	107	궁시	11
군부협판	111	권대궁	64
군비강화	42	권대웅	182, 210
군비증강	39	권상하	40
군비확장 8개년계획	31	권정의	87
군사	21	권중희	173
군사 훈련법	65	규령법	237
군사개혁	46, 54, 311	균등분배	170
군사논단	269	균세론	51
군사론	215	균전제	88
군사병영체제	40	극동공화국정부	204
군사사연구총서	18	근거지전략	147, 159
군사위원회	274	근거지투쟁전략	158
군사정책	39	근대적 국가	28
군사제도	47	근대적 국민개병제	120
군사참의회	260, 265	근대화	33
군사통일주비회	270	근세의 전쟁	24
군사통일회	270	근왕운동	316
군사행정조직	183	금군무예별감	101
군사훈련법	65	금군절목	21
군영제	20	금난장	193
군예	24	금성진	73
군용	24	금위영	15, 42, 43, 48

금채동	188	김낙문	186
급료병	41, 42	김덕근	284
급수문	72	김덕수	143
기독교	205	김도준	207
기동력	13	김도형	281, 283
기동성	14	김동삼	207
기마전술	18	김동수	293
기밀	170	김동우	282
기병	14	김동주	128
기병부대	17	김두봉	240
기병전술	18	김두선	183
기본전술	128	김명원	12
기삼연	145	김명호	69
기연해방영	79	김병기	183, 291
기우만	148, 152	김병화	173
기원독립단	207	김산	233
기울	168	김삼웅	233
기코시	116	김상기	143
기효신서	13, 313	김석주	18
기효신서절요	17	김성근	277
김갑천	97	김성노	226
김경천	225, 226	김성수	125
김관	236	김성찬	172
김광산	293	김세영	174
김광재	288	김세은	120
김구	270	김세일	240
김규식	236	김수민	149
김극일	279	김승빈	226
김기수	51	김승학	207
김기승	265	김영범	276

김영일	125	김학규	293
김영주	240	김해진	173
김영호	66, 93	김현구	282
김옥균	96	김현규	172
김용덕	29	김현복	173
김우철	22	김현철	95
김원교	144	김홍국	236
김원모	43, 70	김홍일	282, 300
김원봉	224, 238, 240	김홍집	51, 101
김윤식	95	김희곤	260, 271
김의한	282	김희선	211
김인담	187	까치성 전투	188
김인호	272		
김자동	293	(L)	
김재승	79	나가사키	63
김정익	207	나간트 권총	223
김정희	66	나월환	293
김좌진	203, 235, 236	나중소	235, 236
김준	240	나태섭	293
김지간	211	난후아병	42
김찬	207	남경	284
김찬성	207	남당학과	150
김창곤	207	남대문 전투	290, 291
김창석	192	남병	12
김창수	276, 298	남부 연해주	221
김창순	151	남북분단	28
김창환	224, 226	남산	213
김춘선	250	남원	181
김춘식	235, 236	남한대토벌작전	190, 316
김태석	279	남한산성	100

남한폭도대토벌작전	146	대동강	71
남해	60	대동공보	200
낭선	12, 13	대륙침략	29
낭선부대	13	대본영	260, 265
내무교범	127	대소철연환색	71
내수적 대응	67	대영국방위연합체	66
넙코작전(Napko Project)	298	대완구	71
냉병기	15	대완구환	71
노량해전	11	대원군	37
노백린	235, 262	대응적 제국주의	29
노복선	293	대조사구	222
노사학파	150	대종교	205
노영구	15, 17	대청방어전략	21
노졸	73	대한	205, 206, 207
노태준	293	대한관동창의대장	174
논상	170	대한광복군정부	201
니코리스크	221	대한광복군총영	216, 269
님 웨일즈	233	대한광복단	202
(ㄷ)		대한국민군	202
		대한국민회	224
		대한군무도독부	206
		대한군정서	222
다이	58	대한독립군	202, 217, 220, 244
다이나마이트	223	대한독립군단	204
다치푸	232	대한독립단	202, 224
단결	168	대한독립군비단	207
단구첩록	18	대한독립선언서	234
단발령	144	대한독립의군부	181, 234, 318
단병진술	12	대한매일신보	173
단양	188	대한민국 육군임시군제	268
달네레첸스크	204		
당파	12, 13		

대한민국건국강령	264	독립신문	245, 266
대한민국의회정부	259	독립외교	215
대한민국임시관제	260, 265	독립운동기지	210
대한민국임시정부	124, 215, 259	독립운동방략	268, 275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정방침	260	독립운동사	157
대한민국임시헌법	215, 265	독립의군부	184
대한북로독군부	244	독립장서	184
대한신민단	202	독립전쟁	147
대한의군부	202	독립전쟁론	199, 324, 325
대한의민단	206	독립전쟁준비방략	271
대한정의군정사	202	독립정신	215
대한제국	32, 56, 58	독립혈전론	215
대한제국광복군정사	185	독립협회	111, 127
대한제국군	235	독수리작전(Eagle Project)	298
대한청년단연합회	207	독일	128
대형총통	11	독일 육군사관학교 전술교정	128
덕수궁	106	독일 전술학교정	128
도감사	243	독일식 폭탄	223
도산안창호전집	259	독일전략학	128
도성	19	돈대	38
도성방위체제	19, 47	돈현유고	183
도성수비체제	19	동국명장전	125, 314
도원수	12	동도서기	32
도창	78	동도서기론	92, 111, 148
도통사	49	동래	59
독립군	149, 154	동령현	222
독립군 기지전설	210	동문회고	37
독립군양성소	238	동진	72
독립군의군부	186	동진방략	72
독립단총재소	220	동진진	73

동진침사	80	만주사변	268
동창학교	200	망국가	151
동해	60	망천하	151
두만강	60, 201	매복작전	245
둔전영	222	매천야록	48
둔전제	95	메이지유신	28, 79, 92, 313
둔전제도	234	멕시코	147
등패	14	명동학교	200
		명성황후	187
(ㄹ)		모병령	123
랑군(Rangoon)	297	모병제	99
러시아 대장성	106	모원의	21
러시아식 권총	223	무라다(村田)식 소총	223
러시아식 소총	223	무라다(村田)총	30
러시아식 엽	223	무라다식 자동권총	223
러시아식 폭탄	223	무비요람	82
러일전쟁	27, 28, 144	무비자강	311
로우	43	무비지	21, 23
		무성서원	181
(ㄴ)		무예도보통지	21
마록구	213	무예신보	21
마반포차	81, 89	무예제보	17
마스카타 내각	31	무위도통사	48
마전 전투	175	무위소다	47
마츠킨텔	236	무위영	53, 106
마학	131	무장투쟁노선	281
마학교정	137	무장투쟁론	209
만국공법	79	문경	187, 188
만기요람	59	문경의진	189
만민공동회	127	문명개화	143

문석봉	144	(ㅁ)	
문태수	175, 176	박규수	47, 49, 69
미얀마	298	박기성	293
미얀마 탈환작전	297	박명림	28
미일수호통상조약	28	박문국	125, 129
민간방위력	91	박민영	165, 202
민국독립단	207	박상섭	32
민군	143	박성래	80
민궁호	149, 173, 175	박성수	143
민단조합	186	박영로	211
민두기	25, 67	박영효	95, 96, 101
민력양성론	212	박영희	226, 235, 236
민병조직	181	박용만	147, 212, 270
민보	86	박은식	143, 150, 151, 204
민보령	90	박장호	207
민보방위	22	박주운	67
민보방위론	23	박훈	29
민보의	23, 63	박환	203
민보집설	90	반병률	250
민사행정조직	183	반일자주론	156
민영기	126	반해량	240
민원식	279	방수장체제	191, 319
민족의식	157	방아	51
민족해방	284	방어력	14
민족혁명당	297	방인관	173, 175, 177
민종식	148	방왜전술	13
민춘원	173	방진	13, 24
밀산부	204	방패	12
밀집대형	13, 31	방패수	13
		배외의식	45

배향섭	43, 45	병인일기	76
백구파	282	병자호란	18, 148
백기인	13, 17, 21, 88	병장도설	21
백낙연	71	병참부	243
백두산	161	병참주재소	241
백병진	12	병학사상	32
백삼규	207	병학연구	18
백운평 전투	252	병학지남	15, 17, 18, 21, 313
백자충	24	병학통	21
백종열	226, 235, 236	보국호민	95, 96
번상	15	보노사국	314
법국혁신전사	314	보병대	218
벽재관 전투	14	보병사격교범	136
변금	59, 314	보병전투연구(속)	228
변창근	207	보병조전	125, 137, 227, 237, 314
변항	183	보성중학교	226
별무감	101	보약	24, 90
별파진	85	보통경제학	231
별포수	73	보통문	12
별포위군	38	복국운동	238
병규칙	317	복국존사	165
병기학	131, 136	복벽주의	181, 316, 318
병기학교정	136	복진지계	159
병농일치	88	봉오동	203
병농일치제	89	봉오동 승첩	203
병략신론	82, 313	봉오동 전투	203, 246, 247, 321
병마절도사	81	봉화	188
병역법	305	부국강병	46, 54, 80, 92, 143
병인양요	25, 43, 68	부국강병론	97
병인의용대	267, 273	부국안민	94

부도보민	165	사영창국	65
부레대명률	128	사의조선책략	51
부병제	88	산개대형	31
부평	48	산업화	26
북간도	200	산포병	135
북간도군구	269	산학습유	81
북계	158	삼군부	39
북로군정서 203, 216, 217, 224, 324		삼대의 병	88
북벌론	21, 148	삼둔자	247
북청	241	삼선방어망	61
북학론	148	삼원보	200
북한산성	48	삼원포	207, 213
불랑기	13	삼정책	75
브라우닝 권총	223	삼차구	222
블라디보스토크	164, 244	상무	41
비변사	37	상문	41
비어고	62	상별	170
비왜론	62	상비군	42
비율빈전사	314	상승진	21
(나)		상원	144
사격교범	136	상주	144
사격술	136	상해파	204
사관양성소	102	생산력	28
사관연성소	224	서간도	200
사금세	57	서간도군구	269
사령총장	183	서구의 충격	27
사마랑(Samarang)호	66	서로	207
사범교육학	231	서로군정서 202, 207, 216, 224	
사쓰마	63	서상철	144
		서세동점	26, 309

서안	292	소년병학교	147
서양철	71	소련노병회	271
서울진공작전	158, 161	소안도	37
서원철폐	40	소완구	71
서유견문	94	소중화	92, 111
서인한	56, 70, 108	소총제조공장	30
서일	200, 255	속병장도설	21
서전서숙	200	속오군	16
서중석	210	속오군제	15
서태원	15	속오작대법	187, 320
서토강용	159	속오절목	20
서해	60	속오편제	16
석성	73	손두환	282
석정	240	손무영	226
선방포수	42	손자	81
선비정신	153	손자수	81, 313
선우갑	279	손창근	282
선우순	279	송규빈	21
선조실록	13	송병기	51
성리학	148	송병준	279
성명회	201	송시열	40
성산진	73	송응창	12
성수서	90	송주영	183
성준용	226	쇄국정책	44, 56, 310
성첩	38	수구파	46
성패불수론	155	수도방위체제	19
세도정치	22, 39	수뢰포	80, 89
세병제	99	수병술	128
세이난전쟁	29	수분하원	222
소강	38	수성책자	21

수수	65	신송식	293
수신사	47	신숙	270
수어영	100	신악	240
수어청	15	신완	18
수영	61	신용하	97, 219, 242
수이제이	51	신의	168
숙종실록	18, 20	신재홍	205
순무총장	183	신주백	205
순변사	12	신창선	173
순창	181	신채호	211, 270, 277
승무학교	147	신태정	71
스미스식 권총	223	신팔균	226
스파스카야	221	신편화학	231
승정원일기	39, 45	신한민보	286
시민공동체	28	신헌	25, 85, 313
시베리아	269	신흥강습소	200, 214
시베리아 강동군구	269	신흥무관학교	200, 207, 214, 224, 321
시위대	56, 106	신흥학교	207
신광식	102	신흥학우보	228
신규섭	293	실력양성론	209
신규식	267	실학	148
신기비결	17	심리전	299
신돌석	177	심산 전투	175
신미양요	43, 68	심현용	56, 108, 130
신민단	217	쌍포	81
신민부	204	쌍포양류차	81
신민회	199		
신만법률	128	(○)	
신복룡	52	아관파천	56, 108
신사유람단	94	아담 샬	81

아란타	61	야포병	135
아란타설	62	약육강식	93
아리랑	233	양각도	71
아시가루	13	양규열	226
아시아 · 태평양전쟁	28	양무자강운동	79, 92
아편전쟁	26, 64	양민산	240
안경근	282	양병	65
안공근	282	양세봉	204
안규홍	149	양역개량	18
안동	144, 188	양역변통론	22
안동향교	144	양완	21
안무	203	양인개병	88
안병찬	207	양주	174
안산사	241	양현수	69, 75
안산사포계	241	양현경	207
안성해	188	어란의 병	88
안승우	144	어랑촌	249
안정복	23	어랑촌 전투	252
안중근	147, 151	어린작대	20
안창식	144	어영청	15, 42, 48
안창호	208, 211, 262, 284	어윤중	94
안춘생	293	어용방략	75, 76
안태준	183	어이방략	67
안평사	241	어재연	41
압록강	60, 201	엄항섭	282
야마가타 아리토모	29	엔빌 소총	30
야마가타 아리토모 군비의견서	29	여동지사우서	160
야스가와	245	여민동락	96
야외요무령	227, 237	여운형	270
약역개량	18	여제진별지	160

여주의진	172	영조실록	20
여준	229	영종진	50
연갑수	59, 90	영주	188, 240
연강수세	48	영중추부사	51
연광정	75	예천	188
연기신편	18	오광선	226
연기우	149	오광심	293
연무공원	58	오군영	16
연미	51	오군영제	15, 18, 87, 88
연병실기	17	오군영체제	15
연병지남	18	오균	240
연주	164	오도리 케이스케	109
연통제	278	오동진	207
연포도설	81	오상세	226, 235, 236
연풍	188	오스트리아	128
연합국방	302	오영섭	172, 276
연합전쟁	302	오영희	293
연해주	147	오위법	18
연해주 지역	158	오위제	11, 88
연희진	48	오위진관체제	16
열하	37	오위진법	11, 18
영고탑	60	오유충	17
영고탑회귀설	20, 60	완루구	249
영동 전투	243	완루구 전투	251
영불연합군	37	완전 독립	267
영선사	53	왕권강화	39
영월	188	왕청현	222
영의정	45	왕현지	240
영장	20	왜병대	54
영조	20	외교론	215, 266, 325

외교적 지도	53	위생학교정	137
외국어학	131	위수령	102
외등단제	49	위원	64
외압	28	위장필람	21
요시다 쇼인	29	위정척사	154
용강현	70	위정척사론	56
용병제	88	위정척사사상	310
용연진	73	위정척사학과	158
용정춘	200	윌로우스 데일리 저널	271
용호영	48	(Willows Daily Journal)	
우등불	250	유길준	94
우릉골	243	유동열	211
우수리	221	유득공	62
우주문답	156	유람	148
운남강무학교	236	유방	15
운남육군강무학교	226	유상근	282, 283
운양호 사건	39, 46, 53	유생	148
운용론	166	유성룡	15
울릉도	60	유수제	40
웅진	38	유원지의	59, 310
원남전	48	유인석	147, 148, 160
원병상	226	유인식	186
원병상 수기	225	유일선	279
원수부	114, 183	유정구역	221
원수부 규칙	106, 114	유한철	160
원양진	14, 21	유해준	293
원재연	37	육군감독규칙	128
원주	188	육군감독세칙	128
원진	24	육군공창	30
위생학	131	육군내무서	237

육군무관진급령	122	윤섭	67
육군무관학교	126, 130, 226, 268, 314	윤세복	200
육군무관학교교칙	137	윤창현	236
육군법률	125, 127, 314	윤치성	235
육군법원소송규정	128	윤희	18
육군법원처무규칙	128	을미개혁	105
육군본부	19	을미사변	144, 147, 189
육군사관학교 전술학교	128	을미의병	188
육군연성학교	130	을사늑약	145
육군예식	137	을지문덕	125, 314
육군위생학교정	125	응병	14
육군유년학교	130	의경대	273
육군징별령	237	의군단	217
육군참모조례	122	의민단	202
육군참모총장	124	의병	143
육군치죄규정	128	의병규칙	165, 317
육군치죄법규정	128	의병운동	143
육군치죄세칙	128	의병재건운동	185
육군헌병조례	122	의병전쟁	143, 145, 319
육군형법	128, 237	의병정신	154
육방	11, 45, 310	의병항쟁사	319
육진	24	의생단	273
육화진법	18	의성단	202
윤경	23, 90	의열단	281
윤기섭	224, 226	의열투쟁	215, 263, 281
윤대식	165	의용단	267
윤돈구	183	의정부	39
윤리학교과서	231	의주	59
윤병석	210, 249	이강	211
윤봉길	273	이강년	149, 160, 172, 175, 176, 186

이건우	293	이범석	226, 235, 236, 250
이겸주	12	이범윤	147, 164, 165, 201, 202
이경순	80	이병주	25, 51
이관식	212	이봉창	273, 283
이관직	224	이상룡	186, 207
이광린	39, 79, 97	이상설	165, 201, 212
이광수	211	이상식	181
이교	73	이상지	240
이교성	236	이석	207
이구채	172, 173	이석용	149
이귀성	173	이석화	293
이규봉	224	이설	152
이기동	118, 121	이세창	192
이남규	156	이수위공	72
이남기	165	이승만	212
이노우에 카오루	120	이시영	179, 200
이당치국	282	이시재	186
이덕무	62	이식	182
이덕주	282	이양선	22
이도재	181	이언	79
이동녕	212	이여송	12
이동백	207	이연복	269
이동하	186	이완용	279
이동휘	211, 212	이원영	92
이르쿠츠크파	204	이유	18
이만	204	이유원	45, 47, 49
이명상	182	이은영	183, 186
이문대무	185	이은찬	172, 173
이민웅	38	이이제이	64
이민원	109	이익선	30

이익선에서 주권선으로	29	이현수	48
이인기	38	이현익	70
이인순	182, 183	이호윤	187
이인영	149, 171, 173, 186	이흥두	18
이인좌의 난	20	이흥장	51
이일	12	이화일	246
이장녕	224, 226, 235, 236	이회영	200, 212
이정	18	인도	298
이정규	155	인도파견공작대	297
이종건	112	인삼세	57
이종만	211	인천	48
이종면	183	일두양익일미진	14
이종원	80	일본군 동지대	248
이종호	211	일본육군조선	124, 314
이준식	293	일본제국헌법	29
이중묵	183	일성록	39
이지서의 변란	20	일제정신투서작전	185
이천민	226	일족수구론	156
이천을	236	임병대	183
이청천	204, 225	임병찬	181, 183
이충무공실기	125, 314	임시 한국파견대	146
이탁	207	임시군사주비단체	265
이태걸	207	임시연통제	264
이태진	19	임시의정원	266, 274
이토 히로부미	29, 151	임시정부의 육군무관학교	261
이필희	155	임시정부포고문	285
이하유	293	임시파견대	116
이항로	158, 188	임오군란	52, 311
이해평	293	임응철	183
이현주	62, 64	임재찬	127, 130

임진왜란	11	장필기	19
임팔(Impal)	297	장학근	11, 61
임하소식	81	장현근	284
임한주	152	전덕원	207
입헌적 절대주의체제	29	전라도순무총장	182
(ㅈ)		전략첩보국	298
자기총	148	전략첩보국(OSS)	326
자보자위체제	86	전문진	189
자유시참변	204	전민적 방어전략	91
자초신방	81, 313	전보설	92
작탄대	267, 277	전선	41
잡색	85	전성호	236
잡색근	42	전수내하론	74
잡세	57	전술대형	14
잡철	71	전술대형운동	132
장개석	288	전술론	166
장교분한	102	전술학	131, 314
장도순	224	전술학교정	125, 127, 128, 314
장병기(長兵器)	11	전시참전외교	268
장성	181	전용규	183
장세윤	205	전주	181
장어영	53, 106	전투대형	11
장영숙	57	전투법	132
장위영	312	전포대	135
장유순	212	전함	65
장임부	189	절강병법	13
장지연	111	절강참장	13
장창	12, 13	절대 독립	267
장철	71	절약	170
		정경현	23

정공진	81	제3차 의병	148
정교	111	제국주의	29
정구복	56, 102	제너럴셔먼(General Sherman)호	38
정기원	44	제너럴셔먼호 사건	25, 43, 81
정달웅	174	제병론	87
정묘호란	17	제천	188
정미의병	148	제치의 병	88
정미조약	149	조구하	91
정병	14	조동걸	146, 263
정병주의	99	조맹선	207
정봉준	173, 177	조명철	27
정실록	183	조범래	273, 283
정약용	23, 63	조병준	207
정용대	259	조선보병대	118
정유재란	14	조선의용대	297
정읍	181	조선주차군	146
정의부	204	조선창	65
정재학과	150	조선혁명군	204
정제우	271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237, 238
정족산성 전투	75	조선혁명선언	277
정치국	300	조성환	211, 286
정한론	50, 309	조승훈	12
정해은	12, 18, 87, 90	조약개정운동	29
정환직	148	조우석	82
정훈국	300	조우화	233
제1차 의병	147	조인제	293
제1차 증영전쟁	26, 64	조일수호조규	79
제1차 평양성 전투	12	조재곤	112
제2차 의병	147	조재학	183
제2차 평양성 전투	12	조직론	166

조총	15	중세의 전쟁	24
조필균	254	중일전쟁	268, 274
조혁상	82	중희당	47
조희순	81	즉결전쟁론	266
조희연	101	즉전즉결론	214, 321
졸형	187	증보문헌비고	82
종사부	189	지구전 전략	315
종의록	155	지달수	293
좌중사부	189	지방대	108
주교사당상	80	지방방어체제	22
주권선	30	지복영	293
주석면	111	지용기	149
주세민	297	지운영사건규찬상소문	96
주요한	211	지청천	207
주청검사은동지사	64	지평	144
주포소	43	지형학	131
주화론	75	지형학교정	137
준비론	214	지휘법	132
중광단	200	직산 전투	14
중국 국민당	283	진강	284
중국군관학교	224	진관체제	16
중국군사사상사	13	진동창의대장	176
중국군사위원회	288	진무사	42, 44, 49
중국군사제도사	88	진무영	40, 42, 49
중국식 소총	223	진무중군	49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	273	진법	11, 17, 21
증기의병	145, 147	진보	38
중농병유예별집	81	진위대	106, 108, 176
중등생리학	231	진하검사은사	69
증서견문록	79	징병제	29, 99, 119

징병조례	122	청산리	203, 248
		청산리 대첩	203, 249
(ㄸ)		청산리 전역	249, 254
차선헤	95	청산리 전투	249, 321
참모부	189, 265	청산리독립전쟁	249
참모부약장	183	청석동 수세	48
참모약장	183	청일전쟁	27, 28, 56
참모총장	260	청천	226
참의부	204	청토역복의제소	156
창조파	270	청풍	188
채병덕	124, 304	체조교범	137
채상준	173, 183	초모정자	247
채영국	205	초산진	212
채응언	146, 243	초옥	81
처변삼사	151, 316	초토화작전	146, 158, 190, 316
척계광	13	총리아문	43
척법	13	총병	17
척사운음	39	총사령부성립보고서	285
척화론자	75	총어영	312
척화비	41	총위영	22
천마대	202	총용사	25
천수평	248	총용청	15, 42, 48
천수평 전투	251	총종린	226
천황제	28	총포제조소	30
철도	72	최계립	245
철완	71	최국량	18
철원	144	최병옥	37
청년감사대	277	최보영	52
청도전략회의	321	최상운	236
청도회담	210	최석완	27

최성오	297	쾌대모자	227
최시흥	207	크라스키노	164
최옥영	186	크리미아전사	125
최익현	46, 92, 148, 156, 185		
최인걸	253	(ㄹ)	
최재형	164	타공	65
최준형	236	태인	181
최진동	203, 247	토성	73
최찬	207	토양박도주격	76
최홍식	283	통리기무아문	53
최희재	66	통상불가	70
추가가	213	통어영	101
추풍	221	통위부	299
축성교범	227, 237	통위영	101, 312
축성학	131, 136	특무대(특공대)	282
춘추대의	148	(ㅍ)	
출전일기	76	파란말년전사	314
충격력	13	파리강화회의	276
충주	188	팔진	24
칙극록	81	페리	26, 28
친군영제	56	편합운동	132
친위국	119	평양성	12
친위대	106	평양성 전투	13
친중	51	평천	187
칠도구	227	평화주의적 방략	264
칠성문	12	폐번치현	29
(ㅋ)		포고천하문	152
캘리포니아 윌로우스	262	포도청	48
쾌당모자	227	포량미	76

포수	65	한국독립당	273, 282
포차대	135	한국독립운동지혈사	153
폴란드말년전사	125	한국민족운동사	157
표류선	59	한국전쟁	28
푸트	5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85
프랑스 생시르 병학교	128	한국주차군사령부	312
프랑스혁신전사	125	한국청년전지공작대	292
프러시아국	125	한국청년훈련반	295
프레데릭대왕칠년전사	125	한국특무대독립군	273
프르라니츠야	221	한근원	236
피전의식	315	한미상호방위조약	28
피전책	251	한민학교	200
피터 두우스	29	한민회	200
필리핀전사	125	한상도	239
(ㅎ)		한성순보	92
		한성임시정부	259
		한성정부	259
하거집	75	한시준	264, 285
하진동	240	한원진	152
학술학	314	한인군관학교	273
한교	17	한인애국단	276, 282
한국광복군	285	한인청년당	273
한국광복군선언문	288	한인촌	200
한국광복군총사령부	288	한일의정서	149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	290	한일협약	149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조직조례	291	한중연합전선	290
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	264, 286	한중항일대동맹	273
한국광복군훈련반	295	한철호	54
한국군제사	12, 19, 51	한효순	17
한국노병회	267, 270	함구문	12
한국독립군	204		

함여유신	40	허활	236
함포외교	26	현구	282
함풍제	37	현대전쟁	302
합니하	214, 227	현리보	173
합동작전회의	250	혈전론	266
항일무장투쟁사	203	협련군	42, 85
항주	284	협성구락부	279
해골선	80	호남의병	145, 181
해구	62	호령	170
해국도지	64, 79	호병대	54
해군공창	30	호서의진	148
해군학당	58, 79, 316	호위청	101
해금	59, 314	호조참판	64
해방	37, 45, 310, 314	호좌의진	172
해방령	43, 310	호준포	13, 14, 24
해방론	68	호포도하	222
해방소	62	호포법	18
해상방어	315	호포세	57
해상전	61	홍구공원	283
해서병마절도사	82	홍범14조	120
해영계록	39	홍범도	144, 149, 203
해조신문	200	홍석진	213
행군수지	18	홍선표	204
행형	169	홍식	207
향촌방위론	22	홍영기	146, 186
향촌방위전략	23	홍영식	126
향촌조직	181	홍이포	24, 61
향포수	86	홍종락	226
허선도	21	홍주	144
허위	149, 160, 175	홍충희	235

화공	13	황준현	51
화공작전	71	황찬근	183
화공전술	81	황포군관학교	237, 262
화기	15, 65	황하현	57
화기국	65	황해수사	38
화기학	136, 314	황현	48
화도진	48	황도천	213
화룡현	220	황성	188
화목	168	후기의병	148
화서학과	150	후대의 병	88
화성	19	후레두릭대왕칠년전사	314
화승총	176	후루이치	126
화약제조소	30	훈국신조군기도설	80, 313
화전	12, 125	훈국신조기계도설	80, 313
화포	12, 41, 77	훈련대	102, 106
화포군	41	훈련대장	85
환상협수체계	19	훈련도감	15, 42, 48
황룡성	73	훈련천총	67
황민호	204	훈춘한민회	206
황병길	202	훈춘현	222
황순일	192	흥업단	200
황주	72		

□ 저자 백 기 인

육군사관학교 졸업(문학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문학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졸업(문학 석·박사)

전 육군사관학교 사학과 교수

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 책임연구원

주요 저서 : 『한민족전쟁사총론』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중국군사사상사』 『중국군사제도사』 『건군사』 외 다수

□ 감 수

한시준(단국대 교수, 전 한국 근현대사학회장)

김용달(독립기념관 수석연구위원)

조성환(경기대 교수)

한국근대 군사사상사 연구

2012년 12월 18일 인쇄

2012년 12월 25일 발행

발행처 : 국 방 부 군 사 편 찬 연 구 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1가 8번지)

TEL : 709-3188 FAX : 709-3111

발행인 : 이 양 구

인쇄처 : 국 군 인 쇄 창 (12109700)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군사기밀 유출자 신고 및

안보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337

(홈페이지 www.dsc.mil.kr)

이 책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원고
작성 및 편집한 내용을 인쇄한 것입니다.

勅令

嗚呼余罪大惡盈皇天不佑由是強
隣視蒙遂臣弄權四十年宗社三千
里疆土一朝為犬羊之域惟予一縷
之命猶不足惜惟念宗社生靈茲以
哀痛以宣傳李康率為都體察使勸
送七路以良家才子各立義兵并為
召募官自刻印兵從事矣若有不從
命者觀察守令先斬破出而處分畿
堡一縷殉於社稷重主密下以此
知悉舉行事

光武十年七月日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서울市 龍山區 梨泰院路 29(龍山洞1街 8番地)

